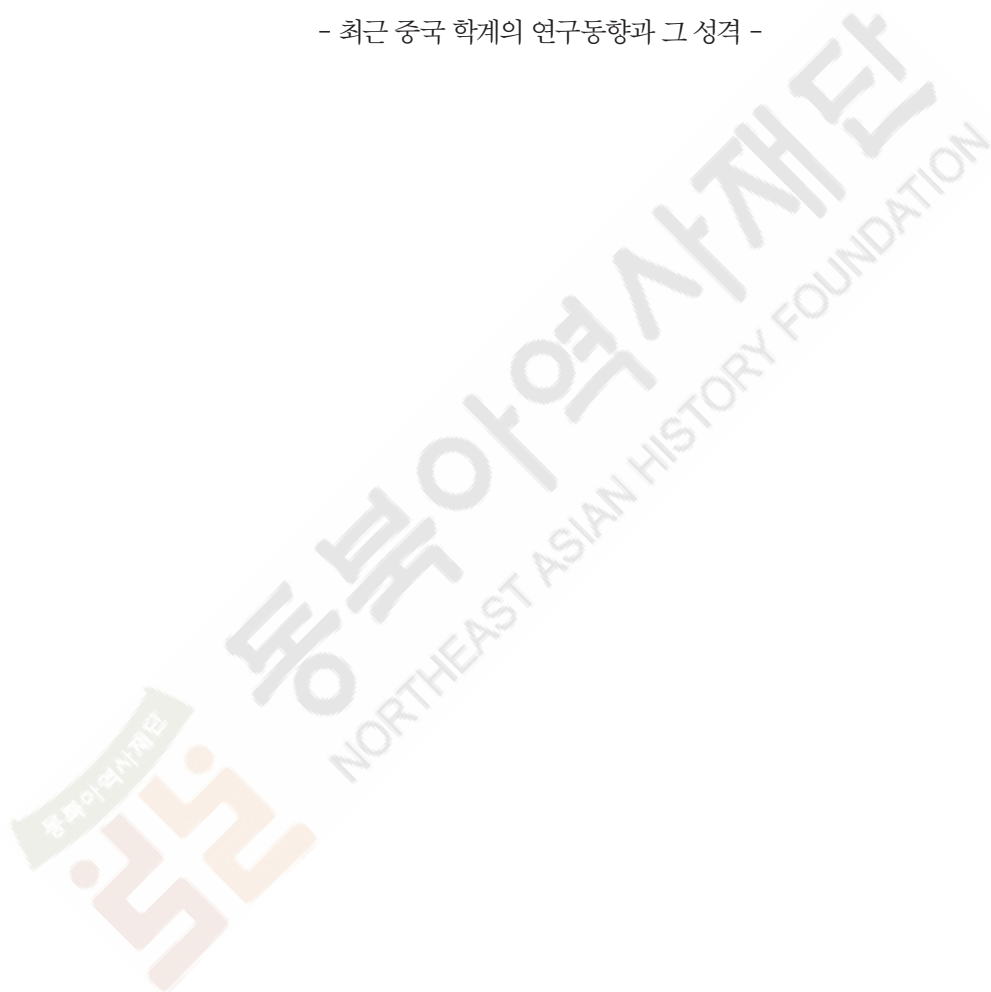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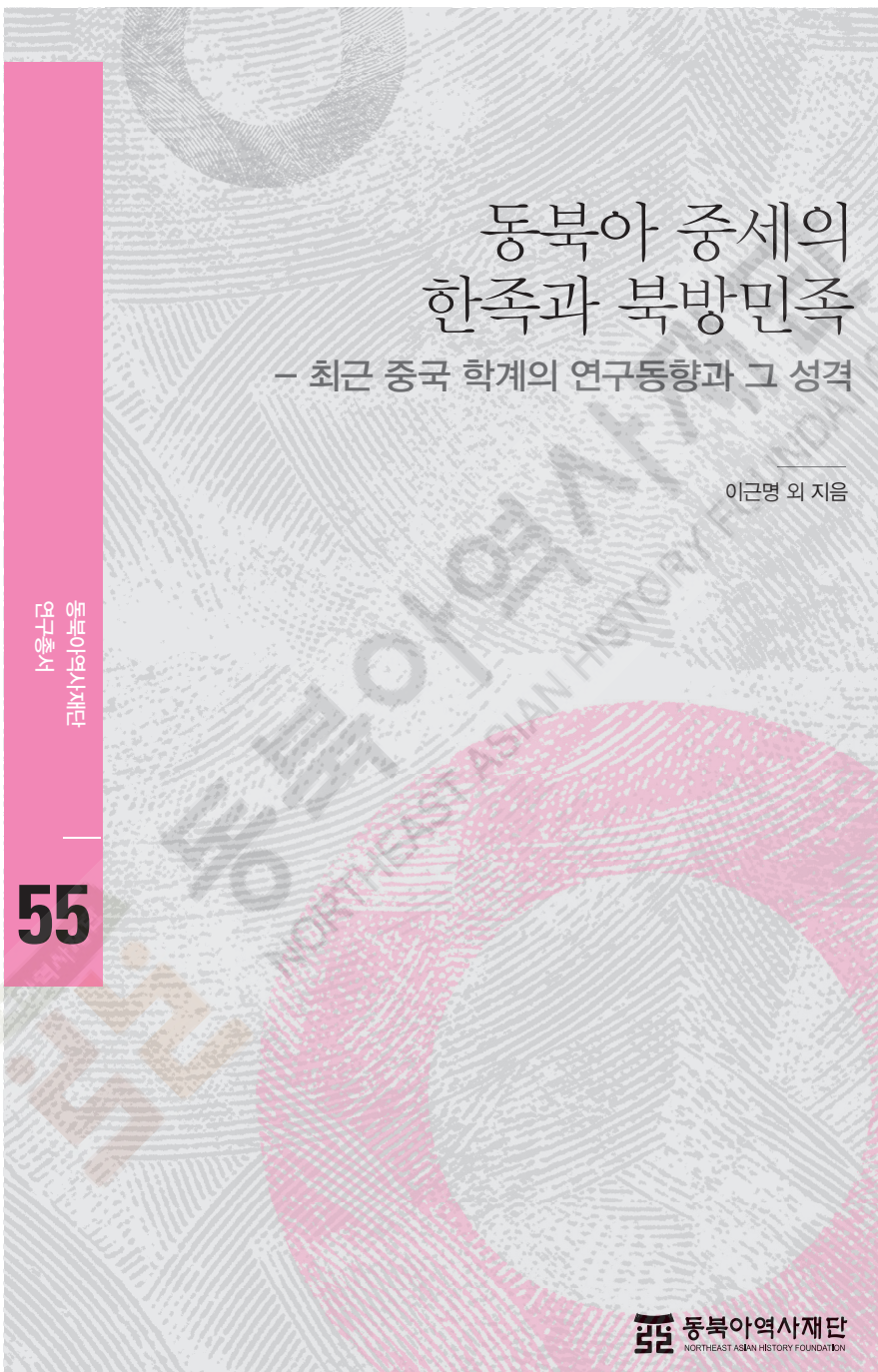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이근명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년 9월에 설립하여 오늘날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석학들과 더불어 동북아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였고,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사 인식을 모색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지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재단은 동북아에서 역사 화해와 우호협력의 사상과 인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유동적이어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언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지 모릅니다.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와 영토 주권의 수호, 상생을 위한 역사 인식의 창조와 공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공동체상의 수립 등에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한일, 한중 역사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개별 연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재단은 각국의 연구자들과 더 깊고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며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주'라고 알려진 '중국 동북'의 역사는 당면한 고구려사 등의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연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주는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특히 한반도와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만주 연구는 한국 고대사 문제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기나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폭과 깊이를 더하여 한층 세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만주와 관련된 연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은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한 기획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으며 연구성과도 많이 축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초기의 연구 방향을 기존의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과 자료 정리 그리고 연구방법 모색 등으로 정하였습

니다. 이번 연구성과가 그간 우리 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통해 만주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져서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만주 연구가 중국과의 역사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여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한국

이 역사 문제에 대해 화해하고 함께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
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길지 않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원고를 집필해 주신 연구책
임자 이근명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
립니다.

끝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지향하는 모든 분들께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 연구와 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 확고
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보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0년 11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차례

책머리에 11

‘외족 성쇠의 연환성’에서 ‘번속체제’로 | 김상범

- 당대 후반기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

- I. 머리말 … 21
- II. 이론의 전개 : ‘외족 성쇠의 연환성’에서 ‘번속체제’로 … 26
- III. 한족과 북방민족의 종족별 개별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 32
 - 1. 당과 회흘관계 … 32
 - 2. 당과 토번관계 … 40
 - 3. 당과 거란관계 … 50
- IV. 맺음말 … 53

중국에서의 오대 왕조와 거란의 관계사 연구동향 | 조복현

- I. 머리말 … 57
- II. 2000년 이전의 관계사 연구동향 … 59
- III. 2000년 이후의 관계사 연구동향 … 77
- IV. 맺음말 … 98

중국 학계의 북송과 요의 관계사 연구동향 | 박지훈

- I. 머리말 … 101
- II. 송요의 외교, 전쟁관계 … 102

- III. 북송 초기 송요관계 … 112
- IV. 전연맹약과 이후의 송요관계 … 119
- V. 교빙, 사절관계 … 128
 - 1. 교빙제도 … 128
 - 2. 사절관계 … 131
- VI. 송요 남북조설과 화전 … 134
- VII. 민족정책 … 141
- VIII. 맺음말 … 151

중국의 서하사 연구동향 | 유원준

- 언어, 문자, 문헌, 기원 및 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 155
- II. 흑수성 문서 및 서하학의 성립 … 160
- III. 서하자와 서하어 연구 … 169
 - 1. 서하자 연구 … 169
 - 2. 서하어 연구 … 173
- IV. 서하문 및 한문 문헌 연구 … 178
 - 1. 어언문자 … 178
 - 2. 법률사회문헌 … 179
 - 3. 시가 … 182
 - 4. 불경 … 184
 - 5. 한문전적 번역 … 186
 - 6. 한문 서하문헌 … 187
 - 7. 문헌목록과 판본 … 191
- V. 당항족의 기원 및 국호 연구 … 193
 - 1. 당항 탁발부의 족속문제 … 193
 - 2. 서하의 국호 … 201

VI. 주변국가와의 관계사 연구 ... 204

중국 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동향 | 육정임

-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I. 머리말 ... 213

II. 중화민족일체론의 송금관계사 인식의 특징 ... 216

1. 화·이, 정통·비정통, 국내·국외 경계의 부인 ... 218

2. 여진과 금, 그리고 송금관계를 보는 포용적이고 관대한 시선 ... 221

3. 결과론적 평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총체적인 발전 ... 225

III. 송금관계사의 주요 논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 ... 227

1. 송금 초기의 관계 ... 228

2. 송금전쟁의 성격 ... 230

3. 군사역량과 전세의 비교 ... 233

4. 송금 화의 체결의 이유와 평가 ... 238

5. 송금 화의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평가 ... 239

6. 주요 인물들에 대한 평가 ... 244

7. 중화일체론적 송금관계 연구의 난맥상 ... 246

IV.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는 연구영역의 확대 ... 248

V. 맺음말 ... 252

남송-몽골관계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추이 | 이근영

I. 머리말 ... 255

II. 남송-몽골 사이 전쟁 발생과 '단평입락'의 이해 ...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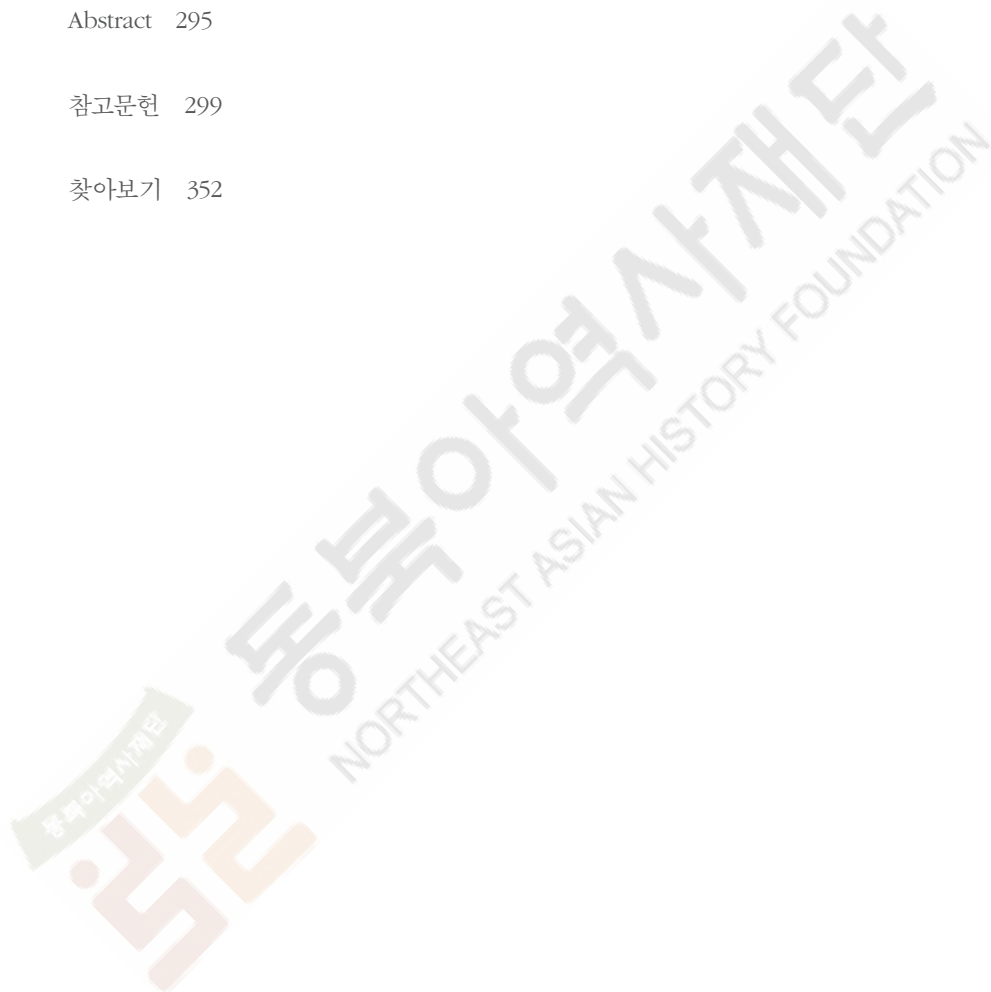
1. 전쟁 발생의 시점과 요인 ... 258

2. '단평입락'의 배경 ... 264

III. 몽케의 남침과 '약주의 화의'를 둘러싼 해석 ... 270

1. 합주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 ... 270

2. ‘악주의 화의’와 그 실상 …	276
IV.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 …	282
V. 맺음말 …	289
Abstract	295
참고문헌	299
찾아보기	352



I

이 책은 2009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과제인 ‘9~13세기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동향’의 연구결과물이다. 연구의 범위는 9~13세기로 서, 중국 왕조로 치자면 당(唐) 후반기로부터 송(宋)과 요(遼)·금(金), 그리고 몽골제국 초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대략 송조의 성립과 멸망을 전후한 시대에 한족과 북방민족 사이의 관계사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를 고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 왕조의 후반으로부터 송대의 시기를 통해 중국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당송변혁’이라 부르거나 그 변화의 내용은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있었다. 중국의 대외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 후반기 이래 북방민족의 활동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당시대의 돌궐, 위구르와 비교하여 오대(五代), 송 이후의 거란이나 금, 서하 등은 판연히 다른 존재였다. 이들은 국가의 구조는 물론이고 민족적 자각,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 책은 이렇듯 당송변혁기에 들어 판이한 형태를 띠는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가 하는 점

을 살펴본 결과물이다. 다만 검토의 대상은 중국 대륙의 연구만으로 한정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과제의 기획 자체에 중국 대륙학계의 대외관계사 연구동향을 점검한다는 지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어떠한 방향이 감지되는가,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연구동향에 중국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대외관계사 연구,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연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력 있는 한국사 연구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역사학은 단순한 학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야말로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역사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자 역량이 되기도 한다.

II

이 책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는 ① 당대 후반기의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 ② 오대 왕조와 거란의 관계사 연구, ③ 북송과 요 사이의 관계사 연구동향, ④ 서하사 연구동향, ⑤ 송금관계사 연구동향, ⑥ 남송-몽골관계사 연구 등의 여섯 가지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의 주제를 제외하면 모두 송조와 북방민족 국가 사이의 대외관계사이다.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해당 논문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여 중국 학계의 송대사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송대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다. 고대사나 근대사 등의 여타 시대사 연구가 이미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시작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뒤늦은 것이었다. 그 첫 세대 연구자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 송대사 연구의 기초를 다진 명원통(蒙文通), 장인린(張蔭麟), 첸러쑤(陳樂素), 덩광밍(鄧廣銘) 등이었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에 걸쳐 베이징[北京] 대학 등지에서 송사(宋史)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덩광밍(1907~1998)은 명원통에게 수학한 제자로서 사실상 송대사 연구의 제1세대 연구자라 할 수 있다. 그는 1930년대에 본격적인 송사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그의 연구는 중국 학계의 송대사 연구를 선도하고 또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업적은 비단 송대사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제자 양성을 통해서도 송대사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훈도를 거쳐 배출된 제자들, 예컨대 치사(漆俠)와 왕청위(王曾瑜), 장시칭(張希清), 덩샤오난(鄧小南) 등은 오늘날 중국 송대사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로 활동하고 있다.

명원통, 장인린, 첸러쑤, 덩광밍 등의 연구와 강의는 중국의 각지에 송대사 연구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였다. 명원통의 영향으로 베이징 대학과 쓰촨[四川] 대학에, 장인린과 첸러쑤의 영향으로 저장[浙江] 대학(예전 杭州大學)에, 그리고 덩광밍의 영향으로 베이징 대학에 송사 연구의 전통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토대가 닦인 베이징 대학, 저장 대학, 쓰촨 대학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에서 송대사 연구를 대표하는 중점 기지들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의 송대사 연구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문화대혁명과 함께 된서리를 맞았다. 순수한 학문연구는 타기되고, 역사학은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영사사학(影射史學)만이 판을 쳤다.

이 기간에 발표된 역사학 논문들은 모두 유법투쟁(儒法鬭爭)이라든가 농민기의, 인물평가 등과 관련된 것들뿐이었다. 그것들마저도 철저히 문화대혁명 명의 계급투쟁에 기여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1971년 린바오[林彪]가 사망한 후에는 이른바 ‘비림비공(批林批孔)’ 및 ‘수호전(水滸傳) 비판’이 역사학의 대세를 점하였다.

1960년대 이래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시기는 비단 역사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체에도 커다란 암흑기였다. 이 기간 역사학자들은 붓을 쥐고 침묵해야 했다. 모든 역사학자들의 연구경력에서 이 시기의 논문발표 실적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의 암흑기에도 개별 학자들의 연구와 절차탁마는 지속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송대사 학계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왕청위가 이 험난한 시기에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의 정독에 매진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영사사학’이 아닌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기풍이 보장되자, 원로학자들을 중심으로 곧바로 중량감 있는 송대사 연구의 논저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던 것도 이처럼 차분한 절차탁마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77년 중공 당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종료 선언은 송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송대사 학계는 재앙과도 같았던 문화대혁명 시기의 상처를 딛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남긴 후유증은 컸다. 그 영향으로 송대사 학계는 1980년대 초에 이르도록 ① 송강(宋江) 문제, ② 악비(岳飛) 문제, ③ 농민기의, ④ 왕안석(王安石) 변법 등의 주제에 매달려 있었다. 농민기의는 물론이거니와 송강이 과연 투항하였는가, 악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의 주제도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향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왕안석 변법과 관련된 연구 역시 문화대혁명 시기 왕안석을 법가(法家)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하던 것을 반성

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연구와 문화대혁명 시기의 반성을 거치면서 중국의 송대사 학계는 신속하게 재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송대사 연구자 전체를 아우르고 상호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학회가 창립되었으며,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연구기지의 재건도 본격화되었다.

오늘날 송대사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단체는 중국송사연구회(中國宋史研究會)이다. 중국의 송사연구회는 1980년 덩광밍의 주도로 상하이[上海]에서 결성되어 첫 번째 연회(年會)를 개최하였다. 제1차 연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은 『송사연구논문집(宋史研究論文集)』(上海古籍出版社, 1982)이란 명칭으로 묶여져 발표되었다. 이후 송사연구회는 대략 2년에 한 차례씩 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들을 묶어 『송사연구논문집』이란 이름으로 발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2008년까지 13차례의 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중국의 송사 연구기지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베이징 대학의 고대사연구중심(古代史研究中心)이다. 1980년 송사연구회의 창립과 함께 그 회장으로 추대되었던 덩광밍이 개설한 연구기지였다. 그 뒤를 이어 덩광밍의 첫 번째 제자인 치사에 의해 설립된 허베이[河北] 대학의 역사연구소(오늘날 宋史研究中心), 장인린 및 첸러쑤의 제자인 쉬구이[徐規]에 의해 설립된 항저우[杭州] 대학(오늘날 浙江大學)의 송사연구실(후에 南宋史研究中心으로 발전), 명원통의 제자인 후자오시[胡昭曦]에 의해 설립된 쓰촨 대학의 송사연구실, 역시 명원통의 제자인 주루이시[朱瑞熙]에 의해 설립된 상하이 사범대학의 송사연구실, 허베이 대학 역사연구소 출신의 학자들이 설립한 허난[河南] 대학 역사연구소, 그리고 장인린의 제자인 리옌[李璦]에 의해 설립된 윈난[雲南] 대학의 봉건경제사연구실(封建經濟史研究室) 등이 속속 연구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기지는 현재까지도 중국 내 송사 연구의 중심처이자 주요 송사 연구자를 배출하는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III

1950년대부터 2000년 이후의 오늘날에 이르는 중국 학계의 송대사 연구동향을 살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유물사관의 퇴색과 이른바 ‘애국주의’ 경향의 증대라 할 수 있다. 그런 애국주의 조류가 여타 관점을 압도해 가는 흐름은 이 책에서 살펴본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0년대에 들어선 오늘날, 애국주의 사관은 여타의 관점을 압도하는 지고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중화민족론’, ‘다원일체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중국사 인식은 전통적인 중국사의 인식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애국주의는 이제 1950년대 이래의 유물사관이 누리던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횡행은 두말할 나위 없이 현대 중국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 당국이 가장 부심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소수민족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티베트족이라든가 위구르족처럼 한족에 대해 커다란 적개심을 지니고 있는 민족도 있다. 이러한 이질적 민족들을 다독거리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 아래 안주시키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교육 당국에서는 중국 역사의 주체가 한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족이 중심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라 ‘통일적 다민족국가’라고 한다. 한족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중국이라는 통일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심지어

어 조선족까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시각이 아직 중국 학계에 완전히 정착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책의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송사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대전제를 수용하면서도 연구의 세부 분야에 들어가면 구래의 한족 중심적 민족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의 고수는 특히 원로에 속하는 학자일수록 더욱 강하다.

중국 당국의 지향과 중국인, 특히 한족 원로학자의 민족적 정서 사이의 상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의 하나가 악비의 평가 문제이다.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북송과 남송뿐만 아니라 요와 금 등도 중국을 구성하는 정권의 하나가 된다. 동일한 논리에서 송과 금 사이의 전쟁도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일어난 내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악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남송과 금의 전쟁이 내전이라면, 더 이상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악비를 ‘민족의 영웅’이라든가 혹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략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의 악비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악비와 진회(秦檜)의 대립구도를 ‘민족영웅’과 ‘매국노’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대세를 이루어가면서 악비에 대한 평가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의 입장에 따르는 견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비 평가의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악비연구(岳飛研究)』라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은 악비의 사당이 있는 항저우에서 발간된다. 1988년 1집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5집이 발간되었는데, 1996년에 간행된 4집까지만 해도 악비를 민족영웅이라 인식하는 논문이 절대 다수였

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며, 『악비연구』는 거의 10년 만에 5집이 가까스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5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악비와 무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악비 연구’가 아니라 ‘송대사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악비라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악비에 대한 관심의 저하 등이 반영된 산물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 조류의 변화, 즉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한 악비 재평가의 흐름 속에서도 왕청위나 리시허우[李錫厚] 등과 같은 원로학자들은 여전히 악비를 민족영웅으로 서슴없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왕청위의 경우, 2002년도에 출간한 저서(『岳飛和南宋前期政治與軍事研究』, 開封:河南大學出版社, 2002, 4쪽)에서도 악비와 진회를 선명하게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에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특히 중국과 같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에 있어 역사상에는 영광과 치욕이 병존하며 정의와 사악함이 서로 투쟁하였다. 우리는 진보와 퇴보가 모두 존재했던 역사를 공부하며 교훈을 얻어 민족 진보의 영양소로 삼아야 한다. 남송 초의 시기에 이강(李綱)과 종택(宗澤)·악비가 한편이었고, 송의 고종과 황잠선(黃潛善)·왕백언(汪伯彥)·진회 등이 다른 한편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영광과 치욕, 정의와 사악함, 진보와 퇴보의 투쟁이었다.

왕청위는 오늘날 중국의 송대사 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이다. 그는 덩 광밍과 치사의 뒤를 이어 중국송사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에 있어 악비에 대한 평가는 중국 당국이 부심하고 있는 민족정책과는 범주가 다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동료이자 요사(遼史) 연구의

원로인 리시허우는 심지어 “현재적 관점에 구애되어 역사상의 시비를 재론해야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岳飛與紹興和議』, 『宋史研究通訊』 42, 2003)라고 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현재 정책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전파하고 있고 그것의 강조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강화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학계에서 감지되는 역사 인식 체계상의 혼돈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몇가지 문제로 인해 중국 연구자들의 연령 분포와 논저의 성격을 대비하는 작업은 진행시키지 못했다. 만일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주제와 분야라면, 분명 연구자의 연령 구성 및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용해 정도가 상호 대응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족과 북방민족 왕조 사이의 접촉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중국에서 극히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제이다. 1980년대 이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중화민족 일체론의 관점에 의거한 중국 내 각 민족의 통합·융합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적 필요성이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접촉과 교류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전면적으로 굴절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월 15일
필자를 대표하여 이 근 명

‘외족 성쇠의 연환성’에서 ‘번속체제’로

– 당대 후반기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

김상범 | 한국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II. 이론의 전개 : ‘외족 성쇠의 연환성’에서 ‘번속체제’로

III. 한족과 북방민족의 종족별 개별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IV. 맺음말

I. 머리말

당대는 고대제국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향후 역사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질적·구조적 변화가 배태되어 ‘승전계후(承前啓後)’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대외관계사의 전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송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지각변동의 단서들이 이미 출현하기 시작한다. 당대 후반기 이후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에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원왕조 중심의 책봉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이 포착된다. 당대 전반기는 동돌궐과 설연타와의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당태종(唐太宗)에게 천하의 지배자라는 ‘탱그리카간(天可汗)’의 칭호가 헌상될 정도로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는 시기였다. 고종(高宗) 건봉(乾封) 원년(666)과 현종(玄宗) 개원(開元) 13년(725)에 시행된 봉선의례(封禪儀禮)에는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대거 참례하여, 당시 대당제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동아시아 세계질서가 의례를 통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다.¹ ‘안사(安史)의 난’ 이후 이러한 책봉질서는 빠르게 붕괴되는 조짐을 보인다. 숙종(肅宗) 지덕(至德) 2년(757)에

1 『資治通鑑』에는 唐 高宗 乾封元年(666)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丙寅，上發東都，從駕文武儀仗，數百里不絕。列營直幕彌互原野，東自高麗，西至波斯·烏菟諸國，朝會者，各帥其屬扈從，穹廬毳幕，牛羊駝馬，填咽道路。”(『資治通鑑』卷201，唐紀17，北京：中華書局，6346쪽。) 당대 봉선의례의 국제의례적 특징에 대해서는 김상범(2002), 「唐 前期 封禪儀禮의 展開와 그 意義」, 『역사문화연구』 17輯, 45쪽 참조.

광평왕 숙(倣, 후일의 代宗)은 약탈을 만류한다는 명목으로 장안(長安) 수복을 도와준 회흘(回紇) 엽호가한(葉護可汗)의 말발굽 아래 무릎을 꿇는 굴욕을 당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엽호가 어쩔 줄 몰라서 함께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로(父老)들이 만 필의 비단(羅錦)을 헌상한 뒤에야 잔인한 약탈을 모면할 수 있었다. 보응(寶應) 원년(762)에 회흘군이 두 번째로 동경(東京) 탈환에 참여했을 때는 공공연하게 대약탈을 자행하며 참전의 대가를 누렸지만, 당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했다.² 대종(代宗) 광덕(廣德) 원년(763)에는 토번(吐蕃)의 침입으로 장안이 또다시 함락되었는데, 황제가 섬주(陝州)로 피난하자 토번은 15일간 장안에 머무르며 종실 가운데 광무왕(光武王) 이승홍(李承宏)을 황제로 세우기까지 했다.³ 토번 측 사료에는 장안 정복의 이유를 대종이 즉위 후 공견(貢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당이 정말로 토번에 대해 조공을 서약했는지는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토번 내부에서는 당을 종주국으로 여기는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괴뢰황제를 세워 간접적인 지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국 측 사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국 상위(上位)의 외교관계는 이러한 외교에 익숙한 중국 측의 편의로운 오해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후 당의 중앙정부는 번진(藩鎮)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약화되었고 중국

2 『資治通鑑』, 卷220, 唐紀36, 肅宗至德二載, 7034쪽은 장안에서 약탈을 자행하면 뤼양[洛陽]의 반란 세력들이 더욱 견고하게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先約한 약탈행위를 뤼양 수복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廣平王이 굴욕을 무릅쓰고 앞드렸다고 광평왕의 전략과 애민의식을 칭찬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廣平王拜於葉護馬前曰, “今始得西京, 若據俘掠, 則東京之人皆爲賊固守, 不可復取矣, 願至東京乃如約. ……”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傅樂成(1977a), 「回紇馬與朔方軍」, 『漢唐史論集』, 臺北: 聯經出版公司, 308쪽을 참조.

3 『資治通鑑』, 卷220, 唐紀36, 肅宗至德二載, 7153쪽.

4 『吐蕃文獻選集』 第2函, 593~594쪽; 『吐蕃論悉諾-盧空紀空碑』, 南側藏文碑文.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책봉체제도 외피만 남긴 채 작동을 멈추어 버렸다.

둘째, 안사의 난 이래로 북방민족들이 중원왕조의 역사 전개에 개입하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회흘·토번·사타 등 북방민족들이 내란 진압을 위한 당의 청병요청에 응하면서, 군사·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당조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해 갔는데, 당조의 멸망과 오대시기의 왕조 교체까지도 결국은 상당부분 그들에 의해 주도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당은 안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회흘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고, 회흘군은 네 차례에 걸쳐 당의 양경(兩京) 탈환에 동원되었다. 회흘군은 참전할 때마다 엄청난 재화를 탈취해 갔을 뿐 아니라, 말 1필과 견 40필을 교환하는 불공정 무역을 강요했다. 회흘 말이 체질이 약해 전투마로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공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종시기에만 17년 동안 1,500만 필 이상의 견사가 회흘로 유입되었다.⁵ 어쨌든 청병의 대가로 공납(貢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대시기 거란에 대한 후당(後唐)의 공납과 맥락을 같이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란·여진·서하에 대한 송(宋)의 공납 역시 배경은 차이를 보이지만, 당대 후반기 이래로 북방민족과의 관계에서 ‘공납’이 단속적으로 상례화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원(興元) 원년(784) 주체(朱泚)의 난 때 당시 토폰 정책으로 기울어진 덕종의 요청으로 토번군이 출병했을 때에도, 토번군은 주체의 부장인 한민(韓旻)의 반란군을 격파한 뒤 대악탈을 통해 충분한 대가를 챙겼을 뿐 아니라, 반란군 측에서 황금과 비단을 뇌물로 공여하자 이를 챙긴 뒤 철병하여 당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육지(陸贄)는 토번이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유해무익하다고 비난을 퍼

5 회흘과의 강제무역에 대해서는 傅樂成(1977a), 앞의 글; 馬俊民(1984), 「唐與回紇的絹馬貿易」, 『中國史研究』; 章羣(1990), 「唐代之馬匹貿易—兼論唐予回紇馬價絹的性質」, 『晚唐的社會與文化』, 臺北: 學生書局 등을 참조.

붓기도 했다.⁶ 당의 내정에 대한 북방민족의 군사적 개입은 9세기 후반 이래 또다시 이루어지는데, ‘방훈(龐勳)의 난’과 ‘황소(黃巢)의 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당조는 결국 사타족(沙陀族)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였고, 향후 사타 세력인 이극용과 석경당이 각각 후진(後晉), 후당 정권을 세우게 된다.⁷ 무장 세력들 간의 경쟁 속에서 석경당은 거란군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연운 16주를 할양하는데, 이는 북방민족이 장성 이남지역에 진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당 말에 이르면서 중원왕조와 북방민족 관계의 중심축이 점차 서북에서 동북으로 이동하게 된다. 당조는 건국 초 주요 통치집단의 근거지가 관룡(關隴)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돌궐·설연타·토번 등 북방의 주적들도 서북세력들이어서 이 지역에 군대[府兵]를 집중 배치하였다.⁸ 이러한 정황은 안사의 난 중에 반란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잠시 변동이 발생하지만, 향후 회흘·토번·남조(南詔) 등 서부 민족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당조의 주력부대는 여전히 이 지역에 집중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 국토에 대한 당 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 주력군이 서부에 편중된 상황하에서, 동북지역의 말갈(靺鞨), 거란 등 북방민족들은 당의 선진문화를 흡수하며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만세통천(萬歲通天) 원년(696)에 이진충(李盡忠)과 손만영(孫萬營)이 중심이 되어 당의 세력을 영주(營州)에서

6 『資治通鑑』, 卷231, 唐紀47, 德宗興元元年, 7429쪽.

7 沙陀에 관한 연구로는 薛宗正(1992), 『突厥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傅樂成(1977b), 『沙陀之漢化』, 『漢唐史論集』, 臺北:聯經出版公司; 鄧小南(2003), 『五代·宋初華北地域胡化問題的 解消』, 『魏晉隋唐史研究』 第10輯; 趙榮織·王旭送(2008), 『唐代沙陀人在西域的活動區域』, 『昌吉學院學報』 6期 등을 참조.

8 당대 10도에 절충부가 설치된 수를 비교해 보면, 총 656府 가운데 關內道에 288府, 河東道에 163府가 설치되었는데, 각각 43.9%와 24.8%를 차지하는 것이다. 谷霽光(1986), 『府兵制度考釋』, 『谷霽光史學文集』 1, 南昌:江西人民出版社, 375쪽.

유주(幽州)로 축출한 이래 라오시[遼西]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거란은, 당 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이극용(李克用)과 연합하여 노룡절도사(盧龍節度使) 유인공을 격파하고 팔부대인(八部大人)에 오르면서, 마침내 중원왕조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당 말·오대시기는 향후 요(遼)·금(金)·원(元)·청(淸) 등 강력한 정복왕조가 연속적으로 굴기하면서 동북지역이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사의 중심무대로 등장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후반기 중국과 북방민족 관계에 있어서 쟁점은 책봉체제의 붕괴조짐이 나타난다는 점, 중원왕조에 대한 북방민족의 간섭과 영향력이 증대한다는 점, 동북민족들이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의 중심축으로 등장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변화의 단서들이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중심적 외교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중원과 주변민족 간의 국제질서에 실질적인 역전이 발생하고 그 중심에서 동북민족들이 종족적 독립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굴기하는 당대 후반기의 시대사적 특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의도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당대 후반기 중원왕조와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연구동향과 그 변화추이를 검토해 보는 작업은 이 시기 국제관계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쳐 온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과 그 지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해당시기 한족과 북방민족 간의 관계사를 거시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중국 학자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이론적 틀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당과 회흘·

토번·거란 등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와의 개별적 관계에 대한 세부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다.

II. 이론의 전개 : ‘외족 성쇠의 연환성’에서 ‘번속체제’로

중국 학자들의 수당사 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찌감치 난숙한 견해를 제시한 탓인지 일정 정도 천인철회(陳寅恪)의 학설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 분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천인철회의 유산은 당대 후반기 북방민족 관계사 연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주제선택과 내용 그리고 주변민족에 대한 위상 설정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차이는 보이지만, 중국 주변민족들의 성쇠와 당대사의 전개를 다원적 연동관계 속에서 파악한 천인철회의 ‘연환성(連環性)’ 개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인철회는 당대가 중국사에서 어느 시기보다 주변민족과의 접촉이 활발하고, 대외관계에서 여타 왕조와도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찬란한 성과를 이룩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주변 제 민족 간의 성쇠에 있어 발견되는 상호 간의 연동성과 외환(外患)이 내정(內政)에 미치는 영향력에 착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당과 주변민족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천인철회는 이들 제 민족들이 단지 당조와 단선적인 관계만 맺는 것

이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주변민족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민족의 흥망성쇠도 당연히 상호 간에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당대 국제관계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모 민족 간의 일방적 관계보다는 다수 종족 간의 변환성을 통관(通觀)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천인책은 상호 변환성의 사례로 돌궐, 회흘, 토번, 고구려, 남조 등을 거론했는데, 이 글에서는 회흘과 토번이 당대 후반기의 정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다.

천인책은 먼저 회흘의 흥기를 당대 전반기 유목세계의 패자(覇者)라 할 수 있는 돌궐의 패망과 연계시켜 자연재해와 내정혼란 외에 회흘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것을 돌궐 멸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정관연간(627~649)에 당이 돌궐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민족관계의 변화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당태종이라 해도 돌궐을 제압하는 기적은 일구어 낼 수 없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회흘이 당 숙종시기를 전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문종연간에 이르러 쇠망한 것도 회흘 내부의 분열과 전염병 등 제 요인 외에 새로운 주변세력인 키르기스(黠戛斯)의 흥기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⁹

토번에 대해서는 당 제국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미친 민족이 '토번'임을 강조하면서 토번이 정관연간 이래로 오랫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다가 대종연간(大中年間, 847~859)에 이르러서야 쇠락하는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당나라도 이때 겨우 하황(河湟) 일대를 수복하고 서북변경의 안전을 확보할

9 陳寅恪(1982),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陳寅恪先生文集(三)), 臺北: 里仁書局, 132쪽.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조가 비록 우문태(宇文泰)의 ‘관중본위정책(關中本位政策)’을 계승한 면도 있지만, 토변이 200여 년간에 걸쳐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나라는 전성기에도 서북변경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동북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오대시기 이래 동북민족의 흥기로 인하여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 말 토변의 쇠락은 복속하던 여러 종족들이 라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탕구트족(黨項)이 발흥하자 당은 수차례 걸쳐 공격을 감행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백민중(白敏中)을 특사로 파견해 외교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천인체는 당의 하황 수복이 결국 당조 자신의 군사적 역량에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토변의 쇠퇴로 불거진 결과임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라고 주장하였다.¹⁰ 사실 당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태종·고종시기에 고구려를 정복하자마자 이 지역에서 바로 철수한 것도 토변의 위협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각국 간의 복잡한 상호 연동관계가 전략의 채택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외관계사의 전개에 까지도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한 것이다.

이 밖에 천인체는 토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발률(小勃律), 대식(大食), 남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현종시기 전후로 당과 토변, 대식은 각각 전성기를 구가하며 경쟁적인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조는 정치군사적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관룡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북 요로에 위치한 안서 4진(安西四鎮)을 고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토변과 대식 간의 연계를 전방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소발률을 속국화하기 위하여 험난한 파미르 원정을 감행하였다. 또한 서남부에서는 토변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조와의 관계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천

10 陳寅恪(1982), 위의 글, 135쪽.

인체는 당과 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번 사이에 전개되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소발률과 남조 역시 이러한 국제관계의 상호 연동성에 영향받고 있었음을 해명한 것이다.¹¹

천인체에 이어 민족 간의 연환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대 후반기 북방민족과의 국제관계에 접근한 학자는 천인체의 첫 제자 중에 한 명인 왕젠[汪鋐]이었다. 우종국[吳宗國]가 사후에 정리한 왕젠 유고집 속에는 토번과 회골(回鶻), 대식 간의 분쟁을 고증한 짧은 글이 전한다. 이 글에서 왕젠은 토번이 하서를 점령한 초기에는 주로 토번과 회골 간의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토번과 대식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정원 10년(794) 이후의 일이라고 고증하였다. 정원 10년에 북정을 놓고 또다시 토번과 회골 간에 충돌에 발생했는데 격렬한 전투로 사상자가 늘어나자 토번은 남조를 압박하여 원군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신천(神川)에서 남조군의 기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내용은 매우 소략하지만, 당시 국제관계가 토번, 회골, 대식, 남조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 상호 영향을 주며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¹²

왕샤오푸[王小甫]도 천인체의 영향하에, 서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각국 간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조의 서역정책, 안서 4진을 둘러싼 당조와 토번의 쟁탈전과 대식의 개입, 파미르고원에서 전개된 각축전 그리고 당대 후반기 당과 토번, 대식의 경쟁 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당·토번·대식 간의 관계는 주로 정치사 중심으로 전개된다. 당이 이 지역의 서역 경영에 전력투구한 것은 하서와 농우지역을 확보하여 수도 장안의 안

11 陳寅恪(1982), 앞의 글, 137쪽.

12 汪鋐(1992), 「吐蕃與回鶻, 大食之爭」, 『漢唐史論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88쪽.

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크로드 무역도 처음부터 이익을 강구하기 보다는 서역에 거액의 군수물자와 인력을 투자하다보니 자연스레 활성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토번도 마찬가지인데 토번 경제가 제한된 농업과 유목 위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번이 대상들의 무역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토화라(吐火羅)에 진출했다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식의 서역 진출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이나 '성전(聖戰)'을 통한 선교정책이라기보다는 통일의 과정 속에 형성된 각 부족들의 호전성을 발산하기 위한 선택으로 파악했다.

두 번째 토번이 서역을 최종 점령한 후 중앙아시아에서 강국 간의 쟁패는 끝난다. 회골 서천 후(840)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돌궐인들도 서서히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돌궐인의 정착과 농경생활로의 전환과 함께 전개된다는 점에 착목하여, 서역에서 강국 간의 경쟁시대가 끝나면서 중앙아시아에 소위 '투르키스탄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시기 토번사의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980년대 이후 북방민족 관계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당시 부족통일을 이룩한 티베트인들이 티베트고원 개발과 서남변강 문화의 형성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토번의 적극적인 서역 진출과 이로 인해 발생한 당과 토번 간의 충돌에 관해서 두 민족이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며 '조국의 대가정' 내에서 경쟁한 것이 휘황찬란한 역사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정치적인 선동에 가까운 결론을 제시했다.¹³ 북방민족을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파악하고 각 민족 간의 다원적인 국제관계에

13 王小甫(1982), 『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대한 세밀한 분석을 주문한 천인첸와는 상당한 질적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1980년대 이후 부상하는 ‘대중화주의적 사관’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민족관계에 대한 중국 정부와 학계의 입장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리다룽(李大龍) 등의 ‘번속체제’라는 용어를 통해 더욱 정제된 이론으로 발전한다. 리다룽은 한족 왕조와 주변민족의 관계를 ‘번속관계’로 규정하고, 당대에 이르면 쌍방 간의 지속적인 융화로 중국의 강역이 초보적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속체제의 특징을 번속의 범주가 중앙왕조 권력의 강성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되는 것으로 그리고 번속체제 내에도 중앙왕조와 주변왕조 간에 친소(親疎)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리다룽의 견해는 한족과 주변민족 간의 모든 대외관계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번속체제’라는 중국적 이론의 틀을 통해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우선 민족관계의 모든 가능성이 중앙왕조에 의해 일원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설정하다 보니, 중원과 주변의 세력균형이나 당조와 토번, 회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출현했던 ‘주변우위’의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주체의 난’ 때 당 정부의 요청에 의해 원군으로 출병했던 토번군이 반란군 측의 뇌물공여에 돌연 철군을 결정할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의적으로 행동했지만 마치 ‘번속체제’에 속한 것이 반군진압에 참여한 결정적인 동기라도 되는 것처럼 명분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이 설정한 이론구조도 원래는 ‘다원적 중화제국론’에서 출발했지만 지나치게 통일과 중원중심의 구심력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원성이 자연스레 무시되면서 개별민족들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로 추락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일례로 광평왕이 엽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수모를 겪었을 뿐 아니라 당조가 회흘에게 주기적으로 세폐(歲幣)를 바

치고, 회흘 사신들의 횡포에도 당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관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억지로나마 번속관계가 유지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왜곡된 해석은 회흘과의 ‘화친정책’에서 진면목을 드러내는데, 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친딸을 회흘에 시집보낼 정도로 당조는 회흘에 대해 전대미문의 예우를 취했지만, 아무런 비판적 분석도 없이 “사위가 되었으니 자식이나 진배없다”는 중국 측 사료에 그대로 의거하여 양국 간 외교격식이 ‘형제관계’에서 ‘(장인-사위의) 부자관계’로 전환되면서 번속체제가 회복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¹⁴ 민족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설계된 이론체제가 실제적인 역사정황을 왜곡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III. 한족과 북방민족의 종족별 개별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1. 당과 회흘관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삭방군(朔方軍)의 실질적인 영수였던 곽자의(郭子儀)가 토번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회흘과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전

14 李大龍(2006),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락을 채택한 이래로 당-회흘관계는 개성(開成) 5년(840)에 잇단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키르기스를 위시한 5부 연합의 침공으로 회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당과 회흘 간의 관계사 연구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주제는 역시 회흘과 당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화친정책(和親政策)’에 관한 것이다. 당과 회흘 사이의 화친외교는 안사의 난 때에 회흘이 원군을 보내 장안과 낙양 수복작전에서 결정적인 공훈을 세우면서 성립된다. 쌍방의 외교사에서 위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¹⁵ 류이탕(劉義棠)은 당조가 ‘안사의 난’을 평정함과 더불어 토번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엄청난 국고부담을 떠안고 회흘 말을 구입해 주었을 뿐 아니라, 친딸을 출가시키는 선례가 없는 화친정책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했다고 요약하였다. 당시 숙종은 둔황[敦煌]의 군왕 이승채(李承柰)와 복고회은(僕固懷恩)을 회흘에 파견하여 원군을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갈룩가한(葛勒可汗)은 기꺼이 파병을 약속하고 우선 황후의 동생을 이승채에게 출가시킨 뒤, 당 조정에 화친을 요구하였다. 파병 약속에 따라 갈룩가한은 태자 엽호와 장군 제덕(帝德)에게 기병 4,000명을 이끌고 참전하여 안경서(安慶緒)의 군대를 대파하고 양경 수복에 결정적인 전과를 올린다. 이에 숙종은 지덕 3년(758)에 회흘의 요구대로 화친을 허락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친딸 영국공주(寧國公主)가 출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회흘의 두 번째 파병은 763년에 이루어진다. 사조의(史朝儀)가 반란을 일으켜 낙양이 함락위기에 봉착하자 대종은 재차 출병을 요청했는데, 모우가한(牟羽可汗)이 4,000여 명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이광필(李廣弼),

15 劉義棠(1975), 『維吾爾研究』, 臺北：正中書局.

복고회는 등과 함께 튀양을 수복하고 허베이[河北] 일대를 평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정원 3년(787)에 회흘은 다시금 화친을 요청해 왔는데, 덕종 역시 친딸인 함안(咸安)공주의 출가를 허락하여 당과 회흘 사이의 두 번째 혼사가 성립되었다. 당대에 있어서 화친은 책봉과 더불어 주변민족과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황제의 친딸을 출가시켰다는 것은 당나라가 직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더불어 회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식이 결국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던 화친관계를 보다 실질적인 외교관계로 진전시켰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흘에 대한 당의 진실한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¹⁶ 당시 화친은 냉정한 정치적 행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회흘 입장에서는 황제 가문과의 직접적인 관계 체결인 만큼 내외로 정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부담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물론 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담까지도 기꺼이 떠안은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를 통하여 최후의 외교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⁷

화친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도 떠안아야 했는데 회흘의 보의가한(保義可汗, 803~821)이 화친을 청했을 때 당 황실은 오원제(吳元濟)의 반란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으며 사절하기도 했다. 어쨌든 보의가한은 토번 수중에서 북정을 수복하였고, 텐산(天山)남북로의 교역루트도 재개통시켰다. 이어 즉위한 승덕가한(崇德可汗, 821~825)은 재차 화친을 요구했고, 목종은 태화공주의 출가를 결정함으로써 당-회흘 간의 세 번째 화친이 성립했다. 당시 회흘이 만기의 기병을 동원해 북정을 방어하고 만기의 기병으로 안서를 막

16 編寫組(1987), 『中國北方民族關係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1쪽.

17 管彥波(2006), 「唐朝與邊疆民族政治連繫的兩種途徑: 冊封與和親」, 『黑龍江民族叢刊』(雙月刊) 2期.

게 한 뒤 태화공주를 영접했다는 사료에 대해 청우뢰[程溯洺]는 북정방위에 대한 당과 회흘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관엔보[管彥波]는 당대 한족과 변강민족 사이의 정치외교적 연계에 있어서, 책봉과 화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화친은 일반적 혼인과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대 화친을 ‘회유와 기미(羈縻)를 위한 화친’,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화친’, ‘정치적 필요와 외교수단으로서의 화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당대 후반기에 당과 회흘 사이에 진행된 화친은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화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화친의 배경과 전후맥락을 살펴볼 때 쌍방의 일치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토번을 축출하고 북정을 방어한 대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 간에 화친이 결정되면 많은 수행원과 장인(匠人)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뿐 아니라 선진문화를 흡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시기 회흘의 적지 않은 성곽과 건축물들도 바로 이들 한족 출신 장인들의 도움으로 건립된 것이다.¹⁸

두 번째로 당과 회흘 간에 전개된 ‘견마무역(絹馬貿易)’ 역시 당과 회흘관계 연구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일찌감치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푸러청[傅樂成]은 회흘 말과 삭방군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에서 당조가 회흘로부터 대량의 말을 구입한 이유는 회흘이 양경 수복을 도운 대가이자 회흘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토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⁹ 장훤[章羣]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는데, 회흘 말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당 측의 수요와 관계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회흘의 파병과 회흘

18 程溯洺(1992), 『唐宋回鶻史論集』, 北京：人民出版社, 73~76쪽.

19 傅樂成(1977a), 앞의 글.

병을 고용한 대가라고 밝혔다. 특히 삭방군이 붕괴된 후 당조는 토번과의 전쟁에 회흘군을 적극 고용했는데, 토번전에서 공훈을 세울 경우 비단이 하사되었던 것으로 보아 용병에 대한 고용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회흘이 당으로부터 획득한 비단은 소그드 상인을 통해 서역에 수출되었는데, 이에 따라 회흘에 소그드인의 종교인 마니교가 유행하였고 회흘과 당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장안에도 마니교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⁰ 마권민[馬俊民]은 당시 말 가격과 ‘수마(瘦馬)’, ‘열견(劣絹)’ 문제 등을 경제뿐 아니라 정치문제와 결부시켜 함께 논의한 뒤, 비록 교역의 과정 중에 국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래도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²¹

1958년에 평자성[馮家昇]과 청쭈뤄 등이 위구르문, 돌궐문, 한문 등 다양한 위구르족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했던 『위구르족사료간편(維吾爾族史料簡編)』은 지금까지도 위구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집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당대 후반기 회흘과 당조의 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평화적인 무역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회흘이 동서교통로를 장악하여 호상(胡商)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² 징자오시[景兆璽]는 당대 후반기에 회흘이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대외 교류에서도 매개적 작용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흘이 당조로부터 얻은 전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소그드 상인의 중개를 통해서 정주(庭州), 궁월성(弓月城) 그리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한 쇠엽(碎葉)으로 이어지는 소위 위구르 루트를 통해 수출되었는데,

20 章羣(1990), 앞의 글.

21 馬俊民(1984), 앞의 글.

22 馮家昇 等編(1981), 『維吾爾族史料簡編』, 北京:民族出版社.

이는 당대 후반기 이후 점차 쇠퇴하던 육상 실크로드의 무역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대 말기에 당과 회골 간의 무역이 점차 견마무역에서 차마무역(茶馬貿易)의 형태로 바뀌는데 대해서도 세계성의 무역이 국지적인 무역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²³

사실 회홀과 당조 간에 전개된 견마무역은 안사의 난과 거듭되는 토번의 침략으로 전마(戰馬)의 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무역이었다. 하지만 770년대에서 780년대까지 전마의 가격은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견마무역은 당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무역이었다. 그러나 텐산남북로를 장악하게 되는 회홀의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에 밝은 9성호(九姓胡)와 소그드인들이 대식의 침략을 피해 회홀로 밀려들어와 실크 중계무역을 주도하기 때문에 견마무역은 당조와는 정반대로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는 주력산업이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왕샤오푸는 회홀이 당의 회유정책을 적절하게 수락함으로써, 과거 흉노(匈奴)나 돌궐이 군사적 압박을 통해 획득했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회홀은 과거 여타 유목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진보를 이룩하게 되며, 당조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²⁴

리홍빈[李鴻賓]은 당대 후반기의 삭방군 문제를 중심으로 회홀과 토번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당대 전반기까지 돌궐로부터 장안을 포함한 관중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요충지였던 삭방군이 당대 후반기인 덕종, 순종(順宗), 헌종(憲宗) 시기를 거치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검토

23 景兆璽(2003), 「唐代的回紇與中外文化交流」, 『西北第二民族學院學報』 1期.

24 王小甫(1999a), 「回紇的文化成就」, 『中華文明之光』 2,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했는데, 삭방군의 새로운 변화가 북방민족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삭방군 절도사의 활동이 통제되기 시작하는 것은 숙종 때부터이다. 일단 주적(主敵)인 돌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새롭게 등장하는 회흘과 당나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안사의 난 이후 번진할거의 국면이 조성되면서 당조는 신책군 강화를 통해 지방을 통어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삭방군의 규모와 관할지역의 축소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데 토번을 전담방어하기 위해서 서북지역에 신설된 경서북팔진(京西北八鎮) 가운데 하나로 역할이 제한된다. 물론 향후 삭방군의 주둔지인 영주(靈州)는 관중내지와 허시[河西]지역을 연계하는 통로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그 전략적 가치는 회흘과 토번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²⁵

세 번째로는 당과 회흘 간의 외교질서에 관한 연구가 주목된다. 중국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안사의 난을 전후로 당과 회흘이 평등한 형제관계를 유지하다가 향후 화친의 진전으로 다시 부자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청쑤뤄도 엽호가 광숙왕을 형(兄)으로 칭한 점, 영국공주가 회흘에 출가할 때 갈궤가한이 마중 나와서 “나와 천가한은 양국의 군주”라며 군주라는 평등한 어휘로 상대방을 일컫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시기까지는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자식을 가한에게 출가시키기에, 가한 사위를 자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도 형제의 평등한 관계에서 상하의 차이를 갖고 있는 ‘부자관계’로 복귀전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⁶ 양성민[楊聖敏]은 회흘칸국과 당조의 관계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정리했지만 그 내용은 청쑤뤄와 대동소이하다. 양국 간의 관계는 처음

25 李鴻賓(1999), 「唐朝後期的朔方軍與西北方邊格局的轉變」, 『唐研究』 5卷.

26 程溯洛(1992), 앞의 책, 76쪽.

에는 전형적인 종속관계였지만 745년 이후 회홀이 막북(漠北)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과 국 간의 평등관계로 전환되었고, 향후 화친관계가 정립되면서 다시 '부자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²⁷ 광숙왕이 엽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원병을 요청한 점, 동일한 군주 칭호를 일컫는 점, 견마무역이 불공정한 강제무역에 가까워 송대 이후의 세폐를 연상시킨다는 점, 선례를 깨고 친딸을 화친에 동원한 점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가족주의적 국제질서에 습관화된 전통사가들의 역사기술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화친'으로 형성된 외형적 가족관계로 양국 간 외교질서의 변화와 복원을 논하는 논조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1980년 이후에 대중화주의적 사관의 영향으로 주변민족들의 역사를 중국사로 강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족 왕조 중심적 역사기술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음을 반영해 준다.

이 밖에 840년 회홀이 멸망한 후 종족의 이동에 관한 연구도 전개되었는데, 894년 이후 서천(西遷)세력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감주회골(甘州回鶻, 서위구르)'에 대한 연구가 둔황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 둔황문서가 이용되면서 회골의 직관(職官), 승려제도, 종교, 부족에 관한 기초연구뿐 아니라 귀의군(歸義軍)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해명되었다. '회홀의 족원(族源)'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흉노·철륵(鐵勒)·돌궐·정령(丁零) 등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회홀의 발전과 마니교의 흡수', '회홀과 소그드 상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회홀이 거대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물질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기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이

27 楊聖敏(1995), 「論回紇汗國與唐朝的關係」, 『中亞學刊』 4.

다. 이런 점에서 회홀 외교의 주체성이 반영되는 사료개발과 더불어 기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회홀-중국관계를 조명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리더룡[李德龍]은 둔황문서 S.8444를 분석하고 기타 문헌 자료와 세밀하게 비교하여 당대 후반기 당과 회홀 사이에 전개된 무역에 새롭게 접근하기도 했다.²⁸

2. 당과 토번관계

토번은 손챤감포 시기에 이미 변경 공격을 통해 태종의 화친정책을 이끌 어낼 정도로 당을 위협하기 시작하여 현종 이후에는 최대강적으로 부상한다. 안사의 난으로 당의 서북지역을 방어하던 정예부대가 동부로 파병되었을 때에는 잠시지만 수도 장안을 정복하기도 했다. 이에 당조는 적극적인 회홀과의 동맹으로 토번을 방어하지만, 공세가 그칠 줄 모르자 회홀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덕종은 친토번정책으로 선회하기도 한다. 건중 4년(783)에는 청수(淸水)에서 회맹(會盟)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당조는 간쑤(甘肅) 동남부에서 쓰촨(四川)에 이르는 서남지역에 대한 토번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당과 토번 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로 당번관계(唐蕃關係)에 대한 개괄적·통사적 서술을 들 수 있는데, 자료의 이용이나 학술적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타이완 학자인 린관첸[林

28 李德龍(1994), 「敦煌遺書S.8444號研究-兼論唐末回鶻與唐的朝貢貿易」, 『中央民族大學學報』.

冠群의 연구가 단연 주목된다. 그는 지송덕찬(曄松德贊, Khri srong lde btsan) 시기의 당과 토번관계를 다룬 논문에서 중국 측 문헌자료 외에 둔황 문서 등 새로운 출토자료와 토번 측의 문헌자료, 비각자료 등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송덕찬시기는 토번의 전성기로 당시 토번은 서쪽으로는 파미르고원을 넘어 옥서스 강(Oxus River) 일대까지 진출했고, 북으로는 텐산산맥과 텐산북로를 장악했으며, 동으로는 허시지역과 산시 성陝西省 중부 일대까지 강역을 확대하였다. 린관춘은 지송덕찬 기념비명(紀念碑銘)에서 “대식에서 중국까지 신복치 않는 나라가 없다”고 일컫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토번 역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토번대사기년(吐蕃大事紀年)』과 비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안사의 난’ 때, 숙종이 장안 수복을 위하여 토번에 5만 필의 견증(絹證)과 그 동안 토번이 침탈한 당지(唐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중국 측 사료에서는 이러한 굴욕적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당과 토번관계에서 토번이 오히려 상국(上國)의 위치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토번이 15일간 장안을 점령하여 괴뢰황제를 세우고 백관들을 기용한 것을 대종이 선제(先帝)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정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당은 회홀 군대를 빌려 양경을 수복한 뒤 점차 토번과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특히 이필(李泌)은 회홀, 대식, 인도, 남조와의 공조를 통해 토번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정책을 펴므로써 위기극복에 공헌했는데, 린관춘은 당번외교의 전환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²⁹

린관춘은 또 다른 논문에서는 토번의 대외확장정책과 대외관계를 지리

29 林冠群(1977), 「曄松德贊時期吐蕃與李唐關係之研究」, 『西藏研究論文集』1輯, 臺北: 蒙藏委員會.

적 환경을 통해 분석하였다. 토번은 평균 해발고도가 4,000m가 넘는 티베트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삶의 조건이 열악하고 식량생산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부단히 대외진출을 갈망해왔다. 열악한 지리적 환경이 팽창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는 토번이 외부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핵심지역으로 ‘칭하이[青海]’와 ‘윈난[雲南]’을 지목했다. 칭하이지역은 토번이 황허[黃河] 중상류지역으로 진출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서북을 통해 텐산 남북로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토번은 서역에서 서돌궐(西突厥), 돌기시(突騎施), 대식 등과 협력을 통해 당을 축출한 바 있으며, 반대로 회흘, 대식의 반격으로 고전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미르고원 일대의 우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100여 년간 텐산남북로를 지배하였다. 또한 토번은 칭하이를 통해 쓰촨과 구이저우[貴州]로 진출하여 중국 내지를 공략하고는 했다. 당번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윈난은 서북향으로 직진하면 토번의 정치중심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대군을 주둔시켜 방어하는 곳이다. 그러나 토번 입장에서 윈난 진출은 쉽지 않았는데 리장[麗江]을 넘어서면 기후가 고온다습으로 변하여 한랭 건조한 기후에 익숙한 토번인들이 장기 거주하기에는 불리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남조는 당의 적극적인 구애의 대상이 되었으며 토번을 통어하는 전략적 기지로 이용되고는 했다. 린관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천인책이 제기한 민족 간 상호 연관성의 배후에는 이러한 지리적 형세와 자연환경이 지배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³⁰

당조와 토번 간 관계 형성의 원인을 근원적인 지리환경적 요인에서 찾는 연구 가운데 스웨이[石碩]는 좀 더 환경 중심적인 시각을 통해서 ‘지리적 요

30 林冠群(1991), 「由地理環境論析唐代吐蕃向外發展與對外關係」, 『唐代文化研討會論文集』, 臺北: 文史哲出版社.

인'이 토번 문명의 발전방향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토번 문명의 장기적인 동향(東向) 발전의 궤적을 ① 토번이 세력 확대를 위해 수행한 전쟁 대다수가 동쪽의 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전쟁 결과 당이 서부 영토를 포기하면서, 토번의 판도가 현재 칭하이 성[青海省], 간쑤 성[甘肅省] 대부분 지역과 산시 서부, 천서고원, 윈난 서북고원지대에까지 이르게 된 점, ③ 당번 간의 사신왕래가 무려 29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확인하였다. 송대 들어서 차마무역을 통해 중원과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는 점 역시 향후 토번 문명의 동향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했다. 그는 토번이 일시적으로 다방향적 발전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그 궤적이 동향으로 굳어지는 것은 동쪽을 향해 기울어진 지형구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티베트고원은 해발고도 4,500m 이상의 북부고원 지역, 히말라야산맥과 접해 있는 남부의 계곡지대, 그리고 황단산맥과 세강이 합류하는 해발고도 3,500m 이하의 동부협곡지대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지형적 요건을 감안할 때, 동남방 세 강의 하도 연변을 따라 천서(川西)고원과 운귀(雲貴)고원으로 진출하거나 탕구라산맥을 넘어 칭하이로 진출하는 노선이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네팔이나 인도로 진출하거나 쿤룬[崑崙]산맥을 경유하여 서역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여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스쉬는 토번 문명 자체의 '고원적 특성' 역시 동향 발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당대 이래로 토번이 드나들던 간쑤·칭하이지역, 천서지역, 운귀지역은 모두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해당한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랭 건조한 기후에 속하며, 비슷한 생태환경을 가진다. 이에 반해 히말라야를 넘게 되면 아열대 습윤기후라는 완전히 다른 기후대가 나타나며, 토번 서북지역 역시 고원지대라고는 하지만, 협곡과 호소가 많은

뿐만 아니라 아열대에서 스텝(steppe)지대, 사막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명의 탄생과 전개가 자연의 생태환경과 긴밀한 연계를 갖는다는 생태인류학에 의거하여, 토번이 결국 중앙아시아로의 확장을 멈춘 것이 당과 대식세력의 견제와 불편한 교통 탓도 있지만, 결국 기후와 생태환경이라는 근원적인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³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조는 북쪽으로는 당, 서쪽으로는 토번과 인접하고 있다. 당번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조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지역 내에서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당과 토번은 남조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당·토번·남조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시로 부침을 겪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자오루[趙櫓]는 『구당서(舊唐書)』 「남만전(南蠻傳)」에 기재된 ‘남조북신토번(南詔北臣吐蕃)’ 기사를 기타 문헌자료와 남조덕화비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남조와 토번관계는 몽사조(蒙舍詔) 이래 점진적으로 진전되다가 현종대에 토번의 국력이 급신장하면서 호전된다고 지적했다. 당 정부는 천보(天寶) 9년(750)에 선우중통(鮮于仲通)을 파견해 남조를 공격하는데, 토번이 남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자 천보 11년(752)에 남조는 마침내 신하로서 토번을 받들겠다고 선언하며 반당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결국 토번과 남조 동맹군은 당군을 대파했고, 당번관계의 균형도 토번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다. 이는 토번이 국력을 바탕으로 남조 경내로 부단히 세력을 확장해 온 결과이자 당이 내리막길을 걷는 현실의 세력변화가 그대로 반영

31 石碩(1992), 「論地緣因所在吐蕃文明東向發展過程中的作用」, 『西藏研究』 1期.

된 것으로, 결국 국제질서도 현실에 따라 좌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³²

당대 후반기의 국제질서 역시 리다룽이 ‘번속체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원왕조를 중심으로 번속체제가 형성되고 그 외곽에 위치한 주변민족 간에 ‘아번속체제(亞藩屬體制)’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력관계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국제관계가 창출되고 있었던 것이다.³³ 또한 당대 국제질서가 안사의 난으로 인해 와해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변화의 단초가 보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 추이밍더[崔明德]는 당과 토번, 남조의 관계를 비교사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중원문명에 대한 태도와 흡수방식, 외교사절 파견의 동기와 특징, 당의 책봉(冊封)과 회맹에 임하는 태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당-토번, 당-남조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³⁴

최근 발표된 논문 가운데는 다양한 출처자료를 활용하여 서역에서 토번 세력에 의해 축출되는 당군의 최후 활동을 세밀하게 그려낸 천귀찬[陳國樑]의 노작이 주목된다. 천귀찬은 투루판[吐魯番] 아스타나[阿斯塔那]고분의 출토문서와 기타 문헌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토번의 침략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이주(伊州) 등 2정4진(二庭四鎮)이 함락해 가는 과정과 연대를 면밀하게 고증하였다. 당시 토번의 주력부대는 허시지역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진군한 뒤 사주(沙州)를 함락시켰고, 이주를 점령한 뒤 다시 북정과 서주(西州)를 차례로 점령했다. 서주 점령시기는 대략 정원 8년 전후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 소장의 투루판문서와 일부 둔황문서를 활용하여 토번군이 서주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서도호부, 즉 사진

32 趙櫓(1990), 「南詔北臣吐蕃發微」, 『西藏研究』 4期.

33 李大龍(2006), 앞의 책.

34 崔明德(1993), 「吐蕃, 南詔與唐朝關係之比較」, 『煙台大學學報』.

절도사(四鎮節度使)의 관아 소재지를 공격했지만, 방어하던 당군들이 서쪽으로 90km 떨어진 극자이(克孜爾)지역까지 철수함으로써 정원 11년(795)까지 항전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고 이 지역에서의 당군의 마지막 활동상을 복원해냈다.³⁵

두 번째로 당번관계에서 주목되는 현안은 위구르와 마찬가지로 ‘화친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양측의 무력충돌이 잦았던 만큼 문성공주나 금성공주의 화친이 양국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해 준다. 이와 관련해 런위차이(任育才)는 토번에 대한 화친책략의 배경과 운용실태, 그 효과 등에 대해 개략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당조가 화친정책을 채택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침략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민족을 역내 기미정책의 수행에 활용하여 여타 주변민족을 통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화친정책 후에도 수시로 침략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일정 정도 견제의 역할은 했지만 양국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화친정책은 외교적인 목적 외에 양국 간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데 토번은 당조의 궁실건축을 모방하였고 불교를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법률과 문학을 받아들여 토번의 문화수준이 한 단계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토번은 점차 중국 문화의 흡수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³⁶

마다정(馬大正)은 650~820년까지의 전반적인 당번관계를 다루면서 편폭을 할애하여 해당시기 당번 간의 화친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했는데, 런위차이와 마찬가지로 문성공주나 금성공주 화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한계가

35 陳國燦(1996), 「安史亂後的唐二庭四鎮」, 『唐研究』 2卷.

36 任育才(1987), 「唐朝對吐蕃和親策略之運用」, 『國立臺灣師範大學歷史學報』 15期.

있었음을 지적하였다.³⁷ 이 밖에 문성공주³⁸와 금성공주³⁹ 화친을 분리하여 양국 외교와 문화교류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적지 않다. 현지답사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당번고도(唐蕃古道)의 노선을 복원하고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 글,⁴⁰ 그리고 두 공주의 입장노선(入藏路線)을 추정한 ‘교통로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⁴¹ 문성공주 화친과 관련하여 『구당서』 「토번전」에 보이는 손철훈감과 문성공주의 혼례의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당시 혼례는 이도종(李道宗)의 주재 하에 공주의 불당(佛堂)에서 당식(唐式) 의례규정에 따라 거행되었는데, 손철훈감이 당의 복식과 의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⁴² 이와 더불어 문성공주의 화친이 중국식 불교의 토번 전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당번회맹(唐蕃會盟)’에 관한 내용도 당대 후반기 당번관계 연구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가운데 회맹비문자료를 집록한 기초연구로 왕야오(王堯)의 『토번금석록(吐蕃金石錄)』을 들 수 있다.⁴³ 이 책은 비각(碑刻) 10건, 종명(鐘銘) 3건 등 지금까지 발견된 토번시기의 모든 금석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것이 ‘당번회맹비(唐蕃會盟碑)’로서 아시아 최고의 금석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책은 비문의 원문에 해제와 고석(考釋)을 달아놓았을 뿐 아니라, 티베트

37 馬大正(1989), 「公元650年至唐820年朝的對唐蕃關係」, 『民族研究』.

38 馬元(1980), 「文成公主與漢藏友誼」, 『民族研究』 [馬元(1960. 3), 「文成公主與漢藏關係」, 『思想戰線』].

39 何耀華(1998), 「論金城公主入藏」, 『雲南社會科學』.

40 陳小平(1990), 『唐蕃古道』, 三秦出版社.

41 董顯明(1980), 「文成公主入藏路線初探」, 『西北民族學院學報』.

42 王小甫(1999b), 「文成公主與松贊干布」, 『中華文明之光』 2,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43 王堯(1982), 『吐蕃金石錄』, 北京: 文物出版社.

어 비문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놓아 이용에 편리하다.

당과 토번 사이에는 전쟁중지와 영토분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맹이, 706년 신룡회맹(新龍會盟)부터 822년 장경회맹(長慶會盟)에 이르기까지 8~10차례 체결되는데, 이는 외교사절이 부단히 오가는 가운데 영토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그치지 않았음을 암시해 준다. 마다정은 이와 관련된 통시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 태종과 손채감포 사후 650년부터 820년까지 170여 년간에 걸쳐 토욕혼(土谷渾), 안서 4진, 남조, 하룽지역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쌍방 간의 치열한 쟁탈전과 화친과 회맹 성립의 복잡한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를 시도하였다.⁴⁴ 탄리런(譚立人)은 당조와 토번 간 회맹 사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회맹이 기존의 일반적인 학설인 8차가 아니라 9차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밝혀내고 그 가운데 두 차례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여섯 차례의 회맹은 나름대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얻었음을 밝혀냈다.⁴⁵ 당번 간에 체결된 회맹에 관한 연구 가운데, 좀 더 미시적인 연구사례로는 천난(陳楠)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 체결된 당번 간의 회맹 가운데 양국 간의 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 가장 중요한 회맹으로 손꼽히는 청수회맹(淸水會盟)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청수회맹에서 획정한 변계는 향후 장경회맹의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윈난, 쓰촨, 칭하이, 간쑤 등 티베트인들의 거주 지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⁴⁶

개별적인 회맹과 회맹비문에 관한 미시적 연구뿐 아니라 이를 남조, 회흘 등 국제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44 馬大正(1989), 앞의 글.

45 譚立人(1988), 「有關唐蕃會盟史實的幾個問題」, 『中國史研究』.

46 陳楠(1999), 「論唐蕃淸水會盟」, 『長沙叢考』, 民族出版社.

대부분의 회맹에서 양측이 서로를 ‘대당(大唐)’, ‘대번(大蕃)’으로 존칭하고 있고, ‘번한양방(蕃漢兩邦)’ 등 어휘에 보이듯이 서로 동등하게 호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회맹비문을 위시한 비문자료뿐 아니라 티베트 측 자료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이 시기 국제관계의 세밀한 변화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언어, 문자, 기타 문물 등 문화적 요소의 상호교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나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일찍이 왕충[王忠]이 당대에 있어서 한족과 티베트족 간의 경제문화교류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시도한 바 있다.⁴⁷ 차이랑자[才讓加]는 토번의 생산력 발전상황을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조 사이에 전개된 무역을 ‘본토와 내지무역’이라는 명목하에 조공(朝貢), 제증(饋贈), 채구(採購), 여상(旅商)과 호시무역(互市貿易)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대식, 인도, 네팔 등 기타 지역과 전개된 무역은 ‘대외무역’으로 개별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인데, 원사료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당무역을 임의적으로 국내무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에서 198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 과급되기 시작한 ‘대중화민족주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⁴⁸ 리윈스[李文實]는 당조와 토번 양국관계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호관계가 주류라면서 이런 관계가 결국 동서문화교류에도 공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⁴⁹ 토번과 회골 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스양(石羊)과 명심(明暉)은 회골과 토번 간에는 수시로 교전과 동맹이 교차되었지만 접촉면이 많은 만큼 쌍방 간의 문화교류는 의도를 불문하고 단속적으로 전개되었는

47 王忠(1965), 「唐代漢藏兩族人民的經濟文化交流」, 『歷史研究』.

48 才讓加(1989), 「吐蕃時期貿易經濟概論」, 『西藏研究』 2期.

49 李文實(1987), 「中國歷史上唐與吐蕃的關係」, 『唐史論叢』 3, 陝西人民出版社.

데, 특히 언어와 문자, 종교 등의 영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문화의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고 설명하였다.⁵⁰

3. 당과 거란관계

당과 거란 사이의 관계사 연구는 먼저 ‘당과 거란의 초기 분쟁에 대한 원인분석’에 관한 논문, ‘당과 거란관계를 신라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논문’, ‘당의 대거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접근한 논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추이밍더는 당과 거란 간에 교전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당의 민족정책 실패로 간주한 바 있다.⁵¹ 이에 반해 왕청귀[王成國]는 거란에 대한 당조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 정책 자체보다는 운용의 측면을 주시했는데, 당의 정치적인 부패와 민족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이 누적되면서 당조와 거란 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⁵²

청니나[程尼娜] 역시 거란과 해인(奚人)에 대한 당조의 기미정책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당정부는 랴오둥[遼東] 일대에 송막도독부(松漠都督府)와 요락도독부(饒樂都督府) 등 기미부주(靺鞨府州)를 설치하고 거란과 해인의 군장들을 도독에 책봉함으로써 자율적 통치를 인정했지만 영주도독부(營州都督府)와 동이도호부(東夷都護府), 평로절도사(平盧節度使) 등을 통해 엄중한 통제책을 병행하여 이반을 방지해 왔다. 그러나 결국 일부 지방

50 石羊·明星(1994), 「回鶻與吐蕃的文化連繫述論」, 『西北民族學院學報』.

51 崔明德(1991a), 「唐與契丹戰爭起因新探」, 『社會科學輯刊』.

52 王成國(1992), 「小議唐對契丹的政策」, 『社會科學輯刊』.

관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무측천(武則天)과 현종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반당전쟁(反唐戰爭)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정부는 숙위제도(宿衛制度)를 실시하고 송막과 랴오둥에 당군을 직접 주둔시키거나, 당 황실과 이 지역 상층계층의 전략적 혼인을 강화하는 화친정책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도 했다. 청나라의 기술 중 당조가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이 향후 거란과 해인들에게 선진문명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락연맹단계에서 봉건사회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당대 후반기 이후 변진이 할거하면서 거란과 해(奚)가 당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만, 이들의 관념 속에 이미 중원에 대한 강력한 구심력이 형성되어 이로 인해 고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루게 되었다고 결론을 맺는 부분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영향을 그대로 드러낸다.⁵³

거란과 신라의 대당관계사를 비교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추이밍더는 거란과 신라가 당조와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국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문명화 정도와 사회형태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⁵⁴ 왕진허우(王錦厚)는 당 말 거란의 랴오둥 진출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당나라의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과 안사의 난으로 인해 랴오둥지역이 무주공산으로 변한 것이 거란의 랴오둥 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⁵⁵

양샤오옌(楊曉燕)은 당대에 있어서 다민족이 공존하던 평로군과 환발해지역의 종족별 지형과 문화적 특색을 살펴보고, 해와 거란 등 동북민족의 세력변화와 평로진 방어태세의 연동성을 주목하였다. 평로진이 위치한 영주

53 程尼娜(2002), 「論唐代中央政府對契丹, 奚人地區的羈縻統治」,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6期.

54 崔明德(1991b), 「契丹, 新羅與唐朝關係之比較研究」, 『煙台師範學院學報』.

55 王錦厚(1993), 「唐末契丹進入遼東的歷史考察」, 『社會科學輯刊』.

는 동북민족들이 남하할 때 반드시 경유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개원연간에 해와 거란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런 측면에서 평로진의 남천과 조직개편은 동북민족의 활동과 환발해지역 내부의 종족환경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는 당대 세외민족이 중원을 향해 남하하는 것을 위진남북조 이래 호족(胡族)의 중원진출이라는 대추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물론 평로군 자체도 종족적 구성과 사병들의 습속 등에서 환발해지역 문화의 강한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⁶

다음으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당 말·오대시기 중국 왕조와의 관계사에 관한 부분이다. 거란은 이진충, 손만영이 영주를 점령할 때부터 이미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천보연간에는 장수규와 안녹산이 수차례 원정에 실패할 정도로 강력한 무력을 자랑하였다. 심지어 안녹산의 반란이 거란 원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배후세력을 제거하고 전국적 반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일컬을 정도로 거란의 군사력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야율덕광(耶律德光)시기에 이르면 남진정책을 쓰면서 중국과의 접촉이 본격화된다. 중국과 거란의 초기관계에 대해 많이 연구된 부분은 태원절도사 석경당이 후당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연운 16주를 할양해 주는 부분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석경당이 매년 공백(貢帛) 30만 필을 바치고 ‘아황제(兒皇帝)’를 칭하면서,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송대 이후 북방민족과 한족 왕조와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오대시기 거란과 삼국의 관계 연구도 진척되고 있는데, ‘남당(南唐)과 거란의 사신교류와 그 목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73년 장쑤 성(江蘇省) 난통 시(南通市) 인근에서

56 楊曉燕(2003), 「唐代平盧軍與環渤海地域」,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北京大學盛唐研究叢書), 上海:上海辭書出版社.

발견된 요자(遼瓷)를 중심으로 남당과 요나라 간의 경제외교관계도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에 위치했던 ‘민국(閩國)과 거란 사이의 통빈(通賓)관계와 말무역’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요와 오월(吳越)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오월의 영역인 저장 성(浙江省) 의조현(義烏縣) 진여사비(眞如寺碑)에서 “회동10년건(會同十年建)”이라는 요의 연호가 새겨진 점에 착안하여 오월이 요의 정사를 받들었음을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정통론에 집착한 사료 중심 연구의 한계를 노정(露呈)해 주는 것이자, ‘전연지맹’을 중심으로 한족 왕조와 북방민족 간의 외교적 위상변화가 당 말·오대 이래 조공질서의 붕괴와 더불어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IV. 맺음말

당대에는 고대제국과의 연속성이 드러나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질적·구조적 변화가 배태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한족과 북방민족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중원왕조 중심의 책봉질서가 와해되고 당의 내정에 일부 북방민족들이 개입하면서 사회경제뿐 아니라 당조의 멸망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북방민족과의 관계 역시 서북 중심에서 점차 동북 중심으로 전이된다. 또한 송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상에 발생하는 중대한 지각변동의 단초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학자들의 당대 후반기 한족과 북방민족관계사 연구에서 주변민족들의 성쇠와 당대사의 전개를 다원적 상호 연동관계로 파악한 천인첸의 ‘연환성’ 개념은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천인첸은 당과 주변민족의 관계에서 이들 민족들이 당과 단선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타민족들과도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당대 국제관계사 연구는 다수 종족 간의 연환성을 통관할 수 있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대 후반기의 사례로 회흘, 토번, 남조 등을 제시하였다. 천인첸의 이론은 향후 왕젠을 거쳐 왕샤오푸에 영향을 미치는 데, 당대 후반기 이후 당과 토번·대식 간의 경쟁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가하고, 당·토번·대식 간의 삼각관계가 기본적으로 정치사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회흘 서천 후(840) 강국경쟁시대가 끝나면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가 이루어지고 투르키스탄 시대가 열린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왕샤오푸의 관점은 1980년대 이후 부상하는 ‘대중화주의적 사관’의 영향으로, 북방민족들을 독립적 정치세력으로 파악하고 각 민족 간의 다원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주문한 천인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토번의 적극적인 서역 진출과 이로 인해 발생한 당번 쟁투에 대하여, 조국의 대가정 내에서 발생한 민족 간의 경쟁이 휘황찬란한 역사문화를 창조했다는 식의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관점은 리다룽 등의 ‘번속체제’라는 용어를 통해 더욱 정제된 이론으로 발전한다. 리다룽은 한족 왕조와 주변민족의 관계를 ‘번속관계’로 규정하고 쌍방 간의 지속적인 융화로 중국의 강역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다민족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정치적 의도가 강하고 종족문제에서도 일관되게 구심력만을 강조하다보니, 개별민족들의 존재의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위상과 역할이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 머무르는 모순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대 후반기 한족과 여러 북방민족 간의 개별적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을 당과 회흘, 토번, 거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당과 이들 주변민족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지리·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개괄적인 접근 외에, 당시 국제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는 ‘화친정책’이나 ‘회맹’, ‘세폐문제(견마무역)’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개별사안 역시 1980년대 이후에는 ‘번속체제’ 같은 중원왕조 중심의 중국적 이론자대로 일괄 적용하다보니 이러한 현안 속에 반영된 실질적인 질서관계가 무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에서의 오대 왕조와 거란의 관계사 연구동향

조복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II. 2000년 이전의 관계사 연구동향

III. 2000년 이후의 관계사 연구동향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대십국(五代十國)시기에 중원의 오대(五代) 왕조는 후당(後唐)의 이극용(李克用)과 후진(後晉)의 석경당(石敬瑭), 후한(後漢)의 유지원(劉知遠) 등이 모두 사타족(沙陀族) 돌궐(突厥) 출신이고 북한(北漢) 또한 사타족의 정권이기 때문에 한족(漢族)의 정권이라고 한다면 남당(南唐)과 오월(吳越) 등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대 왕조와 거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면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가 아닌 이민족 정권 사이의 관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당(漢唐)과 같은 통일국가시대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주장하고, 위진(魏晉)과 수당(隋唐)이나 오대십국과 같은 분열기에는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대시기의 이러한 이민족 사이의 관계를 중원왕조와 북방 유목민족의 관계로 보아서 역시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오대의 왕조 가운데는 한족 왕조도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민족 사이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적으로 낙후된 변방의 민족들이 중원국가와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통하여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송(宋) 왕조 역시 수당과 송원명청으로 이어지는 통일왕조의 계보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요조(遼朝)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북조(南北朝)시대로 보이기도 하고, 서하(西夏)까지 고려하면 삼국시대와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서남부의 대리

(大理)까지 고려하면 역시 분열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송사(大宋史)’라는 개념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근년에 어느 중국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근년 이래로 중국의 학술계에서는 중국 동북사(東北史)의 연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흡족한 수준의 성과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주변의 동북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도 분분하게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중국의 동북사는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과제이다”¹라고 하였듯이 학문 연구 이외에 별도의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전제성과 실증성 및 미관성의 구체적인 사실의 연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을 자평하면서 종변(宗蕃)문제나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대거나 고대 동북의 역사적 지위 등 이론문제에 대해서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도 지적하였듯이 오대시기에 북방민족과의 관계사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은 전문적이면서 미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많고, 아직 이론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연구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관심을 가진 독자나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대십국과 거란의 관계에 대한 논저 약 30여 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겠다.

1 王景澤·高福順(2008), 「中國東北史研究面臨著理論考驗」, 『北華大學學報』 4期.

II. 2000년 이전의 관계사 연구동향

오대 왕조와 거란의 관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구는 타이완(臺灣)의 야오쥔우(姚從吾)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² 요대(遼代)의 역사에 대해서 10강으로 구성된 강의 노트의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그중 1강 “거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중원을 남침하여 한화(漢化)를 시행하고 동쪽으로 발해(渤海)를 멸망시키다”, 2강 “야율덕광(耶律德光): 그가 선택되어 계위(繼位)하여, 그가 후진을 후원하고 후진을 멸망시킨 것과 요 왕조를 건립하다”는 부분이 오대의 중원왕조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목에서 보아 이렇듯이 ‘침략’이나 ‘남침’ 혹은 ‘잠식’ 등의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비교적 초기의 연구성과로서, 야오쥔우는 거란이 중원으로 남하하는 정책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고 하였다.³

중국대륙에서는 장정밍(張正明)이 1979년에 『거란사략(契丹史略)』⁴을 출판

² 姚從吾(1971), 『姚從吾先生全集』(2), 遼金史講義, 正中書局.

³ 이후로 臺灣學界에서 나온 오대시기 중원과 거란의 관계사 방면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국대륙의 연구성과를 위주로 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詳述하지 않겠다. 邢義田(1971), 「契丹與五代政權更迭之關係」, 『食貨月刊』復刊 卷1 6期; 蔣武雄(1995), 「遼太祖與五代前期政權轉移的關係」, 『東吳歷史學報』創刊號; 蔣武雄(1996), 「遼與後漢建國的關係」, 『東吳歷史學報』2期; 蔣武雄(1997), 「遼與北漢興亡的關係—兼論遼與後漢、後周政權轉移的間接關係」, 『東吳歷史學報』3期; 蔣武雄(1998), 「遼與後晉興亡關係始末」, 『東吳歷史學報』4期; 蔣武雄(2000), 「遼與後梁外交幾個問題的探討」, 『東吳歷史學報』5期; 蔣武雄(2000), 「遼與後唐外交幾個問題的探討」, 『東吳歷史學報』6期; 蔣武雄(1996), 「遼與後晉外交幾個問題的探討」, 『空大人文學報』9期; 王吉林(1966), 「契丹與南宋外交關係之探討」, 『幼獅學報』卷5 2期; 王吉林(1974), 「遼太宗之中原經營與石晉興亡」, 『中國歷史學會史學集刊』6期.

⁴ 張正明(1979), 『契丹史略』, 中華書局.

하였는데,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2장 “거란의 발흥(勃興) 및 요 왕조의 창립과 발전”이라는 주제 중 제4절에 해당하는 “요조와 중원왕조의 관계”의 첫 부분에서 거란과 후당, 후진, 후한, 후주(後周)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 6쪽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란은 오대 초기에 중원의 번진(藩鎮)들이 한창 혼전을 벌일 때 요수(遼水)의 상류에서 발흥하였다. 요 왕조는 거란 귀족을 위주로 하여 연운(燕雲)지역의 한족 출신 호강지주 및 해(奚)나 발해(渤海)의 귀족들과 함께 구성한 봉건국가이다. 요 왕조는 대체적으로 오대와 비슷하게 시작하여 북송과 비슷한 시기에 멸망하였는데, 거란은 오대나 북송과 여러 방면으로 연계되어 그들은 상호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장기간에 걸친 평화적 왕래도 있어서 요 왕조는 일정 정도 당시의 중원왕조들의 흥망성쇠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1984년에 출판된 『요사고(遼史稿)』⁵는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야율아보기 이전의 거란 역사이고, 제4장에서는 야율아보기와 야율덕광 시기의 거란의 역사에 관해서 서술하면서, 제7절에서는 이 시기 중원의 황조 및 중원지역의 일부 봉건할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목에서 ‘황조(皇朝)’라고 하는 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한족 중심의 서술 태도를 보이면서 주장하기를 “각종 문헌에서 오월에서는 요 왕조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는 ‘내공(來貢)’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남당(南唐)은 중원의 왕조에게 조공을 하고, 거란과는 교방하였다”고 하였다. 상호 간에 상대방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방문하거나 물품을 선물하는 것을 ‘내조(來朝)’ 혹은 ‘내공(來貢)’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후진이 요 왕조에 사자를 보내서 공경을 표시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평등한 관계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란의 통치자들이 남당의 통치자에게 많은 수의 말과 양을 선물했던

5 舒焚(1984), 『遼史稿』, 湖北人民出版社.

것은 경제적 교류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각종 통사류나 개설서에서는 이 시기의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적·군사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뿐 깊이 있는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 통사류(通史類)의 하나로서 1994년에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중국통사(中國通史)』⁶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중국통사』 전체 10책 가운데 3책이 오대십국에 관한 내용인데, 3개의 절로 나누어 “중원을 점거한 5개의 작은 조정(朝廷)”, “중원을 둘러싼 10개의 소국”, “오대십국의 경제상황”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6책은 요, 서하, 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야율덕광의 행적을 소개하는 소제목에 “요 태조의 계속된 남침과 인민들의 반항” 또는 “요 왕조의 암울한 통치”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민족 간의 교류나 융합과 같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몇 편의 논저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천수(陳述)이다. 그는 『거란정치사고(契丹政治史稿)』⁷에서 거란의 요가 국내외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조정의 방침과 정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거란 정권 내부의 발전에 치중하는 동시에 거란과 중원의 관계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의 분량은 총 188쪽으로, 전체 내용은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 거란이 중국 역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제2편 : 거란민족의 구성

6 蔡美彪等著(1994), 『中國通史』(全10冊), 人民出版社.

7 陳述(1986), 『契丹政治史稿』, 人民出版社.

제3편 : 초기전설의 해석과 대하요런질자(大賀遙輦迭刺)의 유래

제4편 : 선한(選汗) 대화와 제위의 계승

제5편 : 야율아보기가 건국하는 기본적인 정황과 그 정책

제6편 : 통치정책의 변화와 한인 지위의 제고

제7편 : 요대 당쟁의 기복과 북료(北遼) 및 서료(西遼)

제8편 : 요대 멸망 이후의 거란인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거란이 중국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거란은 중국 북방의 초원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민족의 하나로 동호(東胡)에서 기원한다. 야율아보기의 건국은 거란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고, 하나의 분기점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건국 이전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해나 실위(室韋)와 함께 전진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부락 간의 차별을 없애고 공통점을 가지고 날로 결집하여 더욱 많은 공동체의 조건을 형성하였고, 요가 멸망하면서 각자의 계급적 성분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거란이 멸망한 후에 다른 민족과 융합한 내용이다. 아주 많은 거란인은 통치집단의 내외를 포함하여 각각 다른 역사 시기에 각기 다른 조건하에서 이미 한족에 융합되었다. 많은 수의 거란인은 칭기즈칸 시기부터 청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몽골인에 융합되기도 하고, 위구르족이나 카자흐족에 융합되기도 하였으며 거란이라는 명칭을 보유한 자들도 있었다. 당연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진족에 융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란인들의 일부는 몽골 건립 초기에 몽골에 투항하여 고려에서의 전쟁에 참가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조선인(朝鮮人)이 되기도 하였다.

거란은 근면하고 용감한 유목민족이면서 지혜롭고 정치적인 재능이 있는 민족이다. 건국하는 기간에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문물을 배우고 전통을 보존한다는 정신을 서로 결합하여 한편으로는 중원의 문화를 흡수하고 한편으로는 북방 초원의 전통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변한(蕃漢)이 결합하고 남북 간에 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 중국의 통일에 유익한 필요조건을 제공하였다.

거란의 조정은 노예주와 지주의 이익을 대표하며 내부의 정책은 ‘풍속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방침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처리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부분은 모두 생산의 대열에 조직되어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변영을 촉진하여 중국의 초원지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거란의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는 중국의 각 민족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수족처럼 서로 의지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분화와 동화의 과정에서 상호 공통적인 성분과 불가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민족들이 건립한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전체 중국의 부분이며 동시에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어떠한 구실이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분립된 정권을 가지고 분열을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역사적인 실체에 위배된다.

『거란정치사고』는 1986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 많이 논의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저술된 성격이 매우 명확하다. 특히 거란인들이 이후의 역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몽골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나아가 만주족과 조선인이 되기까지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중국 내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화주의에 적용하면 심지어 한국까지 ‘중화대가정(中華大家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김위현은 문헌 기록에 입각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요대의 고려 경내의 거란인 집단에 대해서 서술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현종(顯宗) 이후로 거란인 투항자와 전쟁포로가 증가하여 고려 경내에 거란인이 수만 명에 달하였다. 금대(金代) 말기에 거란의 잔여세력이 금 왕조의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강동성(江東城)에 들어가 주둔하였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이때 얻은 포로들을 각 도의 주현에 거주하게 하여 고려 경내에 사실상 적지 않은 거란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투항자들은 신분이 대부분 일반 백성이고 소단위였으며, 고려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는 하지 않고 다만 강남 및 영남 일대에 분치하여 하호(下戶)에 편입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거란인들은 불경이나 수공업 기술 및 각종 풍속과 습관을 전파하여 고려에 다소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그러나 천수는 거란이 멸망한 이후, 몽골군이 되어 고려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고려에 남아서 정착한 거란인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러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단히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있다면 실제로 구체적인 통계나 정황을 언급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96년에 출판된 『요금간사(遼金簡史)』⁹는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된 가운데, 1장부터 6장이 요 왕조에 해당된다. 그중 제2장 “요대 전기의 통치”에서 거란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의 요대나 고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요대 초기에 거란은 빈번하게 남하하여 인구를 노략질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한족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서술하

8 김渭顯(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161~171쪽.

9 李桂芝(1996), 『遼金簡史』, 福建人民出版社.

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연운 16주의 점령에 대해서는 넓은 농업지역을 점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란 경제의 번영과 발전 및 국력의 증강을 대대적으로 촉진하게 되었고, 많은 한인이 거란의 통치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중원지역의 주현으로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와 중원지역의 선진적인 문화가 거란의 귀족들과 거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한편 양수선(楊樹森)은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에서 요 왕조가 오대 및 북송과 수행했던 전쟁의 성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⁰ 전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진한(秦漢) 이후로 하나로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비록 그 사이에 분열이 있기도 하였지만 북송이 분열되어서 할거하던 국면을 종식시켜서 분열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도기로서 중국의 역사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일찍이 북송이 할거하던 국면을 종식시키고, 요 왕조가 중국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광대한 북방을 통일하였는데, 그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사가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거란이 오대 및 북송과의 전쟁을 분석할 때에는 다민족국가라는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당시 전국의 전체적인 투쟁의 형세와 변화를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거란이 중원의 국가들과 수행했던 전쟁을 후주의 건립을 경계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즉 후주 건립 이전에는 거란이 오대시기에 중원에 대해서 수행

10 楊樹森(1986), 「略論遼與五代, 北宋戰爭的性質」, 『社會科學戰線』1期.

하였던 전쟁은 약탈적인 성격이고, 대부분은 할거 전쟁의 범위에 속한
다는 것이며 후주 건립 이후에 북송과 치렀던 전쟁은 통일전쟁의 계속
이다.

양수선 논문의 시간적 서술범위는 당대 말기부터 1004년의 ‘전연지맹(澶淵之盟)’까지인데, 논문의 말미에서 ‘전연지맹’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요와 송
쌍방은 개봉 북쪽의 전주(澶州)에서 대전을 벌였다. 북송 군민의 타격에 따
라서 요군은 패전하였고 결과적으로 승부를 가를 수 없어서 쌍방은 ‘전연
지맹’을 체결하였고 요 왕조는 급히 이 전쟁을 종결지었다. 양수선은 더욱
이 전연의 전쟁 또한 요 왕조가 송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할 만한 역
량이 없었다는 근거로써 설명한다. ‘전연지맹’은 요와 송 쌍방의 역량이 비
슷하다는 형세에 따른 산물이다. 이후에 요와 송은 정식으로 남북이 대치
하는 국면을 형성하여 대략 100여 년 동안 쌍방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발
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필자는 ‘북송 군민의 타격’과 같은 용어들을 보면
여전히 한쪽 중심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다.
1986년에 발표된 이 논문의 서술 방식은 현재 중국에서 ‘전연지맹’까지도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시킨 전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다.

오대시기에 중원을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중원지역
은 여러 차례 병변과 하극상이 발생하여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반면에 거란
의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 사람이 바로 석경당(石敬瑭)으로 그가 거란에 연주 16주를 할양한
것에 대하여 중국의 역사에서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정쉐멍(鄭學稼)은 「관어석경당평가적기개문제(關於石敬瑭評價的幾個

問題」¹¹라는 논문에서 “석경당은 역대 이래로 견책을 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견도 없다. 그에 대한 평가는 주로 ‘아황제(兒皇帝)’라고 자칭한 점과 연운 16주를 할양했다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굴욕적이고 염치가 없으며 비열하다고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연운 16주의 백성들과 토지를 팔아먹어서 북방의 광대한 지역이 ‘외족(外族)’의 통치를 받게 하였으며, 이후에 송과 요가 충돌하는 근원이 되어 민족 간의 모순을 격화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석경당은 당연히 대단히 중대한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한 후에, 그에 부연하여 첫째로 아황제·질황제(侄皇帝)·손황제(孫皇帝)와 같은 용어를 당시 소수민족의 사회제도와 습속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봉건적인 정치나 윤리 도덕관념에서 대처한 것이고, 둘째로 국내의 민족 모순과 국외의 민족 모순의 경계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셋째로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 공적보다 과실이 클 때 그의 공적은 마땅히 부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석경당의 공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첫째, 정치적으로 후당 명종(明宗) 때의 각종 제도를 회복하고 특히 관리의 선발을 중시하고 형벌을 관대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수취를 경감시키고 생산을 회복시켰다. 셋째, 잠시이기는 하지만 비단길을 소통시켰다고 하면서 석경당이라는 인물은 거란과 결탁하는 매우 명예롭지 못한 일을 범했지만 내정에서는 자못 긍정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슈원(張秀文)은 거란이 연운 16주의 통제권을 점유하는 과정에

11 鄭學稼(1983), 「關於石敬瑭評價的幾個問題」, 『廈門大學學報』 1期.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¹² 이 논문에서는 거란이 연운 16주를 점령하는 과정을 총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째는 평주(平州), 난주(瀋州), 영주(營州)를 침범하여 점령하는 단계이다. 야율아보기 시기에 거란의 세력이 점차로 강성해지는 가운데 연주지역에서 할거하던 유인공(劉仁恭)과 유수광(劉守光) 부자는 계속해서 ‘관외(關外)’를 소황(燒荒)하는 정책과 변방의 수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거란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거란은 여러 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연해의 거점인 평주, 난주, 영주를 점령하였고, 유수광은 산시[山西]지역에서 진군(晉軍)의 공격을 받아 거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913년에 멸망할 때까지 연주지역에서 할거하였다.

둘째는 주덕위(周德威)가 거란의 침략에 대항했던 시기이다. 주덕위는 삭주(朔州)에서 출생하여 이극용(李克用)의 부장으로 용맹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서 이존욱(李存勗)에 의하여 진왕(晉王)이 되었다. 917년에 신주(新州)의 장수였던 노문진(盧文進)이 절도사 이존구(李存矩)를 죽이고 거란에 투항하자 야율아보기가 노문진을 지원하여 신주를 공격하였다. 주덕위가 신주에서 방어하였지만 패배하였고, 이에 야율아보기와 노문진은 유주(幽州)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 공성전은 장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쌍방의 전투력이 비슷하였지만 끝내는 진군이 유주지역의 수비에 성공하였다.

셋째는 진주(鎮州)를 둘러싼 투쟁의 단계이다. 당시에 진주에서는 장문례(張文禮)가 병변을 일으켜 왕용(王鎔)을 살해하고 유후(留後)가 되었는데, 진의 공격이 두려워 거란에 구원을 요청하고, 정주(定州)에서도 왕처직(王處直)의 양자인 왕도(王都)가 신주방어사로 나갔다가 거란에 투항하여 거란의 군대를 끌어들여 진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921년에 야율아보기

12 張秀文(1999), 「契丹奪取幽雲地區控制權史考」, 『遼寧廣播電視大學學報』 3期.

가 출병하여 남침을 결심하게 되었다. 거란군은 초기에는 승리하다가 망도(望都)에서 진왕 이존옥에게 패배하였다. 왕도는 이존옥에게 투항하였지만 928년에 후당의 시종(時宗)이 왕도의 관직을 박탈하자 다시 거란에 구원을 요청하여 가산(嘉山)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 패배하였다.

넷째는 거란이 연운 16주를 취득하는 단계이다. 933년 후당의 명종이 죽자 이종후(李從厚)가 계위하였으나 명종의 양자인 이종가(李從珂)를 의심하여 공격한 후 패배하고 이종가가 즉위하여 말제(末帝)가 되었다. 거란의 태종 야율덕광은 이러한 중원의 혼란을 이용하여 934년에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황후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하였다. 그리고 936년에 야율덕광은 태원(太原)에서 석경당을 책립하고 국호를 진(晉)으로 하여 후당의 말제 이종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석경당은 승리 후에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매국적인 행위를 시작하였고, 석경당이 연운 16주를 할양해 줌에 따라서 중원지역은 더욱 거센 거란의 위협과 침략을 받게 되었다.

1999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대략 10세기 초기부터 938년의 연운 16주 할양까지 40여 년의 사실을 사료에 입각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였는데, 전통적인 관점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야율덕광을 부황제(父皇帝)로 하면서 많은 물자를 세폐(歲幣)로 보낸 석경당의 행위를 이 논문 발표 이후에 보이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매국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후의 결과도 거란의 ‘위협과 침략’이 증가하게 되었다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 점이 특징이다.

오대시기의 한족과 거란의 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구성과들을 분석하면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시행된 이후 한족과 기타 북방민족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족 간 교류의 발전이나 융합’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거나, 한족과의 평화적인 교빙은 물론, 전쟁이나 약탈까지도 북방민족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에 발생한 전쟁이 인명과 재산을 유린하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상호 간에 대단한 적개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근대에 일본이 우월한 군사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략 반세기 동안 타이완을 강제로 점령하고 통치하였는데, 이를 과연 민족 간의 교류나 융합이라는 비슷한 모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당시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타이완을 정복하면서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수당시기와 오대시기의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이라는 개념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중국에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연구에서는 민족융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와는 다른 서술방식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왕청귀 [王成國]는 「요대민족정책초탐(遼代民族政策初探)」에서 “요 왕조는 비록 발전의 수준이 다르고 발달의 정도가 이전에 당조나 심지어는 같은 시기의 오대와 북송에 비교하여 낙후되었지만 당시의 특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통치적 지위를 차지한 거란족은 자신들의 우세를 이용하여 한족을 포함한 북방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거란이라는 특수한 사회구조에 근거하여 한족이나 발해인들은 통치민족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피통치민족 가운데 한족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방침하에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것은 ① 한족의 전통적인 통치방식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원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이중체제를 제정하였고, ② 성읍을 건축하여 한인들을 거주하게 하였으며, ③ 한족의 봉건적 생산방식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농이공(以農以

工)’의 방침을 제기하여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장려하였다. ④ 한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현제를 실시하고, 봉건적인 조세와 수탈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한족과 거란족의 사회조직과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채택한 임시변통의 조치였다. ⑤ 중원지역을 모방하여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⑥ 문화방면에서는 공자와 유교를 존숭하여 공자의 사당 및 불사와 도관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발해인에 대해서는 과도적인 성격을 가진 동단국(東丹國)을 건설하였고, 발해의 유민들에 대하여 대규모의 사민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사람은 결국 거란의 통치자들이고, 그들의 의도가 거란의 귀족과 아울러 한족 및 발해인의 상층 인사를 포함한 통치계급의 이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정책은 실제로 통치받는 계급과 민족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러한 민족정책에 의존하여 요의 경내에 있는 복잡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압박에 의해서 조성된 민족 간의 긴장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환상을 갖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였다.¹³⁾

여기에서 왕청귀는 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족과 거란족의 관계를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관계, 나아가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분류하면서 낙후된 거란이 선진적인 한족을 몇 가지 정책만으로 잘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복이나 통치라는 용어는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경우에 쌍방 사이에 어떤 교류나 융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경우로 레이자홍[雷家宏]은 「요태조야율아보기대민족융합적공헌

13) 王成國(1987), 「遼代民族政策初探」, 『北方文物』 2期.

(遼太祖耶律阿保機對民族融合的貢獻)¹⁴에서 민족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 “요 태조 야율아보기는 한편으로 요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거란의 봉건화 과정을 촉진시켜서 거란 민족의文明 수준을 제고시키고, 또 한편으로 각 민족 노동 인민들을 단결시켜서 공동으로 조국 북방 변경을 개척하여 민족융합에 탁월하게 공헌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야율아보기가 거란 민족의 문명수준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과 함께 북방을 개척한 것으로 한족과 함께 북방을 개척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야율아보기의 업적은 한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2000년 이전의 논문들에서 말하는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1990년대 들어서 이와 비슷한 주제에 대하여, 쉬쥔에순(徐傑舜)과 루오슈쥔(羅樹傑)은 「송요하금민족정책특점관견(宋遼夏金民族政策特點管見)¹⁵이라는 논문에서 “송요하금시기는 중국의 역사상 동탕과 분열의 시기이고, 그 민족정책은 동화성과 기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송·요·하·금의 민족정책은 어떠한 역사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강성했던 당 왕조가 분열되어 할거하는 오대십국으로 바뀐 후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의 커다란 분열시기로 진입하였으며, 당대에 형성되었던 민족의 분포 구조도 이러한 시기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타돌궐·거란·여진·당항·몽골 등 북방의 유목 소수민족들이 분분하게 중원으로 들어와 거주하면서 할거하는 정권을 수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방의 한족들

14 雷家宏(1989), 「遼太祖耶律阿保機對民族融合的貢獻」, 『華中師範大學學報』 5期.

15 徐傑舜·羅樹傑(1993), 「宋遼夏金民族政策特點管見」, 『黑龍江民族叢刊』 3期.

이 다시 한 번 대규모로 남천함으로써 전란을 피하게 되었다. 동시에 남방의 장족(壯族), 묘족(苗族), 요족(瑤族), 토가족(土家族), 여족(畬族), 이족(黎族) 등 소수민족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민족을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서남부에 위치한 백만(白蠻)의 수령 단사평(段思平) 또한 대리 정권을 건립하였으니 이것이 당시의 민족 환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송·요·서하 및 금 등 여러 민족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① 소수민족의 정권과 한족 정권 사이의 관계가 송·요·서하 및 금 등 여러 민족들의 관계 위주가 되었다. ② 송·요·서하 및 금 등 여러 민족들의 관계 가운데 건립된 송 왕조는 자주 피동적인 지위에 처했다. ③ 한족 군민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은 송과 금 혹은 송과 몽골이 대치하는 시기에 민족관계의 중요한 내용에 하나이다. ④ 남송시기에 한족들이 대규모로 남천하여 한족과 남방의 소수민족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⑤ 한족은 거란이나 당항이나 여진 및 기타의 소수민족들을 동화시켰는데 이는 송·요·서하 및 금 등 여러 민족들의 관계가 발전하였던 중요한 성과이다. ⑥ 이 외에 남송이 건립되자 중원에 거주하던 한족들이 대규모로 남천하였고, 나아가 남천한 한족들이 대량으로 소수민족 지역으로 진입하여 일부분의 남방 소수민족들을 동화시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초에 거란이나 당항 및 여진 등의 민족들이 건립한 정권은 한족 정권과 대치하면서 소수민족의 통치자들이 정복자의 자태로 북송의 영토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최후에는 피정복자의 문명에 정복될 운명을 피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한족에 동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야만적인 정복자들은 항상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민족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명에게 정복된다”는 『마르크스·엔겔스선집』의 말을 인용하면서 송·요·서하·금시기에 중원으로 들어와 점령했던 소수민족들은 위진

남북조시기에 중원으로 진입한 민족들이 시행하였던 한화정책을 기본적으로 큰 차이 없이 시행하였는데, 그것은 한족 사대부들을 임용하고, ‘호한분치(胡漢分治)’를 실행하고, 한족의 문화를 학습하며, 한족의 풍속을 모방하며, 유목 위주에서 농경 위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송·요·서하·금 시기의 소수민족들과 위진남북조시기에 중원으로 들어온 민족 간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송·요·서하·금시기의 소수민족들이 강제로 자기에게 동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강제로 소수민족들이 자기에게 동화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강성했을 때에는 자기를 장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한화정책을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대부분은 거란이나 여진족의 한화에 따라서 함께 한화되었는데 이것이 송·요·서하·금의 민족정책 가운데 동화성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류푸장[劉浦江]도 「시론요조적민족정책(試論遼朝的民族政策)」¹⁶에서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만주족 등 4개의 북방민족은 중원으로 들어와 모두 700여 년 동안 통치했던 이른바 정복왕조들인데, 이러한 북방민족들은 한족들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클수록 격차도 커진다. 그리고 그들에 민족정책의 표현이 적을수록 민족을 경시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바뀌서 말해도 마찬가지인데, 민족융합(주로 북방민족의 한화를 가리킨다)의 정도를 가지고 말하면 심한 정도의 순서가 만주족 → 여진족 → 거란족 → 몽골족의 순서이며, 따라서 민족정책의 개명한 정도도 마땅히 마찬가지로의 순서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거란의 민족정책을 한족과 발해인과 해족(奚族) 등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이 중 한족과의 관계를 보면 요 왕조는 오

16 劉浦江(1999), 「試論遼朝的民族政策」, 『遼金史論』, 遼寧大學出版社.

대 및 북송과 시종 적대하면서 전쟁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커다란 시대적 배경하에서 거란 통치자들의 한인들에 대한 민족 압박정책도 상당히 심각하였다. 요의 통치하에 한족은 크게 두 부류인데, 오대시기에 투항하거나 전쟁포로가 된 사람들과 원래 연운 16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1004년에 전연의 맹약을 체결함으로써 요 왕조의 한인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서 ‘풍속에 따라서 통치’하는 통치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를 여진족과 비교하면, 여진인은 한화가 신속하고도 철저해서 여진의 통치자들이 여진족의 전통과 민족문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여진인들이 앞을 다투어 한족의 성씨로 바꾸고 한족의 복장을 착용하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인들에게 풍속을 고치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는 금조의 통치자들이 민족의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요 왕조는 이와 달라서 거란인들이 진정한 한족 문화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담담하게 ‘풍속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두 논문에서는 모두 민족융합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는 침략과 정복이라는 상호 대립이 강조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역시 교류나 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동화나 한화라고 하는 한족 중심적인 경향이 매우 강조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후자는 민족융합이 한화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서 한화의 정도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장귀칭(張國慶)은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였다는 용어보다는 거란의 황제와 오대 및 북송의 여러 제왕들과의 결의 활동을 통하여 거란이 민족의 번영을 꾀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요대거란황제 여오대, 북송제제왕적결의(遼代契丹皇帝與五代, 北宋諸帝王的結義)」¹⁷라는 논문

17 張國慶(1992), 「遼代契丹皇帝與五代, 北宋諸帝王的結義」, 『史學月刊』 6期.

에서 거란이 오대 및 북송과 대치하는 200여 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평화적으로 왕래하는 기간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왕의 과정에서 거란의 황제들은 오대 초기부터 거란 민족의 전통적·문화적 습속의 영향으로 중원의 오대 각 왕조 및 북송의 여러 황제들과 ‘결의(結義)’를 맺었다. 이른바 결의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친척’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첫 번째는 야율아보기가 905년에 이극용과 형제관계를 맺었는데, 야율아보기는 형제 결의와 같은 사신 왕래와 군사적으로 약탈하는 방법으로 중원의 한족 문화 요소들을 대량으로 흡수하였다. 두 번째는 태종 야율덕광이 후진의 석경당과 부자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후진의 조정에서는 적지 않은 대신들이 이를 치욕으로 여겼고, 석경당의 사후에 그의 아들 석중귀(石重貴)가 계위하고 출제(出帝)가 되어서는 맹약을 파기하였다. 이에 야율덕광은 946년에 군사를 보내서 후진의 수도 카이펑(開封)을 점령하고 후진을 멸망시켰다. 세 번째로 1004년에 북송과 ‘전연지맹’을 맺으면서 요의 성종(聖宗)은 북송의 진종에게 형이라 하고, 진종은 요의 소후(肖后)에게 숙모라고 하면서 결의형제를 맺었다. 진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은 요의 성종에게 숙부라고 칭하였다. 후에 성종이 죽고 흥종(興宗)이 즉위하고, 북송의 인종과 결의형제 관계가 지속되어 이러한 관계는 요와 북송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면서, 장귀청은 이 논문의 곳곳에서 요가 이러한 결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III. 2000년 이후의 관계사 연구동향

쯔궈궈[曾國富]는 중원왕조가 분열과 혼란의 와중에 처해 있던 반면에 거란은 점차로 강성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논오대시기대거란적민족정책(論五代時期對契丹的民族政策)」¹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오대시기에 중원의 봉건왕조가 분열과 내전으로 인해서 점차로 쇠약해지고 북방의 거란은 내부의 통일로 인해서 점차 강대해지면서 전후로 그 주변의 많은 민족과 부락들을 정복하고 아울러 빈번하게 출병, 남하하여 중원을 공략하는 상황하에서 오대의 왕조별로 거란에 대해서 취했던 민족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장 먼저 후량의 주온(朱溫)은 칭제할 때부터 서폐와 의대와 진기한 물품을 가지고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거란을 농락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911년에는 거란에 봉표하고 칭신하면서 거란에 책봉을 구하는 동시에 함께 거병하여 진을 멸하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첫째로 변방 민족의 책봉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거란은 이미 강대한 세력이 되었고, 둘째로 거란은 후량과 후진의 전투가 격렬해져서 국력이 소모되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다. 셋째로 거란의 자제 300명을 경사로 보내는 것은 인질이기 때문에 거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이처럼 후량이 거란을 농락하는 정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후량의 통치자들은 이 정책을 시종 폐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후당의 이존옥은 인친의 방식으로 거란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배후의 압력을 경감시키는 한편 북변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그리

18 曾國富(2001), 「論五代時期對契丹的民族政策」, 『內蒙古社會科學』 2期.

고 명종 이사원(李嗣源)은 거란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거란이 황해(黃海) 이북의 진주, 정주, 유주 등의 3개 주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북변의 방비를 강화하고, 거란의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폐제(廢帝) 이종가가 즉위할 때에 석경당의 세력이 이미 강대해지자 식견이 있는 신료들은 석경당과 화친함으로써 거란이 석경당을 원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지만 추밀직학사 설문우(薛文遇)가 대한족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화친을 반대함으로써 석경당이 거란과 연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후진의 석경당은 거란의 원조를 받아서 후진을 건립한 이후에 거란에 대한 ‘비사후례(卑辭厚禮)’적인 ‘부사(父事)’의 책략을 사용하였는데, 굴욕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것은 곧 이 때문에 거란의 침략이 없었고, 후진은 군사력을 집중시켜서 국내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백성들의 생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대신들은 석경당이 거란을 ‘부사’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석경당의 사후에 양자인 석중귀가 출제가 되어 석경당의 정책을 파기하고 스스로를 준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농민 반란이 발생하고 944년부터 946년까지 거란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한족들이 살육당하고 재물을 착취당했으며, 거란 또한 많은 손실을 입어서 석경당의 정책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한다.

후한은 겨우 4년 정도 지속된 왕조로서 의무절도사(義武節度使) 손방간(孫方簡)을 시켜서 방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북변의 방비가 허술해서 거란이 노략질을 하기는 하였지만 방비를 강화하고, 당시에 거란의 욕욕(兀欲)이 황음무도하여 거란의 노략질이 심각하지는 않았다.

후주는 건립 후 거란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국내 정치의 개혁과 경제 건설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도 거란과 선린

관계를 맺고자 하였고, 거란은 이에 북한과 후주가 적대시하도록 조장하였다. 이에 후주는 점차적으로 북변의 방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959년에는 거란을 공격하여 거란의 많은 수장이 항복하는 상황에서 세종이 갑자기 병사하여 공격 전쟁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오대의 각 왕조들의 거란에 대한 정책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첫째는 국가가 통일되고 부강해야만 변방의 우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민족 사이에 화목한 관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제목이나 서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역시 대한족주의의 관점에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귀푸는 「논오대시기대거란적민족정책(論五代時期對契丹的民族政策)」¹⁹에서 오대시기에 중원과 남방지역은 분열, 할거,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계속된 전쟁으로 한족의 내부적인 모순이 격화되어 한족 봉건왕조의 국력은 매우 쇠약해졌다고 하였다. 북방의 강성한 거란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중원으로 들어와 심각한 변방의 우환을 조성하면서 민족 간의 모순이 첨예해졌다. 서북방의 당항족 등의 민족들도 한편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중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대의 북방민족들은 ① 중원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중원으로 진입하였고, ② 내외우환을 이용하여 거란이 석경당을 도와서 후당을 멸망시키고, ③ 후진과 거란의 관계가 악화되자 거란은 다시금 군사를 돌려서 남하하였고, ④ 거란이 강성한 상황에서 쇠약한 기미를 보이자 후주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였고, ⑤ 북방의 거란이 자주 침범하는 이외에 당항족이 강경하게 저지하는 것

19 曾國富(2008), 「五代時期北方民族關係略論」, 『黑龍江民族叢刊』 3期.

도 중원왕조의 통치자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중원의 통치자들은 ① 변방을 강화하거나, ② 거란의 국력이 쇠약해질 방법을 강구하거나, ③ 화친 우호적인 관계를 건립하거나, ④ 사신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거나, ⑤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나, ⑥ 정치적으로 초무하면서 결합하려는 등의 책략을 사용하여 변방의 안정을 위해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어에서는 오대시기에 북방민족 관계와 민족책략에 대해서 고찰하고 총결해 보면 세 가지의 유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국가가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생산력이 발전되고, 국력이 강성한 것이 변방의 사나운 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중요한 보증 수단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외교관계의 수립과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민족 간 선린관계는 변환의 우환을 제거하는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민족들 사이에 평등과 호혜 및 공동의 변영을 실현해야만 비로소 화목한 민족관계와 확고하고 평화적인 변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오대시기에 중원국가와 북방민족 사이의 정책에 관한 그의 논문은 2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상당부분이 중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언보[管彥波]는 민족융합의 개념과 중국사에서 민족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하여 「중국고대사상적민족융합문제(中國古代史上的民族融合問題)」²⁰라는 논문의 서두에서 “무엇이 민족의 융합이고, 중국의 역사에서 몇 차례나 민족의 융합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과정과 경로와 방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민족의 단결을 강화하며,

20 管彥波(2001), 「中國古代史上的民族融合問題(上)」, 『歷史教學』 8期.

조국의 통일을 확고하게 하며, 사회주의적인 민족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융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첫째는 세계의 어떤 민족이 소멸되는 경로와 방식을 서술할 때 민족융합은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를 건립한 이후에 민족의 특징과 민족 차별이 점차로 소멸되고 민족의 경계가 없는 인류 전체를 형성하는 역사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족융합이 일종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두 개 이상의 민족이 상호 접근하고 영향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서 민족관계를 말할 때는 후자의 민족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중국과 외국의 민족공동체 형성·변화·발전하는 것은 모두 민족융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① 민족이 이주하여 잡거하는 것, ② 경제와 문화를 우호적으로 교류하는 것, ③ 각각의 민족 통치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인민들이 연합하여 투쟁하는 것, ④ 일부 소수민족 통치자들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민족융합의 결과를 가져왔다. ⑤ 민족 간의 전쟁도 민족의 융합에 도움을 준다”는 방식으로 민족융합이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漢)민족은 우월한 자연조건과 안정적인 공동의 지역 그리고 강력한 국가정권과 발달한 사회제도 및 선진적인 경제와 광대한 문화를 보유하여 계속해서 각각의 민족을 응결시키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동시에 한민족은 또한 민족을 융합시키는 커다란 용광로가 되어서 나뭇대로의 독특한 포용성을 가지고 기타의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면서 계속해서 사방으로 확대하여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관엔보는 중국의 역사에서는 선진시기, 위진남북조시기, 요송하금원시기, 청대 등의 네 차례에 걸쳐서 민족의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력한 통일왕조가 건립되었을 때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강조하고 분열시기에는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는 논리

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요송하금원시기의 민족융합에 대해서, “이 시기의 민족융합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민족융합이 먼저 각각의 민족정권 통치구역 안에서 진행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주로 변방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송과 요와 서하·남송과 금과 서하가 대치하면서 분쟁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족의 대이동에 의하여 재차 민족이 분별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따라서 또다시 새로운 민족의 대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원대라는 전에 없는 통일의 기초를 다졌다고 하였다.

그의 논문에서 보이는 민족융합의 시기를 보면 남북조시기 이후에 오대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고 바로 송대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오대에 대해서는 대분열과 대혼란의 시기였다는 방식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 정복자와 그에 대한 군민들의 격퇴, 문화적으로 동화나 한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민족 간의 교류나 융합이라는 구조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때로는 동일한 인물이 거란과 오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런충웨[任崇嶽]는 1984년에 「약론요조여 오대적관계(略論遼朝與五代的關係)」²¹라는 논문에서 거란과 오대 왕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째 요 왕조가 어떻게 중원을 제패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오대시기에 요 왕조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 및 거란의 한족 지역 경제와 문화에 대한 손상과 파괴 등의 3개 방면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요 왕조는 오대의 후량과 비슷한 시기에 건국되어 북송과 거의 비슷한

21 任崇嶽(1984), 「略論遼朝與五代的關係」, 『社會科學輯刊』 4期.

시기에 멸망한 왕조로서 907년에 야율아보기가 황제를 칭하면서 1125년에 금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북방에서 218년 동안 존속하였다. 그 기간에 중원은 왕조가 몇 차례 경질되면서, 중원의 왕조들은 요 왕조의 정삭을 받들고,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고, 혹은 굴욕적으로 존중하면서 아들이라고 하고, 혹은 머리를 조아리며 신하라고 하기도 하면서 요 왕조는 엄연한 각국의 맹주가 되었다. 거란족은 확실히 조국 북방의 변방을 개척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그는 봉건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중원지역에 대해서 야만적인 약탈과 도살을 자행하여 이 지역의 선진적인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오대 이후에 황허 유역에서 발생한 전쟁과 파괴의 책임을 모두 거란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지만 거란족이 중원에 진입하면서 가져온 것이 단지 생활의 반주에 노랫가락처럼 번쩍이는 칼날이나 선혈이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는 않는 듯하다.

우리가 요대 통치자들의 중원지역에 대한 손상과 파괴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역사적인 민족 간의 원한관계에 뒤얽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거란족이 중국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었던 찬란한 공헌을 말살하고자 할 뜻도 없다. 거란은 동북지방을 개발하는 동시에 또한 화북지역의 선진적 생산방식을 파괴하면서 민족융합의 걸음을 촉진하기도 하면서 또한 민족 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족과 거란족을 분명하게 가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현재에 인접국으로 존재하는 한국이나 몽골과는 달리 거란에 대해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비교적 일찍부터 적용되었지만, 1980년대에 발표된 위의 두 편의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한족과 거란족의 관계에 대해서 정복이나 통치 혹은 손상과 파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민족 간의 교류나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역시 대립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측면이 비교적 강하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논문인 「시론오대십국시기중원지구적민족융합급기조시(試論五代十國時期中原地區的民族融合及其措施)」²²에서는 주로 사타족의 민족 융합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오대십국 시기에 사타인이 중원에 후당, 후진, 후한, 북한 등 4개 왕조를 세웠다. 동시에 중원에 진입한 거란과 회골(回鶻), 토곡혼(吐谷渾), 해(奚) 등의 소수민족이 있다. 사타인들이 건립한 왕조는 완전히 중원왕조의 관제와 예약제도를 채택하였고, 관료를 채용하는데도 이민족과 한족이 일체가 되어 민족의 경계를 나누지 않았다. 또한 소수민족 통치자들은 한인들과 통혼하거나 양아들을 양육하거나 한족 문화를 받아들여 역법, 누각, 형법, 혼인, 상장 등의 방면에서 사타인들은 중국 왕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여 반세기 정도가 지나서는 이러한 소수민족이 한족으로 섞여 들어오게 되었다.

이 논문의 주요 서술 대상은 당시에 중원 정권을 형성하였던 사타인이기 때문에 거란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분량으로 이 시기의 거란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전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는 달리 한족과 거란을 분별하여 언급하는 듯한 양상에서부터 거란을 포함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한족으로 섞여 들어오게 되었다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2001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특별히 오월국(吳越國)을 중심으로 거란

22 任崇嶽(2006), 「試論五代十國時期中原地區的民族融合及其措施」, 『鄭州大學學報』 1期.

이나 중원국가를 포함하여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논문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 그것은 곧 허용창(何勇強)의 「논오월국적 해상외교(論吳越國的海上外交)」²³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오월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중원을 존중하고 여러 번국과 연형하여 회남(淮南)에 대항하는 기본적인 국책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이후에 즉위한 오월의 군주들에게 계승되었다. 오나 남당의 군사적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월국은 당, 오대, 송 등의 중원 왕조의 정삭을 받들고, 오와 남당 주위의 민(閩)이나 초(楚)와 같은 소국들과 단결하였다. 그리고 거란과의 관계는 1957년에 반샤오셴(卞孝萱)이 “거란과 오월이나 남당의 평등한 외교관계는 후진이 거란에 신속했던 관계와는 다르며, 따라서 오월의 사신들이 거란에서 받은 대우 또한 후진의 사신들과는 달랐다”²⁴고 한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오월이 후진에 칭신하고 후진이 거란에 칭신하는 상황에서 오월이 거란과 평등한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월은 거란에 신속하면서 사대하였고, 그들의 일관된 국책에 근거하여 중원왕조의 정삭을 사용하고 요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오월은 당시의 중국에서 미약한 세력이었지만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종주국의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대시기를 전후해서 한반도에서는, “900년에 견훤이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의 왕을 칭하였다. 904년에 궁예가 마진(摩震)을 건국하고 무태(武泰)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철원에 도읍을 정했다가,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연호를 영덕만세(永德萬歲)로 바꾸었다. 918년에는 궁예의 부장인 왕건이 정

23 何勇強(2001), 「論吳越國的海上外交」, 『杭州師範學院學報』 3期.

24 卞孝萱(1957), 「五代時期南方諸國與契丹的關係」, 『山西師範學院學報』 3期.

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축출하고 스스로 고려를 건국하였는데, 이것이 곧 후고구려이다. 왕건은 935년에 신라를 멸망시키고 다음 해에 견훤의 아들인 신검(神劍)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삼한을 통일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세력이 미약한 견훤의 후백제는 한반도에서 후고구려와 자주 전쟁을 벌였고, 신라와도 소규모 전투가 끊이지 않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월과 관계가 가장 밀접하였고, 지리적인 위치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양쯔 강(揚子) 유역과 백제의 해상교통은 매우 발달하였다. 오월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대륙을 대표해서 ‘외이(外夷)’의 면전에서 종주국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외에 오월과 일본의 관계는, 오월이 일본의 면전에서는 신속을 자칭하여 외교상의 무실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2001년에 쓰인 허용창의 논문에서는 비록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언급은 없다. 하지만 당시의 중국에서 거란은 물론이고, 그에게 칭신하는 후진과 일본에게 신속하는 오월 같은 미약한 나라도 적어도 분열 중인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종주국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황전윈[黃震雲]은 「거란적유래화요대적건원(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²⁵이라는 논문을 상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앞부분에서는 주로 거란이라는 명칭, 거란 민족의 연원과 형성, 거란의 발흥과 요 왕조의 건국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뒤에서는 요대의 사회형태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 내지는 민족융합의 색채가 짙은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면 4장의 1절에 해당하는 요대의 정치구조에서는 거란이 한민족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특히 야율아보기 등의 귀족계층은 중국어와 유가의 전적에 정통하였고, 생활방식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25 黃震雲(2003a), 「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上·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 1·2期.

하였다. 그리하여 야율아보기의 부락을 보면 이미 상당히 발달하였고, 생활방식도 기본적으로 봉건화의 특징을 구비하여 중원지역 심지어는 중원의 발달한 지역과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서 건원 혹은 그 이후의 정치구조는 당대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를 채택하였고, 풍속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책략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여 과학성과 심원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요대의 전면적 개발과 성취라는 절에서는 거란인이 장기적으로 북방에서 생활하였으며 그 자체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서 북방을 통일한 이후에 비교적 실제에 부합하는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북방의 여러 민족과 단결하여 북방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당 왕조의 정치사상이나 예문과 법도나 정책을 배워서 채택하고, 한족이나 북방민족의 생활습관을 존중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북방민족을 주체로 하는 다민족국가를 건립하였고, 또 남북의 왕래를 통하여 중화민족의 통일에 전면적인 기초를 다졌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거란인의 민족관계에서는 거란인들이 포로와 한족들로 변경 지역을 충실하게 하여 형제 민족과의 관계를 유력하게 강화시키면서 문화의 품위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거란이 선진적인 중원 문화와 거란 문화를 동북지방과 서북지방, 나아가 심지어는 일본과 이란 등 서아시아 지역까지 전파하였다. 다른 하나는 거란이 이러한 지역에서 상대방의 우수한 문화를 학습하여 당시에 사실상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대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역사를 말할 때 당송이나 원명청만을 논하고 요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야만적인 정복민족으로 대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역사적 실제

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언어와 습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다른 이민족이 자기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여 인구와 재산을 약탈해 간 역사에 대해서 마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과대 포장하는 논문을 보면 중국의 역사학적 전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중국 학계에서 고증학적 전통에 충실한 학자들을 보면, 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도 지나치게 '술이부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의 역사에서 것처럼 많이 언급되는 춘추학적 전통은 또 어떠한가? 그런데 이런 종류의 논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가지 혹은 몇 개의 문헌 기록을 가지고 서술하면서 지나치게 비약이 많고 심지어는 근거 없이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은 느낌이다.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는 『북사(北史)』 『실위전(室韋傳)』과 『위서(魏書)』 『거란전(契丹傳)』 및 『수서(隋書)』 『거란전(契丹傳)』 등의 문헌 기록을 인용한 후에 회흘이나 고려 등의 민족은 거란과 두발 형태나 복식, 언어 및 습관 등의 방면에서 매우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인용한 문장을 보면 위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옌펄(彭艷芬)은 2006년에 허베이[河北] 대학에서 「오대시기거란요조여오월, 남당적교빙연구(五代時期契丹遼朝與吳越, 南唐的交聘研究)」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현재는 허베이 성[河北省]에 있는 보정학원(保定學院)의 강사로 재직 중이다. 오대의 중원왕조와 거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조사하면, 현재로서는 그녀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1966년에 출생하였지만 비교적 만학인 40세의 나이에 석사를 취득하고 단과대학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논문을 나누어서 몇 편의 논문을 2007년을 전후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평옌펄의 석사학위논문은 참고 문헌을 제외하면 총 55쪽으로, 주된 내용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 중원 정권 이외의 세 가지 역량

제2장 : 거란과 오월의 교빙

제3장 : 거란과 남당의 교빙

제4장 : 거란과 오월, 남당과의 교빙의 비교

우선 장의 제목에서도 한쪽 중심적인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제목에서 1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빙(聘)’이란 동격의 제후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격이 낮은 측에서 높은 측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공(貢)’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어도 거란과 오월의 사이에서는 ‘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엔편은 현재 보정학원 역사계의 강사로 재직하며 거란과 오월·남당의 교빙관계에 관한 논문을 4편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중국에서는 논문을 비교적 짧게 쓰는데, 일부는 한 개 장을 발표하고 일부는 한 개 절을 발표하였다. 아래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란요조대남당적교결화이용탐석(契丹遼朝對南唐的交結和利用探析)」은 석사학위논문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북방문물(北方文物)』이라는 학술잡지에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부분은 남당이 중원에 대해 시도하고자 한 것과 거란의 중원정책은 도모하지 않아도 합치된다는 제목으로 서술하였고, 둘째 부분은 거란과 남당의 교빙관계의 발전 상황, 셋째는 ‘고괘사건(高麗事件)’과 ‘청풍역(淸風驛)의 변’이라는 거란과 남당이 교빙하는 사이에 발생한 두 가지 암살사건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넷째는 거란이 남당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²⁶ 그런데 이 중 둘째 부분은 약간 요약하고, 셋째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였는데,²⁷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 학술지에 중복해서 발표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두 편으로 발표한 논문을 학위논문의 서술 순서에 따라서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남당은 “이에 중원을 돌아보며 본조(本朝)의 고지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하여 내부적 안정에 치중하면서 후촉(後蜀)과 연횡하면서 북방에서 흥기하고 있는 거란 세력과 연합하여 중원을 협공하여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였고, 남당의 이러한 ‘사방지지(四方之志)’는 마침 거란이 남당 및 후촉과 연계하여 중원을 견제하면서 포위 공격하는 책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거란과 남당의 교빙관계는 937년에 쌍방이 정식으로 교빙관계를 수립하여 957년까지 21년에 걸쳐서 41차례의 사신 왕래가 있었는데, 이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937년부터 944년까지로 남당에서는 14차례, 거란에서는 9차례 사신을 파견하면서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거란은 이 시기에는 주로 대종무역을 위주로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당의 신뢰를 얻어서 후일 거란이 중원으로 진입하는 데 기초를 다진 시기이고, 제2단계는 944년부터 947년까지 시간적으로는 짧고 쌍방의 왕래도 4차례에 불과하지만 쌍방의 암투가 격렬했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947년부터 957년까지로 남당에서는 13차례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하고 거란에서는 단지 1차례만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남당은 중원을 공격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란에 사신을 보내 후주를 견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청풍역의 변’이 발생하면서 남당과 거란의 교빙관계는 철저하게 단절되었다.

26 彭艷芬(2007a), 「契丹遼朝對南唐的交結和利用探析」, 『北方文物』 3期.

27 彭艷芬(2007b), 「契丹遼朝與南唐交聘中的關鍵節點」,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 1期.

이상 두 번째 부분과 다음의 세 번째 ‘고패사건’과 ‘청풍역의 변’은 별도의 논문 「거란요조여남당교빙중적관건절점(契丹遼朝與南唐交聘中的關鍵節點)」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른바 ‘고패사건’은 거란과 남당이 교빙하는 초기에 발생한 중대 사건으로 945년에 거란의 사신이 남당에 왔다가 육로로 돌아가는 도중에 살해된 사건인데, 남당에서 사람을 시켜서 살해하고 후진에게 전가하여 후진과 거란의 관계를 이간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청풍역의 변’은 거란의 사신이 남당에 파견되었다가 살해된 두 번째 사건으로, 이번에는 후주에서 자객을 파견하여 남당의 청풍역에서 연회를 베풀고 사신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살해한 사건으로 남당과 거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이에 후주와 오월의 협공으로 남당은 강북과 회남의 14개 주를 후주 세종에게 바치면서 국세도 날로 쇠약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대시기에 거란족의 요가 남당과 교류하고 이용한 것은 요나라가 중원으로 남하하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거란족이 조기에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쌍방의 교빙은 거란족의 발전과 10세기 중국 경제의 발전과 문화의 교류에 모두 적극적인 의의가 있으며, 거란의 흥기와 중원으로의 남하는 단지 흉노족 이래로 몽골족까지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으로 남하하는 향심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두 가지 다른 경제 생활방식이 교류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런데 「거란요조여남당교빙중적관건절점」이라는 논문의 가장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황전원의 논문을 인용하여 이러한 쌍방의 교빙 왕래가 남북방 문화의 교류와 융합이 광범위하게 심화되면서 진행되었고, 선진문화를 배우는 데 능한 거란족이 국가를 건립하고 발전하고 장대해지도록 촉진하였고, 아울러 중원 문화가 “원래부터 있던 문화 습속과 유기적인 융합을 진행”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자 민족융합의 결과”²⁸라고 하는 다소간 돌발적이면서 상투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어서 의

아한 느낌이 들게 한다.

네 번째는 오대시기에 중원의 정세와 거란이 중원으로 남하하는 정책의 변화는 거란 요 왕조가 남당과의 연계와 작용이 발생한다는 전제조건이며, 지리적으로 강남에 위치한 강대한 지방정권인 남당에 대한 교빙과 이용은 거란 요 왕조의 중원정책에 중요한 구성부분이면서 그 정책의 성공적 실시 여부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하면서 다시 저우량샤오[周良宵]의 논문을 인용하여 거란이 흥기하여 중원으로 남하한 것은 단지 “흉노 이래로 몽골의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으로 남하하는 향심운동”²⁹의 한 부분이며 두 가지 다른 경제 생활방식이 교류한 결과라고 하면서 거란의 남하정책을 중국사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아우르는 듯한 서술로 끝을 맺었다.

다음으로 「거란오월교빙관계탐미(契丹吳越交聘關係探微)」³⁰는 석사학위논문 의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10세기 초에 오월은 동남지방에 위치하여 국가가 부유하고 군사들이 강하여 일찍이 거란과 관방관계를 수립한 남방의 정권이자 강남지역에서 남당에 대항하는 기본 역량이었는데, 이들이 당말 오대에 중원이 혼란한 가운데 거란이 흥기하여 남하하며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거란과 교빙관계를 맺었다. 오월과 거란이 교빙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과 원인 및 그 목적을 분석하는 한편 쌍방의 교빙 중의 지위와 작용 및 교빙의 성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① 거란의 중원정책과 오월왕이 중국을 잘 섬기면서 강회(江淮)와 경쟁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28 黃震雲(2003b), 「契丹的由來和遼代的建元(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 5期.

29 周良宵(1980), 「我國古代北方民族發展與民族關係中的幾個問題」, 『民族史論叢』, 吉林人民出版社.

30 彭艷芬·王路明(2007a), 「契丹吳越交聘關係探微」, 『歷史教學』 3期.

② 거란과 오월의 교빙관계가 수립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14차례의 사신 왕래를 3개의 단계로 나누어 그 과정과 성격을 서술하였다. ③ 교빙 상황의 변화와 그 원인을 3개로 나누어 분석하고, ④ 교빙의 내용과 목적 및 쌍방의 외교상 지위에 대하여 3개의 단계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쌍방의 교빙관계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거란과 오월의 교빙관계에서 거란의 중원과의 관계가 하나의 극이고, 오월과 중원의 관계가 하나의 극이 되는데, 양자의 교빙관계는 곧 이러한 두 개의 극이라는 기초 위에서 건립되었다. 만일 전자가 없다면 후자는 곧 존재의 필요가 없게 되니, 거란과 오월의 교빙관계는 중원과의 관계 및 그들 쌍방의 중원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평옌편은 왕루밍(王路明)과 함께 거란의 중원에 대한 정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석사학위논문의 1장 2절을 조금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오대시기의 중원에 대한 정책의 문제에서 거란의 통치계층 사이에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야율아보기 시기와 야율덕광 및 야율경(耶律璟) 시기의 중원정책의 내용과 통치자 내부에서 중원으로 남하는 정책에서 의견의 충돌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먼저 야율아보기 시기의 중원정책에 대해서, 야율아보기는 계속해서 남하하고자 하였으나 실력이 미흡하여 중원세력의 지지가 필요하였고, 진왕 이극용이 후량과의 전쟁에서 불리하자 거란과 손을 잡고자 하여 야율아보기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야율아보기는 하동과 연대하고 후량과 교섭하여 먼저 연운지역을 경영하려는 책략을 세웠다. 이처럼 거란은 이존욱과 후량의 대치국면을 이용하여 남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야율아보기의 말년과 야율덕광 초년에 유주가 이존욱에게 속해 있었지만 연운 16주의 쟁탈을 포기하지 않았고, 진초에는 마침내 거란에 예속되었다.



태종 야율덕광 시기의 중원정책에 대해서는 중원정책이 3개의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것은 곧 929~936년의 1단계, 936~943년의 2단계, 944~947년의 3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야율덕광이 즉위하고 여러 차례 남하하고자 하였으나 후당의 반격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야율덕광은 중원으로 12차례나 사신을 보냈는데, 사실상 거란이 비록 열세를 보이지만 후당에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중원의 내부갈등을 이용하여 연운 16주를 가볍게 취하고 후진에 대하여 괴뢰통치를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 야율덕광은 후진을 멸망시키고자 남당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947년에는 국호를 대요(大遼)라고 칭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했지만 난성(瀋城)에서 병사하면서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이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목종(穆宗) 야율경 시기에는 후주 태조 곽위(郭威)의 개혁정책으로 사회생산력이 회복과 발전을 이루면서 정국이 안정되었고, 후에 후주의 세종이 유주를 공격하자 야율경은 주력군을 유주의 북쪽에 배치하였고, 북송이 건국된 후에는 고량하(高粱河)에서 일전을 벌이면서 거란의 실력을 보여 주면서 유주가 요의 방어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목종은 국경을 방어하면서 인접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실행하였다.

거란의 통치집단 내부에는 중원으로 남하하는 정책에 대하여 야율아보기와 야율덕광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은 원교근공의 책략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남하하자고 하였고, 술율태후(述律太后)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은 초원에 양마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어찌하여 군사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하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당시에 거란 내부에서 중원으로 남하하는 정책적 논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① 유주를 점령할 것인가의 여부, ② 유주를 점령할 때 어떠한 책략을 사용할 것인가? ③ 천하를 통일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거란이 남하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① 초



원 생활에서 필수적인 물자나 재산이나 인구를 약탈할 것인가, 아니면 진주, 정주, 유주를 점령할 것인가? ② 초원에서 양마의 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원을 점령할 것인가? ③ 한족과 화친할 것인가, 아니면 천하를 통일할 것인가? 등의 문제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술율후(述律后) 등의 주장과 농경문화에 대한 인식은 비록 초원의 보수사상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거란이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초원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불리하였지만 사실상 이것은 당시 초원의 유목경제에서 출발한 비교적 실제적인 선택이었다. 야율아보기와 야율덕광을 대표로 하여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자는 주장은 거란이라는 국가의 상승시기에 광대한 귀족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물질적인 요구에 적응하였고, 아울러 중원의 통치자들이 앞을 다투던 의견에 부합하여 이는 역사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하였다.³¹

이와 같이 현재 오대시기의 한족과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 평옌편은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2006년에 제출한 한 편의 석사학위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2007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시류와 중국 학계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쑤차이홍(孫彩紅)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과 오대시기에 중원과 거란 혹은 중원과 해의 호시(互市)무역을 분석하였다. 당대에는 호시가 주로 변방의 도시인 영주, 유주, 이주(易州) 등과 장안(長安)에 설치되었다. 오대시기에는 거란의 세력이 점차로 강해지면서 지위도 상승하여 중원왕조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오대시기에 호시가 열렸던 중요한 지역은 변경의 운주나 내지의 변경(汴京) 등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동시에 호시는

31 彭艷芬·王路明(2007b), 「五代時期契丹遼朝的中原政策述論」, 『赤峰學院學報』 1期.

거란의 경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거란족의 경제 특히 목축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고 하였다.³²

이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대시기의 호시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당대의 중원과 거란·해의 호시에 관한 연구이다. 쑨차이홍은 여기서 당 왕조와 거란 혹은 해와의 28차례에 걸친 피차간의 조공에 대해서 일람표를 작성하고, 당시에 조공의 중요한 목적은 호시를 위한 것이며, 빈번한 조공은 호시가 발전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오대시기의 중원과 거란·해의 호시에 관한 연구이다. 오대시기에 중원과 거란·해의 호시는 규모가 확대되고 물품의 종류가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인 호시무역 가운데 조공과 회사를 통하여 달성한 무역액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 17차례의 조공에 관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오대시기에 호시무역은 정지된 바가 없고 횡수가 증가하고 규모도 날로 확대되었다.

셋째는 당과 오대시기의 중원 정권의 호시에 대한 관리를 서술하였다. 오대시기에 중원왕조나 거란정권이 호시를 시행하였던 중요한 목적은 말을 매매하는 것으로 쌍방은 호시에 관한 칙례(則例)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후주의 태조는 거란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칙령을 폐지하였고, 후주 세종도 상인들이 가축을 판매할 때의 통과세를 매매가의 2%만 징수하게 함으로써 무역을 장려하여 거란과의 무역정책이 당대보다 완화되어 시장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상업은 계속해서 발달하였다.

넷째는 호시의 발전을 촉진했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것은 첫째, 호시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자 필연적인 결과이다. 둘째, 중원왕

32 孫彩紅(1998), 「唐五代時期中原與契丹奚的互市貿易」, 『河北師範大學學報』 4期.

조와 거란·해의 호시는 중원왕조의 정치적·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셋째, 편리한 교통은 쌍방의 호시에 대하여 지름길을 열어 주었다. 넷째, 중원의 발달한 경제와 거란·해의 경제적 발전은 쌍방이 서로 우세한 상품의 수출을 보증하여 호시 규모의 확대를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시의 영향에 관한 내용이다. 호시는 거란의 경제발전에 양호한 영향을 끼쳐서 거란 경제의 발전 특히 목축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그들의 무역조건을 개선하였다. 중원의 왕조 또한 군마 등의 물자나 장비의 수요량이 증가하여 거란에게 대단히 좋은 기회와 광활한 시장을 제공하여 호시의 무역액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중원국가의 입장에서 거란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신속하게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열되고 전란이 빈발하는 상태에서는 상품경제 및 화폐경제가 발전하기보다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무역액이 증가하고 어떤 국가나 지역의 비중이 상승하였다고 하려면 전체 국가경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어떻게 증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내지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논문을 보면 문헌 자료가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추측 혹은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오대시기에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논저들의 내용을 서술해 보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대는 대단한 혼란기면서도 중원의 5개 왕조 가운데서도 3개의 왕조는 사타인의 정권이고, 특히 후진의 석경당이 통치할 때에는 거란의 괴뢰정권과도 같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족과 거란의 관계가 아닌 사타돌궐족과 거란의 관계, 즉 이민족 사이의 관계사이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대단히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대의 왕조를 중원민족의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중원을 점령한 왕조와 거란의 관계를 2000년을 경계로 하여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의 역사가 한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은 시기인 까닭에 연구성과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어서 30여 편에 가까운 논저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거란에 대해서는 1980년대에 발표된 논저에서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비교적 일찍부터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자들이 거란족에 대해서는 침략이나 남침 등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용어의 사용, 정복자와 피정복자 혹은 군민들의 타격 등 중국 입장에서의 서술 및 한화나 동화와 같은 문화적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관점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많은 논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거란에 대한 기술의 태도가 바뀌면서

민족 간의 융합이 대단히 강조되고, 간혹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논리를 비약하거나 오대십국 시대에 분열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으로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북송과 대치하던 요 왕조나 남송과 대치하던 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연지맹이나 소흥화의(紹興和議)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견해들이 발표되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던 악비(岳飛)나 문천상(文天祥)이나 대표적인 간신으로 평가되던 진회(秦檜)에 대해서조차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초기 요 왕조와 중원민족에 대한 문제는 중국 학계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간 적지 않은 논저가 발표되었지만 기타의 시기에 비하여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한족의 역량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약했던 오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혹은 민족 간의 교류와 융합이라는 말이 여전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에는 더욱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학계의 북송과 요의 관계사 연구동향

박지훈 | 경기대학교

-
- I. 머리말
 - II. 송요의 외교, 전쟁관계
 - III. 북송 초기 송요관계
 - IV. 전연맹약과 이후의 송요관계
 - V. 교병, 사절관계
 - VI. 송요 남북조설과 화전
 - VII. 민족정책
 - VIII.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학계의 연구에서 송요(宋遼)관계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문제는 중국 역사상의 민족관계에 대한 대토론 중 큰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요조(遼朝)가 당시의 중국인가 혹은 외국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전통시대부터 송요금 왕조 시기에 대한 시각은 역사상 한족(漢族) 왕조가 중국을 대표하며, 당시에 이미 한족과 융합 혹은 한족 왕조의 판도에 들어온 것만 국내의 성격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시기에 각 한족 왕조 이외의 독립 민족국가는 당시 중국 범위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그들은 중원 한족 왕조에 대해서 외국과 외족(外族)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거란은 외족이고, 요조는 외국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연구시각으로 거란은 당시에 국내 민족이고, 요조는 중국이자 외국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학자들은 오늘날 중국의 판도 이내 각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분이고 각 민족의 역사 또한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며 그들이 역사상 건립한 정권은 모두 중국에 속하며 외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다원적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글에서는 송요관계사에 대한 최근 중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그 논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논점은 길게 인용하여, 그 시각과 연구의 입각점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중심으로 보겠다.

II. 송요의 외교, 전쟁관계

첫 번째로 송요의 외교관계를 송금의 관계와 비교하여 본 판자이취엔[范家全, 우샤오팡[吳曉萍]의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¹

10~13세기, 송요·송금 왕조는 대등한 정치적인 실체로서 선후하여 병존하였다. 부단한 정치적 충돌과 쌍방의 세력이 종합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평화 위주의 지연적(地緣的)인 정치관계가 선택되었다. 전연맹약(澶淵盟約)과 소흥맹약(紹興盟約)은 송과 요·금의 외교상 위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양송은 요·금과 국서의 왕래 및 의례의 교환 등 외교상 세세한 절목에 적지 않은 상이성이 있었다. 이는 송과 요·금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충분히 보여 준다고 전제하고 맹약과 국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데, 맹약은 주로 송요 간 전연의 맹약을 위주로 서술하고 국서는 송금의 소흥화의(紹興和議)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두 세기에 걸치는 긴 시간 동안 송요·송금은 대등한 정치적인 실체가 되어 선후하여 장기적으로 병존하였다면서 한당이 ‘종주국(宗主國)’이 되었던 동아시아 외교권 내의 조공·책봉 외교체계를 타파하고 “동아시아는 이로부터 중국 왕조가 중심이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국제질서를 시작하였다”는 거자오꾸앙[葛兆光]의 견해²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10~13세기의 중국과 주변민족의 관계를 다원적 국제질서라는 개념으로 보는 구미의 시각과 비슷한 면을 보여 준다.

1 范家全·吳曉萍(2008), 「兩宋與遼金外交之比較：以盟約和國書爲中心」, 『安徽師範大學學報』 卷36 3期, 305~309쪽.

2 葛兆光(2004), 「宋代“中國”意識的凸顯」, 『文史哲』 1期(總第280期), 5~12쪽.

복잡한 지연(地緣)정치 환경과 부단한 정치적인 충돌 가운데 양송(兩宋) 정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동아지구의 세력범위와 외교적인 맹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외교 경로를 모색하였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조약 체결의 형식으로 요·금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연맹약과 소흥화의이다. 이 두 조약의 체결은 한편으로 쌍방의 정치와 군사 세력의 일종의 도박 결과였던 동시에 양송과 요·금의 관계가 평화 교류 위주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위의 논문에서는 주로 양송과 요·금 간의 외교문서 입수(入手)를 통해, 또한 외교맹약의 체결과 국서의 왕래 및 그들의 외교 의례 등의 면에서 고찰하였다. 그중 송요관계의 맹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약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국가(혹은 정권)에서 일정한 법칙에 의거해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 의사표시이다. 고대 중국의 조약은 ‘맹(盟)’ 혹은 ‘서(誓)’라고 칭한다. 양송시기 가장 전형적인 조약은 바로 송요의 ‘전연맹약’과 송금의 ‘소흥화의’라고 전제하여 금과의 소흥화의와 비교하여 논하고 있는데 첫째,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보면 전연맹약은 송 측에서 기초하여 요 측이 인가하였다. 이렇게 쌍방이 일치된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달성하였다는 것은 조약 체결의 목적이 정전(停戰)과 우호관계라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쌍방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였고 또한 자손이 함께 지켜나가 계속 전해질 것을 맹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조약의 내용에서 보면 전연맹약과 소흥화의는 모두 쌍방향 조약으로서 만약 전연맹약이 북송 경제상의 손실을 대가로 평화를 바꾼 것이라 해도 외교적인 위치와 외교의 의례상 송요의 사이는 평등한 상대였다. 남송의 경우에 소흥화약은 하나의 불평등조약이었고, 송금 사이도 불평등한 상대였다. 셋째, 조약 체결의 결과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전연맹약의 정립 후에 100여 년의 평화 국면을 유지하였고 송요의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비록 분쟁은 있었지만 평화적인 담판을 거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즉 전연맹약은 바로 송요 간 장기 평화와 평등한 외교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연맹약과 소흥화회의의 체결은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결정하였다. 전연맹약은 송요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였고 쌍방은 평화·평등 교류를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외교의 위계와 의례상 모두 평등을 원칙으로 실현하여 비록 양국의 교류과정 중에 직접적으로 중원왕조를 계승하여 경제, 문화전통 및 민족심리 면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던 송조는 여전히 엄중한 대국주의(大國主義)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력 면에서는 또한 거란이 국가생존과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만 했던 정황 하에서 줄곧 평화적 외교를 구하는 노력이 위주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논문으로서는 드물게 미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송요관계를 송금관계와 비교하여 논한 시각으로 송금관계에 비해 송요관계가 평등적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고, 지연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요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 전체의 맥락에서 고찰한 명구투오리(蒙古托力)의 논문³에서는 요대의 동북아 지역이 요조·송조·서하·고려와 일본 등 ‘오국삼방(五國三方)’이 뒤섞이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요와 송 관계뿐만 아니라 요송하의 삼각관계, 고려와 요송, 일본과 요송의 기본관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요조(907~1125) 통치 218년 가운데 동북아 지구에는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출현하였다고 보아서 요조·북송·서하, 고려와 일본 5개 국가가 병존하

3 孟古托力(1998), 「遼代東北亞各族關係述論」, 『黑龍江社會科學』 4期(總第49期), 63~71쪽.

였다는 것이다. 전 3자는 중국의 범주에 속하고 고려와 일본은 각기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오국삼방’의 관계는 복잡하다. 이 문제는 세계사, 국제관계사의 일부분이고 또한 중국사, 민족사의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동북아의 현실과 미래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 특히 전연맹약은 비록 불평등한 점이 있지만 이는 중화민족 내부에서 쌍방역량의 강약에 근거해서 조정한 것이고, 침략 혹은 피침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중국의 내부문제로 규정하였으며, 정의 혹은 비정의의 문제로 구분하였다.

요·송·하 3자는 문화와 의식행태 방면에서 몇몇 일치성이 있다. 문화, 경제와 인구 등 방면의 연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세 국가 및 그 각 족 인민의 일체성이 강화되면서 중국 민족상 대융합과 정치상의 대일통이 육성되었다. 이는 유교를 중심으로 요·송·하가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었다고 주장한 것이며 대립과 전쟁보다 민족상 대융합을 강조하였다.

요대, 동북아 오국의 발전은 비록 각기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불평등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와 문화 두 방면의 대표는 바로 북송이었고, 정치와 군사 두 방면의 대표는 바로 요조였다. 이른바 대표는 서로 상응하는 분야에 대한 수준의 고저와 역량의 강약, 작용의 대소, 영향의 깊이 등 종합 요소구성에 의한 것이다. 이는 많은 사료에 의해 판단해야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시대의 대표는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중국에서부터 말하자면 역사가 부여하는 요·송·하의 임무는 명확하다. 요조는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는 기병(騎兵)과 상당한 인력, 물력, 노력이 중국 동북, 정북과 서북을 향해 나아가 얻었고, 공전의 효과를 거두었다. 전연맹약 후에 북송은 강대한 경제, 문화 역량을 가지고 남방과 해외에 적극적으로 경략하여 중국 남방에 진일보하여 개척할 수 있었고, 아울러 중화(中華)의 명성과 위세가 가까운 이웃 나라와 해외에까지 멀리 전파되

었다. 요송 사이의 넓은 지대였던 서하도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삼국은 때로는 분열하고 때로는 협력하였다. 그들은 중국 역사 내지 동북아 지구에 대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때에 중국은 종합적으로 수준이 발전하였고 동북아에서 영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상의 견해는 동북아 지구에서 중국의 역할이 이미 북송대에 입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요를 중국 북방민족정권으로 전제하고, 요의 마정(馬政)을 중심으로 서술한 안위치(閻玉啓)의 논문⁴에서는 우선 마정이 당시 군대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송요관계에서 요의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요건이었고, 평화적인 관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역대 요조의 목축업은 그 사회경제의 주체였고, 양마업은 요조 목축업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요조의 역대 통치자는 한결같이 마정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요조 양마업의 발전은 한편으로 요를 강성하게 만들고 정치·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요조와 북송의 200년에 가까운 화전(和戰)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요조는 중국 역사상 10~12세기까지의 북방민족정권이다. 그들은 중국 북방의 독특한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월한 자연조건은 당시 기타 정권과 비교할 수 없었다. 요조는 동서로 1만 리에 이르며 남북으로 5,000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보유하여 목축업과 양마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당시 중원의 오대정권과 뒤를 이은 북송정권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또한 당시 서하정권과 비교해 보면 자연지리적인 조건은 요조와 비슷

4 閻玉啓(1990), 「遼朝的養馬業和遼宋關係」, 『北京師範大學學報』 4期, 38~44쪽.

하였지만 영역이 협소한 편이어서 요조보다 불리하였다.

또한 요조의 영역은 중국의 북방, 동북과 서북지구에 걸쳐 있었다. 이 지역은 역사상 중국의 전통적인 양마지구였고 가장 좋은 천연의 목장과 거의 비슷하였다. 요조는 연운 16주의 지배권을 얻은 다음에 양마업에 대해서도 매우 큰 역사적인 추진력을 얻었다. 연운지구는 중국 고대 역사 상에서 양마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요조는 바로 중국 북방 대초원과 기북(冀北) 양마의 전통을 하나로 합하고 발전시켜 양마업이 성행하였다. 송요 쌍방의 군사충돌에서 요조는 시종 비교적 확실한 우세를 지켰다. 그 원인은 요조가 마정과 양마업을 중시하여 번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송 초에 선남후북(先南後北)의 통일정책, 고량하(高梁河) 전투, 옹희 북벌, 전연맹약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주로 요의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요조는 마정을 견실하게 하여 요송의 군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시에 송요 쌍방의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이룩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었다. 요송관계는 처음에는 40여 년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전연맹약 이후는 평화 우호국면으로 전환되어 120여 년에 달하도록 유지되어 당시 역사 발전의 주류를 이루었다. 요송의 40여 년의 군사전쟁 과정에서 요는 마정을 기초로 하여 송에 대한 군사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또한 북송대에 연운을 수복하려는 의도를 꺾었으며 요송 쌍방의 120여 년에 달하는 평화교류 과정에서 요의 마정은 또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양수민(楊淑敏)은 송요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⁵ 즉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초까지는 중국 역사상 송요의 대치시기

5 楊淑敏(2001), 「宋遼關係概述」, 『中國古都研究』(18輯下冊, 中國古都學會2001年年會暨

였다. 이 150여 년 동안 송요는 두 개의 강대한 정권으로 서로 대결하였는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평화를 이루어 하나의 파란만장한 역사극을 연출하였다. 양국은 중국 역사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여 중국 역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로 관남지(關南地)를 둘러싼 송요관계에 대해서 주샤오친(朱小琴)의 논문을 볼 수 있다.⁶ 송대 민족관계는 또한 상당히 복잡한데, 특히 북변의 요, 거란국과 변강의 허다한 지방에서 쟁탈이 진행되었다. 송요 관남지의 쟁탈은 그 일례이고 쌍방은 선호하여 여러 차례 쟁탈전을 벌였다. 최후에 요국은 '세폐(歲幣)'를 획득하였고, 송조는 이후로 일부 변강지구를 상실하였다. 송조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각 방면의 원인이 있지만 그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송요 대치를 또 하나의 남북조라 규정하고 서하의 존재를 변수로 보았는데, 이는 일종의 삼각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도 송의 입장에서 주로 서술하고, 양국의 황제 역량과 국가형세를 연관하여 해석하였으며 양측 모두 손해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송요 간에 격렬한 전쟁과 충돌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시각에서 본 펑펑핑(彭鳳萍)⁷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는 기존 연구성과의 기초 위에 북송과 요의 화전, 경제 부분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북송과 요의 화전문제를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다.

① 상호 전쟁단계(960~1004) : 북송은 요와 연운지구의 귀속권을 다투기

赤峰遼王朝故都曆史文化研討會論文集).

6 朱小琴(2000), 「宋遼“關南地之爭”」, 『西安教育學院學報』 2期(總第43期), 61~66쪽.

7 彭鳳萍(2001), 「北宋與遼朝的關系」,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전개하였고 쌍방은 서로 승부가 있었으나 실력이 점점 평형상태가 되어 대치국면을 형성하였다.

② 화평 대치단계(1004~1120): 평화 우호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국 통치자가 모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분규가 있었으나 모두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③ 금과 연맹하여 요를 공격하는 단계(1120~1125): 연운지구를 수복하기 위해서 북송은 금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북송과 요의 관계는 중국 민족 관계사상 중요한 문제이다. 양국은 정치·경제·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여 민족융합의 행보를 더욱 빠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술계에서 송요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몇몇 문제에 대해 혹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여 논술하여 충분한 계통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 민족융합의 궤적을 탐구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민족단결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서북(大西北)’을 더욱 잘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뚜렷한 의도가 개재된 시각임을 보여 준다.

일곱 번째로 쉬홍니엔(徐紅年)의 논문⁸에서는 요송전쟁이 두 봉건정권 사이의 역사상에 남아 있던 영토분쟁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이것의 특징은 쌍방의 교전세력이 비슷하여 전쟁이 계속되다가 최후에는 쌍방이 평화협정, 즉 ‘전연맹약’을 체결함으로써 끝났다고 보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요송전쟁은 두 봉건정권 사이의 영토분쟁이고, 요송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전의 관점 또한 요는 약탈적인 비정의 전쟁을 도발한 것이고, 송은 약탈을 막기 위한 정의적인 전쟁인데, 그 주요 논거는 요는 외족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

8 徐紅年(1994), 「論遼宋戰爭的性質」, 『北京社會科學』 1期, 109~113쪽.

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① 거란족은 중화민족 형성과정 중의 일원이고 그들은 염제(炎帝)의 후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족과 함께 염황(炎黃)의 자손인 것이다. 이는 확실히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과 같은 맥락을 보여 준다. ② 요는 태조 야율아보기와 태종 야율덕광 때 확실히 중원지구를 약탈하는 것을 국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요송 전쟁을 연구할 때 그 상한은 송이 건국한 960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당시 요는 바로 목종이 재위하여 국사를 돌보지 않아 내부의 모순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원왕조를 약탈할 힘이 없었다. ③ 969년 요 경종이 즉위하고 승천후(昇天后) 소작(蕭綽)이 국정에 참여하여 개혁을 진행하였고 거란족은 신속하게 봉건제로 나아갔다. 그녀는 한인(漢人)을 중용하고 한법(漢法)으로 한지(漢地)를 다스려 요 왕조가 거란 지주와 한인 지주의 연합정권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근년에 또한 일종의 관점이 있는데, 이는 요송전쟁이 통일전쟁의 계속이라는 것이다. 주요 논거는 송이 십국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것이 통일전쟁이고 북한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후에 바로 요를 향하여 진공한 것은 통일전쟁의 계속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이 십국을 멸망시킨 후에 요를 침략한 것과 요가 송을 침략한 것 모두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의 근거를 결핍한 것이다. 더욱이 전쟁이 어째서 통일에 이르지 못하고 멈추었으며 오히려 '전연맹약'으로 끝났는가에 대해 해석할 수 없다. 요송 쌍방의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결국 요송 모순의 형성 및 그들이 전쟁 때 공개적으로 천명한 전쟁의 원인 및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쌍방 봉건통치자들은 인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서 볼 때 모두 정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전쟁은 쌍방 인민에게 재난을 주었다. 요송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반복성에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① 변화가 많고, 전쟁과 평화가 교차하며 최종적으로 평화로 결말을 맺었다. ② 서로 공수(攻守)가 있었다. 즉 송이 요를 침략하면 요의 경내에서 전쟁을 하고, 또한 요가 송을 침략하면 송의 경내에서 전쟁을 하였다. 따라서 어떤 쪽에서 상대방의 영토에 침입하였건 간에 모두 약탈을 진행하였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주었기 때문에 비정의 전쟁이다. 요송전쟁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매번 전투에서 ‘약탈전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봉건통치자들은 탐욕이 끝이 없어 전쟁상태가 40여 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전연맹약은 불공평한 약탈성 조약이 아니다. 이는 쌍방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등한 조치이다. 또한 쌍방이 정치상으로는 평등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세폐의 경우에도 송이 요에게 세폐를 주는 것은 어떠한 굴욕적인 의미가 없었다. 중국 역사상 중원왕조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에서 일종의 관례였지 결코 요송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쌍방이 통호하고 각 장무역을 시작하면서 송은 매년 40만의 수입이 있었다. 요송 쌍방에게 평화는 이익이 되었고 전쟁은 상처였다. 전연맹약으로부터 이후 중국 사회경제적 발전은 요송전쟁이 비정의 전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전연맹약은 당 말·오대 이래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고 중국 역사상 드물게 100여 년에 달하는 평화 시기를 연출하였다. 평화적 환경 안에서 남북의 경제는 모두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상업왕래, 문화 교류는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하였고, 또한 민족융합을 촉진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삼국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송요 양측이 다 옳지 않다고 평가하고, 주로 전쟁의 폐해와, 비정의적이고 약탈적이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쟁이 결과적으

로 민족융합에 기여했다는 입장⁹과 차이점을 보여 준다.

특히 요의 송 공격을 남벌 또는 남하, 남정(南征), 남침(南侵)이라고 표현하고, 송의 요 공격은 침요(侵遼)라고 하여 요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스탈린의 견해를 인용하는 등 사회과학적 학설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있다.

III. 북송 초기 송요관계

첫 번째, 옹희 북벌은 송요관계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비정역적인 전쟁이라고 규정한 꾸취안팡[顧全芳]의 논문¹⁰에서는 북벌한 후에 송요는 장기적으로 대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본문에서는 북벌 실패의 원인과 결과, 전쟁의 성질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이전의 연구와 상이한 점이 많다. 즉 거란족, 한족 모두 중국 민족의 하나라는 관점으로 중원왕조중심설, 즉 대한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

두 번째, 송 초의 대외정책에 대해 몇 가지 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의견을 제출한 왕위지[王育濟] 논문¹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徐杰舜(2005), 「宋遼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 『貴州民族研究』 3期(卷25 總第103期), 166쪽.

10 顧全芳(1984), 「評北宋雍熙北伐」, 『中州學刊』 2期, 112~115쪽.

11 王育濟(1996), 「宋初“先南後北”統一策略的再探討」, 『東岳論叢』 1期, 82~89쪽.

112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우선 북송이 건국한 초기에 송 태조와 조보(趙普) 등은 다방면으로 논증하여 '선남후북'의 통일책략을 실시하자고 제출하였다. 이 정책에 대해 학술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의견도 분분하다. 첫째, 몇몇 대신들의 인식과 의견에 기초하여 송 태조는 선남후북의 통일방침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지운남추(地運南趨)'가 고려된 것이다. '지운남추'는 '경제 중심의 남이(南移)'와 같은 맥락이고 이는 객관적인 역사사실과도 부합된다. 송 태조와 북송의 북정(北征)문제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선남후북은 당 중기 이후 경제 중심의 남이라는 객관적인 추세와 부합되고 중국 역사상 '지운변천(地運變遷)'에 순응하는 기본사고는 정확한 것이다.

둘째, 근대의 저명한 역사가 관원란(范文瀾), 타오마오빙(陶懋炳) 등은 모두 '선남후북'의 북이 북한과 유운(幽雲) 16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북'은 연운 16주를 포함하지 않는 통일전략이다. 셋째, 연운 16주는 한편으로 이는 중원의 고토(故土)였고, 고토를 수복한다는 것은 정의성과 진정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거란의 실제 세력을 바로 보아야지 허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연운 16주는 일찍이 후진 때 거란에게 할양한 것이고 후한과 후주 두 왕조를 거쳐서 북송에 이르러 이미 민족 간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운문제의 해결은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다.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도전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험적인 것이다. 하지만 명분은 있다. 평화적으로 고토를 '속회(贖回)'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송 태조는 현실을 파악하고 득실에 따라 무력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왕샤오포[王曉波]는 옹희 북벌 실패 이후의 요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¹²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옹희 3년(986) 5월, 송군이 기구관(岐溝關)에서 요군에게 격퇴를 당한 것은 송이 고량하 전역 실패 후 또 한 차례 북벌의 결과였고 같은 해 7월 삭주(朔州)의 전투에서 송군이 다시 참패를 당하면서 송은 요에 대해 부득불 진공(進攻)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옹희 북벌 후의 대요정책의 변화를 보면 군자관(君子館)의 전역에서 송군이 다시 패배하면서 절대다수의 송 사대부는 연운 16주를 수복하는 데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전쟁 반대 에 대한 주장이 날로 고조되었다. 혹자는 북벌이 착오였다는 것을 비평하였고, 혹자는 전쟁을 그만두고 백성을 휴식시키며 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이미 “오면 그들을 막고 가면 쫓지 않는다(來則禦之, 去則勿逐)”의 단순 방어 관점이 출현하였다. 송요 양국의 변경선은 구불구불 1,000여 리에 이어져 있어 송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요 기병의 습격을 막아내고 깊게 침입하는 것을 저지해야 변경지역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 이는 결코 간단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 송은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네 번째, 리우지엔리[劉建麗]의 논문¹³에서는 북송 정부의 어변(禦邊)정책은 일정한 변화를 거쳤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북송 초기에는 북변을 중시하고 서비(西鄙)를 경시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면 방어의 중심은 방어의 중심이 북변에서 서비로 이동하였고 희녕(熙寧)변법 후에는 서하를 제압하는데 공격에서 수비로 바뀌었다. 그것은 북송·요·서하·토번 등의 세력이 서로 부침하거나 균형을 이루면서 변한 것이며, 북

12 王曉波(2000), 「宋太宗雍熙北伐失敗後的對遼策略」,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期(總第109期), 100~106쪽.

13 劉建麗(2000), 「北宋禦邊政策的調整」, 『甘肅社會科學』 3期, 39~42쪽.

송시기 민족관계의 일종 표현이었다. 중원에 세운 북송 왕조는 요·서하와 정족(鼎足)하여 그 방어전선은 북에서 서쪽까지 1,000리에 달하였다. 봉건정권을 공고하게 하고 통치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송 정부의 어떤 정책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변화가 있었다. 이는 초기(태조, 태종, 진종시기), 중기(인종, 영종시기), 후기(신종, 철종, 휘종시기)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요와 주로 관련된 시기는 초기로서, 960년 북송 건립 후에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선남후북'의 책략을 취하였다. 우선 거란 요조를 강적으로 보아 통일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방의 강한 요에 대하여 잠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때 요조는 내부문제가 복잡하여 역시 송과 통호(通好)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송 태조 시기에 북부 변경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송 태조는 시종 연운지역을 수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개보(開寶) 9년(976) 10월, 송 태종이 즉위하였다. 그는 태조의 연운 수복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였다. 차제에 남방 여러 나라 및 북한을 평정한 후에 북방의 요조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4년(979) 6월에 송군은 요를 정벌하여 유계(幽薊)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결과는 고량하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어 전선(全線)이 꺾였었다. 옹희 3년(986) 정월, 송 태종은 요주(遼主)가 어려서 모후가 전권(專權)을 행사하고 있는 기회에 다시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북벌을 실시하였는데, 병력은 30만에 달하였다. 전쟁이 실패한 후 송 태종은 성채를 설치하고 수비군을 두어 요조의 기병이 달려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송 왕조가 진공전략을 방어전략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고, 북변의 강한 인국인 요조를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 번째, 리화루이[李華瑞]는 송 초 선남후북 통일방침의 논의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시각을 제출한다.¹⁴ ① 후주 왕박(王朴)이 말한 “선이후난지(先易後難之)”의 ‘이(易)’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약한 상태에 대해 쉽게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적 긴 변경선상에서 용이하게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이다. ② 송 초의 군신들은 비록 연운지구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었지만 선남후북 통일방침 가운데 북은 북한을 이르는 것일 뿐 연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송 초에 이르면 연운은 거란에 귀속된 지 20년에 가깝고, 연운을 수복한다는 문제는 실제상 이미 송과 요 사이의 변방(邊防)문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③ 과거에 논의되었던 사실 중에 주 세종이 기정의 방침을 바꾸어 거란을 남침한 원인과 송 초 경제실력이 요 국보다 못하였다는 시각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남송 초 이래로 수백 년 동안 역대의 학자들은 송 초 군신이 제정한 선남후북 통일책략에 대해 평가가 다르고 논쟁이 분분하였는데, 대체로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이 있었다. 그 하나는 선남후북 책략은 실책이며 그것은 주 세종의 선북후남 책략을 변화시킨 것으로 송 초에 연운지구를 수복하는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 다른 의견은 선남후북 책략이 당시 송과 거란의 종합적인 국력 강약의 실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1980년대 이전에 비교적 유행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후자의 관점이 송사 연구자들에게 많이 채택되었다. 과거의 연구에 비해 상당히 큰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리화루이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특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시각을 제출하고 있다.

첫째, 선이후난에 관련된 문제로 논자들은 송 초 군신이 선남후북을 채택한 이유는 북방의 요, 북한이 북송에 비해 강대해서 공격하여 취하기

14 李華瑞(1997), 「關於宋初先南後北統一方針討論中的幾個問題」,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卷22 4期, 49~55쪽.

어렵고 남방의 여러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승리할 만했기 때문에 선이 후난은 선남후북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또한 직접적으로 주 세종 시기 왕 박의 ‘평변책(平邊策)’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유관 사료를 열람해 보면 이는 선이후난의 설이 결코 아니다. 둘째, 태조가 연운지구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의 여부 문제를 보면 과거에는 “송 초에 연운을 두고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현재 논의를 거쳐 이미 기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태조가 비록 유계의 실지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계속 수복의 계획과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논자들은 조광윤이 먼저 남방을 취할 것을 선택하고 후에 하 동, 연운을 수복하기로 한 이유를 토론하면서 대체로 요가 강하고 송이 약했다는 객관적인 형세를 저울질한 후에 확정했다고 하였다. 물론 후진 이래로 거란은 유연지구를 얻은 후에 ‘북융강성(北戎强性)’하고, 군사역량, 더욱이 그 기병이 건국 초기의 북송보다 강했다. 그러나 당시에 거란의 경제 역량이 어떤 논자가 말하는 것처럼 북송을 능가했는가에 대해 필자는 다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경제 중심의 남이의 설을 말하는 논자들은 송 초 황허[黃河] 유역의 경제적인 쇠락을 논증하고 심지어 새북(塞北)의 거란에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당 중기에서 오대시기까지 장강 유역의 경제발전은 신속하였으나 북방 황허 유역의 발전속도는 완만하였다. 그러나 경제 중심 남이의 전체 과정에서 말하자면 오대 송 초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② 황허 유역 중하류는 당 말 이래로 비록 전화(戰禍)를 입어 파괴되었지만 후주 시기로부터 다방면에 걸친 사회생산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 경제가 이미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송 초의 사회경제 발전의 수준 및 종합적인 국력은 아직도 목축을 위주로 하고 농업을 겸하는 요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다.

③ 요는 확실히 광대하여 관할면적은 북송 초년에 수배에 달했다. 그러나 경내 대부분 지구는 아직 유목, 어렵 위주의 경제형태였다. 또한 인구가 희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오직 연남(燕南)과 요해(遼海) 지구만이 농업지구였고, 발달한 편이었던 연남지구 또한 단지 태조 건덕(乾德) 시기에 13도(道) 가운데 1도에 해당하였다. 당연히 북송이 건국된 초기의 경제역량이 요국의 경제역량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군사상에서는 요가 강하였지만 요조의 군사적인 강대 여부는 일정한 경제발전의 수준에 의지하는 것이다. 북송 초기에 거란과의 국세 강약은 주로 상술한 역사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송 초의 경제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요의 사회경제 수준이 송 초의 중원지구보다 높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요가 발전하여 100여 년이 경과한 후 경제적인 전성시대 상황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위의 논문은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선남후북' 정책에 대한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 주고 있고, 다민족주의적인 편향된 시각이 아닌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섯 번째, 송 초 송요관계 가운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연운 16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쑤지안민(孫建民)의 논점¹⁵을 보면, 명칭 이래로 학자들은 송 초에 송요 양국이 모두 서로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즉 요국은 연운을 점거하면서 남하하여 송을 멸망시키려고 한 반면 송조는 여러 차례 연운을 북벌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한당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는 송 초에 송요는 나누어 가지고 스스로 지키려는 책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병탄하려는 의도는 둘 다 없었다고 본다. 송 초의 세 군주는 연운을 수복하려는 큰 뜻은 없었는데, 단지

15 孫建民(1989), 「燕雲十六州與宋初宋遼的軍事策略」, 『河北學刊』 4期, 90~94쪽.

요는 적극적인 방어였고 송은 소극적인 자수(自守)의 차이가 있었다. 태조는 연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정권 안정이 더 급하였고, 요와 대항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연운회복의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V. 전연맹약과 이후의 송요관계

전연맹약의 평가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보면 첫 번째로 루오차오시아[羅朝霞]의 논문¹⁶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사학계의 전연맹약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여 지금까지도 정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연맹약의 성질에 대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그것이 타협적이고 굴욕적인 화약(和約)이라고 인식되었지만 유관 사료를 검토하여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즉 전연맹약은 송요 양국 간에 체결된 하나의 평등조약이다. 쌍방은 서로 타협하여 최종적인 담판의 결과는 오히려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 사건을 다른 각도와 입장에서 고찰하면 때로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연맹약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① 요송 쌍방은 피차에 서로 승인한 ‘남조’, ‘북조’라는 두 개의 독립적 주권국

16 羅朝霞(2000), 「“澶淵之盟”之性質辨」, 『貴陽師專學報(社會科學版)』 1期(總第59期), 35~38쪽.

가가 당시의 역사무대에 출현하였던 것이다. 전연맹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약인데, 평등조약의 요소와 불평등조약의 요소가 있다. 오늘날 그들이 함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역사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② 전연맹약의 성격과 의의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면적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조약 자체로 볼 때 당연히 당시인의 표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후대인들은 조약 실시 후의 객관적인 효과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 ③ 보통 이제까지의 연구는 전연맹약의 성격을 주로 당시의 중원왕조인 송조의 입장에서 보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실력은 기본적으로 평형적이었다. 화약의 성립은 우호관계를 체결한 것이며 송요 양측에게 모두 손해가 없는 일종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전연맹약은 송요 양국 간에 체결된 하나의 평등조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쌍방은 서로 타협하여 최종적인 담판 결과는 공정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루이중한[芮忠漢]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⁷ 전연맹약 체결의 경과와 맹약의 내용으로 볼 때 쌍방은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하였다. 물론 이 양보는 송요 쌍방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쌍방은 또한 서로의 세력을 견주어 타협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잔혹하고 휴식이 없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양측의 군민들이 상처를 면하도록 해 주어 평화적인 국면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민족관계를 개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연맹약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한다. 즉 송요 간에 100년이 넘는 평화적인 국면을 유지시켜 주었고 송요 쌍방의 정치·경제와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각 족 인민 사이의 우호적인 왕래가 밀접해져서 후대의 사회발전에 대해 두드러진 역사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17 芮忠漢(2002), 「談澶淵之盟」,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5期, 105~106쪽.

평가하였다.

세 번째, 티엔시앙린(田相林)의 논문¹⁸에서는 전연맹약을 통해서 한족과 거란족이 융합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주로 한 문화가 거란 문화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연맹약은 송요의 전쟁사를 종식시키고 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하여 쌍방의 융합과 교류를 촉진시켰다. 요송 양조 사이의 정치·경제·문화교류 등이 점점 발전하고 따라서 중국이 굳건한 통일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였고, 중화민족의 통일과 발전적인 역사상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였다. 즉 위의 논문은 중원 한족 위주의 서술로 오늘날 민족정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장기적인 평화 교류가 거란과 한인 사이의 연합적 성분을 증가시키고 투쟁적 성격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요조가 자칭 북조라고 하고, 송을 남조라고 부른 호칭은 지리방위상으로 볼 때 당연히 정확하나 중요한 의의는 소수민족과 한족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고, ‘나라 속의 나라(國中之國)’라는 것을 체현했을 뿐 아니라 ‘당연한 조국관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민족적 다원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네 번째, 전연맹약의 성격에 대해 논증한 리시허우(李錫厚)의 논문¹⁹에 대해 보겠다. 우선 전연맹약이 맺어진 지 1000년 이래로 이에 대해 구준(寇準)의 역사적 공적만을 칭송하고 북송과 거란이 체결한 전연맹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부분 굴욕, 심지어는 ‘성하지맹(城下之盟)’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① 북송의 전쟁 전 역량을 대비해 볼 때 약자가 아니었다. ② 북

18 田相林(2001), 「宋遼“澶淵之盟”：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 『平原大學學報』 18~4, 45~47쪽.

19 李錫厚(2007), 「論非“城下之盟”」, 張希清·田浩·穆紹珩·劉鄉英 主編,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1~22쪽.

송은 공격을 수비로 바꾸었고, 요는 전투에서 화의로 바꾸었다. ③ 전연맹약은 북송이 계속 전쟁을 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하에서 체결한 상호 이익을 위한 협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전연맹약 이후의 요송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요조를 건립한 거란족은 고대 중화민족의 한 조성부분이다. 북송과 마찬가지로 요 역시 스스로 중국을 대표한다고 인식하였고 또한 ‘정통’이라고 자처하였다. 요송 대립 시기는 역사상의 기타 분열시기와 마찬가지로 두 개 혹은 여러 왕조가 중국이라는 영토 위에 병존하였다. 몇몇 분열 정권들은 오히려 모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정통’에 대해 다투었다.

상고시기에 유가들의 이른바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의 구별은 주로 문화에 의한 것이었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거란 통치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접수하였을 뿐 아니라 진일보시켰다. 그들은 요조가 이미 중원의 전통문화를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며 ‘사이(四夷)’에 속하지 않고 마땅히 북송과 병렬한다고 보았다. 전연맹약의 정립 후에 송조는 요조가 견지했던 “남과 북의 두 지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이다(南北兩地, 古今所同)”는 관점을 접수하여 쌍방이 정식으로 남조, 북조라고 호칭하였다. 여기에서 요송은 형제의 나라가 되어 송 진종은 요 성종보다 연장이므로 진종이 형, 성종이 아우가 되었고 승천태후(承天太后)는 숙모가 되었다. 이후 인종대에도 나이에 따라 형제관계를 다시 정하였다. 심지어 요송 황실 사이에 이러한 형제관계를 맺은 것은 당연히 거란족과 한족 두 민족이 골육친정(骨肉親情)을 맺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과 ‘골육친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등은 중국 민족의 융합과 다원일체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너무나 심한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전연맹약을 요송관계의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인식한 우위후안(武玉還, 천더양(陳德洋)의 논문²⁰)에서는 전연맹약의 평가에 대해 역

대 사학계에서는 관점이 달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송의 굴욕화약, 성하지맹이라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쌍방이 균형적인 세력을 이룬 정화 아래서 달성한 쌍방이 모두 유리한 화약이었다고 인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연맹약의 역량이 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보고 쌍방이 모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전연맹약 체결 이후 요송 쌍방의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발전하고, 쌍방은 대립관계에서 형제의 나라로 우호적 교류의 관계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 번째, 위의 논문과 비슷한 관점에서 전연맹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단정하는 쑤치강[蘇啓剛]의 논문²¹에서는 근대 학술계에서 전연맹약에 대한 논술이 매우 풍부하나 아직 정론이 없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 ‘굴욕조약’, ‘타협투항’, ‘성하지맹’ 등은 이미 비교적 소수의견이 되었고 대다수의 관점은 맹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역사유물주의 관점에서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촉진시켰는가, 나아가 사회를 부단히 진보시켰는가의 관점이 하나의 표준인데, 이것에 맞추어 전연맹약을 평가하면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전연맹약이 체결되고 정전이 되면서 장병들이 귀농하여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으니 당연히 당시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 역군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전연맹약은 1,000년 전 중국 경내에서 두 개 민족정권 사이에서 장기적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로 향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하나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유력하게 추진한 평화조약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곱 번째, 당시 황제였던 송 진종에 대한 평가와 전연의 맹약을 연계하

20 武玉還·陳德洋(2007), 『澶淵之盟與遼宋關係』, 張希清·田浩·穆紹珩·劉鄉英 主編, 『澶淵之盟新論』, 上海: 人民出版社, 49~64쪽.

21 蘇啓剛(2007), 『“澶淵之盟”評價管窺』, 張希清·田浩·穆紹珩·劉鄉英 主編, 『澶淵之盟新論』, 上海: 人民出版社, 65~72쪽.

여 논증한 팔리양(方良)의 논지²²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송 진종은 전연의 전투를 이용하여 ‘전요(戰遼)’에서 ‘화요(和遼)’의 전환점에서 요와 화의(和議)를 맺는다는 중대한 전략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송요 쌍방은 100년에 달하는 공존공화적인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는 중국 고대 역사상 ‘한번화호(漢蕃和好)’의 아름다운 일이 되었다. 송요 쌍방은 모두 이를 위해 타협과 양보를 하였는데, 이는 모두 “굽히되 욕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진종은 이 역사사건의 관건을 이루는 인물의 하나이다. 그의 여러 조치를 볼 때 대체로 잘못하지 않았으며 유식하고 지략이 있는 유용한 군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① 양측의 대세는 평화를 향하고 있었다. ② 송 진종은 대체적으로 실수하지 않았다. ③ 전연맹약을 굴욕의 조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쌍방의 대세는 평화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송조 측을 관찰해 보면 ‘화요’는 송 진종이 예정한 국책이고 결코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었다. 송요는 세력 균형을 달성한 후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드시 염증이 날 것이며 쌍방의 대세가 화평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대적 전쟁상태를 어떻게 평화의 공존국면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이고 쌍방은 모두 합당한 시기와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평가와 달리 송 진종은 대체적으로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경덕 원년(1004) 송 진종은 요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작은 과실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잘못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전연맹약을 굴욕의 조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송요의 화약은 서서(誓書)의 형식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확실히 장기적이고 중요한 역사적 효과를 가

22 方良(2000), 「宋眞宗和遼國策平議」, 『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卷17 1期, 94~100쪽.

져왔다는 데 대해 거의 고금의 공론이 되었다. 하지만 화약에 대한 비평은 고금에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굴욕설’이 비록 그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부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전쟁은 미처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비교적 적은 대가로 거대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쌍방은 함께 대가를 지불하였고 똑같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 논문은 특히 진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전연의 맹약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서 왕차이중[王才忠]의 논지²³를 보면, 북송 건국 후 요국 통치집단 내부에 부단히 내분이 발생하고 국력이 부진하여 몇 차례 북한에 출병하여 원조한 것을 제외하면 북송에 대해 침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북송이 남방을 통일한 다음 통치집단은 한층 분발하여 요에 대해 공세를 취할 역량이 있었고 연운의 실지를 수복하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규모 공격이 참패를 당하였다. 그 후에는 북송의 군사력이 부진하였고 거란군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강대하여 거란 귀족은 북송에 대해 부단히 공격과 약탈을 시작하였다. 북방지구의 백성들은 매우 큰 재난을 당하였다. 거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침입은 재물과 인구의 약탈에 있었다. 진종이 즉위한 후 거란의 공격과 약탈이 더욱 심해져 긴장된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거란이 매번 침입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도망하였지만 대량의 재물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약탈의 숫자가 날고 커갔고 그치지 않고 침입하였다. 따라서 전연의 맹약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자오용춘[趙永春]은 전연맹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소극적·적극적 의의가 공존하는 이중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²⁴ 즉 전연

23 王才忠(1994), 「略論“澶淵之盟”」, 『阜陽師院學報(社科版)』 1期, 50~55쪽.

24 趙永春(2008), 「試論“澶淵之盟”對宋遼關係的影響」, 『社會科學輯刊』 2期(總第175期), 131~138쪽.

맹약은 ‘형제지국(兄弟之國)’의 약정과 관련하여 송요 100여 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세폐와 관련된 약정 및 쌍방의 영토적인 이익을 구사하였고, 또한 쌍방의 ‘우호’관계의 발전에는 숨겨진 문제가 잠복되어 있어 끝내는 송요관계의 파열을 맞게 되었다. 전연 맹약 및 그 이후 송요 100여 년의 우호관계는 송조가 “금전으로 평화를 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송조는 완전히 요조와 대항하는 실력을 가지고 평화와 바꾼 것이다. 실제상 전연맹약은 송요관계의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방면에 영향을 미쳤고, 소극적인 방면에 대한 영향까지 합하면 이는 두 가지 중요성을 가진 맹약이다. 즉 이 논문에서는 송요 세력이 균형상태였기 때문에 전연맹약의 성립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끝으로 전연의 맹약 체결 이후 평화상태에 있는 동안의 요송의 대결문제를 다루고 있는 타오위쿤(陶玉坤)²⁵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전연의 맹약으로부터 송요는 100여 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상 송요 두 대국의 힘이 서로 필적한 데서 가능하였다. 쌍방은 모두 균형을 유지하기에 힘썼고 이러한 균형은 또한 동태적이며 발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측 모두 때에 따라 세력이 달랐고 때에 따라 대책을 바꾸었으며 첨예한 정치적인 대항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본문에서는 전연맹약 후에 발생한 요국의 ‘관남쟁지(關南爭地)’가 북송의 세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촉발시켰다는 것과 북송의 왕안석(王安石) 변법이 하북 변강의 위기와 하동 지계(地界)의 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두 차례 송요 간의 두드러진 정치 대항을 먼저 관남쟁지와 경력신정, 다음으로 왕안석 변법과 요송 변강위기로 나누

25 陶玉坤(2000), 「遼宋和盟狀態下的政治對抗」,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卷32 增刊, 22~26쪽.

어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화맹상태하의 송요 쌍방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일시에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없는 형세하에서 단지 제한적인 정치·군사적인 마찰이 진행되었다. 마찰 가운데 북송이 대략 열세에 처해 있고 대부분 시기에 피동적인 국면에 놓여 있었다. 요는 대부분 우세를 점하였으나 대치상태의 균형을 깨기에는 부족하였다.

② 송요 쌍방은 모두 균형을 깨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경력연간에 요가 관남의 땅을 가지고 다투었다. 북송이 견인을 증가시키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위기를 넘겼다. 후에 북송이 경력신정을 실시하여 요국의 능력을 견제하려고 하였지만 내부 인식의 불통일과 외부세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신정은 매우 빨리 좌절되었다.

③ 북송은 다시 왕안석 변법을 야심차게 진행하여 부국강병을 시도하여 요와 대치 중인 가운데 더욱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였지만 요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북 계하(界河) 분규와 하동 지계(地界)의 분쟁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왕안석 변법을 방해하였다.

화맹상태하의 송요 대항은 피차의 세력균형을 바꾸지 못하였다. 요는 앞서 세폐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고, 점점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여진 남하 후 요는 바로 망하였다. 이왕의 논저 가운데 요송 화평상태하의 대항을 북송의 내부개혁이나 요국의 대송 전략과 연계하여 상론한 적은 매우 적은 편인데,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V. 교빙, 사절관계

1. 교빙제도

첫 번째, 송요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빙제도에 대해 고찰한 지아위잉[賈玉英]²⁶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이래 학술계의 송요 교빙제도에 대한 연구는 교빙표의 고찰과 혹은 사절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제도적인 전문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는 ① 송요 교빙제도의 확립과 변화, ② 송요 교빙제도의 조직과 그 기능, ③ 송요 교빙사절의 분류 및 국신사(國信使) 개념 문제, ④ 송요 교빙제도의 작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송요 교빙제도는 체제가 완비되었고, 직능이 광범위하여 사절의 명칭도 매우 많은데, 유형별 분류가 확실하지 않다. ‘국신사는 속칭 범사(泛使)’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송요 교빙 중에 요조는 공격성 정책을 많이 채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자못 많이 얻었다. 송조는 항상 재물 혹은 토지로 평화를 사고, 교빙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보증하였다. 북송시기는 경제·문화·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였는데, 송요 교빙제도의 정상적인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가운데 송요 교빙제도의 작용을 보면, 송요 교빙제도가 확립된 후 양국은 각종 번다한 명목의 예의를 차리는 사절의 왕래와 중대한 사무를 상의할 필요에서 교빙이 많아지면서 양국관계가 밀접해지도록 하였다고 공

26 賈玉英(2005), 「宋遼交聘制度論略」, 『中州學刊』 6期(總第150期), 169~172쪽.

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송요 교빙제도는 송대의 역법 개혁을 촉진하였고, 요조는 교빙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고 있다.

송조는 요조와의 교빙에 있어 기본상으로는 피동적인 지위에 처해 있었지만 이러한 피동적 지위의 형성은 그 ‘굴욕적으로 평화를 구하는[屈辱求和]’ 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조 통치자는 송 통치자의 심리를 장악하였고 무력으로 위협하고 사신을 보내 서로 결합을 주선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재물이나 토지를 얻어갔기 때문에 송인들은 요조의 범사가 온다고 하면 매우 불안해 할 정도였다. 이 제도는 양국 국교의 정상화를 유지 및 보호하였고 경제·문화·과학기술의 발전과 교류를 촉진하여 양국의 전쟁 원인을 해소시키는 등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주목할 점은 전연맹약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는 다르게 송이 거란에 비해 피동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빙제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두 번째, 지아위잉의 또 다른 논문²⁷에서는 교빙 중에 특별한 사절인 범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계에서 송요 교빙 중 대체로 범사 개념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범사는 국신사의 속칭이다. 둘째, 범사는 일반적인 사절이다. 셋째, 범사는 바다를 건너서 온 다른 국사(國使)이다. 본문에서는 송요 교빙 중의 범사를 국신사의 속칭이 아니고, 또한 일반적인 사절도 아니며 바다를 건너서 온 다른 국사도 아니고 국신사 가운데 상사(常使)와 다르며 왕래가 일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절이라고 규정해 본 것이다. 본문은 또한 횡사(橫使) 개념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횡사와 범사가 동일한 종류의 사절이라는 것과 모두 송요 교빙 중 특별사절이라는 것, 즉 송대인 문헌 중에 기록된 ‘전사(專使)’라는 것을 제출하였다.

27 賈玉英(2006), 「有關宋遼交聘中泛使概念的幾點辨析」, 『中國史研究』 2期.

세 번째, 차오시엔정[曹顯徵]의 논문²⁸에서는 요송관계 가운데 교빙제도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송관계는 중국 고대 민족관계사에서 극히 전형성(典型性)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색을 갖는 것은 요송의 교빙제도의 수립과 실시이다. 그런데 사가들의 연구 가운데 요송에서 실시한 수차(首次) 교빙의 배경, 목적, 대외정책 등의 방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전제한 후, 본문에서는 요송이 어떻게 수차 교빙을 실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그것의 실현이 이후의 요송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요송의 수차 교빙 중에 어떠한 결정이 이후 요송 전쟁과 관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송의 수차 교빙은 파란과 곡절, 위기가 있었고, 음영이 교차되고 있다. 이는 요송의 우호관계의 어려움과 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역사상의 원한과 편견을 이후의 요송관계 중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정치적 목적은 양조가 정통왕조적인 지위를 얻어서 천조대국(天朝大國)이 되려고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중요한 외교적 전략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여 주동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제정치와 경제교류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다. 요송 관계사는 바로 이러한 특정한 역사환경하에서 시작되고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 차오시엔정의 또 다른 논문²⁹에서는 역시 요송관계에서 교빙관계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

요송 양조는 974년에 수차례 교빙관계를 실현시킨 후 정단(正旦)국신사

28 曹顯徵(2006), 「遼宋實現首次交聘之背景分析」, 『北方文物』 1期(總第85期), 76~80쪽.

29 曹顯徵(2008), 「遼宋交聘制度的初步確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會科學版)』 卷10 4期, 399~401쪽.

와 생신국신사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교빙 예의제도를 초보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교빙제도의 확립은 양조 간의 일정시간 내의 우호와 평화적인 관계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요송 양조의 부단한 왕래 교류와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송 양조의 미래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평화와 대등 교류의 형식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송 양조는 전연의 맹약 후에 다시 100여 년 평화의 안정적인 국면을 이루었는데, 쌍방의 진일보한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교빙제도가 기여하였다.

2. 사절관계

첫 번째, 요송 사절 교빙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술한 타오위쿤의 논문³⁰에서는 요송의 사신은 양국의 역사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40년대 진위푸[金毓黻], 푸러후안[傅樂煥], 푸쓰니엔[傅斯年] 등의 연구 이후에 거의 연구성과가 없었고,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이래로 요송 사절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활발해졌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요송은 전연맹약 후에 쌍방의 사절이 계속 왕래하였는데, 본문에서 요송이 서로 파견한 사절의 기원과 출사, 접반(接伴) 의식 및 상호 파견한 사절에 대한 당시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역사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요송 평화 100여 년 중 허베이[河北]에

30 陶玉坤(1999), 「遼宋對峙中的使節往來」,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卷31 2期, 10~17쪽.

서 산시[陝西]에 이르는 송의 변계(邊界)는 쌍방이 접촉했던 가까운 지대였으나 사절들은 쌍방의 심장부에까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북 교왕의 더욱 깊은 차원에서 남북 경제와 문화적 상호 영향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요송은 제후(帝后)의 생신과 정단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면서 모두 대량의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갔다. 또한 남북 조정의 정식 예물 이외에도 사신을 영접하고 송별하면서도 대량의 예물을 주었다. 사절 대표는 본국과 출사국 쌍방의 관방 명의로 서로 예물을 교환하였을 뿐 아니라 수행인들도 또한 출사나 영접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무역을 진행하였다. 남북 쌍방의 대량 예물교환은 남북 경제문화 교류의 중요한 내용이다. 표현형식상으로는 비록 무역왕래가 아니지만 그 객관적인 효과는 오히려 매우 범위가 넓었다.

사절의 활동 가운데 남북 문화의 차이성과 서로 융합하는 점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송인은 요인과 왕래하면서 강상(綱常) 예교의 속박을 받았지만 요인은 꼭 그렇지 않았다. 또한 강렬하게 자신의 민족적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중원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 문화의 차이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대치와 평화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점점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바였고 이는 중화민족 다원일체 형성의 중요한 단계였다. 그 가운데 쌍방의 사절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요에 대한 사신과 이 집단의 정치성격의 관계를 다룬 왕산전[王善軍]·왕후이지에[王慧傑]의 논문³¹은 기왕 학계에서 송요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는 비록 많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다룬 바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북송에서 요에 사신으로 간 관원 집단의 외교활동은 송요관계에

31 王善軍·王慧傑(2006), 「簡論使遼對北宋使臣政治性格的影響」,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31期(總第128期), 1~5쪽.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집단 자체의 정치성격 또한 중요한 영향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출사과정에서 체득하고 의지를 닦는 것과 교섭과정 중에서의 심리대응 등 송조의 복잡한 관계(官界)의 심적 연마 등은 사신들의 정치성격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고 보고, ① 출사과정 중의 체력과 의지 연마, ② 교섭과정 중의 심리응변 연마, ③ 송조의 복잡한 관장(官場)관계를 처리하는 심리의 훈련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세 번째, 왕후이지에의 또 다른 논문³²에서는 송요의 장기적인 평화 우호관계의 유지에 송이 요국에 보냈던 높은 자질을 갖춘 사절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절은 우월한 자신의 조건과 양호한 교제능력, 그리고 고도의 업무기능 등을 구비하여 송조 외교사절 가운데 독특한 외교 집단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네 번째, 이들 사절의 출사가 송요 간의 평화적인 교류를 촉진하였다는 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리우치우견(劉秋根), 왕후이지에의 논문³³에서는 먼저 송에서 보낸 요국 사절의 가족성 특징과 그 특징을 형성한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송조에서 요국 사절로 파견한 인물 중 송조의 저명한 세가 대족이 많아서 명확한 가족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그 원인을 ① 송조 세가 대족의 흥성은 사절 집단이 가족성 특징을 형성하는 데 촉진하였다. ② 요국은 사절의 가세(家世)를 중시하여 송조도 그것을 중시하여 선발하도록 촉진하였다. ③ 외교 경험의 전승은 사절이 가족 중에서 선발되는 것을 확대시켰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32 王慧傑(2005), 「宋遣往遼國使節的素質初探」, 『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期.

33 劉秋根·王慧傑(2005), 「論宋朝遣遼使節的家族性特徵及其形成原因」, 『貴州社會科學』 總第198期, 128~132쪽.

VI. 송요 남북조설과 화전

우선, 송요 왕조는 중국 역사상 두 번째 ‘남북조’였다는 설을 제출한 명 구투오리³⁴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20년대까지 200년에 가까운 역사상 상황과 정치국면을 고찰하는 기초 위에 상세한 사료에 입각하여 다방면으로부터 분석하고 논증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요조와 북송의 관계는 중국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이는 요사, 송사 가운데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북방민족사, 민족관계사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깊이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고, 이 단계 역사의 진실한 면모를 진일보하여 해석할 수도 있으며 민족의 단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송요관계의 핵심내용은 중국 역사상 두 번째 ‘남북조’로 개괄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중요한 원인으로 결정된다. 즉 역사적 내용에서도 그러하였고 이미 당시에도 남북조설이 있었다.

첫째, 요조는 북송과 병렬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① 각기 강산의 반절을 영유했기 때문이다. 요조가 북방을 통일한 것이 남방에 비해 반세기가 앞서 있었다. 그 강역이 분명하게 사료에 제시되어 있다. 영토 면적에서 요는 송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영토의 반절씩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도 사실에 접근한다. 이에 비해 볼 때 북송이 “전국을 통일하였다”거나 북송이

34 孟古托力(1990), 「宋遼“南北朝”說考論」, 『學習與探索』 8期(總第68期), 132~138쪽.

“다시 전국 통일을 실현하였다” 등의 표현은 분명히 실제에 맞지 않는다. 인구 숫자 면에서도 대체로 1,000년을 전후하여 북송의 인구는 1,628만, 요조는 600만 정도였다. 요는 송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북송은 중원과 강남 등지에서 활거했던 여러 세력들을 누르고, 허다한 정권을 평정하여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는 당연히 매우 큰 역사적 공헌이다. 요는 송의 2배가 넘는 지역에서 송의 3분의 1의 인구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하여 무력과 항복을 받는 수단으로 결국 많은 부락, 부족을 통일정권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으니 이 역시 의심할 바 없이 큰 공적이다. 사학연구자들은 북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논술을 남겼으나 요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상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② 요 정권의 북강과 동북강의 경략에 대한 노력을 들고 있다. 즉 요가 중국의 영토 범위를 넓히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논증하여 한당보다도 북쪽과 동북영역을 더욱 공고하게 지배했다고 보고 있다. ‘유관(流官)’을 파견하여 진수하게 하여 중앙과 이곳의 관계를 한 걸음 더 강화시킨 것은 실제상으로 요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헌만 해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고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③ 북방 소수민족과 한족의 접근, 융합을 강화시켰다. 야율아보기의 건국을 전후하여 중원 한족 인구는 각종의 방식으로 부단히 복상하였고, 동시에 거란족 등의 인구도 부단히 남하하였다. 이것은 중원 농업문화와 북방 초원문화의 교차였다. 장기적인 교차 중에 반드시 교류 내지는 융합의 추세가 출현하였다. 정상적인 정황하에서 거란 민족은 광대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이론화, 계통화에 힘입어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관념, 개성, 민족의 풍습 내지 복잡한 사회관계 등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봉건적인 물질과 정신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한족을 학습하였다. 여기에서 한족과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좁아졌고 한화는 점점 더 심화되었다. 요조의

지방, 궁전, 토지, 관료선발, 국사실록, 능침제사 등등 모든 제도는 중원 황조에 대한 모방과 계승이었다.

거란족의 한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요 경내의 소수민족도 그들 정권의 추진에 따라서 민족융합의 추세 위에 거란족과 나란히 전진하였다. 여기에서 한인의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때로는 금인이 요 영역 내 각 족을 거란을 포괄하여 한인이라고 통칭하였다. 때로는 원인(元人)이 금 영역 내의 각 족을 거란, 여진, 발해 등을 포괄하여 한인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남송 한인은 남인이라고 불렸다. 칭호의 변화는 거란 등 민족이 한인과 융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한다. 요·금·원 삼조는 중국 역사상 또 한 차례의 민족 대융합의 시기였다.

④ 북방의 경제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즉 요 정권은 적극적으로 중농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농업발전은 유력하게 수공업과 상업을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조는 북송·서하·우전(于闐)·회골(回鶻)·고창(高昌) 등과 상당한 무역관계가 있었다. 고려·신라·일본·페르시아·대식(大食) 등과도 무역왕래를 하였다. 요는 중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여러 역사적 사실이 설명하는 바는 요조의 경제와 문화는 결코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시적이거나 낙후되지 않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아직도 발굴되고 토론할 여지가 많다.

북송의 역사적 공헌은 이미 잘 알려지고 연구되었지만 요조의 역사작용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요는 북송과 병렬할 자격이 있다. 요는 북조라고 칭하고, 송은 남조라고 칭하여 기본관계는 남북조가 되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요 문화의 발전상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한화되었기 때문이고, 한족의 문화와 융합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송요 ‘남북조설’은 쌍방이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북송의 남북조

설에 대한 거절에서 송인으로의 변화를 보면 북송 건립은 남부가 강대하여 요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었다. 새로운 형세 하에서도 요는 남북조설을 견지하였다. 북송의 처음 두 황제는 송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정치·경제·문화의 발전수준 및 인구, 강역 등의 면에서 오대의 여러 왕조와는 비교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운을 수복하고 통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컸기 때문에 변방 오랑캐 정권인 요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었고, 단연코 남북조설을 거절하였다. 정통관념이 후한이나 후주에 비해서 훨씬 강렬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직면하여 송인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과 요를 비교해 보면 경제·문화면에서는 송이 훨씬 앞섰지만 정치면에서는 각종 모순이 점점 첨예화되고 복잡하여 진취정신을 잃어갔다. 요는 개혁을 통해 날로 향상되어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군사방면에서 요는 장기적으로 우세를 점하였고 주동을 장악하였다.

결국 1004년 12월 ‘전연맹약’을 체결하였다. 「송진종서서(宋眞宗誓書)」와 「요성종서서(遼聖宗誓書)」는 쌍방의 중요한 문건이다. 그 가운데 ‘남조’, ‘북조’, ‘양조(兩朝)’, ‘불선(不宣)’, ‘대송황제’와 ‘대거란황제’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즉, 요송 황제는 교류 중에 서로 형제로 부른 것이다. 전연맹약 때 송은 결국 남북조의 호칭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정치국면을 반영한다. 자신이 유일한 정통이라는 정통관념을 포기한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관념, 즉 북방민족인 거란이 건립한 요조와 중원의 한인이 건립한 북송이 동시에 정통 황조라는 것을 확립하였다. 정통과 비정통의 투쟁은 요조의 승리로서 일단락을 고하였다. 이 점은 송인의 사상, 의식상에서 이러한 인식이 심화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송이 남북조라는 호칭에 동의한 것은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고 송의 대내적인 태도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조’ 등 용어의 용량을 분석하였다. 즉 전연맹약 후 송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남북조설을 반대하였다. 여전히 요조와 거란을 용(戎), 노(虜), 이(夷), 적(狄) 등으로 부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송이 국서에 ‘남조’, ‘북조’라고 쓰는 것이 쌍방관계의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전연맹약 후 남북조 식의 호칭이 당시의 중국의 각 정권, 각 계층과 군중 가운데 보편적으로 유행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한다.

중국의 10세기 중엽에서 12세기 20년대, 약 200년 동안 요는 북, 송은 남을 차지한 정치국면을 형성하였고, 또한 요는 송과 병렬될 만한 자격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사람들의 의식상에도 반영되어 바로 중국 역사상 두 번째 남북조가 되었던 것이다. 남북조는 당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또한 합리적이다. ‘당송원명칭’은 7~20세기 초 중국 역사 및 그 시간 서열의 일반적인 호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매우 광범위하고 요구하게 계속된 역사적인 호칭이었지만 결코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당송 사이에 53년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서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병렬한 몇몇 정권의 역사도 말살되었는데, 어떻게 이 시기의 역사를 송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한 것은 ‘당요오대송금원명칭’이다. 이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위의 논문은 1990년에 이미 송요관계를 남북조로 상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역사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의 다원주의적 민족관을 반영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민족 단결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도 요송이 아니라 송요라고 함으로써 송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거란족이 북강과 동북강을 통일하고, 중국의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발전되어

있던 한인과 융합하고 한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고고고시(高考考試)의 중점 항목인 송요·송하·송금 등 민족관계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찡싱왕[彰興旺]의 글³⁵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국의 2005년 고고 『고시대강(考試大綱)』 가운데 ‘고시 범위’에서 ‘요·하·금의 건립과 송요·송하·송금의 화전’에 대한 규정은 현행 고등학교의 통일교재 『중국고대사』 제5장 제4절, 제5절의 목차와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양송시기의 민족관계는 중국 고대사상의 복잡한 내용의 하나이다. 이 내용의 중점은 민족정권의 건립과 정치제도, 민족융합이다. 이 시기 민족관계는 화전이 교착되었기 때문에 난점은 어떻게 송요·송하·송금 사이의 화전을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가운데 민족관계에 대한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하나의 다민족국가이다. 사회적인 진보에 따라 민족 사이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면서 민족관계는 민족사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각 민족 인민이 정치·경제·문화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왕래하며 조국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민족 억압과 외래의 침략에 공동으로 반향한 것이 중국 역사상 민족관계의 중요한 내용이다. 근년에 고고는 민족관계사상 명제에서 각 민족의 공동발전과 민족모순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출제되었다. 민족 간의 화해와 발전을 체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관계 가운데 민족융합, 민족 간 평화와 경제문화교류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중시된다. 그런데 민족모순과 민족 간의 전쟁은 일시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되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의 건의를 제출한다. 특히 송요·송하·송금 화전을 비교해 보

35 彰興旺(2006), 「遼,夏,金の建立與宋遼,宋夏,宋金の和戰」, 『歷史學習』 1期, 8~9쪽.

면 첫째, 이 시기 전쟁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다음의 3개 원칙으로 파악해야 한다.

① 이 시기 민족 간의 모순 투쟁은 모두 중화민족의 내부 모순으로, 시비곡직의 구분과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의 구분이 있을 뿐, 침략과 반침략의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전쟁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전쟁의 목적으로서 정한다. 모든 토지, 인구, 재물을 약탈하여 민족 압박과 수탈을 행한 것은 비정의전쟁이고, 모든 민족 압박과 약탈에 반항한 전쟁은 정의전쟁이다.

③ 이 시기 빈번한 민족전쟁은 각 족 인민에게 재난을 주었지만 동시에 각 족 인민이 더욱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민족융합을 촉진하였다.

다음으로 양송시기 민족관계의 특징에 대한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족정권이 병립하였다.

② 민족모순의 돌출로서 양송·요·하·금 등이 모두 정권 사이의 공격에 따라 망한 것이다.

③ 봉건생산방식이 변강지구에 확대 발전되었고, 민족융합이 주류를 이루었다.

④ 양송정권의 민족정책은 소극적이었고 여러 차례 용병에 실패하였으며, 요·서하·금에게 세폐 등의 방식으로 평화를 바꾸어 얻었다.

이상에 의거하여 다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① 중국은 자고이래로 하나의 다민족국가이고 조국의 역사는 각 족 인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② 양송시기는 중국이 다민족국가로 통일되는 데 진일보한 발전적인 시기이다.

③ 소수민족 정권의 건립은 조국의 변강을 개발하고, 민족융합을 강화

시켰으며, 민족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추진작용을 촉진하였다.

④ 전쟁은 일시적이었고, 우호적인 교류와 평화상태가 장기적이었으며, 각 족 사이의 우호적인 교류가 역사발전의 주류를 이루었다.

위의 글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족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교과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중국에서의 송과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왕조개념이 아니라 민족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만한 점이다.

VII. 민족정책

첫 번째, 북송과 요를 삼국정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쉬지에순(徐杰舜), 루오슈지에(羅樹杰)의 논문³⁶에서는 송요하금은 중국 역사상 또 하나의 동요, 분열적인 시기였고, 그들의 민족정책은 동화성과 기미성(羈縻性)의 특징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송요하금의 민족관계는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소수민족 정권과 한족 정권 사이의 관계는 송요하금 시기 민족관계

36 徐杰舜·羅樹杰(1993), 「宋遼夏金民族政策特點管見」, 『黑龍江民族叢刊』 3期(總第34期), 63~69쪽.

의 주선율이었다. 송 왕조는 979년에 오대십국의 할거국면을 종식시켰지만 북방의 거란과 서북의 당항이 일어나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들이 건립한 요 왕조와 서하 왕조는 송 왕조와 필적할 만한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북송·요·서하가 정립하는 정치국면을 이루었다. 이러한 정립의 가운데 한족이 건립한 북송 왕조는 결국 피동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송요하금 시기에 한족 정권과 각 소수민족 정권 사이에는 주현(州縣)을 쟁탈하고 판도를 확대하기 위해, 또한 재부를 획득하고 정권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과, 때로는 화의가 이 시기 민족관계의 주선율을 구성하였다.

② 송요하금 시기의 민족관계 가운데 한족이 건립한 송 왕조는 때때로 피동적으로 얻어맞는 지위에 있었다. 송요의 관계 중 일찍이 송 건립 이전에 요에게 연운 16주를 빼앗겼기 때문에 피동적인 지위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송 일대에 한족이 건립한 왕조와 거란·당항·여진 등 소수민족 정권의 관계 가운데 전쟁에서만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화의 후의 배상금, 할지(割地) 등은 시종 편만한 날이 없도록 만들었고 때로는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도록 하였다.

③ 한족 군민들의 반침입투쟁은 송금과 송몽 대치시기 민족관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④ 남송시기 한족의 대거 남침은 나아가 한족과 남방 소수민족의 연계를 강화시켰고 이는 이 시기 민족관계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다.

⑤ 한족은 거란·당항·여진 및 기타 소수민족을 동화시켰는데, 이는 송요하금 시기 민족관계 발전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 시기의 동화는 민족 대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한족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가 한족의 선진적인 경제문화의 흡인력은 요·서하·금 등 소수민족 정권의 통치자 가운데 북위 효문제

와 같은 인물이 선후 출현하여 한화정책을 힘써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요의 성종은 요 왕조 한화정책 실행의 대표로 거란족 한화에 앞장섰고, 서하의 의종(毅宗), 송종(崇宗), 인종(仁宗)은 모두 한화정책을 실시했던 인물들이다. 거란·당항·여진 등 족이 건립한 정권과 한족 정권이 정립하여 대치했던 처음에 소수민족의 통치자들은 정복자로서 북송의 영토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에 피정복자로서 문명에 정복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고 기본상으로 한족에게 동화되었다. 이는 송요하금 시기 민족관계 발전의 중요한 성과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의 환경 가운데 송요하금 민족정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동화성이다. 이른바 동화성은 바로 민족정책 중 몇몇 민족이 자기민족의 특징을 상실하도록 하고 다른 민족의 특징을 변화하는 것이다. 송요하금시기 중원에 입주한 북방 소수민족 정권이 채택한 한화정책은 삼국양진남북조시기에 중원에 입주한 소수민족 정권이 실행했던 한화정책과 서로 차이가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족 사대부 임용, ‘호한분치(胡漢分治)’의 실행, 한족 문화의 학습, 한족 풍속의 모방, 목축을 농업으로 바꾸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요의 입장을 위주로 서술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란족의 특수성보다 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준다.

중원에 입주한 북방 소수민족 정권은 한화정책을 실시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송요하금시기에 민족동화를 얻는데 거대한 조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류가 석권하는 가운데 거란·여진·당항 등 북방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한화되었다. 한족은 이 동화 조류의 충격하에 진일보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이 안에서 지적할 점은 이때에 중원에 입주한 북방 소수민족 정권은 한화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행하기를 강제하였다. 이러한 동화는 기타 소수민족의 민족정책

이 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일방면으로 소수 민족의 수령과 귀족에 대해서는 위무책을 실시하여 ‘일체화’사상을 선양하였다. 그들과 통치민족 귀족이 함께 그들을 통치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군중에 대해서 분산과 강제이주와 그 부락 내의 편입, 혹은 군대로 모집하여 편입시켰다.

또 다른 송요하금 민족정책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기미성이다. 이는 바로 민족정책 중 ‘이이치이(以夷治夷)’로서 소수민족에게 일정한 자주권을 주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에 중원에 입주한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이 동화정책을 집행할 때 한족 정권은 소수민족 지구에 오히려 기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미주, 현, 동(洞)의 설치, 지역의 유력자를 추대하여 수령으로 삼은 것 등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요와 송을 남북 대치정권으로 규정, 다민족공존적인 왕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청니나[程妮娜]³⁷의 논지를 보도록 하겠다.

요송은 당조가 민족지구에 기미부주(靺鞨府州)를 설치하였던 정책을 모두 계승하였다. 각 민족의 습속에 따라서 통치하던 방침을 준수하였고 변강 민족지구에 민족 특성을 갖춘 행정을 세웠다. 비교하여 말하자면 송의 소수민족에 대한 통괄은 요와 같이 긴밀하지 않았다. 요송 민족정책의 차이는 주로 요 거란 통치집단과 송 한족 통치집단의 정치이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전자는 강력한 통치에 중점을 두어 직접적인 경제이익과 병력의 보충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후자는 안무하고 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족지구의 안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돈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려줌으로써 소수민족의 신복(臣服)을 구하였다. 요송의 이렇게

37 程妮娜(2006), 「強力與綏懷：遼宋民族政策比較研究」, 『文史哲』 3期(總第294期), 117~124쪽.

다른 민족정책은 이후의 각 왕조에게 모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은 자고이래로 다민족국가로서 대일통(大一統)의 한당제국은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요송 정권과 마찬가지로 다민족공존적인 왕조였다. 요송은 소수민족지구에 대해 통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정도가 같지는 않지만 당조의 변강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정책을 계승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두 왕조의 상이한 국정(國情)에 근거하여 거란 통치집단은 한족 통치집단과 상이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변강민족을 다스렸다. 두 왕조는 각기 경내에서 변강 소수민족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 준다. 이 논문에서는 요조가 동북민족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정책과 송조가 남방 만이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요송 민족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요송은 변강민족에 대한 통치방식에서 단순한 분봉(分封) 책봉제가 아니라 해당지역의 습속에 따라 통치하는 특징을 갖춘 민족정책을 세우고 아울러 양조는 모두 변강민족에 대해 직접 통치와 기미 통치를 병행하는 통치방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당조에서 변강민족지구에 일찍이 보편적으로 설치하였던 기미부주에 비하여 중국 봉건왕조의 변강 민족지구에 대한 통치형식에 중요한 변화를 발생시킨 것이다. 당조는 비록 멸망했지만 변강민족사회 가운데에는 아직도 기미부주의 유제가 남아 있었다. 이는 요송 왕조가 변강에서 소수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요송 양조의 변강민족에게 실시한 제도와 관리의 특징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요송 양조는 모두 습속에 따라서 통치하는 정책을 행하였고 변강민족지구에 민족적인 특성을 갖는 행정체계를 설립하여 통치를 행하였다. 요 거란 통치집단 자체가 동북지구의 토착민족이었기 때문에 동북 각 민족의 분포와 사회발전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하고 있었고, 각

민족지구에 설립한 행정제도는 해당 지역의 민족 사회발전의 수준과 부합되었으며, 또한 효과적으로 해당 민족지구의 정치·경제 통치를 실현하였다. 요조는 동북 민족지구에서 설립한 행정체계는 비록 상당히 기미통치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지만 민족지구에 대한 통치의 긴밀 정도는 당조의 기미부주를 훨씬 능가하였다. 송조는 요 지구의 통치에서 당의 기미부주 제도를 계승하는 기초 위에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다. 총체적으로 요송 양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송의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는 요와 같이 긴밀하지 않았다.

이상 서술한 요송의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정책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그들은 모두 당조의 민족지구 기미부주를 설치하는 정책을 계승하였으며 아울러 발전하였고, 더욱이 요는 다른 유형의 민족지구를 설치하여 거란 왕조의 동북 민족지구에 대한 최대한의 강력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요송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후래의 왕조들도 계승하여 금·원·명 등 왕조의 발전을 거쳐 청대에 이르러 민족통치의 특성을 살린 행정구획제도로 형성되었다.

요송 왕조가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정책은 또한 명확한 차이점도 보여 준다. 양조 경내의 소수민족사회 자체의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 중요한 차이는 거란 통치집단이 송 한족 통치집단과는 정치이념이 다르고 소수민족의 통치도 달랐다. 요는 강력한 통치를 통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군대 병력의 보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송은 안정과 위무를 통해 민족지구의 사회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막대한 물적 상사(賞賜)를 아까워하지 않고 소수민족이 신복(臣服)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요송의 접경지역을 다룬 게 아니라 요는 동북지구, 송은 남방의 만이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는 두 영역 모두 현재 중국의 통치지

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들 지역이 중국의 통치, 혹은 간접지배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용어상 조(朝)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만 요 거란 통치집단, 송 한족 통치집단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 영토 내에 병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송요를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번째, 요조는 중국 역사상 소수민족이 건립한 다민족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왕청꾸오[王成國] 논문³⁸의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는 200여 년에 걸친 역사과정 가운데 중국 북방의 경제 건설과 문화적 진보에서 공헌하였다. 비록 그 발전 수준과 발달 정도가 전대인 당조, 심지어 낙후되었던 동시대의 오대, 북송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의 특정한 역사조건하에서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란족은 자기의 민족우세를 발휘하여 한족과 그 안의 북방 제족을 포괄하여 정복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 2세기 동안 다민족국가의 통일과 각 족 민족 역사의 공동 진보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거란 통치자는 본국의 다민족 조직을 결합하고 당대 민족 통치의 경험을 흡수하여 본 민족의 특징을 갖춘 민족통치 정책을 제정하여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이 논문은 바로 이를 주로 하여 민족통치 정책의 형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한 특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우선 예로부터 중국은 하나의 다민족국가이고, 중국의 역사는 다민족의 역사로서 거란도 다민족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거란족만이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을 포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치지위에 있던 거란족이 무력, 경제발전, 문화 정도에서 가장 강하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요대 민족정책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중체제를 위주로 하

38 王成國(1987), 「遼代民族政策初探」, 『北方文物』 2期, 61~66쪽.

는 한족에 대한 정책과 발해에 대한 정책, 기타 각족에 대한 정책을 서술하면서 ‘인속이치(因俗以治)’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요대 민족정책은 요조가 이민족 통치를 추진하는 방침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것의 출현은 일정한 역사 시기 동안 요조 다민족 대국의 통일을 보호하기 위해 출현했을 뿐 아니라 각 민족 역사의 공동 진보 방면에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그 의의는 거란 민족이 건립한 요조 및 그들이 추진했던 민족통치 정책이 중국 다민족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정책을 제정한 결정 인물들이 거란 통치자들이었고 그 의미는 그들이 대표하는 발해 상층부를 포함하는 거란 귀족이 대내적으로 통치계급의 이익을 유지·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민족정책의 실질은 피통치계급과 민족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데 유리한 일종의 수단이 되었다. 그들의 민족정책은 요 경내의 복잡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상이었고 민족압박이 조성한 민족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것 역시 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요조 자체가 다민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요 왕조의 외교정책은 기민하고 다변적이었다고 전제한 마오파[苗波]³⁹의 논지를 보겠다.

요 왕조의 강적은 북송 왕조였으며 따라서 외교정책의 중점은 북송과의 관계에 있었다. 주변 기타 제국과의 관계는 북송과의 관계를 보면서 정해졌다. 서하와는 때로 연합하여 송을 누르고 때로는 피차에 충돌하기도 하였다. 고려와는 평화적인 교류를 하였고 때로는 은위(恩威)를 보여 주기도 했는데, 목적은 고려와 북송의 연합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건국 초기에

39 苗波(1993), 「試論遼王朝的外交政策」, 『昭烏達蒙古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卷14 1期, 14~20·23쪽.

는 요 태조, 요 태종 등 몇몇 황제가 주로 대외 확장정책을 취하여 그 영토를 계속 확장하였다. 요 태종 때에는 연운 16주를 병탄했을 뿐 아니라 그 세력을 황허의 남안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몇 황제는 전 중국을 통일시키고자 했다. 성종 이후에 이르면 북송과 20여 년의 전쟁을 거쳐 대일통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북송과 전연맹약을 체결하였다. 이때부터 비록 주변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여 년의 우호적이고 평등한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송, 서하 삼국정립의 형세 아래 요 왕조는 확립되어 중국과 함께 200여 년에 달하는 시기 동안 융거하였다.

요 왕조는 200여 년 동안 중국의 반에 융거하여 당시의 북송, 서하와 삼국정립의 국면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이는 요 왕조의 통치자가 대내적으로 “나라의 제도로는 거란을 다스리고, 한족의 제도로는 한인을 대한다(以國制治契丹, 以漢制對漢人)”는 ‘인속이치’의 정치상 다원화된 통치방법을 실행하고 아울러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각종 유효한 외교수단을 취하였다. 특별히 국내와 국외의 형세에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요 왕조의 외교정책은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취하여 자국을 공고하게 하는 필요에 적응하였다.

요 왕조의 외교정책의 중점은 북송에 대한 관계였다. 당시 실제적으로 요국과 대항할 만한 나라는 북송 왕조였기 때문에 북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망과 직접 관계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중점을 둘러싸고 서하·여진·조선 등 국가와 민족의 외교관계를 전개하였다. 이 내용은 ① 북송과는 전쟁 이후에 화의, 상호 타협, 각기 강산을 반분, ② 서하와는 때로 연합하여 송을 견제, 때로 충돌, ③ 고려와는 평화 교류, 때로는 은위 병용, ④ 생여진과 상호 적대, 대금국은 결국 요조를 매장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송요관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

태조의 확장정책은 비록 북방 각 족 인민에게 전쟁의 재난을 주었지만 요국은 중국 역사상 북방지구의 대일통을 처음으로 실현하였고, 중국 북강의 안정을 이루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요송 간 직접적인 충돌은 바로 건형(乾亨) 원년(979)의 고량하 전투이다. 송요전쟁의 기본원인은 모두 상대방을 멸망시키려는 데 있었지만 고량하 전투의 기본원인은 오히려 연운 16주에 대한 쟁탈에 있었다. 그런데 요송 사이에 전연맹약의 방식으로 양국의 적대적 국면을 종식시킨 것에 대해서 사학계에는 상이한 시각과 쟁론이 계속되어 왔다. 어떤 사람은 전연맹약의 체결이 북송 왕조의 굴욕과 매국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조약의 체결이 상당한 진보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송요 사이에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전쟁이 끝내 화의 형식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보고 있다.

전연맹약의 체결은 북송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의 좌절이자 꺾이지 않은 타협이었다. 또한 이러한 타협은 북송이 매년 은 10만 냥, 전 20만 필의 거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요의 입장에서조차 역시 일종의 타협이었다. 전투에서 요가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조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실력이 중원에 들어가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전쟁의 수단으로 북송 왕조를 전복시키려는 기도를 버렸다. 결론적으로 송요 쌍방의 이러한 타협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당 말 이래로 중국에는 장기적으로 대분열적인 국면이 출현하였다. 요송 시기에 이르면 중국의 대일통이 다시 새롭게 출현하였고 이는 인심이 향하는 바이자 대세가 흐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식 하에서 송요 양국은 각기 나누어 선후하여 중국의 북방과 중원, 남방을 통일하여 각기 반절의 강산을 영유하여 남조와 북국의 대치국면을 형성하였다. 둘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는 전 중국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했기에 요송의 쌍방은 모두 전쟁의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서로의 역량을 비교한 후에 쌍방은 모두 전 중국 대일통의 시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누구도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송요 쌍방은 휴전의 화약을 체결하여 각기 절반의 강산을 지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중국 영토의 모든 지역에 살던 민족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정책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중국인의 일부를 이루는 요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볼 수 있다.

VIII. 맺음말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송요관계사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성과는 어떠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상이한 해석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 학계의 송요관계사 연구는 그 입장과 시각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의 민족문제 처리방식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다민족주의의 입장과 전통적인 입장인 한족 왕조 송을 위주로 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여 준다. 단 1980년대 이후 많은 논문이 통일적인 다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추세이다. 특히 ‘동북공정’과 관

련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입증하기 위해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사를 중국 내부의 민족모순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송요 간에 비록 격렬한 전쟁과 충돌이 적지 않았지만 평화적인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고, 양자 사이의 정치·경제·문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민족융합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송요관계를 보는 시각,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송요와 서하, 남송과 금의 관계 등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논고가 다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용어상 ‘조’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만 요 거란 통치집단, 송 한족 통치집단, 혹은 정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 영토 내에 병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은 요가 군사적으로는 앞서 있었으나 경제·문화적으로 송이 우월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주목할 점은 송과 요가 병존했던 시기를 지칭할 때 ‘남북조’ 내지는 ‘삼국정립’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송요하금 시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송과 요를 병기할 때 기존의 ‘송요’라는 표현 대신 ‘요송’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요의 입장을 위주로 서술하는 논고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송조 정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송은 봉건제, 요는 봉건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여 봉건제에 대해 비판하는 논고 또한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송 초기 송요관계에서 종래에는 태조와 태종이 연운 16주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송요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전연의 맹약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논조가 송조에게 굴욕적이었거나

‘성하지맹’이라는 시각을 비판하고 평등적이며 송요의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이끌어 나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족 왕조인 송을 정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남북조로 규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적·현재적인 관점을 역사 해석에 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의 송대 화이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송대 한족을 이민족과 구별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화이론이 송대의 조야에서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당시의 두 민족이 통일적인 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물론 개인 연구를 통한 관계사에서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논고가 다수 있다. 그러나 관계사에서 각기 다른 민족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연구한다면 이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민족의 단결’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서하사 연구동향

－ 언어, 문자, 문헌, 기원 및 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유원준 | 경희대학교

I. 머리말

II. 흑수성 문서 및 서하학의 성립

III. 서하자와 서하어 연구

IV. 서하문 및 한문 문헌 연구

V. 당항족의 기원 및 국호 연구

VI. 주변국가와의 관계사 연구

I. 머리말

서하는 칭기즈칸의 군대에 멸망당한 뒤 약 700여 년 동안 사막의 모래 속에 파묻힌 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왕국이 되고 말았다.¹ 서하는 분명 요·송·금과 함께 중국사의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였지만 정사에 포함되지 못한, 역사의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으로 간주되었고, 국가와 종족의 소멸로 언어·문자·문화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² 서하는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보물찾기’ 경쟁의 와중에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대부분의 출토 유물이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둔황학(敦煌學)과 매우 흡사한 운명을 지니고 나타났다.

서하사 연구는 일종의 ‘절학(絶學)’을 복구하는 작업이어서 역사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에 앞서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에 서하사 연구는 중국 역대의 다른 왕조사와 달리 역사학 단독 연구라기보다는 언어학, 문자학, 고고학, 인류학 등 다방면

* 본 논문은 2009년도 동북아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1 서하(1038~1227)는 전기에는 북송·요와, 후기에는 남송·금과 정립하다가 1227년 몽골에 의해 멸망한 뒤 탕구트인(黨項人)들은 각처로 흩어졌고, 원·명대를 거치면서 언어·문자 등은 물론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 2 원대에 『요사』·『송사』·『금사』를 편찬하면서 별도의 『서하사』를 만들지 않고 『遼史』의 「西夏傳」, 『宋史』의 「夏國傳」, 『金史』의 「西夏外紀」로 처리하였다. 그것은 서하가 이들 3개국에 필적할 만하지 못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료 부족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무튼 서하사는 전과 기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그 면모를 살펴보기 힘들게 되었고, 중국사의 조역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잊혀진 낯설고 모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의 학제 간 협조를 필요로 하며, 특히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하나의 독립된 '서하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³

20세기에 서하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 학계에서 서하사는 송사 연구의 일환으로만 취급되었을 뿐 서하 자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하가 얼마나 잊혀진 존재였는지는 베이징(北京) 근교 거용관(居庸關) 운대(雲臺)에 새겨진 6종의 언어 가운데 서하자는 19세기 말까지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판별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⁴ 그리고 1920~1930년대 한때 주목받기도 했지만 계속된 전쟁과 정쟁으로 오랜 침체기에 빠졌다가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서하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⁵

3 西夏學은 갑골학·돈황학 등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이 매우 포괄적인 학문이며 서하어문학·서하고고학·서하역사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서하학'이란 용어는 1920년대 일부 서하 연구 논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黑水城 서하문헌과 서하어·서하문자에 대한 연구를 뜻하였다. 王靜如는 『西夏文專號』(1932)에서 '西夏字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0~1960년대 소련 등에서 서하의 역사문화 연구가 심화되면서 점차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오늘날과 같은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확립되었다.

4 元 順帝 至正 5년(1345)에 베이징 거용관에 '過街3塔'을 세우면서 塔座 券門 양쪽 벽에 산스크리트(梵)·티베트(藏)·파스파(八思巴)·한(漢)·위구르(回鶻)·서하 등 6종 문자로 『佛頂尊勝陀羅尼經』과 '造塔功德記' 등을 새겨 놓았는데, 그 가운데 서하자는 19세기 말까지 무슨 글자인지 판별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1870년 영국 학자 A. Wylie는 그것이 여진문자라고 주장했지만, 프랑스 학자 Deviria는 開封의 女真文 宴台碑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부인했고, 1898년 비로소 涼州碑를 근거로 서하자임을 주장하였다. 塔座는 명대부터 雲臺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5 서하학이란 용어와 개념은 갑골학·돈황학 등의 영향을 받아 일찍 형성되었고, 티베트학·몽골학과 함께 포괄적인 지역학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서하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국제학술대회를 중국이 주최한 것은 1995년 寧夏 銀川에서 열린 '首屆西夏學國際學術研討會'가 처음이었다.

반면 우리 학계의 서하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신채식·김위현·안준광·김용완·장인성·박지훈 등이 발표한 10여 편의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서하사 전공자는 한 명도 없고, 논문 또한 김위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송조의 입장에서 서하사를 연구한 것일 뿐 서하사 자체에 대한 연구성과라고는 하기 힘들다.⁶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서하사를 전공하려는 후학도 찾아보기 힘들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서하사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먼저 요사나 금사 연구자는 물론이고 송사 연구자조차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학계나 사회의 수요가 미미한 서하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며 연구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와 관련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고, 서하어·티베트어·러시아어 등 언어 장벽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10~13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데 서하사가 불요불급하거나 연구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어도 무방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역사적 실체인 서하사 연구의 당위성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유난히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던 당시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한 축을 빼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모습은

6 申採湜(1964), 「北宋 仁宗期에 있어서 對西夏政策의 變遷에 關하여」, 『歷史教育』 8; 申採湜(1967), 「宋·西夏貿易考」, 『歷史教育』 10; 張寅成·鄭起燾(1982), 「北宋士大夫의 西夏觀과 慶曆改革: 范仲淹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0; 金容完(1987), 「北宋과 遼·夏邊境上의 密貿易 問題」, 『濟州史學』 3; 金渭顯(1985), 「契丹의 對西夏政策①」, 『白山學報』 32; 金渭顯(1986), 「契丹의 對西夏政策②」, 『白山學報』 33; 金渭顯(1995),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金渭顯(2002), 「宋史鑑·西夏列傳」, 『宋史研究論文集』, 河北大學出版社; 朴志焄(1990), 「北宋의 對外經濟關係와 華夷觀: 對遼·西夏關係를 中心으로」, 『梨花史學研究』 19; 安俊光(1994), 「宋·夏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39; 安俊光(1997), 「宋·夏7年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44.

아니다.

또 서하사는 중국에서 중원왕조와 주변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하사를 비롯한 비한족사(非漢族史)를 바라보는 중국 학계의 시각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의 틀에 고정되어 있다. 우펑윈(吳峰雲)은 “서하는 당항민족을 중심으로 한·토번·회골 등의 여러 민족을 포괄하여 중국 서북지역에 건립한 봉건지방할거정권이며, 중국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약 2세기에 걸쳐 유지하면서 전기에는 북송·요, 후기에는 남송·금과 서하로 정립하면서 중국 서북부지역의 민족융합과 봉건소유제경제의 발전, 그리고 원 초에 출현한 국가 대통일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주장한다.⁷

이 점은 관계사에 대한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리우지앤리(劉建麗)는 “서하는 190여 년 동안 주변의 송·요·금·토번·회골 등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고, 여러 가지 관계의 제약 속에서 서하와 주변 정권 및 민족은 서로 의존하고 촉진하며 함께 발전하여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다원화의 기초 위에서 점차 통일을 향해 가게 했다. 이것은 민족관계 발전의 커다란 추세이며 주된 흐름이다. 서하는 원조의 대통일에 건실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서하의 역사는 바로 서하와 주변민족과의 관계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⁸

나아가 관계사의 시각도 우티엔치(吳天墀)의 경우 “이원호(李元昊)는 장기전의 부담 때문에 송과 전쟁을 하는 동시에 부단히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민들에게도 염전 분위기가 만연되었다”⁹고 강조함으로써 서

7 吳峰雲(2004), 「20世紀西夏考古重大發現」,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8 劉建麗(2004), 「20世紀西夏與周邊民族關係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9 吳天墀(2006), 『西夏史稿』, 廣西師範大學, 49~50, 53~57쪽.

하의 인민들이 송조와의 화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하는 등 사실상 변형된 화이론(華夷論)에 가까운 시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 사학계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인 기는 하지만 서하사의 경우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중국 서북지방 진출에서 촉발되었다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즉 출발부터 중국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바탕에 깔고 연구를 시작한 서북 역사지리의 일환이었던 서하사는 서북지방 영토 및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정립의 사례로 매우 적합하며, 특히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역사를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던 것이다.¹⁰

따라서 서하사 각 분야에 대한 중국 학계의 입장과 논리,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 학계에서 서하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의 합리적 해석과 공유를 위한 작업을 위해서도, 또 고려사에 대한 역사해석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필자의 능력으로는 서하사 연구성과와 향후 동향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하기도 쉽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와 전망을 하는 것은 더더욱 능력 밖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산길을 가다 보면 좁은 오솔길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서하사 연구의 과정과 현황을 언어, 문자, 문헌, 기원 및 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하여 서

10 陳育寧은 향후 서하사의 과제로서 연구주제 선정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하며, 中華民族多元一體라는 관점에서 당항강 위주의 서하가 중국 서북지역의 개발과 지역적 통일에 기여한 바, 그리고 원대 중화민족대통일의 역사에 기여한 점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陳育寧(2004), 『承百年傳統 創未來新業：20世紀西夏研究回顧與展望』, 寧夏人民出版社].

하 사회의 성격과 분기, 관제, 군사제도, 경제, 문화예술, 종교, 지리, 유민(遺民) 등에 관한 연구성과, 그리고 각국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¹¹

II. 흑수성 문서 및 서하학의 성립

청 중기부터 고증학의 일환으로 공백상태에 있던 서하의 역사가 조금씩 이나마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청말민초(清末民初)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장지엔(張鑒)의 『서하기사본말(西夏紀事本末)』,¹² 우광청(吳廣成)의 『서하서사(西夏書事)』,¹³ 장쥔(張澍)의 『서하성씨록(西夏姓氏錄)』,¹⁴ 왕런쥘(王仁俊)

11 본 연구는 寧夏大學 西夏學研究中心에서 발간된 자료, 특히 王天順의 『西夏學概論』(1995, 蘭州, 甘肅文化出版社)과 2004년 말에 출간된 『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478쪽)으로부터 지대한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西夏學研究中心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준 杜建衆 교수께 감사드린다.

12 張鑒의 『西夏紀事本末』은 唐 僖宗 中和年間(881~885)에 拓跋思恭이 夏國公 겸 夏州節度使로 夏州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1227년 몽골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350년의 역사를 기록한 36권의 기사본말체 사서이다. 淸 光緒 11년 金陵刻本(1885)이 1903년 上海에서, 1981년 臺北 文海出版社에서 영인 출판되었다. 1998년 龔世俊·陳廣恩·朱巧雲의 校點本이 甘肅文化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13 吳廣成의 『西夏書事』는 漢文 西夏史籍 가운데 분량과 내용이 가장 상세한 것으로서 唐 中和 1년(881)부터 1231년까지를 기록한 42권의 綱目體 사서이다. 淸 道光 5년(1825) 小峴山房刻本이 1935년 北京 文奎堂에서, 1968년 臺北 華文書局에서 영인 출판되었다. 1995년 龔世俊 등이 교정한 『西夏書事校證』이 甘肅文化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西夏書事』는 내용이 상세하기는 하지만 褒貶사상과 正統論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함부로 인용하거나 임의로 바꾼 것이 많아 긍정적



의 『서하문철(西夏文綴)』과 『서하예문지(西夏藝文志)』,¹⁵ 저자 미상의 『서하지략(西夏志略)』,¹⁶ 저우춘(周椿)의 『서하서(西夏書)』,¹⁷ 따이시장(戴錫章)의 『서하기(西夏紀)』,¹⁸ 루어푸창(羅福萇)·루어푸이(羅福頤)의 『송사하국전집주(宋史夏國傳集注)』¹⁹ 등이 있다. 하지만 천쿤(陳崑)의 『서하사략(西夏事略)』 등 일실된 서적도 다수 있었다.²⁰

서하사 관련 문헌 편집과 함께 1804년에 장쥔(1776~1847)가 현 간쑤성[甘肅省] 우웨이[武威] 청응사(淸應寺)에서 처음으로 서하문자로 쓰여진 ‘중수량주호국사감응탑비’ 비문을 발견한 일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²¹ 이어서 1805년에 금석학자 리우칭위엔(劉青園)은 우웨이에서 발견한

평가 못지않게 지적당한 문제도 많았다. 龔世俊 등의 교정본은 宋·元代 사서·문집·잡사 등을 폭넓게 이용하여 651개 항목을 교정하는 한편 그 근거를 밝혀 원서의 문제를 많이 보완하였다.

- 14 張澍의 『西夏姓氏錄』은 1卷이며 서하의 각종 성씨에 관한 자료로서 淸雪堂叢刻本이 있다.
- 15 王仁俊의 『西夏文綴』은 2卷이며 『西夏藝文志』는 1卷으로서 淸 光緒 20년(1904)刊本이 있다.
- 16 『西夏志略』校證本은 1998년 胡玉冰에 의해 甘肅文化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 17 周椿의 『西夏書』는 嘉慶 9년(1804)에 만들어진 최초의 紀傳體 사서이다. 그러나 책이 완성된 뒤 지금까지 발간되지 못한 채 필사본만 일부 유포되었을 뿐이다. 『光緒杭州藝文志』에 따르면 본래는 15권이었는데 그중 5권이 일실되어 현재 北京大學 도서관 善本室에는 10卷만 남아 있다. 『西夏書』는 존재하기만 할 뿐 아무도 보지 못한 책이어서 학계에 끼친 영향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 18 戴錫章의 『西夏紀』는 민국시기에 완성된 것으로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한 28卷의 編年體 사서이다. 陳崑의 『西夏事略』을 저본으로 삼아 300여 종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1924년 北京 京華印書館에서 鉛印本 10冊을 출간하였고, 1968년 臺北 華文書局에서도 영인 출판되었으며, 1988년 羅矛昆 點校本이 寧夏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 19 羅福萇·羅福頤의 『宋史夏國傳集注』 14卷은 『國立北平圖書館館刊』 4-3, 西夏文專號(1932)에 수록되었다.
- 20 陳崑의 『西夏事略』 16卷을 비롯해 洪亮吉의 『西夏國志』 16卷, 王曇의 『西夏書』 4冊, 秦恩復의 『西夏書』 20卷, 徐松의 『西夏書』와 『西夏地理考』 등은 이미 逸失되었다.
- 21 관리아자 西北 역사지리에 조예가 깊었던 張澍는 요양차 고향 武威에 왔다가 淸應寺





고전(古錢)에 써진 글자를 보고 남송 홍준[洪遵]의 『천지(泉志)』에서 말하던 ‘범자전(梵字錢)’이라고 간주했는데, 1809년 상링[尙麟]은 『길금소견록(吉金所見錄)』에서 그것이 ‘감응탑비’의 서하자와 같다는 점을 들어 ‘범자전’이 아니라 바로 서하자가 쓰여진 서하의 동전임을 밝혀냈다.²²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여전히 전통사학의 관점과 방법론에 입각해 사료의 정리와 사실을 배열하는 데 머물렀을 뿐이며, 서하자의 발견도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학계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새로운 연구풍토를 조성하지는 못하였다.²³ 따라서 근대학문으로서의 서하학은 20세기 초 프랑스와 러시아 학자 등에 의해 진행된 흑수성 서하문헌 연구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서하학은 1909년 러시아 군인 코즐로프(Vladimir Kozlov, 科茲洛夫, 1863~1935)의 흑수성(黑水城, Khara Khoto) 도굴로부터 시작하였다. 1908

에서 오랫동안 벽돌로 봉해 놓았던 碑亭을 개봉하고 높이 2.5m, 폭 0.9m의 ‘重修涼州護國寺感應塔碑’를 보았는데, 비석 전면에는 식별 불가한 문자로 써진 비문이 있었다. 張澍는 漢文으로 쓴 뒷면 비문에서 “天祐民安5年歲次甲戌15年戊子建”이라는 西夏의 年號를 찾아내어 그것이 1094년에 작성된 서하자임을 발견했다. 비석에는 총 28行, 각 行 65字의 서하자로 불법의 무궁함과 서하 황제의 불법 숭상 및 공덕을 기술하면서 서하의 정치·경제·종교·건축·문화 관련 사실이 실려 있었다. 張澍는 이 사실을 『書西夏天祐民安碑後』라는 글로 써서 자신의 문집인 『養素堂文集』 卷19에 수록, 1837년에 간행하였다[羅福頤(1981), 『西夏護國寺感應塔碑介紹』, 『文物』 4·5; 陳炳應(1979), 『重修護國寺感應塔碑(西夏碑)』, 『文物』 12].

22 牛達生(2004), 「20世紀西夏錢幣和官印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23 이는 청 말의 국력 쇠퇴와 학술의 부진 외에도 전통학문의 보수적·폐쇄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최초의 서하자 발견에서 잘 드러난다. 張澍가 失傳된 지 오래된 서하자를 처음으로 찾아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놀라운 발견은 자신의 개인문집 안에 실렸을 뿐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서하자를 처음 발견해 놓고도 그것이 오랫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발견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따라서 현재 국제학계에서는 프랑스의 Deviria를 최초의 서하자 발견자로 평가하고 있다[楊浣(2004), 「20世紀中國西夏學學術園地」,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년 코즐로프는 칭짱[靑藏]고원 탐사를 위해 러시아 황실 몽골쓰촨지리탐험대를 이끌고 네이멍구[內蒙古] 아라산맹[阿拉善盟] 어지나치[額濟納旗]에 왔다가 현지인으로부터 흑수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두 차례에 걸쳐 8,000여 점의 서적과 유물을 도굴하여 러시아로 가져갔다. 코즐로프가 가져간 서적 345종 가운데 80%는 불경이었고, 60여 종은 정치·법률·군사·언어·문자·문학·역법·의약학·점복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서서리아·돌궐·여진·몽골 문헌도 있었다.²⁴ 코즐로프가 가져간 자료는 현재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페테르부르크 분소와 에르미타슈박물관(State Hermitage Museum)에 보관 중이다. 1914년, 영국의 스타인(M. A. Stein, 斯坦因, 1862~1943), 프랑스의 보시아, 일본의 다치바나 즈이쵸[橋端超] 등이 뒤이어 흑수성에 와서 도굴을 감행하고 많은 서하 유물을 본국으로 반출해 갔다.

이렇게 ‘흑수성 문헌’이라는 진귀한 자료를 독점한 러시아와 일본 등의 중국학 전문가들이 조금씩 관련 자료를 정리 분석하면서²⁵ 서하학은 한문 문헌을 편집하여 연구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서하자 문헌을 주 자료로 하여 서하의 언어와 어법을 분석하는 현대적인 학문으로 변화하기 시작

²⁴ Kozlov는 현지 안내인으로부터 과거 黑將軍이 중국과 싸우다 중과부적이 되자 처자식을 죽이고 보물을 우물에 넣은 뒤 나가 싸워 전멸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Kozlov는 서하에 관한 책을 읽고 왔기 때문에 안내인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칭짱고원 탐사를 뒤로 미루고 흑수성을 찾아 나섰다. Kozlov는 현지 郡王 達什를 찾아가 선물을 주고 설득하자 達什는 巴塔라는 안내인까지 붙여 주었다. 巴塔의 도움을 받은 Kozlov는 흑수성 유적에 도착하였는데, 흑수성은 4각형의 성으로서 성채와 사찰 및 불탑이 잘 남아 있었으며, 지표에도 각종 유물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吳峰雲(2004), 앞의 글].

²⁵ 흑수성 문헌 정리와 연구를 통해 배출된 러시아 학자로는 Aleksei Ivanovich Ivanov (伊鳳閣, 1878~1930년대), Nicolas Nevsky(聶曆山, 1892~1938), M. B. Софронов (克恰諾夫, 1863~1935), Ksenja B. Kepping(克平)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20~1930년대의 石濱純太郎, 1950년대 이후의 岡崎精郎·西田龍雄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하였다.²⁶

한편 둔황[敦煌] 모어까오쿤[莫高窟]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대량의 흑수성 유물이 도굴당하고 해외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서하는 중국의 정체성 및 학계의 자존심과 결부된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은 서하자 해독이었는데, 1900년, 프랑스인 모리스(M. G. Morisse, 毛利瑟)가 베이징 베이하이[北海] 백담 부근의 폐지와 고서적 속에서 6권의 서하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3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1904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서하자과 문헌에 대한 연구의 효시였다. 이후 서하자에 대한 연구는 한문 대조가 가능한 서하문 불경 번역에 집중되었다.

언어학과 갑골학의 대가인 루어전위[羅振玉, 1866~1940]의 아들 루어푸칭[羅福成, 1884~1960]은 모리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14년 『서하역화경고석(西夏譯蓮華經考釋)』²⁷을 출간하였고, 이어서 『서하국서유편(西夏國書類編)』과 『서하국서약설(西夏國書略說)』²⁸ 두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서하자의 사류(詞類)·서체·결구·문법에 대한 중국 학자 최초의 연구성과였고, 특히 서하문자 편방설(偏旁說)을 제시하여 주목받았다.²⁹ 그리고 베이징 대학에서

26 楊浣(2004), 앞의 글.

27 羅福成(1914), 『西夏譯蓮華經考釋』, 貞松堂印本; 『西夏譯蓮華經考釋』에 대한 연구는 1929년 이후 鄧隆의 『西夏譯妙法蓮華經考釋補』과 『西夏譯華嚴經入法界品考釋』으로 이어졌다[賈敬顏(1986), 「西夏學研究的回顧與展望」, 『歷史研究』 1].

28 羅福成(1915), 『西夏國書類編』, 『西夏國書略說』各1卷, 東山學社鉛印本.

29 白濱의 견해와 달리 陳育寧은 1914년 동생 羅福菴이 『西夏國書略說』을, 1915년에 羅福成이 『西夏國書類編』을 출간하였으며, 특히 서하문자 편방설을 제기한 것은 羅福菴이라고 하였다. 楊浣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자료를 이용한 확인 작업을 하기 전에는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다, 楊浣의 연대 기술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일단 白濱의 견해를 따랐다[白濱(2004), 「20世紀西夏文獻研究」; 陳育寧(2004), 「20世紀西夏研究回顧與展望」; 楊浣(2004), 앞의 글].

수학한 바 있는 이바노프(A. I. Ivanov)가 흑수성 문서에서 발견한 서하자와 한자로 된 소사전인 『번한합시장중주(番漢合時掌中珠)』를 공개하고, 1919년에 루어전위에게 사진을 보내주자 루어푸청·루어푸창 형제가 그것을 영인 출판하였다.³⁰

1929년 베이핑도서관(北平圖書館)은 닝샤 링우(靈武)에서 출토된 서하문 불경 100여 책을 구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32년 중국·러시아·일본 3개국 학자의 논문 36편을 모아 『국립북평도서관관간(國立北平圖書館館刊)』 4권3기 ‘서하문특집호’를 출판함으로써 서하학 연구와 보급은 물론 중국 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공인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³¹

그 뒤를 이어 왕정루(王靜如, 1903~1990)는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집간(歷史語言研究所集刊)』 갑종(甲種) 8·11·13기(1932~1933)에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을 비롯한 서하문 불경 번역과 당항과 서하의 역사·언어·국명·관인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서하연구(西夏研究)』³²로 발간되어 국제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36년 프랑스 학술원으로부터 ‘쥘리앙(S. Julien)’ 기금상을 수상하였다.³³ 1935년, 루어푸청은 러시아에서 얻은 『음동(音同)』³⁴도 석인(石印) 출판하였다.³⁵ 서하자 자전인 『번

30 白濱의 견해와 달리 陳育寧은 羅振玉이 1918년, 羅福成이 1924년 두 차례에 걸쳐 『番漢合時掌中珠』를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일단 白濱의 견해를 따른다[白濱(2004), 앞의 글; 陳育寧(2004), 앞의 글].

31 404쪽에 달하는 ‘西夏文專號’에는 黑水城 발굴, 서하자 문헌목록과 번역문이 수록되었는데, 번역문은 주로 『大方廣佛華嚴經』·『妙法蓮華經』·『大寶集經』 등 10여 부의 불경이었다. 특집호 형식으로 특정 학술연구 성과를 출간한 것은 당시 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어서 서하학 연구와 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고, 羅福成·王靜如 등 중견 학자가 국제학계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白濱(2004), 앞의 글].

32 王靜如(1932), 『西夏研究①·②·③輯』,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鉛印本.

33 楊浣(2004), 앞의 글.

34 羅福成(1935), 『西夏國書字典音同』 第1卷, 遼寧庫籍整理處影印本.

한합시장중주』와 『음동』의 출간으로 서하자 해석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서하문 문헌연구가 더욱 촉진되었다.

하지만 이어서 터진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등의 혼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연이어 발생한 각종 정치적 파동은 이 같은 학문적 성과를 무위로 돌려 사실상 1990년이 될 때까지 서하학 연구는 오랜 침체기에 들어갔다.³⁶ 내세를 만한 뛰어난 학술성과도 찾아보기 힘들고 전문적인 학술잡지도 없는 상황에서 간략한 글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어 명맥만 겨우 이어왔을 뿐이다.³⁷

1970년대 중엽 러시아 학자들의 서하문헌 정리 성과물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 학자들도 처음으로 원사료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과 사회적 안정에 힘입어 서하문헌 정리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물로 1983년 스진포어[史金波·바이뎰[白濱]·황전화[黃振華]의 『문해연구(文海研究)』,³⁸ 1986년 리판원[李範文]의 『동음연구(同音研究)』,³⁹ 1989년 황전화·니에홍인[聶鴻音]·스진포어

35 白濱의 이 같은 견해와 달리 陳育寧은 羅振玉이 1935년에 『音同』을 필사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일단 白濱의 견해를 따른다[白濱(2004), 앞의 글; 陳育寧(2004), 앞의 글].

36 서하학의 성립과 발전에는 『北平圖書館館刊』과 『史語所集刊』 같은 기간 잡지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정기 발간되는 기간지보다는 특집호에 의존했다는 점과 함께 서하학의 주된 관심이 서하어와 서하자 해석, 문헌 고증과 해석에 치중되어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던 것도 연구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이다[楊浣(2004), 앞의 글].

37 1940년대에는 『新西北』·『新中華』·『中國邊疆』·『圖書季刊』 등이, 1950·1960년대에는 『歷史研究』·『文物』·『光明日報』·『寧夏日報』 등이 서하사 연구의 명맥을 있게 한 주된 발표의 장이었다. 하지만 쓰촨대학 吳天墀의 『西夏史稿』 출판이 1980년대 서하사 연구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저조하였다[楊浣(2004), 앞의 글].

38 史金波·白濱·黃振華(1983), 『文海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9 李範文(1986), 『同音研究』, 寧夏人民出版社.

의 『변한합시장중주』 정리본⁴⁰ 등이 나왔다. 그리고 중일 학자들의 공동 연구성과로는 1996년 리판원·나카지마 모토키[中島幹起]의 『전뇌처리서하문잡자연구(電腦處理西夏文雜字研究)』,⁴¹ 2000년 스진포어·나카지마 모토키·오쓰카 히데아키[大塚秀明]·이마이 겐지[今井健二]·다카하시 마리[高橋まり]의 『전뇌처리문해보운연구(電腦處理文海寶韻研究)』⁴²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기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었다. 특히 번역문을 이용해 연구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문해』와 『음동』에 대한 완전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서하문 문헌 번역은 불완정성을 내포하기 마련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비로소 서하학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연구자들이 배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91년 닝샤(寧夏) 대학에 처음으로 서하역사연구소와 서하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3년 두 연구소를 합하여 서하연구소가 만들어졌다. 서하연구소는 2000년에 서하학연구중심으로 개칭하고, 2001년에 교육부로부터 전국성속고교인문사과(全國省屬高校人文社科) 중점연구기지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1995년부터 서하연구총서를 발간하여 국내외 서하 연구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서하 연구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1997년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역시 서하문화연구중심을 설립하고 대외교류의 장점을 발휘하여 여러 국제적인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외로 빠져나간 서하문헌의 정리에 나섰다. 닝샤사회과학원은 별도의 기구를 두지

40 黃振華·聶鴻音·史金波(1989), 『番漢合時掌中珠』, 寧夏人民出版社.

41 李範文·中島幹起(1996), 『電腦處理西夏文“雜字”研究』, 日本國立亞非語言文化研究所.

42 史金波·中島幹起·大塚秀明·今井健二·高橋まり(2000), 『電腦處理“文海寶韻”研究』, 日本國立亞非語言文化研究所.

는 않았지만 역시 서하사 연구의 중점기관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닝샤고고연구소·닝샤박물관·인추안서하박물관·우웨이[武威]서하박물관 등도 중요한 연구기관의 하나이다.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쓰촨[四川] 대학·란저우[蘭州] 대학·닝샤 대학·허베이[河北] 대학·산시[陝西] 사범대학 등의 대학원에서 서하학 전공자를 양성하고 있다.

서하학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기간잡지이다. 서하사 관련 논문이 비교적 많이 실리는 기간지는 닝샤 지역에서 발간되는⁴³ 『영하 사회과학』·『영하대학학보』·『고원사전학보』를 비롯한 14종으로서 지난 20년간 발표된 논문 869편 가운데 여기에 실린 것이 540편으로서 전체 논문의 62%를 차지한다.⁴⁴

1979~2002년 사이에 발간된 총 70여 종의 출판물 가운데 닝샤인민출판사가 25종, 간쑤[甘肅]인민출판사가 17종,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6종으로 20개 출판사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上海]고적출판사는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아장흑수성문헌(俄藏黑水城文獻)』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서하학 관련 문헌자료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43 닝샤지역에서 발간되는 『寧夏社會科學』·『寧夏大學學報』·『固原師專學報』·『寧夏文史』·『寧夏史地研究』 등에 수록된 논문이 총 343편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어 닝샤는 서하사 연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楊浣(2004), 앞의 글].

44 이 14종 기간지의 명칭과 논문 편수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寧夏社會科學』(168편, 19.3%)·『寧夏大學學報』(109편, 12.5%)·『固原師專學報』(64편, 7.3%)·『民族研究』(24편, 2.7%)·『民族語文』(23편, 2.6%)·『西北史地』(22편, 2.5%)·『寧夏文史』(21편, 2.4%)·『西北民族研究』(21편, 2.4%)·『中央民族大學學報』(21편, 2.4%)·『甘肅民族研究』(16편, 1.8%)·『寧夏史地研究』(16편, 1.8%)·『中國史研究動態』(13편, 1.5%)·『文物』(12편, 1.4%)·『敦煌研究』(12편, 1.4%) 등이다. 그 밖의 논문은 『青海民族學院學報』·『考古與文物』을 비롯한 147종의 기간지에 329편이 실려 있다[楊浣(2004), 앞의 글].

45 楊浣(2004), 앞의 글.

III. 서하자와 서하어 연구

1. 서하자 연구

서하자의 창제시기와 창제자에 대해서 사서에 여러 가지 다른 기록이 있는데⁴⁶ 최근 학계에서는 ‘이원호가 스스로 만들고 야리인영(野利仁榮)이 보완했다는 『송사(宋史)』 「하국전(夏國傳)」의 기록을 공인하는 추세이다.⁴⁷ 서하자는 전해 내려오는 원시자료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명 말에 이르러 명백이 완전히 끊어져 청대에는 무슨 문자인지 판별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유가 발견한 ‘중수량주호국사감응탑비’ 비문이 알려지면서 자형이 사료에 실린 대로 한자를 모방한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석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었지만 흑수성 문헌의 발견과 정리를 계기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문서의 초기 정리과정에서 이바노프를 비롯한 러시아 학자들은 서하문자와 한자대역 자전으로 유명한 『번한합시장중주』에 주목하면서 서하자 해독 문제의 단서가 마련되었고, 그 내용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하자

46 曾鞏의 『隆平集』에서는 ‘景宗 元昊 創制說’이, 沈括의 『夢溪筆談』에서는 ‘元昊의 부하 遇乞 創制說’이, 『宋史』 「夏國傳」에서는 ‘元昊가 스스로 만들고 野利仁榮이 보완했다는 演繹說’이, 『遼史』 「西夏傳」에서는 ‘太祖 德明 創制說’이 각각 실려 있다. 그런데 聶鴻音은 『夢溪筆談』에 실린 ‘遇乞’과 『宋史』에 실린 ‘仁榮’은 동일 인물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서하 문헌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을 서하문자로 환원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였다[聶鴻音(2004), 「20世紀西夏文字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47 史金波(1986), 『西夏文化』, 吉林教育出版社, 11~14쪽.

자원에 대한 중국의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활용 가능한 서하자 관련 자료가 매우 적었고, 연구자 또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용한 연구방법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하문자는 언뜻 보기에 모두 한자와 유사한 방형 구조이고, 각 부분도 한자의 부수를 결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기 연구자 모두 서하자와 한자의 형태적 대응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전통적인 문자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서하자가 형(形)·음(音)·의(義) 3분야로 이루어졌고, 한자의 필획을 겹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부수와 편방을 귀납시키는 작업에 주력하였다.⁴⁸ 하지만 루어푸청과 루어푸창 등의 초기 연구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의 서하자 연구는 서하자에 대한 식별과 정확한 베껴 쓰기 단계에 불과했다. 다만 서하자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후 서하자 해독에 있어서 계속 유효하였다.⁴⁹

1920년대 이후 서하자에 대한 연구는 40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그 원인은 우선 국공의 대립과 중일전쟁의 참화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장기 지속되면서 차분한 연구와 후진 양성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바노프를 비롯한 러시아 전문가들이 1930년대의 정치 숙청에 희생되어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자료를 독점한 측에서 더 이상의 연구성과를 제공하지 못하자 자연히 중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와 함께

48 羅福苕은 『掌中珠』와 당시 볼 수 있었던 불경에 나오는 23개의 서하 부수를 사례로 들어 그것들이 한자의 ‘雨’·‘水’·‘火’·‘土’ 등의 부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羅福苕(1919), 『西夏圖書略說』, 東山學社; 修訂本이 『亞洲學術雜誌』 1~4(1921~1922)에 연재되었지만 완재하지는 못하였다. 羅福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서하 문헌 가운데 나오는 부수를 164개로 정리하였다[羅德成(1920), 『西夏國書類編』, 東山學社].

49 Ivanov(1923), 『西夏國書說』, 『國學季刊』 1-4.

고문자학의 학문적 위상 변화와 활자 인쇄술의 보급 또한 원활한 연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⁵⁰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서하자 연구는 러시아에서 서하자 연구의 단서를 제공한 것처럼 1960년대 일본 학자 니시다 다쓰오[西田龍雄]의 연구와 기여를 계기로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니시다 다쓰오는 전통적인 문자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형을 분석하고 서하자의 ‘문자요소’, 즉 자형을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모두 350종이고, 문자의 조합양식은 총 44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 또 자비를 들어 방대한 서하자 활자를 제작하기도 했다.⁵¹

1969년 러시아 학자 케핑(Kepping) 등이 정리 출판한 『문해』는 당시 가장 상세한 서하자전이였다. 케핑은 각 글자마다 아래에 작은 글자를 써서 자형 구성을 분석하였다. 1983년 스진포어 등은 『문해』 전문을 한역(漢譯)한 뒤 『문해연구』⁵²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스진포어는 한자가 보급된 뒤 1,000여 년 뒤에 나온 『설문해자』와 달리 『문해』는 서하자 창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서하자 조성원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조속한 보급을 위해 조성 원리를 간편하게 해석

⁵⁰ 전통적인 학문체계는 문사철을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보고, 문자학을 비롯한 소학을 문사철 입문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근대학문에서는 고문자학을 언어학의 범주 대신 고문헌학의 일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헌학 전공자는 고문자학을 고문헌 해독을 위한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만 간주하고 있어 고문자학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게다가 20세기부터 본격 보급된 납·구리활자 인쇄술은 서하자 연구와 보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서하자 활자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출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⁵¹ 西田龍雄은 나아가 기본 宇素 조합방식이 그들의 사유방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객관적인 사물을 이해하는 서하인의 방식이 漢人·藏人·버마인과 달랐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사료도 없고 본래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차피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문자를 통해 서하인의 사유방식을 점검한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聶鴻音(2004), 앞의 글).

⁵² 史金波·白濱·黃振華(1983), 앞의 책.

한 것 같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⁵³ 이어 타이완의 공황청(龔煌城)도 글자 조합은 간단한 것을 기준으로 점차 복잡해지는 것이 상례라며 기존의 『문해』의 해석 수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글자와 그것을 활용한 2차 글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⁵⁴ 그 밖에도 1982년 룩 관텐(Luc Kwanten)은 처음으로 『변한합시장중주』 원문 사진을 공개했고,⁵⁵ 1988년 일본에서 서하어가 알타이어 계통의 ‘다음절어’이며, 서하문자 역시 ‘다음절자’라고 주장했다.⁵⁶

당송대에 각국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었고, 거란문자·여진문자·베트남의 자남(字喃)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서하자가 후발문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하자 창제시 반드시 한자의 구조와 활용법에 대한

53 『文海研究』에 실린 史金波的「從『文海』看西夏文字構造的特點」은 許愼의 ‘6書’이론을 가지고 서하자의 구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史金波는 일단 『文海』에서 제공한 字形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文海』가 서하문자의 자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54 龔煌城은 ‘初文’을 기초로 거기에 ‘增添’·‘代換’·‘對調’라는 세 가지 변화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小’자에 획순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그것에 다시 획을 더하여 2차 글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원리는 形聲字·會意字·義近字·同源字·漢語形聲字·反切字(=反義字) 등 小學에서 말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글자를 분류한다면 서하자는 수십 혹은 수백 개의 ‘字族’으로 모두 묶을 수 있을 것이다(龔煌城(1984), 「西夏文字衍生過程的重建」, 『國立政治大學邊政研究所年報』 15; 龔煌城(1986), 「西夏文的意符和聲符及其衍生過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7-4].

55 Luc Kwanten(1982), *The Timely Pearl, A 12th Century Tangut Chinese Gloss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56 Luc Kwanten(1988), “The Structure of the Tangut [Hsi Hsia] Characters”, 『亞非言語文化研究』 36. 서하자에 대한 룩 관텐의 견해는 크게 주목할 것이 없었지만 서하가 문자의 창제와 보급을 위해 거란이나 여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록도 없는데, 거란자나 여진자와 달리 30년 만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많은 서적이 나왔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즉 그다지 문화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당항인들도 쉽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서하자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점이다.

이해는 물론이고 선행문자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자를 빌려 자신의 언어를 기록하거나 문자를 창제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가나처럼 음독과 훈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었다. 황전화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음독과 훈독을 통해 자형·자의·자음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가설에 의한 추론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⁵⁷

활자 제작에 이어 서하자의 컴퓨터 처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닝샤 대학 마시룽(馬希榮) 등이 설계한 ‘하한자처리계통(夏漢字處理系統)’은 매우 뛰어난 실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6,000자에 달하는 서하문자가 입력되어 있고, 서하문자와 한자·영어를 혼합해서 편집할 수 있다.⁵⁸ 그리고 ‘하한자처리계통’을 이용하여 만든 자전이 리판원의 『하한자전』⁵⁹인데, 지금까지 만든 자전 가운데 가장 상세한 것이다. 단 사각호마(四角號碼) 방식을 채택하면서 편집에 문제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2. 서하어 연구

20세기 초 서하어에 대한 이해는 『묘법연화경』 잔권에 나오는 일부 음역한 불교용어에 국한되었다.⁶⁰ 그러다가 코즐로프가 페테르부르크로 운반해

⁵⁷ 黃振華(2000), 『漢字的傳播及其借用模式』, 『漢字的應用與傳播』, 華語教學出版社.

⁵⁸ 馬希榮(1999), 『西夏漢字處理及電子字典』(光盤版), 清華大學出版社.

⁵⁹ 李範文(1997), 『夏漢字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⁶⁰ G. Morisse(1904), “Contribution préliminaire à l'étude de l'écriture et de la

온 흑수성 문서를 정리 연구하던 중 이바노프는 서하문자와 한자 대역 서인 『번한합시장중주』에 기록된 내용이 서하 언어학 연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중국에 소개하였다.⁶¹

『장중주』의 서하어와 한어 대음(對音)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한 개의 서하자를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인(人)’을 뜻하는 서하어 음가는 ‘니쭈[尼拏]’라고 표기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두 글자로 ‘주음(注音)’하기는 했지만, 주음에 사용된 서하자에 복보음성모(復輔音聲母)가 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 단보음성모(單輔音聲母)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치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⁶²

그리고 1926년, 흑수성 문헌 가운데 티베트 문자로 음을 달아 놓은 서하자 불경 잔편을 네프스키(N. A. Nevsky)가 정리하여 자표(字表) 형식으로 발표하였다.⁶³ 이렇게 서하자를 읽는데 매우 유용한 두 자료가 공개되면서 그것을 비교 참고하여 서하어의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해졌다. 서하어음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하시모토 만타로(橋本萬太郎)를 들 수 있다.⁶⁴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하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원칙

langue Si-Hia,” *Mém. prés. par divers savants à d l' Académie des Inscriptions*, 11, 2.

61 하지만 당시 학계의 수준 등으로 인해 Ivanov는 송대 한어의 서북방 방언을 이용하지 않고 현대 한어의 북방관화를 이용해 서하 언어의 음가를 해석하였으며, 특히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야 하는 ‘復字注音’(두 글자로 음을 표기한 것)을 거꾸로 읽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番漢合時掌中珠』에 대한 Ivanov의 잘못된 소개는 1920년대 말 E. von Zach와 A. A. Dragunov에 의해 바로잡혔다.

62 孫宏開·聶鴻音(2004), 「20世紀西夏語言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63 N. A. Nevsky(1926), “A Brief Manual of the Si-hia Characters with Tibetan Transcriptions,” *Research Review of Osaka Asiatic Society*, Vol. 4.

64 橋本萬太郎(1961), 「掌中珠의 夏漢對音研究方法」, 『中國語學』 109; 橋本萬太郎(1962), 「文海韻의 韻組織と西夏語音論」, 『言語研究』 41; 橋本萬太郎(1963), 「西夏の國書字典『音同』의 同居韻」, 『言語研究』 43; 橋本萬太郎(1965), 「文海韻의 音韻組織」, 『東方學』 30.

이 확립되었고, 소련의 소프로노프(Софронов) 등의 『서하어음학연구(西夏語音學研究)』,⁶⁵ 니시다 다쓰오의 연구⁶⁶와 같은 획기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중국 측 연구자로는 황전화·리판원 및 공황청을 들 수 있다.⁶⁷

하지만 1950년 이전에 서하어 연구에 대한 기초가 확립되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하어 음가의 일부 특징을 밝힌 것일 뿐 음운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그것은 서하인 자신이 정리해 놓은 성운 결합 구조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서하의 운서(韻書)인 『문해』가 점차 학계에 소개되면서 까오변한[高本漢]이 『광운(廣韻)』을 이용해 한어를 연구하던 방법론을 응용해 서하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서하어 연구가 어음학에서 음계학(音系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⁶⁸ 그렇지만 아직까지 서하어의 음가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특히 운모계통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전히 충분한 연구성고가 도출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연구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기도 했다.⁶⁹

한편 서하어 연구의 성과를 이용해 송대 한어 서북방언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황청을 시작으로 리판원의 『송대서북방

65 M. B. Софронов(1964), Софрон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фонетике Тангут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Советская наука».

66 西田龍雄(1964·1966), 『西夏語研究: 西夏語の構擬と西夏文字の解讀①・②』, 東京: 座右寶刊行會; 西田龍雄(1981~1983), 「西夏語韻圖の“五聲切韻”について研究」,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20·21·22.

67 黃振華(1983), 「“文海”反切系統的初步研究」, 『文海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範文(1986), 앞의 책; 李範文(1997), 앞의 책.

68 孫宏開·聶鴻音(2004), 앞의 글.

69 孫宏開는 서하어가 사어이기 때문에 글자나 韻書 등을 근거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티베트-버마 어족의 支言語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고 살아 있는 언어를 참고해 서하어를 분석하자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다[孫宏開(1996), 「西夏語鼻冠音聲母構擬中的幾個問題-從掌中珠漢字注音談起」, 『民族語文』 4].

음(宋代西北方音)에서 대체적으로 완결되었는데, 다만 그 연구방법이 『장중주』의 한자 주음을 가지고 서하자의 음을 연구하고 다시 서하자의 음을 가지고 한자의 음을 연구함으로써 ‘순환논증’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⁷⁰

서하어의 어법 연구는 음가 연구보다 늦게 나왔고 성과 또한 많지 않다. 최초의 연구는 니시다 다쓰오에 의해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⁷¹ 1968년 소련의 소프로노프가 출판한 두 권의 『당고특어어법(唐古特語語法)』은 서하어 어법의 기본구조를 확립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의 케핑은 기존의 연구성과에다 티베트어족 강어(羌語)의 어법 연구성과를 더한 『서하어형태학(西夏語形態學)』을 출간하여 어법체계를 확립하였다.⁷²

중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필드조사를 통해 티베트어족의 많은 언어를 수집하였는데, 특히 서하의 조상인 당항강인의 발상지인 사천 서부와 북부에서 새로운 강어 계통의 언어(羌語支言語)를 발견하였다. 그 가운데는 이미 알려진 강어·푸미[普米]어·지아룽어[嘉絨語] 외에 이쑤어[爾蘇語]·스싱[史興]어·나무이[納木義]어·무아[木雅]어·자쓰[割巴]어·꾸에이치웅[貴瓊]어·얼푹[爾龔]어·취에위[卻謂]어를 발견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라우룽[拉烏戎]어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1983년 쑨홍카이[孫宏開]에 의해 소개되었다.⁷³ 이를 통해서 서하어 어법의 특성에 대한 보다 풍부한 추론이 가능해졌다.

서하어 어휘는 단음절이나 단음절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사(複合詞)가

70 龔煌城(1981), 「12世紀末漢語的西北方音(聲母部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2-1; 李範文(1994), 『宋代西北方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1 西田龍雄(1964·1966), 앞의 책; 西田龍雄(1981~1983), 앞의 글.

72 孫宏開·聶鴻音(2004), 앞의 글.

73 孫宏開(1983), 「6江流域的民族語言及其譜系分類」, 『民族學報』.

거의 대부분이며 다음절의 단순사(單純詞)는 극소수이다.⁷⁴ 그리고 티베트-버마어족 고유어와 한어에서 온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서하어 가운데 외래어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스진포어와 궤항청이 이미 착수하였고,⁷⁵ 1990년대 이후는 서하 불교전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니에홍인은 서하어 안에 많은 티베트어 외래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래와 차용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⁷⁶

서하어 자전 편찬은 러시아의 네프스키가 처음 착수한 이래 니시다 다쓰오의 『화엄경자전(華嚴經字典)』,⁷⁷ 스진포어가 한역한 『문해』와 리판원이 한역한 『동음』이 자전으로 대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전들은 특정 문헌에 나오는 글자를 모아 놓은 것이지 전체 서하어 글자를 모은 것은 아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규모와 내용이 가장 풍부한 서하자전은 1997년 출판된 리판원의 『하한자전』⁷⁸이다. 이 자전은 『동음』·『문해』·『번한합시장중주』 등 각종 서하 서적과 네프스키의 필사자료 등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편집기술의 부족과 영문번역의 문제점이 있다.

74 서하어 어휘의 구성은 派生·重疊·合成으로 나눌 수 있는데, 合成방식의 複合詞는 修飾式·井列式·支配式·表述式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修飾式 合成詞는 중심어를 前置하거나 後置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75 史金波(1982), 「西夏語中的漢語借詞」, 『中央民族學院學報』 4; 龔煌城(1982), 「西夏語中的漢語借詞」,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2-4.

76 聶鴻音(1995), 「西夏詞源學淺議」, 『民族語文』 5; 聶鴻音(2002), 「西夏佛教術語的來源」, 『固原師專學報』 2.

77 西田龍雄(1977), 『西夏文華嚴經③』, 京都大學.

78 李範文(1997), 앞의 책.

IV. 서하문 및 한문 문헌 연구

서하자 문헌은 편의상 언어문자·법률사회·시가·불교·유가경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1. 언어문자

① 『문해』는 『문해잡류(文海雜類)』 또는 『문해보운(文海寶韻)』이라고 번역하며 『문해』는 약칭이고 ‘잡류’는 부류(部類)라는 뜻이다. 『광운』과 『설문해자』의 특성과 기능을 겸하여 서하문자의 형태·발음·뜻을 설명한 2권의 사전으로서 크기는 29×18cm이며 목각본과 필사본 잔본이 있다. 서하의 나서지충(羅瑞智忠) 등이 편찬하였고 혜종(惠宗) 천사에성국경(天賜禮盛國慶) 4년(1072)에 완성되어 송종(崇宗) 정덕(正德) 2년(1128)에 간행되었다. 서하문자 구조와 뜻에 대한 해석, 음가 추정을 위한 일급자료이다.

② 『음동』은 성모를 기준으로 분류한 동음자전이다. 권을 나누지 않았고 목각본인데 여러 판본이 있다. 그중 하나는 크기가 24.5×18cm이며 송종 정덕 6년(1132)에 간행되었다. 서하의 절운박사(切韻博士) 영육견장(令屹犬長)과 나서영장(羅瑞靈長)이 처음 편찬했고 여러 차례의 증보와 개정, 교감을 거쳤다. 서하 언어의 체계와 발음을 연구하는 데 긴요한 문헌이다.

③ 『오음절운(五音切韻)』은 한어 음운학서인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를 모방하여 운표(韻表)와 운도(韻圖)를 통해 서하문자의 성(聲)·운(韻)·조(調) 및

그 관계를 분석한 서적이다. 권을 나누지 않았으며 여러 필사본이 있는데, 인종(仁宗) 건고(乾枯) 4년(1173) 판본의 경우 크기가 13×9.5cm이다. 서하 문자 자음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다.

④ 『변한합시장중주』는 서하인과 한인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두 문자의 음과 뜻을 대조 해석한 사어집(詞語集)이다. 권을 나누지 않았으며 목각본의 크기는 23×15.5cm이다. 골록무재(骨勒茂才)가 편찬하였고 천·지·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종(仁宗) 건참(乾站) 21년(1190)에 간행되었다. 서하 언어와 문자, 송대 서북방음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⑤ 『잡자(雜字)』는 서하문자를 분류한 사어집으로 권을 나누지 않았으며 필사본과 판각본이 있는데, 각본 크기는 26.5×18.5cm이다.

⑥ 『삼재잡자(三才雜字)』는 서하문자를 분류한 사어집으로 권을 나누지 않았으며 크기는 18×12.5cm이다. 헌종(獻宗) 건정(乾定)연간(1223~1225)에 만들어졌다.

⑦ 『의동(義同)』은 『의동일류(義同一類)』라고도 하며 서하문자 동의자서(同義字書)이다. 4권으로 된 필사본으로 크기는 19.5×16cm이다. 양습보(梁習寶)가 편찬하였고 양덕양(梁德養)이 교정하였으며 인종 건참 19년(1188)에 만들어졌다.

⑧ 『요집(要集)』은 서하문자 분류사전(分類詞典)으로 권을 나누지 않았으며 크기는 20×12.5cm이다. 편찬시기는 불확실하다.

2. 법률사회문헌

① 『천성개구신정율령(天盛改舊新定律令)』은 『천성혁고정신율(天盛革故鼎新

律』이라고도 하는데, 서하의 형률로 규격은 각기 달라 한 종류의 경우 29.8×19.5cm 크기이다. 목각본과 함께 필사본 권축장(卷軸裝)도 있다. 인종 천성(天盛)연간(1149~1169)에 반포되었으며 총 20권이며 150문(門), 1463조(條)로 나누어져 있다. 당송율령을 모방하여 형률을 모아 편집하였다.⁷⁹

② 『정관옥경(貞觀玉鏡)』은 『정관옥경통(貞觀玉鏡統)』·『정관장옥경(貞觀將玉鏡)』·『정관옥경장(貞觀玉鏡將)』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⁸⁰ 여러 판본이 있는데 총 4권이며 29×18cm 크기도 있다. 송종(崇宗) 정관(貞觀)연간(1101~1113)에 편집 간행된 군법 및 병서 성격을 지닌 책으로서 잔본에는 서언·정령·상공(賞功)·벌죄·진승(進勝) 등 총 133조가 남아 있다.

③ 『신법(新法)』은 서하의 율령으로 필사본이며 규격이 각기 다른데 23×17cm 크기도 있다. 신종(神宗) 광정(光定)연간(1211~1222)에 편찬된 『천성율령(天盛律令)』의 수정본이다.

④ 「해년신법(亥年新法)」도 서하의 율령이며 필사본이고 20×13.3cm 크기이다. 신종 광정 5년(1215)에 간행되었다.

⑤ 「성립의해(聖立義海)」는 15권으로 유서(類書)이다. 목각본으로 22.7×16cm 크기이다. 인종 건고 13년(1182)에 간행되었으며 천·지·인 삼재」로 분류한 총 142류이다. 격언 형식을 채택한 일종의 백과사전 성격을 지닌 분류사전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혜종 천사예성국경 2년(1070)의 「과주심판당안(瓜州審判檔案)」과 「서하관계봉호표(西夏官階封號表)」, 인종 「천성 22년(1170) 매지문계(賣地文契)」, 신종 「광정 13년(1223) 곡물차대계약(穀物借貸契約)」, 헌종(獻宗) 「건정(乾定) 2년(1224) 흑수성수장고근품첩(黑水城守將告近稟貼)」, 「건정 3년(1225) 흑수부장품첩(黑水副將稟貼)」, 서하문 「상면도(相面圖)」,

79 聶鴻音(1998), 「西夏『天盛律令』成書年代辨析」, 『尋根』 6.

80 胡若飛(1994), 「西夏軍律重典『貞觀將玉鏡』考」, 『寧夏社會科學』 6; 胡若飛(1995), 「『貞觀將玉鏡』正文譯考」, 『寧夏大學學報』 3; 陳炳應(1995), 『貞觀玉鏡將研究』, 寧夏人民出版社.

역서(曆書) 잔엽 등이 있다.

이 서적 가운데 『천성율령』은 비한족 정권이 제정한 율령 가운데 가장 완전히 보존된 것이고, 『정관옥경』은 서하의 군사체제와 군률을 기록한 병서이며, 『성립의해』는 서하인들의 세계관과 민족기원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당송문화 및 유가문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하문자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분야 문헌의 정리와 번역 역시 외국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는데, 주요 역저로는 1994년 스진포어·니에홍인·바이벤의 『서하천성율령역주(西夏天盛律令譯注)』와 2000년 재판,⁸¹ 1995년 천뱡잉[陳炳應]의 『정관옥경장연구』,⁸² 1995년 소프로노프·리판원·루어마오쿤의 『성립의해연구(聖立義海研究)』⁸³ 등 3권이 있다.

문서 번역 및 고증으로는 1932년 왕징루의 국내관장서하문(國內館藏西夏文) 「과주심판당안(瓜州審判檔案)」,⁸⁴ 1984년 황전화의 「서하천성22년매지문 계고석(西夏天盛22年賣地文契考釋)」,⁸⁵ 1991·1992년 리판원과 스진포어의 「서하문관계봉호표(西夏文官階封號表)」에 대한 고증 및 번역,⁸⁶ 1998년 마야룬[馬雅倫]·정뱡린[鄭炳林]의 「상면도」,⁸⁷ 2000년 니에홍인의 「흑수수장고근품첩

81 史金波·聶鴻音·白濱(1994), 「西夏天盛律令譯注」,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甲編第5冊, 科學出版社; 史金波·聶鴻音·白濱(2000), 『天盛改舊新定律令譯注』, 法律出版社.

82 陳炳應(1995), 앞의 책.

83 克恰諾夫·李範文·羅矛昆(1995), 『聖立義海研究』, 寧夏人民出版社.

84 王靜如(1932), 「瓜州審判檔案」, 『國立北平圖書館館刊』 4-3(西夏文專號).

85 黃振華(1984), 「西夏天盛22年賣地文契考釋」, 『西夏史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86 李範文(1991), 「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 『社會科學戰線』 3; 史金波(1992), 「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 『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 天津古籍出版社.

87 馬雅倫·鄭炳林(1998), 「關於西夏文“相面圖”的研究」, 『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黑水守將告近稟帖)」과 「흑수부장품첩(黑水副將稟帖)」⁸⁸에 관한 것이 있다. 1985년 천병익은 『서하문물연구(西夏文物研究)』에서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총괄소개 및 평가를 하였다.⁸⁹

3. 시가

① 『신집금합도리(新集錦合道理)』는 『신집금합사(新集錦合詞)』·『신집금성대언어(新集錦成對諺語)』라고도 하며 서하문자로 쓴 1권의 언어집(諺語集)이다. 목각본이며 21.5×15cm 크기이다. 그 밖에도 두 종류의 필사본 잔엽이 있다. 인종 건길(乾禧) 7년(1176) 양덕양이 초편했고, 건참 18년(1187) 왕인지(王仁持)가 증보한 뒤 간행하였다. 모두 6~36자의 우수(偶數)로 대구(對句)는 364조이며 천문·지리·동식물·사회정치·경제·군사·문화·민속 등을 내용으로 한 서하문학의 진귀한 유산이다.

② 『서하시집(西夏詩集)』은 총 5권으로 「부시(賦詩)」·「대시(大詩)」·「월월악시(月月樂詩)」·「도리시(道理詩)」·「충영시(聰穎詩)」 각 1권으로 되어 있다. 목각본으로 25×16.5cm 크기이다. 저자는 알 수 없고 「대시」의 뒤에 인종 건참 16년(1185)에 대학사 매랑문무(昧浪文茂) 등이 찬했다고 되어 있다.

③ 『궁연시집(宮延詩集)』은 두 종류로 권을 나누지 않은 필사본이다. 하나는 「하성근찬가(夏聖根贊歌)」·「신수태학가(新修太學歌)」·「조자사송(造字師頌)」 등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으로 25×16.5cm 크기이다. 『서하시집』 각

88 聶鴻音(2000), 「關於黑水城的兩件西夏文書」, 『中華文史論叢』 63.

89 陳炳應(1985),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본에 제목을 중심으로 「정덕신찬가(淨德臣贊歌)」·「천하동악가(天下同樂歌)」 등 6수를 수록한 권축장 잔권으로 크기는 19×10.5cm이다.

④ 『현지집(賢智集)』은 불교의 권세 시문집으로 권을 나누지 않은 목각본이며 크기는 19.8×13.5cm이다. 승려 보원(寶源)이 편집하여 인종 건참 19~20년(1188~1189)에 간행하였다.

⑤ 『신집쇄금치장문(新集碎金置掌文)』은 아동 계몽용 서적으로 필사본 1권이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기가 20.5×14cm이고 '선휘정식제문지(宣徽正息齊文智)' 찬문이 있고 야서반약무(耶西般若茂) 초본이다. 대략 12세기 초에 만들어졌으며 정문(正文)은 5자 1구로 두 구를 1연으로 하여 총 100연, 1,000자로 '천자문'과 유사한 형식이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120개 한성(漢姓)이 들어 있다.

서하문 시가와 언어에 대한 번역 및 연구로는 1980년 천병잉의 「서하적 시가언어소반영적사회역사문제(西夏的詩歌諺語所反映的社會歷史問題)」,⁹⁰ 1986년 후오성핑(霍升平)·호쑤레이(胡迅雷)·리따통(李大同)의 「서하언어초탐(西夏諺語初探)」,⁹¹ 1985년 천병잉의 『서하문물연구(西夏文物研究)』에서의 번역 및 연구⁹²와 1993년의 『서하언어-신집금성대언어(西夏諺語-新集錦成對諺語)』⁹³가 있다. 1990년 니에홍인의 「서하문'하골근찬가'고석(西夏文'夏聖根贊歌'考釋)」,⁹⁴ 「서하문'신수태학가'고석(西夏文'新修太學歌'考釋)」,⁹⁵ 1995년 니에홍인·스진포어의 「서하문본'쇄금'연구(西夏文本'碎金'研究)」,⁹⁶ 2000년 니에홍인의 「서하문

90 陳炳應(1980), 「西夏的詩歌諺語所反映的社會歷史問題」, 『甘肅師大學報』 2.

91 霍升平·胡迅雷·李大同(1986), 「西夏諺語初探」, 『寧夏大學學報』 3.

92 陳炳應(1985),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93 陳炳應(1993), 『西夏諺語-新集錦成對諺語』, 山西人民出版社.

94 聶鴻音(1990), 「西夏文'夏聖根贊歌'考釋」, 『民族古籍』 1.

95 聶鴻音(1990), 「西夏文'新修太學歌'考釋」, 『寧夏社會科學』 3.

96 聶鴻音·史金波(1995), 「西夏文本'碎金'研究」, 『寧夏大學學報』 2.

‘천하공약가’·‘권세기’고석(西夏文‘天下共樂歌’·‘勸世歌’考釋)⁹⁷도 주목받는 연구 성과이다.

서하의 문학은 한문 시가와 다른 특색과 함께 한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격언이 서하 시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그러하다.⁹⁸ 이처럼 서하의 시가와 어언(諺語)은 ‘저사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역사와 풍속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4. 불경

서하는 불교국가로서 경종(景宗) 이원호 때부터 승종 건순(乾順)까지 53년 동안 불경 총 820부 3,579권을 서하문자로 번역하였으며, 원·명대까지도 서하문 불경 간행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서하문 불경은 전체 서하 문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흑수성 외에도 간쑤 둔황 모어까오쿠, 우위에 장의향(張義鄉) 소서구(小西溝)와 전산향(纏山鄉) 해모사(亥母寺) 산의 동굴, 닝샤 링우현·허란(賀蘭縣) 핑불탑(宏佛塔)·허란산 방탑(方塔)에서 발견되었다.

서하문 불경은 한문 불경과 장문 불경을 번역한 것과 서하 승려 스스로 편찬한 불전으로 나눌 수 있다. 서하문 불경 역시 경·율·논 삼장을 포괄하고 있으며 필사본도 많지만 간본이 많아 보급이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서하 불경은 러시아 소장본만 374종 수천 권이고 그 밖의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잔경 단편이다.

97 聶鴻音(2000), 「西夏文‘天下共樂歌’·‘勸世歌’考釋」, 『寧夏社會科學』 3.

98 聶鴻音(1999), 「西夏文學史料說略」, 『文史』 4.

중국 내 소장 불경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130여 종이 있고, 그 밖에도 중국역사박물관·고궁박물관·베이징 대학도서관·간쑤성박물관·우웨이시박물관·닝샤박물관·닝샤문화고고연구소·네이멍구박물관·네이멍구문화고고연구소·산시성도서관·시안[西安]시문관처(文管處)·둔황연구원·타이완중앙연구원사어소 등에 총 100여 종이 보관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러시아 소장 문서가 공개되면서 불경 번역보다는 발원문이나 제발(題跋)에 대한 번역과 고증에 치중하였다. 스진포어는 베이징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부 경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⁹⁹ 1979년에는 장쓰온[張思溫]이 개인 소장 서하문 불경을 소개하는 논문을,¹⁰⁰ 1985년에 스진포어·황륜화[黃潤華]가 다시 「북경도서관장서하문불경정리기(北京圖書館藏西夏文佛經整理記)」¹⁰¹를 발표했다.

1980년대 천뱡잉은 간쑤 우웨이·둔황·딩시[定西]현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하문 불경에 관한 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¹⁰² 1993년 스진포어는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서하문육조단경'잔월(西夏文'六祖壇經'殘頁)」에 대한 정리와 해석을 발표하였다.¹⁰³ 1993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민족연구소와 상하이교적출판사는 러시아로 가서 흑수성 문헌 가운데 200종 이상의 서하문 불경문헌을 촬영 정리하여 최근 출판하였다. 서하문 불경에 대한 정리와 번역을 통해서 종파의 성격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서·발·발원문·제관을 통해

99 史金波(1979), 「西夏譯經圖解」, 『文獻』 1; 史金波(1981), 「西夏文'過去莊嚴劫千佛名經'發願文譯證」, 『世界宗教研究』 1; 史金波(1983), 「西夏文'金光明最勝王經'序跋考」, 『世界宗教研究』 3.

100 張思溫(1979), 「活字版西夏文'華嚴經'卷11至卷15簡介」, 『文物』 10.

101 史金波·黃潤華(1985), 「北京圖書館藏西夏文佛經整理記」, 『文獻』 4.

102 陳炳應(1983), 「天梯山石窟西夏文佛經譯釋」, 『考古與文物』 3; 陳炳應(1985), 「圖解本西夏文'觀音經'譯釋」, 『敦煌研究』 3; 陳炳應(1989), 「金書西夏文'大方廣佛華嚴經」」, 『文物』 5.

103 史金波(1993), 「西夏文'六祖壇經'殘頁譯釋」, 『世界宗教研究』 3.

당시 불경의 보급과 사회상을 알 수 있다. 현재 연대 측정이 가능한 경전은 모두 42종으로 혜종 대안(大安) 11년(1085)부터 신종 광정 7년(1217)까지이다. 그리고 불경의 각본·장정·판식·판각 기구·각공 성명 등을 통해서 인쇄사·출판사·문화사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5. 한문전적 번역

서하문으로 번역된 한문 서적은 『논어』·『맹자』·『맹자전』·『효경전』·『정관정요』·『신집자효전(新集慈孝傳)』·『덕행집(德行集)』·『12국(國)』·『유림(類林)』·『경사잡초(經史雜抄)』·『손자병법3가주』·『육도』·『항석공3략』 등이 발견되었다. 1985년 천병일이 『논어』·『맹자』·『효경』·『손자병법3가주』 역본을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¹⁰⁴ 『유림』에 대한 린잉진[林英津]·안커쓰[安可思]의 논문과¹⁰⁵ 슌포어·황전화·니에홍인의 논문¹⁰⁶이 있고, 『손자병법3가주』에 대해서는 황전화,¹⁰⁷ 니에홍인,¹⁰⁸ 린잉진¹⁰⁹의 논문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니에홍인의 논문이 많아 「서하역본『논어전해』고석(西夏譯本『論語全解』考釋)」, 「육도」적서하문역본(「六韜」的西夏文譯本)과 「서하문『맹자전』연구(西夏文『孟子傳』研究)」, 「정관정요」적서하문역본(「貞觀政要」的西夏文譯本), 「서하문신집자효전」적

104 陳炳應(1985),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105 林英津·安可思(1992), 「類林」西夏譯本之研究, 『大陸雜誌』 84-5.

106 史金波·黃振華·聶鴻音(1993), 『類林研究』, 寧夏人民出版社.

107 黃振華(1992), 「西夏文孫子兵法三家注管窺」, 『西夏文史論叢』, 寧夏人民出版社.

108 聶鴻音(1992), 「西夏譯孫子傳考釋」, 『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 天津古籍出版社.

109 林英津(1994), 『西夏譯孫子兵法研究』,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單刊之 28.

186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독(西夏文'新集慈孝傳'釋讀)], 그리고 『서하문덕행집연구(西夏文德行集研究)』¹¹⁰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이미 산실된 한문서적인 당대 우립정(于立政)의 『유림』, 송대 진화원(陳禾原)의 『맹자전』, 송대 저자 미상의 『손자삼가회주본(孫子三家會注本)』, 『효경』 여혜경주본(呂惠卿注本) 등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다.

6. 한문 서하문헌

개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서하사 관련 사료를 포함한 서적은 약 100여 종에 달하지만 현존하는 서하 자체 한문서적은 매우 적으며 러시아에서 소장하고 있는 8,000여 개 목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0% 미만이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 중국 내 소장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종교 관련 문헌이고 세속적은 것은 그다음이다. 또 어떤 문헌은 일부가 남아 있지 않거나 연대를 파악할 수 없고, 심지어는 서하 문헌인지 여부도 확정하기 힘들다. 흑수성 문헌의 상당수는 송원대 문헌인데 『아장흑수성문헌』 가운데 한문서적은 1~6책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6책에는 「서록(敍錄)」·「연표」·「분류목록」·「색인」이 포함되어 있어 검색에 도움을 준다. 제6책에

110 聶鴻音(1992), 「西夏譯本'論語全解'考釋」, 『西夏文史論叢』, 寧夏人民出版社; 聶鴻音(1996), 「六韜的西夏文譯本」, 『傳統文化與現代化』5; 聶鴻音(1997), 「西夏文'孟子傳'研究」, 『國學研究』4; 聶鴻音(1997), 「貞觀政要'的西夏文譯本」, 『固原師專學報』1; 聶鴻音(1999), 「西夏文'新集慈孝傳'釋讀」, 『寧夏大學學報』2; 聶鴻音(2002), 『西夏文德行集研究』, 甘肅文化出版社.

수록된 송하(宋夏) 사본은 50여 건이며, 전권에 수록된 서하각본·사본 불경은 약 80종이며, 서하 세속문헌은 20여 종이다. 그 밖에도 대량의 불경 잔편,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서하문헌·발원문·판화·불상·공양게·설법도 경주·예불문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항여서하자료회편(黨項與西夏資料彙編)』: 한인성[韓蔭晨]이 편저한 3권 9책으로 서하 사료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수 초부터 원 말까지 24사 가운데 당항과 서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사서·문집·금석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편집은 초보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전을 중심으로 하고 지·표를 이용하여 보충하거나 주로 삼았다. 기·전에 실리지 않은 것은 지·표를 본문으로 처리하였다. 책은 전기·인물전지·산견자료편년으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산견자료편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¹¹¹

② 계약문서: 1961년 중국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돈황자료』 1집(중화서국)을 출간하면서 스타인이 가지고 간 서하 천경(天慶)연간의 전당문서 15건을 포함시켰다. 1980년, 천귀찬[陳國燦]은 「서하천경간전당잔계적복원(西夏天慶間典當殘契的復原)」¹¹²을 통해 복원과 부분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③ 『잡자(雜字)』: 현존하는 서하 사어집으로 한문과 서하문 두 판본이 있는데 보존이 비교적 잘되어 서하의 성씨·생활용품·신체위생·문화생활·정치생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스진포어는 「서하한문본잡자 초탐」¹¹³에서 러시아 소장 『잡자』의 원본 사진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111 韓蔭晨(2000), 『黨項與西夏資料彙編』, 寧夏人民出版社.

112 陳國燦(1980), 「西夏天慶間典當殘契的復原」, 『中國史研究』 1.

113 史金波(1989), 「西夏漢文本『雜字』研究」, 『中國民族史研究②』, 中央民族學院出版社.

④ 불경 및 발원문·제기·경서 : 1981년 베이징 광산[房山] 원취사[雲居寺]에서 명대에 중간한 서하본 한장대조불경 「성승혜도피안공덕보집계(聖勝慧到彼岸功德寶集掇)」가 발견되어 루어자오인[羅紹煙]¹¹⁴과 황전화¹¹⁵가 그에 관한 소개와 연구를 했고, 천칭잉[陳慶英]¹¹⁶은 ‘대승요도밀집(大乘要道密集)’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⑤ ‘서하지형도’ : 서하의 군정과 지리, 교통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치어우스[求實]가 1980년에 최초 소개한 뒤,¹¹⁷ 천뱙잉이 지도의 유래와 판본, 제작연대 및 가치에 대해 밝혔다.¹¹⁸ 황성장[黃盛璋]·왕치엔진[汪前進]의 보완 연구도 있고,¹¹⁹ 소련 국가레닌도서관 소장 지도책에 대한 리뿌위에[李步月]의 번역도 있다.¹²⁰

서하사적과 사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로는 주씨주[朱希祖]가 「서하사적고(西夏史籍考)」¹²¹에서 당·송·원·명·청대 서하 사적에 대한 고증을 했고, 구지천[顧吉辰]은 「송인서하지작고(宋人西夏著作考)」¹²²에서 송대 서하사 저작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탕카이지엔[湯開建]은 「장주『서하성씨록』정오(張

114 羅紹煙(1983), 「藏漢合璧聖勝慧到彼岸功德寶集掇考略」, 『世界宗教研究』 4.

115 黃振華(1989), 「明代漢藏合璧聖勝慧到彼岸功德寶集掇西夏譯經題記研究」, 『藏學研究文選』, 西藏人民出版社.

116 陳慶英(2000), 「西夏及元代藏傳佛教經典的漢譯本：簡論‘大乘要道密集’(薩迦道果新編)」, 『西藏大學學報』 2.

117 求實(1980), 「論所謂復制宋本西夏地圖問題」, 『西北歷史資料』 1.

118 陳炳應(1985), 「西夏地形圖初探」, 『西夏文物研究』.

119 黃盛璋·汪前進(1992), 「最早一幅西夏地圖：‘西夏地形圖’新探」, 『自然科學史』 2.

120 克恰諾夫 著, 李步月 譯(1980), 「蘇聯國家列寧圖書館漢文西夏唐古特地圖冊手稿」, 『西北史地資料』 1.

121 朱希祖(1929.2.4), 「西夏史籍考」, 『益世報·學術周刊』.

122 顧吉辰(1989), 「宋人西夏著作考」, 『天水師專學報』 4.

樹『西夏姓氏錄』訂誤」¹²³에서 『서하성씨록』의 오류 46곳을 밝혀냈다. 1968년에 치아오이엔관(喬衍琯)이 「송서사안」¹²⁴을 소개한 뒤 계속하여 리관원,¹²⁵ 바이뎨¹²⁶의 논문이 나왔다. 그리고 『서하지략(西夏志略)』에 관해서는 팡지엔창[房建昌]¹²⁷과 바이뎨,¹²⁸ 후위뎡[胡玉冰]¹²⁹의 논문이, 『서하서(西夏書)』에 대해서는 리웨이[李蔚]의 논문¹³⁰이 발표되었다. 그 밖에도 『서하기범례(西夏紀凡例)』에 대한 타이시장[戴錫章]의 미발표 논문에 관한 니에홍인¹³¹의 소개가 있었다.

그 밖에도 서하 유민문헌에 관한 연구로는 2001년 출판된 양충쉬에[楊富學]의 『술선집(述善集)』에 대한 지아오진원[焦進文] 등의 교주¹³²와 허광보어[何廣博]의 『술선집연구론집(述善集研究論集)』¹³³이 있다. 리홍이[李鴻儀]가 편찬하고 리페이이에[李培業]가 정리한 『서하이씨세보(西夏李氏世譜)』¹³⁴는 학계에서 논쟁 중인 서하 황실 후예에 관한 자료이다.

123 湯開建(1982), 「張樹『西夏姓氏錄』訂誤」, 『蘭州大學學報』 4.

124 喬衍琯(1968), 「宋西事案」, 『國立中央圖書館館刊』 新1卷 3·4期.

125 李範文(1983), 「宋西事案：國內罕見的一部西夏史書」, 『寧夏大學學報』 2.

126 白濱(1983), 「宋西事案考」, 『西北民族文叢』 3.

127 房建昌(1984), 「流傳在日本的『西夏志略』」, 『寧夏社會科學』 2.

128 白濱(1985), 「『西夏志略』考」, 『民族研究』 4.

129 胡玉冰(1999), 「『西夏志略』考略」, 『寧夏社會科學』 1.

130 李蔚(1982), 「周春『西夏書』評價」, 『寧夏大學學報』 3.

131 聶鴻音(1990), 「戴錫章的『西夏紀凡例』未刊稿」, 『寧夏社會科學』 1.

132 焦進文·楊富學 整理(2001), [元]楊崇喜 編者, 『元代西夏遺民文獻述善集校注』, 甘肅人民出版社.

133 何廣博 主編(2001), 『述善集研究論集』, 甘肅人民出版社.

134 李鴻儀 編纂, 李培業 整理(1998), 『西夏李氏世譜』, 遼寧民族出版社.

190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7. 문헌목록과 판본

1904년 왕런권이 편한 『서하예문지』와 1935년 루어푸이가 편한 『서하문존(西夏文存)』이 서하사적 서목 편찬의 시작이었다. 1980년 우티엔치가 『서하사고』에 ‘서하사문헌목록’을 두고 송대부터 1982년까지의 한문 서하문헌 논저 목록을 실었다. 그 뒤 천뽕잉의 『서하문물연구』, 스진포어 등의 『서하문물』, 바이펴의 『당항사연구』¹³⁵에 국내외 한문 계약·문서·불경의 한문제관(漢文題款)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목록학 분야의 논저로는 탕카이지엔·루어마오쿤[羅矛昆],¹³⁶ 니에홍인¹³⁷의 것이 있으며 1990년대에는 왕티엔순[王天順]의 『서하학개론』,¹³⁸ 한시아오망[韓小忙]의 『서하도교초탐(西夏道教初探)』¹³⁹에도 여러 종류의 한문 도교 경적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있다.

스진포어의 『서하불교사략』 부록에는 25종의 한문갈명(漢文碣銘)·발원문·제관(題款)·제기(題記)가 수록되었다.¹⁴⁰ 1994년, 왕커씨야오[王克孝]는 러시아 멘쉬코프(Меньшиков)의 『흑성출토한문유서서록(黑城出土漢文遺書敘錄)』을 번역하여 처음으로 1980년대 러시아의 흑수성 한문문헌 정리성과, 주로 종교문헌의 성과를 국내에 소개하였다.¹⁴¹ 바이펴는 『아장흑수성문헌』 6책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고 분석한 것으로서 서하시기의 한문불경(각본·

¹³⁵ 白濱(1989), 『黨項史研究』, 吉林教育出版社.

¹³⁶ 湯開建·羅矛昆(1985), 「西夏史料概述」, 『寧夏社科通訊』 6.

¹³⁷ 聶鴻音(1989), 「西夏史料簡說」, 『文史知識』 4; 聶鴻音(1990), 「補‘西夏藝文志’」, 『古籍整理研究學刊』 6.

¹³⁸ 王天順 主編(1995), 『西夏學概論』, 甘肅文化出版社.

¹³⁹ 韓小忙(1998), 『西夏道教初探』, 甘肅文化出版社.

¹⁴⁰ 史金波(1988), 『西夏佛教史略』, 寧夏人民出版社.

¹⁴¹ 王克孝(1994), 「黑城出土漢文遺書敘錄」, 寧夏人民出版社.

사본)은 총 240종 이상이라고 밝혔다.¹⁴² 그 밖에도 광굉창[方廣鋤]의 불경 목록에 관한 논문과,¹⁴³ 니에홍인의 서하 문학사료에 관한 논문이 있다.¹⁴⁴

판본에 관해서는 왕커씨아오가 『흑성출토한문유서서록』의 19종 불경 판본의 특징을,¹⁴⁵ 바이뎨는 서하 인쇄사에 대해서,¹⁴⁶ 니어우따생[牛達生]은 봉적장(縫續裝)에 대해서 토론하였다.¹⁴⁷ 그리고 스진포어·아쎌[雅森]·우셔우얼[吾守爾]의 활자인쇄술 관련 저서에도 판본에 관한 내용이 있다.¹⁴⁸

그 밖에도 왕티엔쑤는 『서하학개론』에서 서하문헌학은 조속한 번역, 출토 문헌 소개, 자료의 분류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서하문헌대전(西夏文獻大全)이나 분류회편(分類彙編) 및 제요(提要)를 편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각종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2 白濱(1999), 「俄藏黑水城文獻漢文部分述要」, 『宋史研究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143 方廣鋤(2000), 「寧夏西夏方塔出土漢文佛典敘錄」, 『藏外佛教文獻』 7, 宗教文化出版社.

144 聶鴻音(1999), 「西夏文學史料說略(上·下)」, 『文史』 3, 中華書局.

145 王克孝(1990), 「蘇聯藏西夏漢文佛經刊本述略」, 『文獻』 1.

146 白濱(1996), 「西夏雕版印刷初探」, 『文獻』 4.

147 牛達生(2000), 「從拜寺溝方塔出土西夏文獻看古籍中的縫續裝」, 『文獻』 2.

148 史金波·雅森·吾守爾(2000), 『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西夏和回紇活字印刷術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V. 당항족의 기원 및 국호 연구

1. 당항족의 탁발부의 족속문제

서하는 당항족 탁발부(拓跋部)가 건립한 정권인데, 당항족의 기원, 특히 서하를 건국한 탁발씨의 족속(族屬)문제는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비록 1950년대 이전에 학자들이 서하문과 서하 국명을 연구하면서 그 기원문제에 대하여 각기 언급하기는 했지만 의견의 달랐다.

당항족의 기원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55년 탕자아홍[唐嘉弘]인데,¹⁴⁹ 이듬해 양즈이어우[楊志玖]가 탕자아홍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논쟁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계속해 왔다.¹⁵⁰ 지난 50여 년의 논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당항족은 강족(羌族)의 한 갈래이며 당항 탁발부 역시 강계(羌系)라는 것이고,¹⁵¹ 둘째는 당항족은 강계지만 통치층인 탁발씨는 북위 탁발씨

¹⁴⁹ 唐嘉弘(1955), 「關於西夏拓跋氏族屬問題」, 『四川大學學報』.

¹⁵⁰ 楊志玖(1956), 「西夏是不是羌族」, 『歷史教學』 4.

¹⁵¹ 당항족이 강족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학자는 楊志玖·韓蔭晟·周偉洲·李範文·陳炳應·史金波·李志清·張雲 및 陳寅恪·岑仲勉·尚鉞·顧頡剛·金寶祥·漆俠 등이다. 이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韓蔭晟(2000), 『黨項與西夏資料彙編·前言』, 寧夏人民出版社; 李範文(1983), 「試論黨項族的來源與變遷」, 『西夏研究論集』, 寧夏人民出版社; 陳炳應(1985),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152·345~359쪽; 陳寅恪(2001), 『金明館叢稿二編』, 三聯書店, 54쪽; 岑仲勉(1958), 『突厥史集(下)』, 中華書局, 914쪽; 顧頡剛(1980), 「從古籍中探索我國的西部民族: 羌族」, 『社會科學戰線』 1; 金寶祥(1959), 「西夏的建國和封建化」, 甘肅師範大學, 『歷史教學與研究』 5; 漆俠·喬幼梅(1994),

의 후손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당항족과 탁발씨 모두 선비(鮮卑)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저우웨이저우[周偉洲]의 『당대당항(唐代黨項)』은 당항의 족원(族源)과 원본 포지를 집중 연구하고 당항이 강족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작인데, 저우웨이저우는 정사를 비롯한 역대 주요 사서 모두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항강(黨項羌)은 서강(西羌)의 하나로서 북주(北周) 뒤로 서강을 부르는 범칭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² 스진포어는 서하가 남겨 놓은 자전과 사서(辭書)를 통해 이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서하어가 티베트-버마어족에 속한다는 것을 근거로 강족기원설을 주장하였다.¹⁵³ 장윈(張雲) 역시 당항족의 호칭이 티베트어와 유사하다는 것을 들어 강족기원설을 주장하였다.¹⁵⁴

선비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탕지아홍·왕충[王忠]·우티엔치·탕카이 지엔·리웨이·주쉬에위엔[朱學淵] 등이 있다. 탕지아홍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하를 정식 건립한 이원호는 선비족에 속하는 탁발적사(拓跋赤辭)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서하의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족계(族系)가 달랐다. 그리고 사서에는 후위(後魏)·토곡혼(吐谷渾)·당항의 세 탁씨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황허[黃河]의 오르도스[河套] 지역에서 위로 칭하이[青海]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이동과 교류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중화주의 입장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곡혼의 탁발씨는 후위 탁발씨의 한 계통이고, 당항강의 탁발부(拓跋部)는 바로 토곡혼의 탁발씨여

『遼夏金經濟史』, 河北大學出版社.

152 周偉洲(1988), 『唐代黨項』, 三秦出版社, 1~2쪽.

153 史金波(1993), 「西夏境內民族考」, 『慶祝王鍾翰先生80壽辰學術論文集』, 遼寧大學出版社, 409쪽.

154 張雲(1998), 「黨項名義及族源考證」, 『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29~33쪽.

서 사실상 선비 탁발씨의 하나라는 것이다.¹⁵⁵

왕중도 서하는 당항강으로 이루어졌지만 왕족은 선비족 탁발부이며 이 원호 스스로 자신의 조상이 '본후위제(本後魏帝)'라고 주장한 점을 선비기원 설의 근거로 들었다.¹⁵⁶

우티엔치는 탕지아홍·왕중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6개 근거를 제시하였다. ① 당대 임보(林寶)가 편찬한 『원화성찬(元和姓纂)』에서 서하왕실의 조상인 탁발수적(拓跋守寂)을 '동북번(東北蕃)' 즉 선비족이라고 하였다. ② 선비 가운데 강족 지역에 들어와 정권을 수립한 경우는 모용씨(慕容氏)의 토곡혼, 걸복씨(乞伏氏)의 서진(西秦), 독발씨(禿髮氏)의 남량(南凉) 등이 있다. 따라서 토곡혼과 특수관계였던 발적사화(跋赤辭和)가 당항족을 통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③ 당항공동체 내부에 통치자인 탁발씨와 피통치자인 강인이 나뉘어졌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충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립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④ 서하의 대표적인 풍속제도는 대부분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강속(羌俗)과는 다르다. ⑤ 당항 탁발씨는 스스로를 '미약(弭藥)'이라고 자칭하였는데, 위(魏)·주(周)시대 북방 귀족장들도 스스로를 '미약'이나 '미아돌(弭俄突)'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⑥ 최근 발견된 명대의 『하서역어(河西譯語)』 가운데 하서어(河西語), 즉 당항어에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 성분이 상당하다.¹⁵⁷

탕카이치엔은 이원호 등이 말한 족보를 가볍게 시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당·요·송·원·명의 다양한 사료를 들어 분석한 뒤 북위 왕실의

155 唐嘉弘(1955), 「關於西夏拓跋氏的族屬問題」, 『四川大學學報』 2.

156 王忠(1962), 「論西夏的興起」, 『歷史研究』 5.

157 吳天墀(1986), 「論黨項拓跋氏族屬及西夏國名」, 『西北史地』 1, 294~300쪽.

직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같은 부족에서 나온 것만은 확실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파상안링[大興安嶺] 일대에 살던 이들이 2세기 초에 이들이 오르도스와 인산[陰山] 일대로 이주해 강족과 혼거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3세기 중엽, 척발선비의 일부가 허시[河西]로 이주해 남량을 세웠다가 5세기 초, 서진에게 망한 뒤 독발(秃髮=拓跋)선비가 칭하이[青海湖] 일대로 이주해 토곡혼에 귀속하였다. 이때 당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수 말에 탁발선비를 중심으로 하는 당항 제부(諸部)는 토곡혼의 쇠약을 틈타 동천하여 현 추안베이[川北]·간난[甘南]으로 이주했고, 후에 서하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탁발선비와 강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항강이 순수한 강족이 아니고 선비와 강이 혼합되어 새로 형성된 공동체이며, 탁발선비가 통치하였지만 다수는 강족이어서 당시 사람들은 탁발씨를 '강추(羌酋)'라고 불렀다고 보았다. 탁발선비 역시 오랫동안 강문화의 영향을 받고 '강화(羌化)'되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선비라고 여기지 않아 간략하게 부를 때는 '강'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¹⁵⁸

저우웨이저우는 탕카이지엔·우티엔치의 관점을 전면 부인하고 강계기원 설을 견지하고 있다. 그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문헌기록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당대 임보의 『원화성찬』 권10 '탁발'조에 대해서는 천뱡잉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a. 『원화성찬교감기(元和姓纂校勘記)』의 고증에 따르면 임보가 총망하게 만든데다가 일찍이 일실되었으며, 후에 손계구(孫季述)가 『영락대전(永樂大典)』과 그 밖의 문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집(補輯)해서 만든 것이지만 서둘러 만들어 오류가 많다. b. 서하의 기원에 관해 언급한 최초의 사서에

158 湯開建(1986), 「關於西夏拓跋氏族源的幾個問題」, 『中國史研究』 4; 李蔚(1997), 『簡明西夏史』, 人民出版社, 49~52쪽; 鄧如萍(1998), 「西夏黨項族的起源」, 『劍橋中國遼西夏金元史』 中譯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서는 모두 당항이 강족이라고 하였을 뿐 선비족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c. ‘탁발’이라는 이름은 선비족 고유의 것이 아니다. 당 초에 현 씨장에 ‘따뿌(達紬)’라는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현 간쑤·쓰촨 교계지에도 ‘따뿌’라는 소수민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원화성찬』과 『송사』 『송기전(宋琪傳)』에서는 하주(夏州)로 옮겨온 평하부(平夏部) 당항 탁발씨를 ‘동북번’·‘번성(蕃姓)’이라고 칭하였는데, ‘동북번’은 그들이 오르도스 남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따라서 ‘번성’과 ‘강’을 두 개의 다른 민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 『요사』 「서하외기」에 “서하는 본래 북위 탁발씨의 후예로서 그 영역은 혁련국(赫連國)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록은 『금사』 「하국전」과 같다. 요금 통치자들은 서하 통치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나온 것이다. 서하의 통치자들은 한족 왕조인 송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 역시 중국 내지에 정권을 수립했던 북위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범문정공문집보편(范文正公文集補編)』 권1에서 이원호를 ‘호인(胡人)’이라고 하고 탁발규(拓跋珪)·석록(石勒)·부견(符堅)·유충(劉聰) 등과 같이 취급하였다. 이는 당항이 하주(夏州)·영주(靈州)·경주(慶州) 등으로 이주한 뒤 북방민족, 즉 ‘호인’과 혼거한 지 수백 년이 되었기에 송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동북번’ 혹은 호인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항족이 선비족에서 나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구양수(歐陽脩)의 『귀전록(歸田錄)』 권1에서 “조원호(趙元昊)가 하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성을 원(元)씨로 고치자 조정에서 그를 미워하여 서둘러 강정(康定)으로 개원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원호가 스스로 원위(元魏)의 후손을 자칭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실제 이원호는 원씨로

바꾼 것이 아니라 ‘외명(鬼名=於彌)’으로 바꿨다. 탕카이지엔의 의견에 따르면 외명은 ‘원(元)’의 서하어 음이므로 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의 성을 회복한 것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원호는 당연히 탁발씨로 바뀌야 옳지 원씨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토번이 당항을 가리켜 미약이라고 했는데, 이 호칭은 남북조 때 북방민족 가운데 ‘미아돌’이라는 성과 흡사하다며 이것은 당항 탁발씨가 북방의 선비에서 기원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약과 미아돌은 음가가 유사할 뿐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미아돌은 대부분 고차(高車=鐵勒) 사람의 성씨일 뿐 선비의 성씨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결국 서하의 원호가 정식으로 자기들이 북위 탁발씨의 후예이며 인산 귀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당항족 기원에 관한 이원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② 문헌과 금석문 가운데 대다수는 서하의 통치자가 강족과 대립을 통해 일어섰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또한 탁발씨가 선비족에서 나왔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통치계층 간의 문제이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이원호가 스스로를 선비 탁발씨의 후손이라고 자칭한 뒤 통치층과 발생한 모순을 선비 탁발씨와의 모순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문헌에 기록된 서하의 풍속습관이 대부분 북방유목민에서 기인한 것이고 『하서역어』 등의 문헌에 담긴 서하어가 북방 알타이어족의 성분이 있다는 점은 당항족이 선비족에서 나왔다고 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거론되고 한다. 서하어에 알타이어 계통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당항족이 선비족의 일원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항족이 오랜 세월 동안 북방민족과 교류한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심지어 이원호가 반포한 탁발령도 이원호 스스로 선비의 후손임을 선언한 뒤 명실상부한 계승자가 되기 위해 취한 조치일 수도 있다.

또 하주 등지로 이주한 당항족은 하주 등지에서 북방 이민족과 혼거하거나 통혼하여 ‘잡로(雜虜)’·‘잡중’·‘잡인’이라고 불렸을 것이며, 늦게 이주한 당항족 가운데 원래 선비족과 혼거하던 부주절씨(府州折氏) 등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주절씨의 사례만으로는 이주한 당항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탁발씨가 선비족에서 나왔고 부주절씨가 뒤늦게 이주해서 먼저 이주한 당항족과 점차 융합되었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④ 탕카이지엔이 제기한 탁발 선비가 강족 부락으로 이주하게 된 과정 역시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서하 통치자들은 스스로가 북위의 탁발씨에서 기원하였지 남량의 탁발씨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북위와 남량이 최초에는 같은 기원을 갖고 있었지만 3세기 초에 이미 분명히 갈려 나갔다. 만약 서하의 통치자들이 확실히 남량의 탁발씨에서 나왔다면 사서에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서하의 통치자들이 북위의 탁발씨를 자신에게 역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량이 서진에게 멸망된 뒤 남량의 탁발씨가 토곡훈으로 들어갔다는 견해도 일종의 추측에 불과하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당항족 초기의 8대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탁발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신오대사』 『토곡훈전』에 토곡훈에 탁발씨라는 대성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토곡훈이 일부 당항족을 다스렸고, 그 가운데 탁발씨가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67에는 당 말에 당항족에 ‘탁발사공(拓跋思恭)’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토곡훈을 잘못 쓴 것

에 불과하다.¹⁵⁹

그 밖에도 탕자아홍과 탕카이지엔은 1980년대 후기와 1990년대 중기에 탁발씨가 북위에서 기원했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점을 수정해 당항족이 선비족에 속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강족은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일한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범칭이어서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하위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일부 학자들은 ‘수복(須復)’이 선비이고 ‘당우(當于)’가 당항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음운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상당한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항의 역사는 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흉노와 선비 사이에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일부 부족이나 귀족일 수도 있다.

셋째, 루어마오쿤은 ‘하성근찬가’ 재해석을 통해 당항족의 발상지가 현 따싱안링산맥 북쪽 기슭과 헤이룽 강(黑龍江) 상류라고 보고 이 지역에서 당항족의 유적이 있음을 들어 당항족은 선비와 마찬가지로 싱안링·창바이(長白) 산맥·헤이룽 강 사이라고 보았다.

넷째, 동북민족은 모두 ‘8’을 숭상해 선비와 거란에는 8부가 있었고, 남흉노에는 8부대인, 북위에는 8부대부, 북주에는 8주국, 발해에는 8부대씨, 고구려에는 8목(牧), 만주족에는 8기가 있었다. 당항 역시 ‘8부’가 있었다.

다섯째, 복수 중시, 도적질을 좋아하는 것, 행장막(行帳幕) 제도, 스스로 흑두(黑頭)라 칭하는 것, 해동청 사냥, 활을 잘 만드는 것, 점치는 방식, 귀신을 죽이고 초혼하는 것, 장례풍속, 독발(禿髮) 등의 풍속습관이 모두 선

159 周偉洲(1988), 『唐代黨項』, 三秦出版社, 7~13쪽; 李範文(1998), 「再論西夏黨項族的來源與變遷」, 『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1~19쪽.

비에서 나온 것이다.

여섯째, 30개 당항족 성씨와 선비족 성씨의 음가를 비교해 보면 선비 성씨가 당항족 안에 상당수 보존되었다.¹⁶⁰

재미 신진학자 주쉬에위엔은 언어비교를 통해 그들이 '서융(西戎)'의 후예 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당항은 동호이며 '미약'은 '말갈(靺鞨)'이라며 서하는 선비-동호계(東胡系)이며, 동시에 통구스-말갈계(靺鞨系)의 조상이라고 하였다.¹⁶¹

2. 서하의 국호

『수서』에 처음으로 '당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탁발씨가 건국하기까지 서하의 국호 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름이 있다. 즉 당항·대하·하·하국·서하·하서·백미(白彌)·평하(平夏)·방니정국(邦泥鼎國·邦泥定國)·하대(夏臺)·주성(珠城)·우미(于彌)·외진(外秦)·백상국(白上國)·대백상국(大白上國)·대자고국(大自高國)·백상대하국(白上大夏國)·백고대하국(白高大夏國)·당울척(唐兀惕)·당고특(唐古特)·당고(唐古)·당울(唐兀)·번국(番國)·미약·미아(彌娥) 등이 다. 이처럼 많은 국호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상당수 정리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논쟁 중인 것이 있다. 우티엔치는 서하 국호에 대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① 당항: 당항이란 수·당·송의 한족들이 부른 칭호로서 스스로 부르던

160 唐嘉弘(1989), 「再論西夏拓跋氏的族屬問題」, 『中國民族史研究②』, 中央民族學院出版社; 湯開建(1996), 「黨項源流新證」, 『寧夏社會科學』 1.

161 朱學淵(2002), 『中國北方諸族的源流』, 中華書局, 276~278쪽.

칭호는 아니며, 국호라기보다는 서하의 주체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페르시아인 라시트[拉施特]는 『사집(史集)』에서 서하를 ‘당울척’이라고 했는데, 당고투·당울척·당고·당울 등은 당항의 이역(異譯)이다. 이는 북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여러 부족들은 한족이 사용하던 용어를 답습한 것 같다.

② 미약: 미약 역시 당항족 탁발씨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왕실이나 정권을 뜻하는 것이지 국호는 아니다. 미약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목내(木內)·모납(母納)·미아·면약(緬藥)·목아(木雅)·밀납극(密納克) 등 많은 이역이 생겨났다. 북송 때 토번과 우전(于闐)은 면약가(緬藥家)·미약이라고도 불렀다.

③ 하서: 하서는 황허 이서지역을 뜻하는 말로서 하우(河右)라고도 한다. 서하의 별칭으로 하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북송 때부터인데, 후에 원대인들이 송·금인의 습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서하는 하서를 국호로 사용한 일이 당연히 없었다.

④ 하와 대하: 하와 대하는 『송사』·『요사』·『금사』 3사에 각기 「하국전」·「서하외기」·「서하전」이 있어서 서하의 국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왜 국호를 ‘하’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왕징루는 서하는 타칭이고 자칭은 ‘대하’인데 이는 ‘禹稱大夏, 或用赫連勃昔稱大夏之故地’라는 데서 기인하였다고 보았다.¹⁶² 리관원은 대하하(大夏河)에서 취한 것 같다고 보았다.¹⁶³ 우티엔치·리즈칭[李志清]은 당항 탁발씨가 이주하여 오랫동안 평하(平夏)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평하부(平夏部)라는 호칭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 말에 탁발사공이 절하주(節夏州)를 세우고 이(李)씨 성과 함께 하국공(夏國公)에 봉해져 대대로 내려와 할거정권을 세울 수 있었다. 그 후 송과 요는 여러 차례 ‘하왕·하국왕·대하국왕’으

162 王靜如(1984), 「西夏國名考」, 『西夏史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660쪽.

163 李範文(1983), 「西夏國名辨」, 『西夏研究論集』, 寧夏人民出版社, 70쪽.

로 봉하였다. 이런 오랜 역사적 전통을 고려하여 이원호는 건국하면서 ‘대하국’이라 칭한 것이다.¹⁶⁴

⑤ 백상 : 백상은 1914년 루어푸창이 『서하국서략설』 「유문」 제4 중에서 중수량주호국사감응탑비제를 ‘白上護國寺涼州感應塔碑之碑文’으로 해석하고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루어푸청은 「금광명경참회멸죄기(金光明經懺悔滅罪記)」 해석문 각주에서 “원대인들은 서하를 하서라고 하였으나 서하인 스스로는 백상이라고 칭하였다. 그것은 서하가 서쪽 변경에 건국해 황허의 상류에 위치했기에 하서라고 했지만 황허의 발원지는 물이 누렁지 않아 백하(白河)라고도 하여 흑수(黑水)의 대칭으로 쓰고 있다. 하인은 백하의 상류에 살고 있어 백상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¹⁶⁵

백하의 위치에 대해서는 루어푸청이 주장한 황허 상류설, 민산(岷山) 아래의 백수하(白水河)설, 무정하(無定河)설, 백고황하(白高黃河)설, 쓰촨·칭하이·간쑤 교계지설 등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백상’이 꼭 ‘백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많은 이론이 있지만 당항족이 강족이건 선비이건 그 발전 과정에서 이미 여러 민족이 융합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견 역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강계라고 해도 흡수와 융합 과정에서 선비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¹⁶⁶ 마찬가지로 선비계 역시 강계를 포함한 다른 민족을 흡수하면서 당항족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⁶⁷

164 吳天墀(1986), 「論黨項拓跋氏族屬及西夏國名」, 『西北史地』 1; 李志清(1992), 「西夏諸名稱音義析辨及其族源探索」, 『西夏文史論叢①』, 寧夏人民出版社.

165 羅福成(1933), 「金光明經懺悔滅罪記」, 『國立北平圖書館館刊』 4-3.

166 史金波(1993), 「西夏境內民族考」, 『慶祝王鍾翰先生八十壽辰學術論文集』, 遼寧大學出版社, 409쪽.

167 湯開建(1996), 「黨項源流新證」, 『寧夏社會科學』 4.

VI. 주변국가와의 관계사 연구

서하사 연구는 서하의 문자, 언어 해독은 물론 관련 자료의 수집 등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 학계의 서하사 연구가 결국은 관계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정작 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늦게 시작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시각이나 역사 해석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차이메이빠아오[蔡美彪]가 『중국통사』에서 “서하는 각 민족과의 교류 가운데 자기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토번·회흘 등 각 민족 인민도 서하를 통해서 각 형제민족과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 각 민족이 공통으로 역사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서하의 작용은 매우 중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¹⁶⁸고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연구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창기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물론이고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1980년대 이후 출간된 중국통사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 유일하였다. 즉 차이메이빠아오의 『중국통사』 6책 4장의 ‘서하적흥망(西夏의興亡)’, 홍환춘(洪煥椿)의 『송요금사화(宋遼金史話)』 3장의 ‘당항적굴기화송하관계(黨項의崛起和宋夏關係)’, 덩광밍[鄧廣銘]의 『요송서하금사(遼宋西夏金史)』 가운데 ‘서하’, 『중국사고(中國史稿)』 5책 3장의 ‘요·서하·토번·회흘화대리(遼·西夏·吐蕃·

168 蔡美彪(1979), 『中國通史⑥』, 人民出版社, 226쪽.

回紇和大理), 바이셔우이[白壽彝]의 『중국통사』 11책의 ‘중고시대·오대요송하금시기(中古時代·五代遼宋夏金時期)’ 등에서 자연스럽게 주변민족과의 관계를 무역 관계 등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¹⁶⁹

그리고 서하사 전문서적으로는 우티엔치의 『서하사고』,¹⁷⁰ 리관원의 『서하간사』,¹⁷¹ 리웨이의 『간명서하사』¹⁷²와 치시아[漆俠]·치아오여우메이[喬幼梅]의 『요하금경제사』,¹⁷³ 양슈쥔[楊樹森]의 『요사간편』,¹⁷⁴ 장보어쥬엔[張博泉]의 『금사간편』,¹⁷⁵ 리우지엔리의 『송대서북토번연구』¹⁷⁶ 등에서도 주변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다.

서하의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폭넓게 다룬 전문서로는 푸지엔루[杜建錫]의 『서하여주변민족관계사(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¹⁷⁷가 있다. 푸지엔루는 ‘송대대전 당항강과 하주(夏州) 탁발정권의 대외관계’, ‘서하·송관계’, ‘서하·요관계’, ‘서하와 토번·회골관계’, ‘서하와 금·몽관계’ 등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송·요·금 사이의 삼각관계와 상호제약 등의 시대적 특징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관계사 연구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리화뢰이[李華瑞]의 『송하관계사』¹⁷⁸이다. 관계사 영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주제 가

169 鄧廣銘(1988), 『遼宋西夏金史』,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21쪽.

170 吳天墀(1980), 『西夏史稿』, 四川人民出版社.

171 鍾侃·吳雲峰·李範文(1979), 『西夏簡史』, 寧夏人民出版社.

172 李蔚(1997), 『簡明西夏史』, 人民出版社.

173 漆俠·喬幼梅(1994), 『遼夏金經濟史』, 河北大學出版社.

174 楊樹森(1984), 『遼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75 張博泉(1984), 『金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76 劉建麗(1998), 『宋代西北吐蕃研究』, 甘肅文化出版社.

177 杜建錄(1995),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 甘肅文化出版社.

178 李華瑞(1998), 『宋夏關係史』, 河北人民出版社.

운데 하나는 전쟁이며, 특히 서하의 국가적 성격상 군사적 충돌의 분석은 필수적 과제인데, 리화뢰이는 쌍방의 경제, 군사적 교류 외에도 북송의 정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교류의 궤적을 추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군대의 지휘체계, 병력배치, 장비보급, 주요 전투, 전쟁의 특징 등 송하 전쟁에 대해 매우 세밀하면서도 다방면에 걸쳐 연구하였다. 『송하관계사』에서 다룬 12개 주제는 ‘송 초 서부 변방정책’, ‘송 인종·영종시기의 대서하정책’, ‘송 신종·철종·휘종시기 대서하정책의 발전과 변화’, ‘북송 말 및 남송기 서하와의 관계’, ‘송·서하전쟁론’, ‘송·서하 국경의 성·채·보’, ‘송·서하무역과 전쟁의 관계’, ‘송·서하와 요의 삼각관계’, ‘송·서하의 토번·당항제 부족에 대한 쟁탈’, ‘북송과 서하의 교빙(交聘)’ 등이다.

그 밖에도 장이즈[張翼之]의 「송하관계략론(宋夏關係略論)」과¹⁷⁹ 우광야오[吳光耀]의 「위이계천변(爲李繼遷辯)」¹⁸⁰에서는 리계천의 반송(反宋)전쟁은 당항족에 대한 송조의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벌인 민족기의이며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탕카이지엔은 3편의 논문을 통해서 철저한 할거전쟁일 뿐 정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¹⁸¹

리웨이,¹⁸² 왕티엔쑤,¹⁸³ 자오지이엔[趙繼顏],¹⁸⁴ 리우지엔리,¹⁸⁵ 자오이광[趙

179 張翼之(1982), 「宋夏關係略論」, 『民族研究』 5; 吳光耀(1978), 「爲李繼遷辯」, 『寧夏社會科學』 3.

180 張翼之(1982), 앞의 글; 吳光耀(1978), 앞의 글.

181 湯開建(1984), 「李繼遷領導的反宋戰爭是一場反對民族壓迫的正義鬥爭嗎?」, 『西北民族文叢』 2; 湯開建(1985), 「試論元昊對宋作戰屢勝的原因」, 『西北民族學院學報』 1; 湯開建(1985), 「關於元昊領導的反宋戰爭性質的探討」, 『青海民族學院學報』 2.

182 李蔚(2000), 「蒙夏戰爭特點及西夏滅亡的原因」, 『固原師專學報』 4; 李蔚(1987), 「宋夏橫山之爭述論」, 『民族研究』 6.

183 王天順(1994), 「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的變化」, 『寧夏社會科學』 3.

184 趙繼顏(1980), 「北宋仁宗時的宋夏陝西之戰」, 『齊魯學刊』 4.

185 劉建麗(1996), 「宋夏戰爭中的秦州吐蕃」, 『寧夏社會科學』 4.

一匡¹⁸⁶ 등의 논문도 기존의 시각을 넘어선 상세하고 심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교관계에서는 사신 교빙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꾸지천[顧吉辰]은 「송-하교빙표」¹⁸⁷에서 송하의 교빙활동을, 리우싱쥬엔[劉興全]은 「하송통사제도고술(夏宋通使制度考述)」¹⁸⁸에서 사신 선임과 파견, 출사(出使) 절차, 접대 의례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리우지엔리는 「하금사신교빙술론(夏金使臣交聘述論)」¹⁸⁹에서 하·금의 교빙활동과 기능에 대해서 살피면서 임득경(任得敬)이 금에 우호적인 토변을 공격하고 하의 인효(仁孝)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에 대해 금과 서하가 공동대처한 것에 대해서 다루었다.

인물에 관한 연구로는 이계봉(李繼棒)에 대한 리커우의 논문¹⁹⁰이 있고, 이계천에 대해서는 쉬쥬양(徐莊),¹⁹¹ 루어마오쿤,¹⁹² 뤼주어민[呂卓民],¹⁹³ 리웨이¹⁹⁴의 논문이 있다. 서하에 대한 범중엄(范仲淹)의 대응책에 관한 자오지이엔¹⁹⁵의 논문, 한기(韓琦)에 관한 구어린[郭琳]¹⁹⁶과 구어원지아[郭文佳]¹⁹⁷의 논문, 부필(富弼)에 관한 저우리엔디[周蓮弟]¹⁹⁸의 논문이 있다.

186 趙一匡(1987), 「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 『蘭州學刊』 4.

187 顧吉辰(1986), 「宋-夏交聘表」, 『固原師專學報』 3.

188 劉興全(1998), 「夏宋通使制度考述」, 『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189 劉建麗(2002), 「夏金使臣交聘述論」, 『國家圖書館學刊』 2002增刊(西夏研究專號).

190 李克武(1988), 「李繼棒入覲納土析論」, 『華中師大學報』 3.

191 徐莊(1981), 「試論李繼遷的歷史作用」, 『寧夏大學學報』 4.

192 羅矛昆(1981), 「李繼遷攻取靈州對西夏建國的作用」, 『寧夏社會科學』 3.

193 呂卓民(1991), 「試論李繼遷舍夏取靈與西夏建國的關係」, 『寧夏大學學報』 3.

194 李蔚(1994), 「談李繼遷」, 『西北民族研究』 1.

195 趙繼顏(1983), 「範仲淹的答趙元昊書及其招撫政策」, 『山東大學學報』 4.

196 郭琳(1999), 「淺談韓琦的對夏策略」, 『安徽師範大學學報』 1.

197 郭文佳(2000), 「論韓琦在禦夏戰爭中貢獻」, 『信陽師範學院學報』 2.

198 周蓮弟(1999), 「富弼與北宋的禦夏政策」, 『寧夏社會科學』 4.

하·송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장이즈의 「송하관계략론(宋夏關係略論)」,¹⁹⁹ 리 화뢰이의 「무역여서하침송적관계(貿易與西夏侵宋的關係)」,²⁰⁰ 두지엔루의 「송하 청백염문제(宋夏靑白鹽問題)」,²⁰¹ 구어정중[郭正忠]의 「청백염사여청구염형률(靑白鹽使與靑白鹽刑律)」,²⁰² 후오성핑의 「논북송여서하적무역(論北宋與西夏的貿易)」,²⁰³ 린원쥔[林文勳]의 「송대식염여주변민족관계(宋代食鹽與周邊民族關係)」,²⁰⁴ 장리엔[張煉]의 「논북송대서하외교적실패(論北宋對西夏外交的失敗)」,²⁰⁵ 차이퉁저우[蔡東洲]의 「시론남송여서하적관계(試論南宋與西夏的關係)」²⁰⁶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요관계 논문은 천뱙잉의 「요하관계급기상호정책(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²⁰⁷ 장귀칭[張國慶]의 「약론요하화친여요하관계적악화(略論遼夏和親與遼夏關係的惡化)」,²⁰⁸ 주씨아오신[朱筱新]의 「평요재하송관계중적작용(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²⁰⁹이 있다.

하·금관계 논문은 리우지앤리·탕카이지엔의 「하금관계술평(夏金關係述評)」,²¹⁰ 리우지앤리의 「하금사신교빙술론(夏金使臣交聘述論)」²¹¹이 있다.

199 張翼之(1982), 「宋夏關係略論」, 『民族研究』 5.

200 李華瑞(1997), 「貿易與西夏侵宋的關係」, 『寧夏社會科學』 3.

201 杜建錄(1987), 「宋夏靑白鹽問題」, 『固原師專學報』 1.

202 郭正忠(1995), 「靑白鹽使與靑白鹽刑律：兼論夏宋靑白鹽貿易」, 『寧夏社會科學』 2.

203 霍升平(1988), 「論北宋與西夏的貿易」, 『中州學刊』 1.

204 林文勳(1993), 「宋代食鹽與周邊民族關係」, 『雲南民族學院學報』 2.

205 張煉(1994), 「論北宋對西夏外交的失敗」, 『西南民族學院學報』 5.

206 張煉(1994), 위의 글; 蔡東洲(1992), 「試論南宋與西夏的關係」, 『四川師範學院學報』 1.

207 陳炳應(1991), 「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 『寧夏社會科學』 4.

208 張國慶(1988), 「略論遼夏和親與遼夏關係的惡化」, 『史學月刊』 5.

209 朱筱新(1988), 「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 『寧夏大學學報』 1.

210 劉建麗·湯開建(1986), 「夏金關係述評」, 『西北師院學報』 2.

211 劉建麗(2002), 「夏金使臣交聘述論」, 『國家圖書館學刊』, 增刊『西夏研究專號』.

208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서하와 주변민족관계 논문으로는 푸지엔루의 「논서하여주변민족관계급 특점(論西夏與周邊民族關係及特點)」,²¹² 장후에[張慧等] 등의 「서하황하연안적각장경제(西夏黃河沿岸的樵場經濟)」,²¹³ 평지친[馮繼欽]의 「서하여몽고高原제부적관계(西夏與蒙古高原諸部的關係)」,²¹⁴ 천유닝[陳育寧]의 「몽고여서하관계략론(蒙古與西夏關係略論)」,²¹⁵ 천징잉의 「몽장조기적교왕급서하재몽장관계중적지위화작용(蒙藏早期的交往及西夏在蒙藏關係中的地位和作用)」,²¹⁶ 멩난[孟楠]의 「논극렬인여서하적관계(論克烈人與西夏的關係)」,²¹⁷ 런칭자씨[仁慶紫西]의 「서평왕여토번적관계(西平王與吐蕃的關係)」,²¹⁸ 주치위엔[祝啟源]의 「송대서북지구토번여서하관계략술(宋代西北地區吐蕃與西夏關係略述)」,²¹⁹ 장윈[張雲]의 「토번여당항정치관계초탐(吐蕃與黨項政治關係初探)」,²²⁰ 양쭈어산[楊作山]의 「북송시기서번여서하관계술평(北宋時期西蕃與西夏關係述評)」,²²¹ 룡푸[隴夫]의 「시론송·하여토번관계적기개문제(試論宋·夏與吐蕃關係的幾個問題)」,²²² 까오쯔허우[高自厚]의 「감주회골여서하(甘州回鶻與西夏)」,²²³ 리우지앤리의 「감주회골·양주토번대하서주량적경영(甘

212 杜建錄(1996), 「論西夏與周邊民族關係及特點」, 『民族研究』 2.

213 張慧等(1995), 「西夏黃河沿岸的樵場經濟: 兼論西夏與中亞地區的貿易往來」, 『內蒙古地方志』 3.

214 馮繼欽(1985), 「西夏與蒙古高原諸部的關係」, 『寧夏社會科學』 4.

215 陳育寧(1988), 「蒙古與西夏關係略論」, 『民族研究』 5.

216 陳慶英(1992), 「蒙藏早期的交往及西夏在蒙藏關係中的地位和作用」, 『青海社會科學』 6.

217 孟楠(1998), 「論克烈人與西夏的關係」, 『內蒙古社會科學』 3.

218 仁慶紫西(1988), 「西平王與吐蕃的關係」, 『中央民族學院學報』 1.

219 祝啟源(1988), 「宋代西北地區吐蕃與西夏關係略述」, 『甘肅民族研究』 3·4.

220 張雲(1988), 「吐蕃與黨項政治關係初探」, 『甘肅民族研究』 3·4.

221 楊作山(1990), 「北宋時期西蕃與西夏關係述評」, 『西北第2民族學院學報』 1.

222 隴夫(1991), 「試論宋·夏與吐蕃關係的幾個問題」, 『甘肅民族研究』 4.

223 高自厚(1982), 「甘州回鶻與西夏」, 『甘肅民族研究』 3.

州回鶻·涼州吐蕃對河西走廊的經營」²²⁴ 등이 있다.

문화적 시각에서 서하와 주변민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최근의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무홍리[穆鴻利]는 당항문화는 주변국가, 특히 한족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였고,²²⁵ 리우지앤리는 “서하에 대한 유학의 영향은 전방위적이었고, 각 영역에 침투해 서하와 다른 여러 형제민족과의 융합 및 자신의 봉건화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²⁶

224 劉建麗(1991), 「甘州回鶻·涼州吐蕃對河西走廊的經營」, 『西北師範大學學報』增刊.

225 穆鴻利(1999), 「試論西夏黨項文化傳統及其與周邊各族文化的交流」, 『寧夏大學學報』2.

226 劉建麗(2000), 「論儒學對西夏社會的影響」, 『西北師範大學學報』3; 劉建麗(1989), 「兩宋時期儒學在少數民族中的傳播與發展」, 『西北師範大學學報』6.



중국 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동향

－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육정임 | 고려대학교

I. 머리말

II. 중화민족일체론의 송금관계사 인식의 특징

III. 송금관계사의 주요 논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

IV.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는 연구영역의 확대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여진 민족과 금조를 보는 관점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현실의 필요에 따라 그 연구사상 큰 변환을 맞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지리적 공간영역의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비한족과 한족이 함께 중화민족(中華民族)을 구성해 왔다고 하는 이른바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역사에서 민족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이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을 함께 포함한 ‘통일적 다민족국가(統一的多民族國家)’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로서 필요했다. 현안으로서 민족문제가 역사학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금조를 포함한 북방민족과 관련된 역사연구의 관심과 해석을 주도하는 대전제이며 동시에 민족관계사 연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선포로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본질상 민족문제라는 민감한 정치문제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인식의 요구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민족을 초월한 계급투쟁의 우선 정책 아래에 잠재해 있다가,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계급모순보다 민족모순의 문제가 부각되고 통합민족 개념이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주의가 요구하는 역사의식은 중국 정부가 건국 이후 역사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론적 역사관을 수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천 년 지속된 한족 중심의 화이론적 역사관을 청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한족에 국한된 중화민족의 역사, 한족의 우월성, 한족이 주도한 역사의 흐름을 강조했다면, 이제

는 오늘날 통일적 다민족국가 내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중화민족의 단결을 증강시켜야 할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의 역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현재의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이 같은 역사인식의 변화는 중국 역사 서술에서 늘 타자로서 인식되었던 북방민족의 역사연구, 그중에도 특히 북방민족과 한족의 관계사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 영역인 금송관계사의 경우도, 한족 왕조인 송을 중심에 두고 금사를 외국의 역사로 보던 전통시대의 시각은 봉건적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또는 지방협애주의(地方狹隘主義)라고 비판을 받고, 송과 금을 중국 내의 두 민족 혹은 두 정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특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며 ‘민족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에 철저히 현재적 관점과 현실적 목적을 대입한 중국 학계의 인식들을 ‘객관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 출발점인 중국의 민족정책과 그에 따른 역사 ‘공정(工程)’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타국의 학문적 경향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중국 사학계의 변화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합리적인 우리의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특별한 양상으로 북방민족과 한족이 관계한 시대이며 민족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의제들을 포함했던 10~13세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중국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그중에서 송(宋)과 금(金)이 대치했던 시기의 양국 관계사에 집중하여 근래 중국 학계의 연구의 실태, 특히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송금관계사에 대해서는 전근대 사가(史家)들의 서술도 있고 근대적 학문방

법에 따른 연구성과도 이미 20세기 초기부터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1980년대 이른바 ‘중화일체론’에 입각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20~30년간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전체 연구발표의 나열적 소개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관련한 변화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최근 30년의 기간은 금사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한 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며,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사학계 주류의 관점이 급변하고 그 새로운 역사관을 따르는 논자들이 거의 한 세대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도 이 시기 중국 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화일체론적 역사인식의 영향으로 송금관계사 연구영역에서 나타난 변화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로 인해 송금관계사에서 초미의 관심 주제가 되어 온 구체적이고 세밀한 주제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연구 분위기 안에서 송금관계사의 연구 내용과 방법 등 학문적으로 참신하고 긍정적인 발전의 면모도 재평가할 것이다.¹⁾

1 趙永春(2003), 「近二十年中國金史研究」, 『宋史研究通訊』 41.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금사 전체의 연구성과를 망라해 소개하고 있다. 김위현(2008), 「금 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 연구』가 있으나, 금사 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 정리이며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인 송과 금의 관계사 분야는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져 있다.

II. 중화민족일체론의 송금관계사 인식의 특징

송과 금은 1118년 이른바 ‘해상의 맹약(海上之盟)’으로 요(遼)에 대한 협공을 약속한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했으나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송이 금의 공격을 받으면서부터 양국은 전쟁과 화의(和議), 평화와 대적의 관계를 번갈아가며 1234년 금의 멸망까지 약 110년간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으로 공존했다. 한족 정권인 송은 그에 앞서 거란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금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정통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화북지역을 금에게 빼앗기고, 요에게보다 훨씬 많은 세폐(歲幣)를 지불하며, 금 왕조를 군주국으로 자신을 신하국으로 칭하며 낮은 지위를 수용하는 등 시종 굴종하는 관계를 이어갔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흐름에서 볼 때 이 시대 송과 북방민족 간의 국제관계가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관계사 분야에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다. 1930년대 항일전쟁 시기 항전의식의 고양을 위해 송과 금의 관계사 연구도 활기를 띤 적이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송금관계는 요·금·원사의 다른 분야사와 더불어, 한족 왕조에 대한 역사연구에서와 같은 열의를 받지 못했고, 약간의 송과의 관계사도 독자적인 분야로 관심받기보다는 송사 연구에 부속된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²

2 1979년 차이메이뻬아오[蔡美彪]가 주편한 『중국통사(中國通史)』 제6책 요하금 권의 출판을 새로운 금사 연구의 출발로 볼 수 있다. 금을 송사에 부속시키지 않고 독립된 역사로서, 정치·경제·문화 발전상황을 분별해 상세히 서술한 점이 주목할 만하

1982년 중국 요금거란여진사연구회(遼金契丹女眞史研究會) 성립을 전후하여 금사 연구는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양적인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의 내용은 여진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있었다. 즉 여진족과 금 왕조의 역사를 중화민족 역사의 일부로 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 국내의 역사로 간주하는 인식의 변화가 더 많은 연구를 촉진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연구 범위의 확대 등에서도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대열에 가장 앞장섰던 연구자로는 누구보다도 장보촨(張博琰)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기부터 무려 20편 이상의 논문과 『금대경제사략(金代經濟史略)』, 『금사간편(金史簡編)』, 『금사논고(金史論稿)』, 『여진신론(女眞新論)』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특히 1995년의 『중화일체역사궤적(中華一體歷史軌迹)』은 그의 금사 연구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론인 ‘중화일체론(中華一體論)’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금사 전공 대학원생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여진과 금에 대한 전문학자를 배출하면서 차세대 연구자들의 금사 연구방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 같은 시기 발표된 페이샤오통(費孝通)의 ‘중화민족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 이론도 비록 송금시대에 국한한 연구는 아니라 해도, 금사를 중국 국내사의 일부로 파악하여 연구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³

‘중화일체론’이나 ‘중화민족다원일체格局’, 그 무엇이든 칭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다민족의 ‘통일성’을 과거에 투시하여 중국 전체 역사를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가는 긴 여정으로 보는 것이 새로운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현 중국 영역에 존재했던 한족과 일체

다. 단, 이 역시 금사 단독 저술은 아니고 요·하의 역사와 함께 수록되었다.

3 費孝通(198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大學學報』 4.

비한족의 역사는 모두 함께 중화민족 내부의 역사로 간주해야 하고, 그들 사이의 경계 짓기를 강조하던 기존의 정통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공존과 융합, 그리고 일체성을 중시하는 ‘중화민족’의 역사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송금관계사 분야에서의 연구 관심, 주제, 해석과 역사적 평가 모두 이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송과 금에 대한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던 많은 주제와 사안들이 재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종종 그 이전과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는 한다.

중화민족일체론은 금사 및 송금관계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대전제를 제시했고 그 후 송금관계사 연구자들은 그것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즉 근래 중화민족 관점에서의 송금관계사 연구는 다음의 대전제들을 공통의 인식 근거로 삼고 있다. 첫째, 송과 금은 중국 국내의 대등한 두 왕조였다는 것, 둘째, 송과 금의 관계는 전쟁과 대립보다 화의와 융합의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셋째, 송과 금은 결과적으로 통일적 중화민족 역사의 진보적 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인식이 송금관계사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1. 화·이, 정통·비정통, 국내·국외 경계의 부인

송과 금을 대등한 국내의 두 민족, 두 정권으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한쪽 중심의 편견으로서 송과 금의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이를 보려는 자세를 탈피하며, 또 송과 금을 서로 다른 국가로 구분하는 경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정운(正閏)의식, 존한천이(尊漢賤夷)사상의 영향 아

래 송금시대의 역사도 양송억금(楊宋抑金)의 자세로 서술되었고, 사실 최근 까지도 그 경향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송금관계사 연구자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통시대 한족 중심의 대외 관인 화이관적 사고를 부정·비판하며, 최소한 자신들의 역사관점이 그것과 차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보인다. 송금의 전쟁이나 관련된 인물들의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시비(是非) 판정이나 평가에서 여전히 송측의 손을 들어 주는 결론에 이르게 될 때조차도 자신들의 평가는 맹목적이고 주관적인 화이론적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⁴

장보관은 ‘중원한족(中華)을 귀(貴)하게 여기고 변강소수민족(夷狄)을 천(賤)하게 보는’ 차별의식을 ‘봉건적(封建的)’이라고 표현하여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사상임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가 이것은 ‘반동적 민족분열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⁵ 그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중국은 이미 고대 전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꾸준히 통일적 다민족의 구역관념을 형성해 왔다. 중국의 천하(天下) 개념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중국과 사해(四海), 복심(腹心)과 사지(四肢), 그리고 중국과 변강을 늘 함께 포함했고, 혹 ‘중외(中外)’, ‘내외(內外)’와 같은 표현으로서 구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원과 변경의 구분일 뿐, 결코 변경의 소수민족 지역이 천하의 밖에 있는 존재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찍부터 ‘중국 각 민족의 통일적인 민족칭호[統一的族稱] 즉 ‘중화민족’으로서의 공동 심리요소가

4 예를 들어 李錫厚(2003), 「岳飛與“紹興和議”」, 『宋史研究通訊』 42의 주요 논지는 분명 기존 한족 중심의 서술과 다르지 않고 금조를 적으로 보는 감정까지도 분명히 드러내지만, 송과 금의 전쟁을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족 조상 내의 일부와 다른 일부의 투쟁이었을 뿐이라는 원칙적 전제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5 張博泉(1984), 「金宋和戰史論」, 『史學集刊』 2.

출현하고 이것이 왕업일통(王業一統)사상과 더불어 천하일체(天下一體)의 사상을 공유하고 또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앞서 천수[陳述]가 『거란사론증고(契丹史論証稿)』에서 요와 금, 그리고 오대(五代)와 양송(兩宋)이 남북으로 대치했던 시기를 중국 역사상 '제2차 남북조'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장보환의 주장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주로 한족이 통치하던 중원 통치의 역사가 송요, 송금 시대에 이르러 소수민족이 통치하는 중원의 역사로 '발전'했고, 송과 금 사이 정통의 문제를 둘러싼 쟁론이 있었다 해도 소수민족의 왕조를 '외부'로 본 적은 과거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오용춘[趙永春]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금조를 세운 당시의 여진족은 이미 한족과 융합하거나 한족 왕조의 판도에 귀입(歸入)하여 국내(國內)의 성격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한다.⁶

장보환의 분석에 따르자면, 그동안 중국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부정하며 금조를 외국으로 보는 '반동적 민족분열사상'의 시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봉건적 정통, 비정통이라는 인습 외에도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에도 있었다. 그것은 근대 초 외국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하면서 중국인들 스스로도 국내전쟁과 외국전쟁을 혼동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중국 분열을 위한 의도적인 분리 이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결코 송금관계를 외국 간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될 '중화민족'으로서의 역사적 타당성 그리고 민족 감정상의 설득력까지 갖춘 웅변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6 趙永春(2003), 앞의 글.

2. 여진과 금, 그리고 송금관계를 보는 포용적이고 관대한 시선

20세기 초기부터 이제까지 중국 송금관계사 분야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송금 화전(和戰) 과정의 주요 사건이나 참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항전 영웅의 상징이 된 악비(岳飛)는 저서나 논문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연구 대상이었다. 특히 민족, 애국정신을 고취하던 항일운동기에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강조된 면도 있었지만 그 후 지금까지도 항전(抗戰), 항금(抗金)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그것은 역시 한족 중심의 중국사에서 애국, 애족을 강조하고, 이에 여진족과 금조는 타자(他者)이며 항쟁의 대상으로 보는 뿌리 깊은 전통적 의식이 작용해 왔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금과 송이 국내의 동일한 정권일 뿐 아니라 어떤 다른 가치의 경계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중화일체 이론이 선언적으로 발표된 이후 이러한 의식은 크게 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의식적으로 송과 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 송조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던 자세에서 탈피하여, 금조 측의 상황과 정책을 그쪽의 입장과 논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송금관계사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장보찬과 자오용춘은 그들의 저술에서 제목이나 명칭에서부터 ‘송금(宋金)관계’가 아니라 ‘금송(金宋)관계’로 의식적으로 금을 앞에 둔다. 심지어 금에게 투항적 자세를 취하여 과거에는 매국적인 인물로 악평이 났던 송조의 인물들까지도 객관적 입장에서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 학자들의 논저들을 보면, 송금 사이의 충돌과 갈등, 전쟁, 또 연관된 인물들의 행적 등에 대해서, 으레 그 결정과 조치의 옳고 그름, 행동의 정의와 비정의, 또는 결과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으로 갈라서 명쾌한 이분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짓는 특성이 있다. 이전의 평가가 대개 팔이 안으로 굽는 격으로 단순하

게 이루어졌다면, 근래에는 노골적으로 송 측 편들기 식의 평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장보환은 분명하게 지적한다. 예컨대 금송 전쟁사에서 관련 인물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한족 위주의 민족적 편견이 된다면 송 측은 영원히 정의로, 금 측은 영원히 부정의로 평가될 것이며 모든 영웅은 송의 인물들이며 금에는 영웅이 없을 것이라고. 또 한 가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라 해서 무조건 평가의 준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만약 유물론적 발전단계 이론을 단편적으로 적용해서, 생산방식의 선진성과 낙후성을 가지고 두 사회를 차별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여진족뿐 아니라 기타 민족의 경우도 낙후단계에서 선진단계로 전화하는, 진보적 과정에서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진족이나 금조의 역사를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중화민족 내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화일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금송전쟁과 근대 이후 국외제국주의의 침입전쟁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 금송전쟁은 국내 민족 간 또는 정권 간 상호적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그들의 문제는 겸병이나 반(反)겸병이나에 있었다는 것이다. 장보환은 금송 간의 전쟁에서는, 다시 말해 초기의 약탈성 전쟁을 제외하면 남북통일을 누가 실현하는가만이 문제가 되는, 금과 송에게 평등한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한족과 비한족 사이의 민족적 갈등에서 해탈한 듯 초연한 자세가 읽혀진다.

1980년대 초 장보환의 중화일체론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과 송의 역사에 적용하여 피아(彼我)의 경계를 허물고 금송관계를 논하는 것은 꽤나 파격적인 변화였고, 그러한 논지를 모든 학자가 곧바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리웨이[李蔚]의

경우, 송금전쟁을 “민족투쟁 형식으로 출현한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시비 판정의 기준은 민족이 아니라 계급문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철저히 송의 우세와 승전을 당연시하는 자세로 일관한다. 서슴없이 송의 항금 군대를 ‘의군(義軍)’으로, 진회(秦檜)를 ‘내간(內奸)’으로 칭하고, 또 금이 세운 유예(劉豫) 정권 설립에 대해서 “이화제화(以華制華)의 음험한 목적을 망도(忘圖)”했다고 서술하는 등, 여진족을 적대시하는 한족 역사가의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초의 논문은 물론이고 1990년대 논문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⁷

그러나 중화일체론에 입각하여 금을 국내 왕조로 받아들이는 이상 금에 대한 시선은 부드러워지고 모든 평가에 있어서 포용과 관대함이 드러나는 경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각으로 송금관계사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연구자를 꼽는다면 자오용춘을 들 수 있다. 1999년 『금송관계사연구(金宋關係史研究)』와 2005년 『금송관계사(金宋關係史)』로 많은 논문을 모아 출판한 이후로도 여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등 활발히 저술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송과 금을 중화민족 내부의 대등한 주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충실히 장보환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민족일체론적 관점이 제기된 이후의 논저 중에는 그 이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온 송금의 전쟁과 화의 등 몇 가지 핵심 주제에 관해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 또는 재평가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자오용춘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발굴하며 심도 있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많은 논문에서 기존에 송 위주의 불공정한 판정이 내려졌

7 李蔚(1983), 「略談宋金戰爭的實質」, 『河南師大學報』 4; 李蔚(1990), 「試論宋金戰爭的幾個問題」, 『社會科學』 3.

던 사안들에 대해 작정이라도 한 듯 금 측을 대변하러 나선 변론자의 자세를 보여 준다. 다음 절에서 사안과 주제별 연구상황을 다시 소개하겠지만, 예컨대 송금 간 해상맹약(海上盟約)을 금 측에서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금 태조는 끝내 맹약을 지켰고, 금 태종이 송을 침공한 배경에는 송 측의 잘못도 있었던 만큼 전적으로 금 측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 송이 금과 연합해 거란으로부터 연운 16주(燕雲十六州)를 수복하려던 책략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송금관계를 송요관계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⁸ 송금관계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소흥화의(紹興和議) 체결에 대해서도, 투항적이고 굴욕적인 결정이었다는 부정적 평가 일변도의 기존 논점과 다르다. 화의체결에서 나타난 '구화(求和)'정신이나 화의의 결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높이 평가한다.⁹

금송관계사에서 특히 송과 금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금과 송의 적대적 관계보다 평화적 관계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심사였던 군사적 관계보다 평화적인 외교·경제·문화 방면에서의 상호 교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추세이다. 2002년 금송관계연구사를 정리한 「송금관계사 연구의 반성과 탐색(關於宋金關係史研究的反思與探索)」에서 무홍리(穆鴻利)는 금송관계사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했다. 금송의 정치 지위를 보면 금이 송보다 우위에 있고, 양측

8 趙永春(1987a), 「金與北宋戰爭爆發原因初探」, 『北方文物』 2; 趙永春(1987b), 「宋金“海上之盟”評議」, 『上饒師專學報』 4. 반면 초기 송금연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의 사례로는 任崇岳(1987), 「論宋金“海上之盟”」, 『中州學刊』 4; 任崇岳(1990), 「略論宋金關係的幾個問題」, 『社會科學集刊』 4.

9 趙永春(2008), 「“澶淵之盟”對宋金和戰的影響」, 『黑龍江民族叢刊』 1.

의 화전상황은 금의 주도하에 있었고, 금송시대 전체 기간의 양측관계는 화평·공존의 관계가 주류였으며, 경제와 문화 방면의 송의 영향력뿐 아니라 금 역시 선진적인 부분이 있고 송에 영향을 끼친 점이 있다는 것이다.¹⁰ 바로 새로운 연구방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연구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론적 평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의 총체적인 발전

송과 금 어느 한 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연구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송과 금이 병존했던 시대를 전체 중국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인 추세이다.

금과 송이 대치한 110여 년의 시기를 오대(五代) 분열기로부터 몽골 통일, 즉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완전한 실현의 시대로 향해 가는, 중국 역사발전의 과도기적인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중화민족일체론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장보환의 주장대로 두 왕조의 경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거나 혹은 실패하는 것에 상관없이, 또 어느 민족이 통치민족이 되든 여

10 穆鴻利(2002), 「關於宋金關係史研究的反思與探索－從《金宋關係史研究》一書引發的思考」, 『社會科學戰線』 1. 이 연구사 논문의 부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는 자오용춘의 첫 단행본 『금송관계사연구』의 1999년 출판을 계기로 그의 논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다. 자오용춘이 새로운 금송관계사 흐름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망이라든가 중국의 멸망 따위의 문제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대로 설명하면, 중화민족의 발전은 본래부터 고립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중화민족 성원의 일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외 민족으로 가입해 갈 수도 있고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 역시 발전 과정에서 국외 민족의 부분들을 융합하거나 흡수하면서 공동으로 창건하고, 조국의 운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 내부의 형제민족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므로 중화민족 역사의 본류에 들어온 여러 민족사의 지류는 그 어떤 경우라도 중화민족 총체적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쉬춘샤[徐春夏] 역시 같은 시각에서 송금시대를 이해한다. 그는 송금시대가 중국사상 민족융합이 고조된 시기의 하나였다고 한다. 즉 당시는 한족, 거란족, 탕구트족, 그리고 여진족이 얹혀 있던 다원적 대치시기이고, 이때 각 민족이 경쟁하고 또 교류한 그 역사는 중국 고대부터 진행되어 온 민족의 혼전과 융합교직(融合交織)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단, 주목할 것은 그 융합의 방향이 역시 소수민족의 동화, 또 여진족의 한화(漢化)로 일방적인 교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화민족 발전에는 함께 공헌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금과 송의 사례를 더 확장시켜 모든 정복왕조에 대해서도 민족의 융합 발전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을 적용한다. 송과 금이 연합해서 요에 항거하고 송과 몽골이 연합해 금을 멸하는 등 화의와 전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족의 문화제도와 통치경험이 4개 민족에게 고루 파급되었고, 이 과정이 각 민족이 일부본 지역의 통일을 이룬 단계로부터 원조(元朝)가 '대일통(大一統)'을 이룬 단계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몽골의 통일은 북방 소수민족이 북방을 통일한 역사이며 동시에 전 중국 통일의 단계까지 추진된 것이며, 이는 역사의 발전으로 간주해야 한다. 몽골의 전승(戰勝)으로 남북으로 대치하던 형세가 이미 존재 조건을 잃었다. 몽골이 요와 금을 계승한 후 역사상

남북조를 끝내고 통일 중국을 건립했다는 점에서, 그 공업(功業)이 금과 남송을 훨씬 능가한 것이다. 한족에 국한된 중국이라면 이것이 북방민족에 의한 정복사로 생각되겠지만 통일적 다민족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역사발전은 바로 다민족 역사발전 변화의 결과이며 후퇴(倒退)가 아니라 공전(空前)의 대발전이 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 전개되면서 서양에서는 민족이 분화하고 민족국가가 독립해 갔던 데 반해, 중국에서는 민족이 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민족융합을 중국의 특유한 상황으로 해석한다. 장자여우(張嘉友)도 최근 논문에서 ‘분구필합(分久必合)’이 중국 역사발전의 대추세였다고 같은 논리로 설명한다.¹¹

결국 중국에서의 송금의 관계 역사는 더 이상 한족의 허약과 굴욕으로 점철된 부정적 역사시대가 아니라, 중국 역사 흐름의 결과에서 볼 때, 중화민족의 응집, 국부의 융합에서 전체적인 융합의 완성기로 가는 발전적인 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II. 송금관계사의 주요 논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

중화일체론이 제출된 이래로 송금관계사 연구 분위기가 일신되고 관련

¹¹ 徐春夏(2002), 「從宋金“和戰”管窺中國古代民族關係」, 『溫州師範學院學報』 23-5; 張嘉友(2007), 「寧宗前期的宋金關係述評」, 『西南科技大學學報』 24-3.

논문과 저서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주제와 참신한 방법의 연구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구 주제 면에서 연구의 비중을 살펴볼 때 주된 관심은 그 이전과 크게 달라 지지는 않고 여전히 전쟁과 화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는 오랜 논쟁의 중심에 있던 송금 화전사(和戰史)에 관련된 몇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다민족일체론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요 연구자들의 해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인물에 대해 직설적으로 시비의 판결을 내리는 중국식 저술의 특성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경향은 송은 정의로 금은 비정의로 편을 가르는 태도는 약해진 것 같다. 물론 많은 경우 한쪽 중심의 사고로 송의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태도가 더 많고 완전히 금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평가의 근거나 이유를 민족이 아닌 다른 것, 민중의 시각, 진보적 발전 등을 내세워 판단의 근거로 설명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1. 송금 초기의 관계

우선 송이 요에 보복을 하기 위해 금과 연합한 전략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이는 친거란 아니면 친여진 어느 선택이 유리했는가 하는 결과론적인 판단으로 귀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상반된 견해와 평가가 있다.

장보환은 당시 금의 군사력으로 요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요가 멸망하면 북송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북송이 여진의 진군(進

軍)을 거란 지역에 국한시키고 기회를 보아 요가 점거했던 토지를 회수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상황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해석한다.¹² 자오용춘도 송이 금과 연합해 연운(燕雲) 지역을 수복하려 한 계획은 실행 가능성 있는 책략이었다고 본다. 요 정권은 이미 부패하여 멸망이 필연적인데다 송요간의 우호관계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여진과는 북송 때부터 우호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똑같이 세폐를 지불할 바에야 연주(燕州) 일대 6개 주라도 수복하는 것은 진전된 면이 있었다. 만약 요금전쟁에서 중립을 취한다면 북송은 연운 일대 토지를 영원히 방기하는 셈이므로 송으로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휘종을 비롯한 부후(腐朽)한 세력이 일을 주지하는 과정에서 송 측이 안일하고도 모호한 행동을 취했고, 이것이 금 측의 불만을 사고 또 후일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그래도 금 태조 아구타[阿骨打] 치세기간은 동맹이 지켜졌다. 그런데 송 쪽에서의 위약(違約), 군사력의 약세가 결국 금의 침요(侵擾)를 야기했으므로, 양국의 연맹 약속 결렬은 해상지맹 등 금과의 연합정책 자체이거나, 금 측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에서 송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한다.¹³

반면 런충웨[任崇岳]는 송요관계가 상대적으로 융합, 화해에 가까웠고, 송금관계는 상호 공격이 더 많았다고 평가하여 장보환이나 자오용춘의 의견과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보인다. 해상지맹을 맺은 금 측이 요를 멸한 뒤 송에 위협을 가한 것은 송인들이 예견하지 못한 돌변이었고, 북경 주변 6개 주를 수복했다 해도 이것이 송에게 별로 실속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금에 교납해야 했을 대세전(代稅錢)의 액수가 너무 컸고 1123년 송이 연경에 진입하기에 앞서 금인이 대거 노략을 하여 연경은 빈 성의 상태였

12 張博泉(1984), 『金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3 趙永春(1987b), 앞의 글; 趙永春(1987c), 「北宋聯金復燕的活動及其經驗教訓」, 『歷史教學』 10.

기 때문에 거액과 군대를 일으켜서까지 되찾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송이 금과 연합하기로 한 정책은 악수를 둔 꼴이었다고 주장한다.¹⁴

2. 송금전쟁의 성격

송금전쟁의 성격이나 양쪽 전쟁 주체의 잘잘못을 논하는 그동안의 논의는 크게 보면 원인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각도를 달리하여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쟁의 원인, 즉 모순 주체의 관계에 따라서 민족투쟁적 성격인지 아니면 계급투쟁적인 성격인지의 판단이 주요 논지이다. 한편, 전쟁의 결과와 사회도덕성 등을 고려해서는 정의로운 전쟁 혹은 비정의로운 전쟁, 유리한 전쟁 혹은 불리한 전쟁으로 규정하고는 한다.

먼저 전쟁 당사자들의 문제에 따라 송금전쟁은 대개 민족투쟁의 성격으로 또는 계급투쟁의 성격으로 달라진다. 한족 중심의 관점에서 민족투쟁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는 송금전쟁사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금 측의 공격성과 침략성, 전쟁의 파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계급투쟁의 관점은 공산당 정권 이후 마르크스주의 사관의 영향하에서 송금전쟁 역시 계급모순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데, 개혁개방 이후로도 그 가치관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족의 중국을 위주로 보는 견해는 송금관계를 '우리와 적'의 관계로 보아 왔지만 근래에는 이같이 일원적으로 민족모순을 들어 해석하는 경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보다는 민

¹⁴ 任崇岳(1987), 앞의 글.

족모순과 계급모순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정의와 비정의, 유리함과 불리함으로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에도 그 기준은 한족을 중심으로 보든가 아니면 인민 계급의 입장에서인지 판단의 준거가 두 가지 축으로 작용한다.

리웨이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송금전쟁을 여진 노예주 귀족집단이 도발한 약탈성 민족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고 노골적인 민족 감정과 계급투쟁 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가령 잔혹한 민족 압박과 민족 약탈정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한족 노동인민이 주체인 송인(宋人)의 분기반항(憤氣反抗)을 격발시켰다고 표현한다. 또, 여진족 노예주 귀족의 ‘방흥(幫凶)’인 위제(僞齊)의 유예(劉豫)가 연합한 한 편과 한족 노동인민이 주체인 각 계층 인민과 악비(岳飛)·한세충(韓世忠) 등이 지휘하는 ‘애국군대’를 다른 편으로 하는 ‘노역과 반(反)노역, 약탈과 반(反)약탈, 압박과 반(反)압박의 투쟁’이라고 한다. 송금전쟁은 결국 민족이란 베일을 쓴 실질적 계급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송과 금 양측의 통치계급과 노동인민계급을 나누어서 각 집단이 가졌던 전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각 계급의 득실을 따져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고 역설한다. 자신의 논리는 전쟁의 성격은 전쟁 발동자의 계급속성뿐 아니라 정치제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레닌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밝힌다. 금의 경우 국내정치가 미발달한 노예제 국가로 노예제 경제의 발전을 위한 약탈성 전쟁을 도발한 비(非)정의적인 주체이고, 송은 보다 진보적 단계인 봉건생산방식을 지키려는 비(非)약탈성 해방전쟁의 주체였다고 결론짓는다.¹⁵

근래 중화민족일체론의 인식을 저변에 둔 평가에서는 송금전쟁을 전체적으로 논하기보다는 대개 상황의 전개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그 변화

¹⁵ 李蔚(1983), 앞의 글; 李蔚(1990), 앞의 글.

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민족경계나 계급모순의 관심보다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의식하고 송금전쟁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전쟁과 화의 상황에 따라 몇 단계를 나누어 각 시기별로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금 측의 침략성 전쟁으로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전쟁의 파괴성보다는 건설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장보환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해상지맹에 의한 금송연맹이 파괴된 후부터 1130년까지를 금송화전관계의 1단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의 전쟁은 분명 여진족 노예주 귀족이 벌인 외부로 향한 약탈전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1130년부터 서서히 그리고 화의 체결 이후는 분명하게 쌍방이 대치하는 평화적 공존상태에 들어가고 이후로는 더 이상 ‘약탈 대 반(反)약탈’의 전쟁이 아니고 누가 분열을 해소하고 남북통일을 실현하는가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중화일체론의 관점에서는 남북 대치국면을 타파하고 전국 대통일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쟁이라 하더라도 역사발전의 추세이고 역사요구에 따르는 적극적인 의의를 가졌다고 본다. 이런 논지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여 장자여우는 영종(寧宗)시대 한탁주(韓侂胄)의 ‘개회북벌(開禧北伐)’ 전쟁을 평가하면서 장보환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¹⁶

¹⁶ 張嘉友(2007), 앞의 글.

3. 군사역량과 전세의 비교

송금 왕조의 전쟁 또는 화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당시 양측 군사역량의 우열, 주요 전투에서의 전세(戰勢) 비교에 근거하고는 한다. 송과 금의 전략이나 상대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당시 그들의 상대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중에서도 소흥화의를 둘러싸고 그 이전의 전황(戰況)과 양측의 전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송금 화전사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군사·경제적 역량의 비교와 우열관계는 곧 송 정권 화의결정에 대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논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전세상황의 판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금 단순화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을 대별해 보자면, 전통적 화이론적 민족의식에 입각한 견해와 중화민족론의 입장을 따르는 근래의 연구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양측 모두 송금전쟁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금 측이 일방적으로 강했다가 점차 송의 전세가 회복되어 갔다는 데는 대개 동의한다. 그래도 송의 굴욕적인 화의 선택이 불편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송군의 전력상 승산이 있었던 점을 밝히거나 적어도 송의 군사력이 강화될 잠재력이 있었다는 등, 주로 송 측의 군사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반면에 후자인 근래 연구들은 송군의 전력이 전체적으로 열세였다는 면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은 송금 전쟁기간 중요한 고비마다 송 측 항전파의 전쟁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애석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만큼 투항정책을 추진한 통치집단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다. 금 태종의 침공이 시작됐을 때도 송 측에는 이강(李綱)을 비롯한 항전파의 투지와 근왕군대의 원조가 있어서 송조로서는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구화파(求和派)의 비겁한 결정으로 성하의 맹약(城下之盟)을 체결하고, 애국 군민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성을 사수하던 군민에게 철거를 명령한 결과 1126년 변경(汴京)의 성을 점령당하고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문무백관 종실 1천여 명이 금의 전리품으로 포획당해 가는 '정강의 변(靖康之變)'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남송 성립 후 전세가 변화하여 초기보다 상대적으로, 금은 점차 약화되고 송은 점차 회복 강화되었다는 데에는 대개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송금의 대립관계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주로 송 측의 군사력 회복에서 찾는다. 금 측의 야만적 약탈전쟁에 대해 애국군민의 항전 열정이 광대하게 일어나고, 그간의 항전 경험을 통해 유능한 송의 지휘 장령(將領)들이 배출된 데서 온 결과라는 것이다. 1130년대에 들어서 금에서 취한 일련의 전략 조치들 즉, 유예를 앞세운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남송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 전선을 나누어 서북쪽으로 공세를 취하고 동남쪽은 수세를 위주로 한 조치, 진회를 송으로 돌려보내 송에 주화(主和)세력의 부식(扶植)을 꾀하고, 금 내부에 한의 관제(官制) 및 과거제를 시행하는 등 많은 개혁까지도 전세가 역전되어 갔던 것에 대한 금 측의 대응이었고 또 송강금약(宋強金弱) 형세의 반증이었다고 해석한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1138년 금 측이 허난(河南)과 산시(陝西) 땅을 송에게 귀환하고자 한 의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금에 적대감과 의혹을 나타내는 우타이(吳泰)의 연구에서는 금이 이 영역을 고의로 남송에 주어 송군을 기병이 강한 서쪽으로 유인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한다.¹⁷ 그런가 하면 당시 이 지역이 오랜 병란(兵亂)으로 황량해져 금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에 송에게 돌려주었고, 후에 재탈취하려는 의

17 吳泰(1985), 「試論金國歸宋河南陝西地的目的」, 『中國史研究』 3.

도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⁸ 이들은 금 왕조 측의 음험한 의도가 있었다고 역설한다. 한편 런충웨의 경우는 당시 금과 송의 전력상황을 분석해 남송 멸망이 어렵게 됨을 파악하고 그 두 지역을 방기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분석한다.¹⁹ 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금 측의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131년 몰립(沒立), 오로절합(烏魯折合), 울술(兀術) 등의 남침 공격은 오개(吳玠)에게 격파당하고 유예 정권을 설립한 효과도 기대와 달라 결국 1137년 유예를 폐립하기에 이르는데 여기에도 남송의 의군(義軍)과 한세충, 악비 등의 협공이 작용하여 금 쪽에서도 이전의 전쟁 위주의 전략에서 화의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금과 송의 전쟁 초기의 전세는 송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한다 해도 1130년대 특히 소흥화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는 분명 송의 전세가 우세했고 그 상승세가 허망하게 중단되어 버린 이유는 오직 송의 주화정책에 있었음을 강조한다.²⁰

금과 송 군사역량의 상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중화민족일체론을 견지하는 학자들 쪽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미묘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있다. 이들은 송 측의 군사역량의 진전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 한계성에 좀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1130년 이후 금송의 전세가 송 측에 유리하게 변화한 바는 장보환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금 측이 한동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나 지구전을 치르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의 약탈성 전쟁이 북방 인민들의 저항과 견제를 받게 하고 낙후된 노예제의 약점이 송에 비해 정복능력의 한계를 드러

18 鄧廣銘(1982), 「紹興八年九年內秦檜的賣國降敵和岳飛的堅決反抗」, 『社會科學集刊』.

19 任崇岳(1990), 앞의 글.

20 李蔚(1990), 앞의 글 ; 李錫厚(2003), 앞의 글 ; 侯紹庄·鍾莉(2004), 「也談南宋初年的宋金“和”“戰”」, 『貴州文史叢刊』 3.

냈으며, 통치제도 면에서 요의 제도와 북송의 제도가 병존하는 등 인력과 물력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송강금약(宋強金弱)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만큼 송의 입장이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정치적 부패, 내부 의견의 분열, ‘반동파(反動派)’가 권력을 잡는 바람에 독립자주적인 전투부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송조는 ‘내수허외(內守虛外)’, ‘척지여적(斥地與敵)’의 반동적 방침을 추진하면서 전투부대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금에서도 한관(漢官)제도를 취하는 개혁에 착수하고 봉건정권으로 진보해 가고, 이에 따라 점차 약탈적 전쟁에서 탈피하고 초기의 전투 위주의 전략에서 화의를 위주로 하는 전략적 방어로 나갔다고 분석한다. 결국 양측 역량에 균형이 이루어져 장기간 화평적인 대치의 단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오용춘의 분석은 금 측에 좀 더 긍정적이다. 송금의 역사를 민족평등 원칙 위에서 보고, 금조의 정치 지위가 송조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역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런충웨도 송은 군사상 일련의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병력이 피로하고, 문신과 무신의 화합이 없고, 장수들 간에도 불협하여 부대의 전투력이 심각하게 초약(樵弱)해졌다. 유광세(劉光世), 장준(張俊)은 한세충을 지원하라는 고종(高宗)의 명령에도 적극 따르지 않았다. 남송 정권이 초기보다는 정돈되었다 해도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 금과 대치하는 것은 잠시의 승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악비가 “황룡부(黃龍府)를 공격하여 통쾌하게 마셔버릴 것이다(直搗黃龍府 與諸君痛飲)”²¹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비현실적인 바람이라고 일축한다. 더욱이 경제상의 문제는 군사력보다 심각해 군량[糧餉] 부족의 압박을 받았다는 점

21 『宋史』卷365, 「岳飛傳」.

도 지적한다.²²

송 측의 역량이 크게 부족했다는 평가는 런쥔슈(任仲書, 양평[楊峰] 등의 주장이기도 하다. 금의 침입을 받아 송의 중앙 금군(禁軍)이 와해, 폐산(潰散)한 것은 물론이고, 후에 자발적으로 조직된 근왕군대, 각 장령들의 통솔부대도 남송 조정의 지지와 영도력 없이 유지할 도리가 없어 결국 귀향하거나 도비(盜匪)가 되어 흩어지고, 장수들도 통일되지 않고 역량의 집중, 지휘 발동의 능력이 부족하고 도리어 백성들에 노략과 잔해를 입히는 상황 이어서 금에 대해 반격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다.²³ 앞서 일부 학자들이 북송 말 근왕군대와 의군, 대장령의 부대들의 투지와 능력을 강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송금 전쟁시기 전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각각의 주요 전투나 거기서 활약한 장군을 조명하는 연구도 골고루 많이 있다.²⁴ 각 전투의 전개와 결과에 대한 분석 등 비교적 미시적인 접근의 연구들인데, 근래 논문들은 송금 간 중립적인 자리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경향이 분명히 보인다.

22 趙永春(2008), 앞의 글.

23 任仲書(2001), 「試論南宋初年高宗對金退避妥協的原因」, 『河南大學學報』 41-2; 楊峰(2003), 「南宋初年宋金“和”“戰”新探」, 『貴州文史叢刊』 4.

24 王云裳(1993), 「劉錡與富平之戰」, 『浙江學刊』 79, 2; 王云裳(1997), 「劉錡與紹興末年的宋金戰爭」, 『杭州大學學報』 27-2, 6; 李華瑞(1993), 「宋金太原之戰」, 『西北師大學報』 6; 趙煜·魏敏(2009), 「南宋初年宋金西線戰爭雙方的戰略意圖」, 『綿陽師範學院學報』 28-4.

4. 송금 화의 체결의 이유와 평가

송금의 역량에 대한 엇갈린 분석은 자연스럽게 소흥화회의의 이유 분석과 그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송의 승세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송금 화의가 고종과 진회를 중심으로 한 반동적 투항파들의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금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무책임하고도 굴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악비의 군대가 승리해 나가는 형세에서도 고종과 진회의 통치하에 있던 남송 조정은 굴기취화(屈己取和)의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고 악비의 행동이 여진족 통치자에게 거슬릴 것을 우려해 악비와 기타 복진 장령들에게 철수를 강제하고 결국 금 측의 의지대로 악비를 살해했으며, 할지(割地), 납폐(納幣), 칭신(稱臣)의 내용을 담은 소흥화회의를 달성했다. 여진족 통치자의 입장에서 남송에 대해 공전(攻戰)과 화의, 양수를 운용하면서 남송 투항파의 호응을 받고 남송 군민과의 전장에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거대한 이익을 화의를 통해 결국 획득했다는 것이다.²⁵ 대개 전통적 화이론, 금에 대한 적대감을 내포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중화민족일체론을 선도한 장보완은 송금의 역량 균형을 인정하고 또 민족 중립적임을 내세우면서도 소흥화회의의 체결이 송조의 우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 점을 아쉽게 보고 화의도 굴슬(屈膝) 투항이었을 뿐이라고 보는 기존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자오용춘 등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후진 학자들의 해석과 평가는 다르다. 이들의 요점은 화의 결정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그 근거를 송 통치자의 결정보다는 금의

²⁵ 李錫厚(2003), 앞의 글.

상황 변화 등 객관적인 정황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²⁶ 송의 전세가 나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금에 대해 결정적으로 반격을 취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만큼 남송 정부로서도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나 인민에게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남송 왕조가 아직 혼란한 상황이고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송의 화의 선택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송으로서는 전쟁 초기 완전히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항진의지를 견지하고 투쟁 역량을 향상시켜 세력의 균형상태를 이룩한 결과이므로 소흥화의는 굴욕이 아니라 성취라고까지 해석한다. 전연지맹이든 소흥화의든 적에게의 양보나 재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얻어진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송 측에서 보인 강한 투쟁력이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의 침략을 단념하도록 한 결과였던 만큼 송조가 이런 성취의 의의가 있었다는 논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 송 측의 상황이나 전세, 그리고 금 희종(熙宗) 이후의 금 조 내부 정세의 변화를 모두 분석하여 송뿐 아니라 금 측에서도 강화의 길밖에 없었다며 이것이 소흥화의 체결의 객관적인 역사 배경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5. 송금 화의의 결과와 의의에 대한 평가

소흥화의 체결의 영향 및 의의에 대한 인식은 송금관계사의 연구 논저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송금시대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주관적인 견

²⁶ 趙永春(2008), 앞의 글; 楊峰(2003), 앞의 글; 任崇岳(1990), 앞의 글.

해를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학계의 의견을 가르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단순히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라 해도 남송, 즉 기존의 한족사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중화민족사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고 부정적 의견도 민족의 문제인지 계급의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서로 결론이 다르다.

리웨이와 같이 송금전쟁을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경우, 봉건통치자들 사이에 체결된 화의는 송금 양측 상층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조치이고 하층 노동인민에게는 압박과 수탈의 피해를 가중시킨 역사발전의 반동으로 규정한다.²⁷

분명하게 송의 입장을 견지하고 금을 적대시하는 자세의 학자들도 소흥 화의의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이다. 리시허우[李錫鬍]의 의견을 소개하면, 소흥화의는 항금투쟁에 나섰던 남송 군민에게 긍정적인 의의는 전혀 없고 굳이 결과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면 화의가 가져온 굴욕과 압박이 반면(反面) 교육의 기회가 되어 그들의 투쟁 의지를 환기시키고 그 투쟁을 통해 여진 통치자는 점차 약해지고 남송 군민은 강대해졌다는 것을 겨우 말할 수 있다며 냉소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평가를 나타낸다. 소흥화의 이후 남송은 잠시 화평을 누릴 수 있었으나 송 고종과 진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여진 통치자와 서로 호응해서 남송 군민의 항금투쟁을 파괴한 결과로 얻어진 화평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다. 남송 정권은 타협과 투항으로 일관된 국책을 계속한 것에 반해, 금조 여진족 통치자들이 기회를 틈타 남침하려 한 기본방침은 변하지가 않았다. 소흥화의가 금조의 침략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해릉왕(海陵王)의 남침에서도 명백

²⁷ 李蔚(1983), 앞의 글.

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송이 굴욕을 좀 만회한 것은 효종(孝宗) 때 남송 무력이 금조를 압박해 일정한 양보를 얻어낸 융흥화의(隆興和議)로 가능해졌다. 여전히 송금 간의 불평등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소흥화의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있다고 평했다.²⁸

남송을 중심에 두고 그 입장에서 내린 분석이라 하더라도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다. 양평은 금과의 의화(議和)로 송 왕조는 휴식을 얻고 사회를 안정시켜 국력을 증강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며 소흥화의는 전략적이며, 고종 이후 두 차례 북벌 시도 역시 모두 실패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고종의 결정은 정확한 선택이고, 송 왕조가 금국의 여러 차례 남침에 대응하며 유효한 반격을 가하면서 남송의 반벽강산(半壁江山)을 보전했다는 결론에 이른다.²⁹

송이나 금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 측의 입지에서 양국 관계사를 바라보는 자오용춘이라 해도 소흥화의가 항전파를 박해하고 굴기 구화한 과정의 결과로 화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영토상실과 청신납공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송과 금 양쪽 사회와 문화의 방면에서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을 의의로 지적한다. 즉 양쪽 사회에 인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어서 안정적 생산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 왕조의 희종, 세종(世宗)과 장종(章宗) 시기가 남북화평시기였는데 이때 인민이 생산발전에 진력하여 양 사회의 진보발전을 촉진했다. 송금 무역이 광범하게 또 물품도 번다해지며 무역량도 늘어, 양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이 풍부하게 되었다. 특히 양방향의 물자·문화 교류가 여진족에게는 봉건화로의 발전을 진일보 촉진

²⁸ 李錫厚(2003), 앞의 글.

²⁹ 楊峰(2003), 앞의 글.

진시키고, 남송에는 신선한 혈액을 주입시켜 발전하게 했다. 남송 측이 세 폐를 지불했다고는 하나 군비부담이 감소했고 또 금과 각장(榷場)무역을 진행함으로써 일부 보상을 얻기도 했다.

장보환은 더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흥화의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송과 금이 병존한 시기의 모든 역사과정이 중화민족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어느 한쪽 민족의 주체성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산 발전과의 관계에서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 간의 화평관계가 얼마나 남북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송금 화의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소흥화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전통적인 화이론적 견해가 이어져 오고 특히 중국사 통사류나 개설서에서도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 심지어 송대사 분야의 중견 원로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허종리(何忠禮)와 왕청위(王曾瑜)의 논쟁에서 보듯, 화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의 제출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최근까지도 매우 민감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허종리가 그의 저서 『남송사고(南宋史稿)』에서 “다만 소흥화의 체결(簽證) 자체로만 본다면 …… 객관적으로 말해서 한 점의 적극적인 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기술한 것이 발단이 되어, 왕청위의 반론과 허종리의 재변론, 다시 리시허우의 허종리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진 바가 있다.³⁰

허종리는 자신도 소흥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면보다 크다는 것, 화의의 목적과 직접적인 결과 등 모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당시 형세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단편적

30 何忠禮(1999), 『南宋史稿』, 杭州大學出版社; 王曾瑜(2001), 「紹興和議與士人氣節」, 『中國史研究』 3; 何忠禮(2002), 「史學批評要堅持實事求是的原則—評紹興和議與士人氣節」, 『中國史研究』 4; 李錫厚(2003), 앞의 글.

기록으로 좌우되지 않고 일시적인 민족 정서에 영향받지 않고 단지 화의 체결 자체로 그 사업을 본다면, …… 약간의 긍정적인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굽히지는 않는다. 그가 말한 긍정적인 면이란 “남송정권을 온정(穩定)하게 할 수 있고 잠시 숨들릴(喘息) 시간을 구할 수 있어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켜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고 따라서 군사역량을 진일보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청위나 리시허우는 소흥화의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그들의 일관된 입장에서 허풍리의 부분적인 긍정 평가가 비논리적이라며 비판했다. 양평과 같이 소흥화 의가 남송의 전략적인,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좀 과격한 주장은 당연히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오우샤오쥔(侯紹庄), 쥔리(鍾莉)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숨기지 않으면서 양평 논문의 내용, 연구방법, 검토사료의 편협성 등을 맹렬하게 공격했다.³¹

융흥화회는 아무래도 소흥화회에 비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리시허우는 융흥화회의 이후에야 송조가 금조와 대치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까지 본다. 다만, 이때도 송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었는 데, 결국 송 지도부의 구적(懼敵) 심리 때문에 결국 화의를 청하기로 결 의했다고 본다.

영종(寧宗) 때 한탁주의 북벌과 그에 이어진 가정화회의(嘉定和議)에 대한 연구로는 장자여우, 진화(靳華) 등의 연구가 있다.³² 대체로 장보환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개회북벌과 가정화의를 평가했다. 가정화회는 쌍방이 화평시기에 취했던 소극적인 방어 자세가 연속된 것이고, 양측 모두 화평 대책을 세우면서도 봉건적 부패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어서 아무

31 侯紹庄·鍾莉(2004), 「也談南宋初年的宋金“和”“戰”」, 『貴州文史叢刊』 3.

32 張嘉友(2007), 앞의 글; 靳華(2002), 「嘉定義和後的宋金關係」, 『北方論叢』 176, 6.

쪽도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다고 설명한다. 진화는 금과 송의 마지막 시기, 몽골에 대한 실책을 지적한다. 몽골이 등장했을 때, 송은 금조에 대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생각하여 송과 금이 연합해 항거해야 하는데, 오랜 대치관계에서 금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송은 금과의 오랜 원한관계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송과 금은 모두 전쟁으로 피차 국력과 군대를 소모하여 몽골 앞에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이다.

6. 주요 인물들에 대한 평가

송금 간 전쟁과 화의에 관련된 많은 인물들의 연구는 송금관계사 연구 성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악비와 진회를 대비하여 보는 것과 같이 송금 화의 체결이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인물들이 주 연구 대상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시비, 정의냐 비정의냐의 분별이 더욱 명확하고, 중화일체론의 영향이 확대되어 온 지난 20여 년 동안에도 전통적인 화이론 시각에서 애국 또는 매국으로 나누는 민족의식의 노출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보관은 금송 전쟁사에서 관련 인물의 평가가 불가피하지만 한족 위주로 보거나 단순한 마르크스주의 사관을 적용하거나 또는 근대에 생성된 외국에 대응해서 나타난 애조국(愛祖國) 개념을 국내 중화민족끼리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다민족국가인 중국 역사에는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그 대신 “역사상 전쟁은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비정의이다. 진보를 위한 일체의 전쟁은 모두 정의로운 것, 진보에 저애(沮礙)가 되는 일체의 전쟁은 모두 비정의의 전쟁”이라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선언을 채택하여 사회발전에 촉진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저해작용이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역사적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는 금송 화전사를 논하면서, 자신의 민족적 중립성을 더욱 드러내려
는 의도에서이겠지만, 송과 금 양측의 같은 부류의 인물을 짝지워 비평 대
상으로 삼고 있다. 송금 양측 강경파 주전 인물로 완안종필(完顔宗弼) 즉
울술과 악비를 두 왕조 투쟁 중 모두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중화민족 역사상 칭찬할 만한 인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양측의 주화
파 인물인 진회와 달라(撻懶)에 대해서는 중화민족 최고 반동세력의 대표
로 폄하했다. 이유는 달라의 경우 금조의 한제(漢制) 개혁과정에서 수구세
력으로서 금의 진보적 개혁에 반대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었고, 진회는 달
라에 의해 풀려난 후 송 내부에서 화의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가 아
무리 화평을 주장했다 해도 무릎을 꿇고 투항한 자세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송시대 반동세력의 대표이며 중화민족의 ‘패류
(敗類)’라고 단정한다. 장보관이 제시한 인물평가의 기준이 민족 중립적이라
는 점과 화의 성립 이후의 결과론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기준과 잘 맞지 않는 평가이며 논리적인 근거가 별로 없이 전
통적인 화이론적 의견을 따르는 태도를 보인다.

또 송금 양측에서 통일전쟁을 시도했던 인물로 해릉왕 완안량(完顔亮)과
한탁주를 들었다. 해릉왕의 전쟁 발동은 통일조건과 기초를 갖추지 못했
던 시기상 부적합한 시책으로 그것의 본래 목적이 자신의 뜻을 추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탁주는 개혁가가 아니며 사미원(史彌遠) 등 통
일 반동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시도하여 실패로 끝난 점을 들어 역시 부
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통일전쟁은 선와 의로 평가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
장이 아무에게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 전통적인 인

물평가의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³³

양평의 진화와 고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런충웨이와 장보촨이 악비의 한계와 비현실성을 간단히 지적한 것 정도가 중국의 전통적인 인물평가와 달라진 점으로 보인다. 다민족일체이론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한족 중심의 심리와 전통적 화이관의 관성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7. 중화일체론적 송금관계 연구의 난맥상

이상에서 송금관계사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 온 주제들에 대한 최근 중국 학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제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화민족다원일체’와 ‘통일적 다민족국가’ 이론의 파장이 적어도 송금 화전사의 평가에는 생각보다 크고 깊게 미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시비를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 측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고 금의 한족 제도 수용이 여진족의 발전이자 중화민족 대역사의 진보이며, 송금 병존시대 민족 간 융합의 역사를 주도한 것은 한족의 문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중화민족의 융합, 대일통을 이루어가는 역사과정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민족의 동화, 여진족의 한화라는 일방적인 교유임을 강조한다.

중화민족일체론을 총론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각론에 가서는 여전히 오랜 민족적 정서를 붙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리시허우는 “송금전쟁은 당시에는 민족투쟁의 성질을 가졌다. 만약 우리가 21세기 중국인의 입장에 서서 송금이 대치하던 역사를 회고하면 그것은 한족 조상 중 일부분 사람이 다

33 張博泉(1984a), 앞의 글.

른 일부분 사람에게 맞선 투쟁에 불과하다. …… (그렇다 해도) 만약 중국 역사상의 각 민족이 지금처럼 모두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고 일부는 심지어 일찌감치 한족 중에 융합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상의 시비를 재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할 때 만약 장래 어느 때 세계 대동을 실현하게 된다면 전 세계 각 국가 각 민족의 역사는 단번에 무효가 되어버리고 역사학 연구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토로한다. 더 나아 “우리는 송금전쟁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데, 역사상 민족관계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는 것만이 오늘날 민족관계의 정확한 처리에 유리하고 따라서 민족단결을 증강하는 것이지 결코 민족단결을 방해할 수 없다”며 민족 간 분쟁으로 시비를 논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적나라하게 민족투쟁의 관점에서 시비를 논하는 태도는 분명히 약해졌다. 한쪽에 전통적 화이관과, 다른 쪽에 송과 금을 철저히 평등하게 보는 시각을 양극으로 하는 스펙트럼 내부에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아울러 개혁개방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가치관도 송금관계의 문제에서 여전히 유효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중화민족일체론의 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갈등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계급문제로 포장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게 된다.

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중화민족일체론을 중국 학계가 원론적으로 따르는 이상, 그리고 그 다민족일체론의 실체가 결국은 소수민족의 한족화를 의미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난맥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교류와 융합을 강조하는 연구영역의 확대

중화민족일체론 혹은 통일적 다민족주의가 송금관계사 연구의 순수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첫째는 한족 왕조사를 중심으로 북방민족 왕조사를 주변으로 대상화하는 전통 또는 근대적 역사관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며, 둘째는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상호적인 영향과 융합을 강조하면서 군사·정치 외의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굴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탈근대주의 사조의 영향 아래 세계의 역사학계가 보이는 변화의 방향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새로운 영역의 연구 성과가 그렇게 많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연구 주제의 확장이라는 면을 보면, 외교·경제·사회의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영향에 관한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군사·정치 외의 대립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남북관계를 밝히고 있다. 송금 각장의 문제를 포함한 경제교류의 연구로서, 천신권[陳新權]과 진화 등의 논문이 있다.³⁴ 각장무역의 흥폐가 정치·군사에 따라 변동하고 안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각장무역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군사적 요소가 지배적인 작용을 했다. 각장을 개설한 목적은 송 측에서는 화평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먼저 들 수 있다. 그러나 진화가 강조하는 바는 자연적으로 이루

34 陳新權(1982), 「宋金榷場貿易考略」, 『中華文史論叢』 1; 靳華(1990), 「宋金榷場貿易的特點」, 『華中師範大學學報』 4.

어져 왔던 민간의 월경(越境), 매매행위 등 경제문화 교왕(交往)에 있었다. 남과 북의 인민 사이에 장기적인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어 중단된 적이 없었다. 송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민간의 월경매매를 금지했으나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각장을 건립해 민간 교왕을 관리하고 세금을 물리는 등 민간 경제교류에 순응했다는 것이다. 진화의 기초적인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관[각장]무역과 사[走私]무역의 상황과 관계를 주제로 삼은 학위논문도 나왔다.³⁵ 각장무역과 주사무역에 대한 상세한 실증적 연구이면서 주사무역이 비록 정부의 제한을 받고 비합법적인 활동이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각장무역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통치자 이익에도 기여하는 등의 만족스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요점은 남북 인민 간 경제교류와 그에 따른 남북 사회 진보를 촉진했다는 점에 있다.³⁶

자오용춘은 일련의 외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³⁷ 전쟁사가 아니면서도 양국의 관계 추이를 그대로 표현한 외교문서를 둘러싼 의례와 역학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들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송과 금이 국서(國書) 교빙(交聘)에 관해 투쟁한 것은 결코 단순한 국서의 칭호나 서사(書寫) 예법(禮法)의 문제가 아니고 국체와 국가존엄에 관한 대사이며 쌍방 정치투쟁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송금 간에 진행된 정치투쟁의 형식이 매우 다양한데 크게 보면 화평형식의 정치투쟁과 폭력형식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 화평형식의 정치투쟁은 주로 화평, 대치시기에 진행되고 전쟁 간에도 간헐적으로, 혹은 전쟁과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그 특징은 무력 없이

35 左强(2004), 「宋金榷場貿易與走私貿易研究」, 吉林大 碩士學位論文.

36 岑家梧(1979), 「金代女眞和漢族及其他民族的經濟文化交流」, 『民族研究』 2. 역시 경제 문화 부문의 교류에 중점을 둔 연구다.

37 趙永春(1992), 「關於宋金交聘“國書”的鬭爭」, 『北方文物』 2; 趙永春(1993), 「宋金關於“受書禮”的鬭爭」, 『民族研究』 6; 趙永春(1995), 「宋金聘使對文化交流的貢獻」, 『北方文物』 3.

각국이 자기의 정치관점과 입장을 선양하는 동시에 상대방 정치관점과 입장을 비평함으로써 다방면의 지지를 쟁취하고 또는 상대에게 자기의 정치 의도 등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고대 선전도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양국 간 화평형식의 정치투쟁은 외교가들이 집행했다. 송금의 경우는 교빙국서에 관한 투쟁이 곧 쌍방이 화평형식으로 진행한 투쟁이다. 양국 관계 초기에는 금인이 한인에 대해 조(詔), 서(書), 표(表), 첩(牒) 등 문서의 함의를 잘 몰라, 이 때문에 송사(宋使)가 어떤 양식의 국서를 휴대하는지에 대해 트집 잡거나 책망하지 않았는데, 후에 송·요·금의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한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인 측도 이 교빙문서가 국가 지위 존엄을 의미하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했다. 송조는 북송 말 금과의 교류 초기, 금조를 하대하여 조서(詔書)의 형식을 쓰고자 했으나 금의 반발로 곧 대등한 형식의 국서로 부득불 일보 격을 내렸다. 그러나 양국 전쟁 이후 송이 열세에 처하면서 금 측이 조서를, 송은 봉표(奉表)의 형식을 취하다가 융흥화의 이후에 다시 상호 간에 국서를 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양측은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격렬한 투쟁을 겪었다. 국서, 수서례(受書禮)의 투쟁 자체가 전쟁은 아니지만, 양국의 전쟁 또는 지위 관계와 긴밀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런 외교형식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쌍방의 각 분야 실력의 대비가 드러나는데, 역시 금조의 정치지위가 대부분 시기 송보다 위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오용춘의 논문 외에 교전시기의 통문사(通問使)·기청사(祈請使), 또 화호(和好)시기의 생신사(生辰使)·정단사(正旦使)를 포함하여 교전시기와 평화시기의 외교왕래 상황을 보다 폭넓게 밝힌 박사논문도 제출된 바 있다.³⁸

동북과 중원을 잇는 교통로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분야의 하나이다. 송

38 李輝(2005), 「宋金交聘制度研究(1127-1234)」, 復旦大 博士學位論文.

금시대 이전 동북지역과 중원의 교통상황, 발전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송과 금 관계의 기초를 엿볼 수 있게 한다.³⁹ 선원슈에[沈文雪]는 문학 방면에서 송과 여진 문화의 관계, 문학에서의 일체성, 또 남북으로 건너간 문사들의 심성을 연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의 연구를 최근 발표하고 있다.⁴⁰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대는 곧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을 이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삼조북맹회편』에서 북요(北遼)의 송, 금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완치저우[萬齊洲]의 연구라든가,⁴¹ 또 여진족의 일상생활과 습속을 통해 송금관계의 상세한 경험을 구성하는 자오용춘의 시도도 눈에 띈다. 마확(馬擴)이 금에 출사(出使)갔던 경험을 기록한 『모재자서(茅齋自叙)』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삼조북맹회편』 등의 자료에 인용(引錄)된 부분을 찾아내 현장감 있는 자료로 이용했다.⁴²

금사 연구에 권위 있는 공구서로 차이메이베이아오[蔡美彪] 주편(主編)의 『중국역사대사전-요하금원사(中國歷史大辭典-遼夏金元史)』와 덩광밍[鄧廣銘] 주편의 『중국대백과전서-요송서하금사(中國大百科全書-遼宋西夏金史)』가 각각 1986년, 1988년에 출간된 것도 금사 및 송금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성과이며 동시에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39 辛德勇(1984), 「論宋金以前東北與中原之間的交通」,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40 沈文雪(2007a), 「試論宋金關係與文學創作觀念体系的構建」, 『社會科學輯刊』 1; 沈文雪(2007b), 「宋金文學一體論」, 『社會科學戰線』 3; 沈文雪(2008), 「宋金南北渡文士心態與文學格調」, 『社會科學輯刊』 5.

41 萬齊洲(1998), 「《三朝北盟會編》中所見的北遼及其與宋金的關係(續一, 二)」, 『荊門職業技術學院學報』 3·4.

42 趙永春(2005), 「《茅齋自叙》記載的女真生活習俗與宋金關係」, 『北方文物』 3.

V. 맺음말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으로 송금관계사 연구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송과 금을 대등한 국내의 두 왕조로 봄에 따라 이전의 화이, 국내국외의 경계를 부인하려 하고 송과 금의 관계는 화의와 융합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고 금을 포용하는 시선으로 관찰하게 하고, 송과 금 모두 통일 중화민족사 발전에 함께 기여한 발전적인 시대로 보게 하는 등 송금관계사의 시각과 전제를 모두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오랜 논쟁적 주제들에 대해서는 근래의 연구발표에서도 꼭 일치된 견해로 모아지지 않고 곳곳에서 모순과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중화민족다원일체론에 맞추어 중화민족 내부의 관계로 보는 인식이 기본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한족의 입장에서 적대관계 혹은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치부하던 전통적인 사상, 마르크스 역사유물주의의 계급분석론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이 표방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한족을 중심으로 둔 통일이고 실제 소수민족의 한민족화의 실현을 의미하므로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거나 여진족과 금사에 대한 진정한 객관적 시각과 접근법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중화민족일체론을 민족관계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다민족통합을 이루려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해 과거의 중국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이론으로 제출된 것이다. 학문적인 요구보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앞으로 계속 확산되어 중국사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탈근대주의적 관점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 의

도는 드러나지 않고 전향적인 변화로만 보여질 수도 있다. 중국의 중화민족 일체론을 타국의 문화 일부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예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중국의 관제사 연구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수립해서 이론적 연구나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실증연구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송-몽골관계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추이

이근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II. 남송-몽골 사이 전쟁 발생과 '단평입락'의 이해

III. 몽케의 남침과 '악주의 화의'를 둘러싼 해석

IV.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

V. 맺음말

I. 머리말

10세기의 오대십국 시대에 접어들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대당제국이 멸망하고 중국이 분열하였으며, 종래 중원왕조에 조공을 바치던 북방민족들도 자립하여 속속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었다. 오대시기에는 중국 내에만 황제를 칭하는 국가가 몇 개에 달하는 시기도 있었다.

국제질서의 굴절은 송에 의해 중국 내지가 통일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오대시기 만주 일대에 건립된 거란이 송과 나란히 황제를 칭하며, 시종 송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뒤를 이어 건국되는 서하도 일시 칭제하며 송 측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등한 자세를 취하였다. 대당제국 시기 중원의 당조를 구심점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외교질서가 단일한 조공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것에 비추어, 오대 이후의 국제질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교질서는 남송 시대가 되면서 한층 어수선했던 면모를 띠었다. 남송의 군주는 황제라는 칭호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금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서하라든가 고려 등이 조공을 바치던 국가도 남송이 아닌 금이었다. 남송과 금 사이 외교의 격은 몇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굴절 자체가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복잡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 내 수개 왕조의 병존과 그 사이 다각적 외교절충이란 현상은 13세기 말 원조에 의해 남송이 멸망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에 이른다.

송조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각축 내지 국제관계는 종래 많은 학자의 관

심을 끌었다. 국제관계사의 연구는 두 나라 사이 접촉 및 상호 대응의 추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당시 지식인과 관료들의 사유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때로는 사회·경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중요한 입각점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송대와 같이 국제질서가 급속히 변모해 가는 시기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당해 시대의 변화 내지 그 성격을 해명하는 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의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은 1206년 제국을 건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변국가를 향해 무력 공격을 전개하였다. 남송과의 접촉이 시작되는 것은 1210년대였다. 이때로부터 1276년 남송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몽골제국과 남송은 매우 다각적인 관계를 맺었다. 때로는 금이라는 공동의 적을 제어하기 위해 사자를 주고받으며 맹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동안 상호 접촉이 없는 채 시간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사이 접촉의 지배적인 형식은 역시 무력충돌이었다. 외교사절을 주고받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상호 공벌전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남송과 몽골 사이의 관계사 연구 또한 양국 간 전쟁과 그 후의 절충이 주된 테마를 이루었다.

남송과 몽골 사이의 관계사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전통시대부터의 일이었다. 남송-몽골의 접촉에 대한 연구는 명대에 부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청대가 되면 각 테마별로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청대에 대거 등장한 사평(史評)은 그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현금의 연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전통시대의 연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근대적인 방법론에 의한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는 대략 1930년

대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베이징[北京] 대학을 위시한 주요 대학에 송대사 및 원대사 강좌가 본격적으로 개설되는 때이기도 했다. 물론 이에 앞서 왕귀웨이[王國維]와 첸위엔[陳垣], 첸인커[陳寅恪] 등에 의해 원대사 연구가 맹아적으로 시도된 바는 있으나, 송대사와 원대사가 분야사로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은 명원통[蒙文通]·장인린[張蔭麟]·첸러쑤[陳樂素]·딩광밍[鄧光縉] 및 한루린[韓儒林]·왕두지엔[翁獨健]·샤오원정[邵循正] 등이 활동하는 1930년대 이래의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통설이다.¹ 남송과 몽골관계사 분야의 단독 논문이 발표된 것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였다.²

이렇게 시작된 남송-몽골관계사의 연구는 현금에 이르도록 상당한 시각과 논점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요한 굴곡점은 역시 1980년 이래의 개혁 개방 정책이었다. 대략 198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한족 중심주의적 이해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시각에 압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 역시 양국 간 전쟁의 실체에 대한 해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도 이러한 연구현황에 따라, 양국 간에 전개되었던 세 차례의 주요 전쟁을 중심으로 그 연구시각과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이에 대해서는, 朱瑞熙·程郁(2006), 『宋史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4~14쪽; 劉曉(2006), 『元史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31~37쪽 참조.

2 필자가 파악한 최초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의 專論은, 張蔭麟(1936), 「端平入洛敗盟辯」, 『大公报史地週刊』 11이다.

II. 남송-몽골 사이 전쟁 발생과 ‘단평입락’의 이해

1. 전쟁 발생의 시점과 요인

13세기에 접어들며 유라시아 대륙은 급격한 군사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바로 내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건설된 몽골제국의 정복사업 때문이다. 대외정복에 나선 몽골 기병대의 전투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엄청난 기동력과 규율, 그리고 치밀한 정보수집에 기반한 적응력 등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13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몽골 군대는 불패의 신화를 쌓아갔다. 그 어떠한 상대방도 몽골의 군사력 앞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파미르고원의 서부에서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호레즘 왕국이 몽골의 공격 앞에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버린 것은 그 단적인 예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몽골제국의 대외정복은 13세기 중반이 되며 강남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왕조 남송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런데 이 남송국의 무력해 보이던 국가 남송은 몽골제국의 무력에 맞서 의외라 하리 만큼 강인한 저항력을 보여 준다. 남송은 몽골의 침공에 맞서 1270년대 중반까지 불패를 자랑하던 몽골 기병대의 전진을 무려 50년 가까이 저지시켰던 것이다.

몽골이 남송에 대해 그 접촉 초기부터 무력 정벌의 방침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한동안은 주변 제국, 특히 금에 대한 공략을 위해 남송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적 관계가 언제부터 무력충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송과 몽골 사이 전쟁의 개시 시점에 관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현재 대략 다섯 가지의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첫째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략 금의 멸망을 전후하여 쌍방의 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대표적인 저작이 원대사 관련 대표적 개설서인 한루린[韓儒林]의 『원조사(元朝史)』(1986)³이다. 둘째는 이른바 ‘단평입락(端平入洛)’을 계기로 양국 사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으로서 대다수의 논자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상위에[尙越]의 『중국역사강요(中國歷史綱要)』(1955),⁴ 『중국사고(中國史稿)』(제5책, 1983),⁵ 첸젠[陳振]의 『송사(宋史)』(2003),⁶ 다리에자부[達力扎布]의 『몽고사강요(蒙古史綱要)』(2006)⁷ 등이다. 셋째는 단평입락 이후 1235년 우구데이가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 대대적인 남송 공격의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는 시각이다. 뤼젠위[呂振羽]의 『간명중국통사(簡明中國通史)』(1955)⁸ 및 『중국대백과전서 중국역사 원사(中國大百科全書 中國歷史 元史)』(1985),⁹ 자오샤오밍[趙紹銘]의 『중국전사 중국송요금하정치사(中國全史 中國宋遼金夏政治史)』(1994)¹⁰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넷째는 이보다 앞선 시기인 1222년 후반 칭기즈칸이 무칼리로 하여금 금의 봉상부(鳳翔府)를 공격하게 했을 때, 그 휘하의 몽골부카[蒙古不花] 부대가 송 영역의

3 韓儒林(1986), 『元朝史』, 北京：人民出版社.

4 尙越(1955), 『中國歷史綱要』, 北京：人民出版社, 267쪽.

5 尙越(1983), 『中國史稿』 第5冊, 北京：人民出版社, 424쪽.

6 陳振(2003), 『宋史』, 上海人民出版社, 505쪽.

7 達力扎布(2006), 『蒙古史綱要』, 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68쪽.

8 呂振羽(1955), 『簡明中國通史』, 北京：人民出版社, 538쪽.

9 呂振羽(1985), 『中國大百科全書 中國歷史 元史』, 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쪽.

10 趙紹銘(1994), 『中國全史 中國宋遼金夏政治史』, 北京：人民出版社, 232쪽.



쓰촨 지역(利州路 鳳州 일대)을 공격하며 사실상 전쟁이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리텐밍[李天鳴]의 『송원전사(宋元戰史)』(1988)¹¹ 및 후자오시[胡昭曦]의 『송몽원관계사(宋蒙元關係史)』¹²(1992)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1227년의 이른바 정해지변(丁亥之變)을 최초의 무력충돌이라 보는 주장이다. 양더화[楊德華, 1989],¹³ 차이둥저우[蔡東洲, 1990],¹⁴ 후두어지아[胡多佳, 1992],¹⁵ 조우위엔렌[周遠廉] 주편(主編)의 『중국봉건왕조흥망사 양송권(中國封建王朝興亡史 兩宋卷)』(1996)¹⁶ 등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남송과 몽골 사이 전쟁의 시작 시점을 둘러싸고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1220년대 초반과 중반에 있었던 양국 간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으로 1234년 금의 멸망 직후에 있었던 단평 입락으로 말미암은 양국의 충돌을 과연 전쟁의 개시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222년 무칼리가 금을 공격할 때 일부 부대가 남송의 쓰촨을 습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전쟁의 개시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무력충돌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몽골과 남송 사이의 전투는 1222년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지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227년에 있었던 이른바 정해지변과 1231년에 있었던 이른바 신묘지변(辛卯之變)이다.

11 李天鳴(1988), 『宋元戰史』 第1冊, 臺北: 食貨出版社, 49쪽.

12 胡昭曦 主編(1992), 『宋蒙(元)關係史』,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77쪽.

13 楊德華(1989), 「蒙古和南宋的外交」, 『雲南師範大學學報(哲社版)』 3, 27쪽.

14 蔡東洲(1990), 「論宋蒙早期關係」, 『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5, 98쪽.

15 胡多佳(1992), 「早期蒙宋關係(1211-1241)」, 『元史論叢』 4, 中華書局, 43쪽.

16 周遠廉 主編(1996), 『中國封建王朝興亡史 兩宋卷』,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305쪽.



몽골-남송 관계는 1213년 몽골 측에서 남송에 사자를 파견하여 통호(通好)를 요구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평화관계가 최초로 결렬되어 양측 간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것은 1222년이였다. 이때 무칼리 휘하의 몽골부카가 송의 봉주(鳳州)를 약탈하고 돌아갔던 것이다. 1222년의 약탈은 극히 단발성적인 것이어서 몽골-남송 관계에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222년 이후에도 양국 간의 간접적인 무력 접촉은 발생했다. 이른바 충의군(忠義軍)의 수령인 팽의빈(彭義斌) 및 이전(李全)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팽의빈과 이전은 산둥(山東) 일대에서 거병한 다음 송에 투항하여 충의군이라 불렸다. 이들 충의군을 몽골이 공격하여 1225년에는 팽의빈을 살해하고 이어 1227년에는 이전의 투항을 받아냈다. 충의군 사건에 대해서 남송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몽골 측이 의화(義和)의 사자를 보내자, 전쟁이 없었으므로 의화는 부적절하며 통호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 그러한 단적인 사례이다. 1222년의 충돌을 남송과 몽골 간 전쟁의 시작이라 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전후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¹⁷

1222년 몽골부카의 약탈이나 충의군 사건과는 달리, 정해지변이나 신묘지방은 남송 조정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정해지변은 쓰촨 지역 방어의 요소인 이른바 5주(州) 3관(關)¹⁸이 큰 타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또 신묘지변 당시 툴루이는 대산관(大散關)을 넘어 봉주를 거쳐 양주(洋州)를

17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蔡東洲(1990), 『論宋蒙早期關係』에서는, 忠義軍 사건은 宋蒙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남송 조정에서 忠義軍을 자기 군대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8 남송은 사천분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금과의 사이에 험준한 요충지를 선택하여 仙人關·武侯關·七方關이라는 3개의 關塞를 설치하고 그 앞쪽으로 階州·成州·西和州·鳳州·天水軍의 5개 주를 개설하였다. 이들 3관 5주가 丁亥之變으로 말미암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陳世松(1983), 『蒙古入蜀初探』, 『元史論叢』 2를 참조.

도륙하였으며 이어 흥원부(興元府)를 점령하고 자령 강(嘉陵江)을 따라 등주(鄧州)에까지 이르렀다.¹⁹ 하지만 정해지변이나 신묘지변 이후 남송과 몽골 사이 대금연맹이 체결되어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양국 간 전쟁의 개시라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평입락을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라 보지 않는 연구도 상당수에 달한다. 단평입락은 몽골의 주력이 철수한 후 남송의 군대가 사실상 무인지경을 달려가다가 식량 부족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막바지에 몽골의 역습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정면충돌이라 보기 힘들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몽골제국은 칭기즈칸이 1206년 오논강변의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추대된 이래 지속적으로 대외 정복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정복전쟁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몽골 통치자의 약탈정책과 정복욕이 기본적인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해의 유력한 근거로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즐거움은 적에게 승리하여 그들을 몰살시킨 다음 그 재산을 탈취하고 처첩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²⁰고 하는 칭기즈칸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칭기즈칸에게 대외정복은 그 자체 강력한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천하의 토지는 광대하다. 너희는 스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사방을 정복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칭기즈칸 이래 쿠빌라이 시기까지 거의 100년간 계속된 대외 정복전쟁을 정복욕 때문이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실제로 쿠빌라이는 1274년 바얀 등이 남송 정복에 나설 때 “북송 태조 시기 조빈(曹彬)

19 辛卯之變 당시의 참상에 대해 『鶴林集』 卷18, 「論蜀事四失三憂及保蜀三策劄子」에서는, ‘千餘里之地 葬爲丘墟’라 전하고 있을 정도이다.

20 『集史』 「칭기즈칸기」.

은 살인을 금해서 일거에 강남을 평정할 수 있었다. 내 뜻을 잘 이해하고 조빈을 본받으라”²¹고 명령하고 있다.

몽골의 대외정복을 단순한 몽골 지배자의 정복욕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이해의 시각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견해로서 한루린의 『원조사(元朝史)』(1986) 및 몽고족통사편찬조(蒙古族通史編纂組)의 『몽고족통사(蒙古族通史)』(1990)가 주목된다. 『원조사』에서는 몽골 귀족에 대한 유목지 분배를 위해 새로운 정복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즉, “막북(漠北)의 통일 이후 각지의 인구와 목지(牧地)는 이미 각급 귀족들에게 분배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서로 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복지의 분배가 필요했고, 그래서 부유한 이웃 나라를 계속 약탈하고 정복해 갔다”고 말하고 있다.²²

반면 『몽고족통사』²³에서는 대외정복과 고유의 샤머니즘을 연결시키고 있다. 몽골인들의 신앙은 샤머니즘이고 그 최고신은 하늘이었는데, 칭기즈칸은 하늘의 대표자라 인식되었으며 칭기즈칸의 행위도 하늘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칭기즈칸 자신도 세계정복이 하늘의 의지라 인식하였고, 이러한 구조에서 정복전쟁이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논지의 설득력 여하를 떠나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21 『元名臣事略』 卷2.

22 韓儒林(1986), 앞의 책, 98쪽.

23 韓儒林(1990), 『蒙古族通史編纂組』, 『蒙古族通史』, 北京: 民族出版社, 53쪽.

2. '단평입락'의 배경

몽골제국과 남송은 1232년 말 서로 사자를 주고받으며 대금(對金)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과 합의에 따라 1234년 송 측에서는 이종(理宗) 단평(端平) 원년(1234) 맹공(孟珙)으로 하여금 군대 2만을 이끌고 가서 몽골과 함께 채주(蔡州)의 금 조정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게 했다. 당시의 남송-몽골 간 합의의 내용에 대해 현존하는 사적(史籍)은 자못 혼란스러운 기술을 남기고 있다.

『송사』 「가사도전(賈似道傳)」에서는 맹공이 몽골과 연합하여 금을 멸망시킨 다음 양측은 진주(陳州)와 채주(蔡州)를 경계로 삼기로 했다고 적고 있다. 반면 『송계삼조정요(宋季三朝政要)』에서는 송 측의 사자 추신지(鄒伸之)가 몽골과 금에 대한 연맹을 상의할 때 몽골은 금 멸망 후 허난(河南)의 땅을 송 측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²⁴ 고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계삼조정요』의 기술에 따라, 몽골이 금의 멸망 이후 약속을 어기고 하남의 땅을 송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른다면 1234년 남송이 군대를 내어 하남 일대를 수복하고자 했던 기도, 즉 단평입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몽골에 대해 남송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행동이었다. 상위에[尙越]의 『중국역사강요(中國歷史綱要)』(1955)²⁵와 『중국통사(中國通史)』(제6책, 1979),²⁶ 장추안시[張傳璽]의 『중국고대사강(中國古代史綱)』(1991),²⁷ 조우량샤오[周良宵]·구귀잉[顧國英]의 『원대사(元代史)』(1998)²⁸ 및 첸

24 『宋季三朝政要』 卷1.

25 尙越(1955), 앞의 책, 267쪽.

26 尙越(1979), 『中國通史』 第6冊, 北京:人民出版社, 449쪽.

27 張傳璽(1991), 『中國古代史綱』 下冊,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40쪽.

28 周良宵·顧國英(1998), 『元代史』, 上海人民出版社, 193쪽.

264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젠의 『송사(宋史)』(2003)²⁹ 등이 모두 이러한 견지에 서 있다.

금이 멸망한 후 남송의 조정에서는 이제 몽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대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내외 대신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략 사송지(史崇之)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론자들과 재상 정청지(鄭淸之)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론자들이 팽팽히 맞섰다. 신중론자들은 몽골을 자극하지 말고 국경에 대한 방비에 진력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적극론자들은 화북일대로 진군하여 옛 북송의 영역을 수복하여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적극론자들의 주장은 “몽골군은 이미 북쪽으로 북귀하고 하남 일대에는 아무런 군대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군사정보³⁰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황제인 이종은 적극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종은 자신의 치세 동안 하남을 회복한다는 공업을 이루고 싶어 했다.

이에 따라 1234년 6월 하남일대를 수복하기 위한 군대가 파견되었다. 남송의 군대는 무인지경을 달려 카이펑(開封)과 뤼양(洛陽)에 입성하였다. 북송시대 화려한 문화를 꽃 피웠던 이들 도시는 오랜 전란 끝에 거의 폐허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남송군의 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송군은 군량 부족에 허덕였던 데다가 곧바로 몽골군의 역습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빈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종의 출정 명령을 받고 당당히 출발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다.

이러한 단평입락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이해는 그 이전 단계의 접촉, 즉 1232년 말 남송과 몽골이 대금 연맹을 체결하며 하남일대의 영유권을 어느 쪽에 귀속시키기로 했는가 하는 점과 긴밀

29 陳振(2003), 앞의 책, 504쪽.

30 吳潛, 『許國公奏議』(叢書集成初編本) 卷1, 「奏論今日進攻取有甚難者三事」.

한 연관이 있다.

장인린의 「단평입락패맹변(端平入洛敗盟辯)」(1936)³¹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논문이다. 그는 『송사』가 원인(元人)들에 의해 찬술되어 곡필(曲筆)이 많음을 지적한 후, 몽골이 허난 전체를 송 측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가 실신(失信)한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단평입락으로 남송이 맹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몽골 측이 배약(背約)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와는 달리 이미 전통시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몽골이 남송에 대해 허난의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 즉 이른바 하남귀지설(河南歸地說)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론한 바 있다. 청대의 전대흔(錢大昕)³²이나 조익(趙翼),³³ 그리고 근인(近人)인 진위푸[金毓黻]³⁴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1940년대의 위성마이[余行邁, 1943]도 “송의 사자 추신지(鄒伸之)가 몽골과 협약한 내용 가운데 하남 지역을 남송에게 되돌려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하남 전체는 아니고 당주(唐州)와 등주(鄧州)·식주(息州) 등일 뿐이었다”³⁵고 주장한 바 있다. 당주와 등주, 식주는 모두 하남의 남부 지역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채주 함락 후 남송과 몽골이 진주(陳州)와 채주를 경계로 국경을 획정한 것은 당초의 협약을 그대로 이행한 셈이 된다.

하남귀지설에 대해서는 대만 학자인 황관중[黃寬重]이 1973년에 「변단평

31 張蔭麟(1936), 앞의 글.

32 錢大昕, 『十駕齋養新錄』卷8, 「宋季恥議和」.

33 趙翼, 『廿二史劄記』卷26, 「端平入洛之師」. 趙翼은 端平入洛의 起因 및 그 영향에 대해, “宋理宗端平元年 餘蒙古共滅金. 時蒙古乏糧 宋助以三十萬石. 張柔中矢 宋孟珙力救出之. 兩國方敦隣好 初無嫌隙. 宋果欲復三京八陵 宜先令孟珙等即在軍前定議. 乃計不出此 兵退之後 鄭清之趙范趙葵等忽欲乘虛復中原 以致兵連禍結.”이라 적고 있다. 宋蒙의 대금연맹 당시 河南을 송 측에 주겠다는 約定이 없었다는 것이다.

34 金毓黻, 『宋遼金史』.

35 余行邁(1943), 「金亡前後南宋與蒙古的一段交涉」, 『東方雜誌』39-9.

입락패맹(辨端平入洛敗盟)³⁶에서 매우 소상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남송 신료(臣僚)들의 상주문이라든가 제조(制詔), 왕복 서간문 등을 상세히 분석한 후, “몽골은 남송 측에게 허난의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하남귀지설이 허구라는 사실은 이후 첸가오화[陳高華, 1985] 및 후두어지아의 연구, 그리고 후자오시 주편(主編)의 『송몽원관계사(宋蒙元關係史)』(1992), 구홍이[顧宏義]의 『천평(天平)·십삼세기송몽원화전실록(十三世紀宋蒙元和戰實錄)』(2007) 등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해명되었다.

첸가오화는 「조기송몽원관계화단평입락지역(早期宋蒙關係和端平入洛之役)」³⁷에서 남송시대 여러 자료들을 소상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평입락 이전 몽골이 허난을 송에 주기로 했다가 배약한 적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단평입락은 몽골이 배약한 결과가 아니라 남송이 신의를 어긴 행위라는 것이다. 첸가오화는 “하남의 땅 대부분은 몽골군이 점령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송은 전연 기여가 없었다. 그런데 몽골의 통치자가 자신들의 전리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는가?”라고까지 반문하고 있다.

후두어지아의 「조기몽송관계(早起蒙宋關係)」³⁸에서는 연맹의 체결과정에서 허난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전투의 진행과 더불어 양측이 실제로 관할하고 정복했던 지역을 획계(劃界)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 멸망 후 송이 몽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주와 채주 이남으로 물러났던 것은 사실

36 黃寬重(1985), 「辨端平入洛敗盟」, 『南宋史研究集』, 臺北：新文豐出版公司.

37 陳高華(1985), 「早期宋蒙關係和端平入洛之役」, 『宋遼金史論叢』 1, 中華書局.

38 胡多佳(1992), 앞의 글.

상 그 이북이 몽골에 속한다는 것을 묵인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금 멸망 이후 남송이 얻은 지역은 진주와 채주 이남으로서 매우 광활한 영토인데, 이는 금 멸망 과정에서의 공헌에 비하면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구홍이³⁹는 우선 하남할지설의 근거가 되어 왔던 『송계삼조정요(宋季三朝政要)』의 기술에 대해 매우 부정확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더욱이 『송계삼조정요』를 제외하고는 하남할지설을 확인해 주는 사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 주목한다. 몽골이 남송에게 하남의 할지를 약속했다가 배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 멸망 이후 남송과 몽골이 진주와 채주를 경계로 획계(劃界)하였던 것도 일선의 장수들 사이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말한다. 양측 간 구체적인 국경의 획정은 추후 남송과 몽골 조정이 절충할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둬들인 논증에도 불구하고 하남귀지설은 이후의 개설서와 연구논문에서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 조우량샤오·구귀잉의 『원대사(元代史)』(1998),⁴⁰ 몽고민족통사편찬위(蒙古民族通史編纂委)의 『몽고민족통사(蒙古民族通史)』(2002),⁴¹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蒙古史綱要)』(2006)⁴²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서들은 현 단계 중국의 원대사 연구를 대표하는 저작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인식을 수정 없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개설서 내지 통사 이외에 개별 논문에서도 하남귀지설이 그대로 사실로 서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렌충위에(任崇岳)의 「약론송몽관계(略論宋蒙關係)」(1987) 및 양더화의 「몽고화

39 顧宏義(2007), 『天平-十三世紀宋蒙(元)和戰實錄』, 上海書店出版社.

40 周良宵·顧國英(1998), 앞의 책, 193쪽.

41 蒙古民族通史編纂委(2002), 『蒙古民族通史』第1冊, 內蒙古大學出版社, 219쪽.

42 達力扎布(2006), 앞의 책, 66쪽.

남송적외교(蒙古和南宋的外交)』(1989)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렌충위에는 “1232년 남송과 몽골은 사절을 주고받아 하남할지를 조건으로 연맹을 체결하였다”⁴³고 적고 있다. 심지어 양더화는 “1232년 연맹시 하남할지에 대해 몽골은 두 차례에 걸쳐 약속하였다. 아마 우구데이까지 확인한 사항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당시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남송에게 있어 하남의 할지는 출병연몽(出兵聯蒙)의 전제였다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렇듯 선행 연구에서 하남할지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그것을 통해 남송과 몽골 사이 연맹의 실체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송계삼조정요』의 기술에 따른 이해가 일부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학계에 연구자 사이 타인의 연구를 인용하며 각주로 근거를 제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지 않은 것보다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43 任崇岳(1987), 『略論宋蒙關係』, 『中國民族史研究』,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44 楊德華(1989), 앞의 글.

III. 몽케의 남침과 ‘악주의 화의’를 둘러싼 해석

1. 합주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

1241년 우구데이 사후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던 몽골의 내정은 1251년 몽케의 즉위를 계기로 안정을 찾아간다. 몽케는 즉위 이후 한동안 내정에 진력하다가 1258년 남송에 대한 친정에 나섰다.

이때의 원정군은 대략 세 개의 방향으로 진군하였다. 몽케 자신은 주력 군인 서로군을 이끌고 쓰촨을 공략하고, 중로군은 아우인 쿠빌라이가 통솔하여 양쯔 강[揚子江] 중류의 악주(鄂州, 오늘날의 우창)를 점령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별동대로서 이미 1257년 말 이래 남하하여 운남의 대리(大理)를 거쳐 안남(安南)을 공격하고 있던 우랑카다이군이 남으로부터 북진할 것을 명령받고 있었다.

최초의 계획은 몽케의 서로군이 쓰촨 일대를 정복한 후 양쯔 강을 따라 내려와 악주에서 쿠빌라이의 중로군 및 별동대인 우랑카다이군과 합류하여 일거에 강남지방으로 진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남송 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몽골의 군대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은 유명한 합주(合州)의 조어성(釣魚城) 전투였다. 몽케가 이끄는 서로군은 1259년 정월부터 7월까지 조어성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으나 실패하고 몽케 자신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몽케의 사망을 계기로 몽골군은 전쟁을 중단하고 북귀(北歸)하였다.

전통시대를 통해 조어성 전투는 남송 정권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되었다. 예컨대 명대의 추지(鄒智)는 “만일 조어성

의 승리가 없었다면 쓰촨도 오래지 않아 점령되었을 것이다. 쓰촨이 무너지면 강남 또한 오래지 않아 점령되었을 것이다. 조어성이 아니라면 어찌 남송이 애산(垓山) 전투까지 존속할 수 있었으랴?”⁴⁵라고 말하고 있다. 조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몽골군은 즉시 철군을 결정하였다. 이후 몽골의 남송 정복전쟁은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러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개되었다.

이러한 합주 조어성 전투는 오늘날의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중국 학자들은 조어성 전투를 몽골에 맞서 남송의 군민(軍民)이 일치단결하여 이뤄낸 전승이었다고 일치되게 상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의 어조는 대략 198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미묘하게 변화한다. 잘 알려져 있듯 198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의 역사학계는 계급투쟁의 관점보다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남송시대 민족 간 전쟁이었던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50년대에 출간된 상위예의 『중국역사강요(中國歷史綱要)』(1955)에서는 조어성 전투에 대해 “군민(軍民)이 단결하여 영웅적(英勇的)으로 항격(抗擊)했다”⁴⁶고 기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기술된 『중국통사(中國通史)』(제5책, 1978)에서는 조어성 전투의 승리가 각지 인민이 집결하여 이뤄낸 승리였다고 적고 있다. 조어성 공방전 전반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합주 지주(知州) 왕견(王堅)의 역할이라든가 인민들의 일치된 항전의 양상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군민이 합작한 대몽골 전승으로 말미암아 몽골의 침략은 좌절되고 나아가 전쟁의 형세도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게

45 『全蜀藝文志』 卷59, 鄒智「跋釣魚城志後」.

46 尙越(1955), 앞의 책, 267쪽.

되었다고 말한다.⁴⁷ 1980년대 중반에 나온 대표적 중국통사인 『중국사고(中國史稿)』(제5책, 1985)에서도 “합주 군민의英勇적 투쟁은 전쟁의 국면을 변화시켰다”⁴⁸고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 출간된 대표적 통사 내지 개설서에서는 조어성 전투의 승리를 군민이 연합한 결과물이라고 특기(特記)하고 있으며, 다분히 남송 측의 입장에 서서 몽골의 침략에 적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군민을 강조하고 남송에 좌단(左袒)하는 시각의 서술은 1980년대 이전 중국의 역사학이 지니고 있던 계급투쟁의 강조 및 한족 중심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중국통사』나 『중국사고』에서 조어성 전투가 전쟁의 국면을 변화시켰다고 적고 있는 것은 몽케의 전사로 몽골이 전쟁을 중단하고 북귀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조어성 전투는 비단 몽케 시기 남송 정복전쟁의 중단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후 몽골로 하여금 남송 정복전쟁의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게 만들었다.

몽케의 뒤를 이어 대칸의 지위에 오른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의 저항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내분을 종식시킨 후 남송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남송 공략은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면공격과는 전연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앞서 우구데이 및 몽케 시기의 남침은 모두 쓰촨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는 전면전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군을 동원하여 일거에 남송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쓰촨이 아닌 양쯔강 중류지역으로의 남하를 시도했다. 그것도 대군을 동원한 전면적인 개전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하여 이곳을 지구전으로 정복한다는 방식

47 蔡美彪 等(1978), 『中國通史』 第5冊, 北京:人民出版社, 424~426쪽.

48 中國史稿編寫組(1985), 『中國史稿』 第5冊, 北京:人民出版社, 427쪽.

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중국 학계의 연구물 가운데는 이상과 같은 조어성 전투가 몽골의 대외정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1989년에 발간된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에서는 “합주 조어성 전투는 남송의 멸망을 뒤로 미루고 나아가 당시 몽골의 공격을 거세게 받고 있던 유럽과 아시아 각지를 원조하는 효과가 있었다”⁴⁹고 적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인민으로 하여금 몽골 기병대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어성 전투는 심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비슷한 논조는 후자오시 주편(主編)의 『송몽원관계사(宋蒙元關係史)』(1992)에서도 나타난다. 조어성 전투는 몽골로 하여금 전략적인 철수를 강요하여 남송의 존속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당시 서아시아를 정벌하고 있던 훌레구가 다마스쿠스에서 전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몽골 통치자 사이 내분이 야기되었다고 한다.⁵⁰

유사한 서술은 구홍이의 『천평(天平)-십삼세기송몽원화전실록(十三世紀宋蒙元和戰實錄)』(2007)⁵¹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왕견(王堅) 중심의 조어성 전투 승리는 산성 방어체계를 통한 몽골군 철기(鐵騎) 격파의 성공사례를 창조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던 몽골군 철기에 참담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조어성 전투에서 몽골의 대칸까지 전쟁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남송이 대몽골 전투에서 얻은

49 黎邦正 主編(1989), 『中國古代史』,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62쪽.

50 胡昭曦 主編(1992), 앞의 책, 251쪽.

51 顧宏義(2007), 앞의 책, 102쪽.

최대의 승리였다고 평가한다. 조어성 전투가 남송과 몽골 사이의 전쟁에 미친 영향으로서는 몽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천에서 남하하여 강남의 남송을 일거에 멸망시키려는 작전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남송의 멸망은 수십 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좀더 이후에 나온 연구서들에서는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생략되거나 혹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이를테면 조우량샤오·구귀잉의 『원대사(元代史)』(1998)⁵²에서는 전투의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언급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조어성 전투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고 주로 조어성의 방어체계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전투과정에 대해서는 “송의 합주수장인 왕견은 지리적 험준함에 의거하여 굳게 방어하였고, 이에 몽골군이 여러 방책으로 공격하였으나 모두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 후 몽케가 합주성 아래에서 사망하자 몽골군은 창황히 북철(北撤)하였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상하이인민출판사[上海人民出版社]에서 근래 출간된 「중국단대사계열(中國斷代史系列)」의 하나로서 대표적 원대사 개설서라 할 만한 저작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근래 중국 학계가 조어성 전투에 대해 어떠한 시각과 평가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동일하게 「중국단대사계열」의 하나인 첸젠의 『송사』(2003)⁵³ 역시 조어성 전투에 대해 이례적이라 할 만큼 소략히 기술하고 있다. 첸젠의 『송사』에 담겨 있는 조어성 전투 관련 서술은 “1259년 정월 몽케는 군대를 이끌고 합주 조어산(釣魚山)을 공격하였다. 지주(知州)인 왕견은 군대를 이끌고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7월 하순에 이르러 몽케는 성을 공격하다가 부

52 周良宵·顧國英(1998), 앞의 책, 251쪽.

53 陳振(2003), 앞의 책, 509쪽.

상을 입고 죽었고, 이에 몽골군은 바로 포위를 풀었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의 개설서들이 합주성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책 내에서도 우구데이 시기의 남송 정벌전, 쿠빌라이의 악주 공격, 그리고 양양(襄陽) 번성(樊城) 전투의 경과와 결말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술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태도는 명광야오[孟廣耀]의 『몽고민족통사(蒙古民族通史)』(권1, 2002)라든가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蒙古史綱要)』(2006), 위윈비리에거[烏雲畢力格·바이라두거치[白拉都格其] 주편의 『몽고사강요(蒙古史綱要)』(2006)에서도 동일하다. 2002년의 『몽고민족통사』에서는 전투의 경과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언급하나 그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있다. 그저 “합주 지주인 왕견이 군대를 이끌고 용감히 맞섰다”⁵⁴라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⁵⁵에 적혀 있는 조어성 전투 관련 기술은 “몽케 칸이 하천의 합주 조어산에서 병사하여 서로군을 철수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위윈비리에거·바이라두거치 주편의 『몽고사강요』⁵⁶ 역시 “1259년 8월 몽케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조어성을 공격하였으나 진중에서 죽었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54 대몽골대학교 출판부(2002), 『蒙古民族通史』 卷1, 316쪽.

55 達力扎布(2006), 앞의 책, 79쪽.

56 烏雲畢力格·白拉都格其 主編(2006), 『蒙古史綱要』,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30쪽.

2. ‘악주의 화의’와 그 실상

몽케의 남송 원정 당시 쿠빌라이가 이끄는 중로군(中路軍)은 1258년 11월 남진하기 시작하여 허베이와 산둥·허난 일대를 거쳐 이듬해 여름 양쯔 강 북쪽 기슭에 도달하였다. 몽케 사망의 소식은 이 무렵 쿠빌라이에게 전해졌다. 쿠빌라이의 부장들은 북쪽으로의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전공(戰功)을 세운 후 이를 바탕으로 대칸 지위의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자 했다. 쿠빌라이는 진군을 계속하여 9월 초 악주를 포위하였다.

악주가 몽골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임안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강대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환관 동송신(董宋臣)과 같은 인물은 경원부(慶元府)로의 천도까지 주장하는 형국이었다. 남송 조정은 신속히 악주에 대한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가사도(賈似道)를 우승상겸추밀사로 삼아 원군(援軍)을 총지휘하게 하였으며 여문덕(呂文德)으로 하여금 사천의 군대를, 그리고 상사벽(向士璧)으로 하여금 호남의 군대를 이끌고 신속히 악주로 가도록 명령하였다. 이처럼 남송 측의 지원군이 당도하자 두 진영 사이의 대치가 계속되었다. 9월 이래 몽골군은 악주를 포위하고 양쯔 강을 건너서는 남송의 원병(援兵)들이 견제하는 상황이 넉달 간이나 지속되었다.

남송과 몽골군 사이 악주를 둘러싼 대치는 1259년 12월에 이르러 종료된다. 쿠빌라이 군대가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까지 긴박한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 쿠빌라이 군대의 철수과정은 매우 의아한 전개양상을 보였다. 몽골군의 철군도 정연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몽골군에 대해 남송 측이 별다른 공격을 가하지도 않았다. 남송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악주의 전투(鄂州之役)’는 이렇게 종결되었다.

이러한 악주지역(鄂州之役)에 대해 원대에 기록된 『송사』 및 기타 역사서들은 가사도와 쿠빌라이 사이에 밀약이 체결되었다고 적고 있다. 가사도는 조정의 재가를 얻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쿠빌라이에게 강화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강화의 조건은 칭신과 강남 이북의 할지(割地), 그리고 세폐의 지급이었다고 한다. 이를 쿠빌라이가 수용하여 밀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쿠빌라이 역시 몽케의 사후 중앙 정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것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이에 쿠빌라이도 가사도가 제안한 강화를 수용하고 철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사도는 쿠빌라이가 북귀(北歸)하자 밀약을 은폐하였고, 쿠빌라이가 학경(郝經)을 파견하여 강화의 이행을 촉구하자 오히려 학경을 진주(眞州)에 구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원대의 송무(宋無)라든가 청의 조익(趙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송무는 악주지역 전후의 사태 전개에 대해 “가사도는 악주에서 성하지맹(城下社盟)을 체결하고 은밀히 세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몽골의 군대가 악주에서 철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몽골의 철수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밀약의 체결을 숨겼다. 북으로부터 학경이 사자로 와서 맹약을 지적하자 가사도는 진주에 구류시켰다. 이전의 맹약을 어긴 것이다”⁵⁷ 라고 말하고 있다. 송무 이래 이러한 시각이 근래에 이르도록 악주의 전투에 대한 이해의 주조를 이루어 왔다. 조익 역시 『입이사차기(廿二史劄記)』⁵⁸에서 거의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가사도가 은밀히 화약을 제기하고 쿠빌라이가 이를 받아들여 철군하자 그 철군을 자신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 밀약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경이 사자로 오자 그를

57 宋無, 『吟嘯集』 「賈似道」.

58 趙翼, 『廿二史劄記』 卷26, 「和議」.

구금하고 몽골 측에는 답서 한 장, 사신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아 이것이 망국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⁵⁹

악주지역 당시 가사도와 쿠빌라이 사이에 과연 밀약이 체결되었을까? 이를 둘러싸고는 현재 세 가지 학설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강화의 체결과 가사도의 약속 위반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이다. 상위예의 『중국통사강요(中國通史綱要)』(1955), 뒤젠위의 『간명중국통사(簡明中國通史)』(1955), 지엔바이잔[翦伯贊] 주편의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1961), 『중국통사(中國通史)』(제6책, 1979), 『중국사고(中國史稿)』(제6책, 1983), 조우위엔렌 주편의 『중국봉건왕조흥망사 양송권(中國封建王朝興亡史 兩宋卷)』(1996), 『몽고민족통사(蒙古民族通史)』(2002),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2006) 등 거의 대부분의 논자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예컨대 상위예의 『중국통사강요』(1955)⁶⁰에서는 “원군을 이끌고 간 투항 타협파의 재상 가사도는 군대를 전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쿠빌라이에게 밀사를 파견하였다. 칭신과 양쯔 강 이북의 할지, 은견(銀絹) 각각 20만 필낭(疋兩)의 세폐 지급을 조건으로 화약(和約)을 청원하였다. 쿠빌라이의 군대가 철수하자 가사도는 제로(諸路)에서 대첩(大捷)을 이루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이후 쿠빌라이가 학경(郝經)을 보내 화약의 이행을 요구하자 밀약을 은폐하기 위해 진주(眞州)에 구금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나머지 서적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2006)⁶¹에서도 “몽골 초원에서 이력부케가 대칸 지위 획득을 위한 준비를

59 郝經이 翰林侍讀學士의 직함을 지니고 남송에 사자로 간 것은 理宗 景定 元年(元 世祖 中統 元年, 1260) 4월의 일이다. 郝經의 文集에 따르면 당시 학경은, ‘告登寶位 布弭兵息民’의 목적으로 남송에 파견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郝文忠公文集』 卷21, 『祭淮瀆文』).

60 尙越(1955), 앞의 책, 269쪽.

61 達力扎布(2006), 앞의 책, 79쪽.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때마침 남송의 권신(權臣)인 가사도가 사신을 보내와서 칭신과 할지, 세폐의 조건으로 화약을 청원하였다. 이에 쿠빌라이는 즉각 남송과 화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거의 동일한 기술을 보이고 있다. 양더화의 「몽고화남송적외교(蒙古和南宋的外交)」(1989)⁶² 역시 밀약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가사도는 몽골이 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서둘러 철수하자 답판 내용을 은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밀약의 성립과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되, 그 체결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악주의 화의(和議)와 관련된 두 번째 해석으로서, 일부의 저작에서는 가사도가 몽골 측에 굴욕적 조건의 화약을 제기한 것은 분명하나 당시 시간이 급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쿠빌라이가 학경을 파견한 것 또한 화의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의의 계속 논의를 위한 것이라 해석한다. 첸스송(陳世松)의 『송원전쟁사(宋元戰爭史)』(1988)⁶³ 및 첸젠의 『송사』(2003),⁶⁴ 그리고 구홍이의 『천평-십삼세기송몽원화전실록』(2007) 등이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첸젠의 『송사』에서는 “가사도가 화의를 청해 오자 쿠빌라이는 즉각 사신을 악주로 보내 답판하게 하며, 몽골 군대의 철수가 완료되면 즉각 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남송과 몽골 쌍방의 사자가 악주 성내에서 답판을 진행하여 채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했을 때, 몽골의 사자는 몽골군의 철수를 보고 곧바로 되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구홍이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인

62 楊德華(1989), 앞의 글, 31쪽.

63 陳世松 等(1988), 『宋元戰爭史』, 成都: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64 陳振(2003), 앞의 책, 509쪽; 周寶珠·陳振 主編(1985), 『簡明宋史』, 北京:人民出版社에서도 이와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賈似道가 講和하여 답판이 결말을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자가 몽골 군대를 따라 북귀하였다”(437쪽)고 적고 있다.

다. 그는 『천평-십삼세기송몽원화전실록』에서 가사도의 사자가 화의를 요청하기 위해 쿠빌라이 진영에 왔을 때, 이미 쿠빌라이는 철수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한다. 학경이 1259년 11월 초 남송과의 화의를 진언하여 점차 쿠빌라이 역시 화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도의 밀사 송경(宋京)이 오자 몽골 측은 “후일 재차 논의하자”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북귀(北歸)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악주의 화의는 실질적 효과를 낳기 힘든 구두협약에 불과했으며 서명한 문건을 주고받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다만 쌍방이 동의한 방향 설정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밀약의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이해하는 시각이다. 후자 오시 주편의 『송몽원관계사(宋蒙元關係史)』(1992)⁶⁵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설령 밀약이었다 할지라도 서명한 비밀문서를 만들었어야 할 텐데 현존 자료 가운데 서명문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한 악주지역 당시 가사도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유효한 대응을 했고 쿠빌라이가 수세에 몰려 있었던 만큼 가사도가 이러한 정황에서 굴욕적 화약을 제기했을 리 만무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악주화의란 것은 몽골 측에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렇게 몽골 측이 허구적 사실을 조작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쿠빌라이가 아무런 공적 없이 악주에서 철수하는 것을 은폐하고자 했으며, 다음으로 남송에게 약속 위반의 책임을 씌움으로써 정벌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고, 마지막으로 허위적 화의의 존재를 유포시켜서 남송 조정을 이간질하고 또 혼란에 빠트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65 胡昭曦 主編(2003), 앞의 책, 245~250쪽.

악주화외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근래 중국 학계의 동향이 계급투쟁으로부터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급속히 변모하는 것과는 사실 큰 관련이 없는 주제라 할 수 있다. 가사도와 쿠빌라이 사이 밀약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사실 자체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석과는 별도로 밀약 추진의 당사자라 이해되어 온 가사도에 대한 평가는 근래에 이르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시대에 가사도에 대한 평가는 『송사』에서도 「간신전」에 입전(立傳)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었다. 상위예의 『중국통사강요』(1955)에서 그를 투항타협파의 수령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출간된 뤼젠위의 『간명중국통사』(1955)에서는, 가사도가 쿠빌라이와 밀약을 체결한 후 전후의 사실을 모두 은폐하고 “각로(各路)의 대승을 선포하고 공업(功業)이 세상을 뒤덮었다고 자임했다”는 기술을 덧붙이고 있다.⁶⁶ 악주의 전투 당시 가사도의 간사한 행동을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 분명하게 변화하여 가사도를 다만 남송의 재상이라 적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나아가 가사도의 간사함을 의도적으로 적시하고자 하는 태도도 사라지기에 이른다.

⁶⁶ 呂振羽(1955), 앞의 책, 539쪽.

IV.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

몽골제국의 남송 정복은 1276년 쿠빌라이 시기에 일단락된다. 쿠빌라이는 악주에서 복귀한 직후인 1260년 3월 대칸의 직위에 취임하였다. 이후 한동안 아릭 부케와의 경쟁 등 내치를 다지는 작업에 몰두하다가 1268년 이래 다시 남송에 대한 정복전쟁을 재개한다. 쿠빌라이의 남송 정복전쟁은 이전의 우구테이나 몽케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구테이나 몽케의 남침은 모두 쓰촨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는 전면전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군을 동원하여 일거에 남송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쓰촨이 아닌 양쯔 강 중류 지역으로의 남하를 시도했다. 그것도 대군을 동원한 전면적인 개전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하여 이곳을 지구전으로 정복한다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선택된 전략적 요충지는 양양(襄陽)이었다. 몽골 군대의 양양 공격은 1268년 9월에 시작되어 1273년 2월에 종료되었다. 무려 4년 반에 걸쳤던 것이다. 그리고 이 양양 공방전의 승패는 곧바로 패자인 남송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양양·번성(樊城) 전투의 결말로부터 남송의 패망까지는 불과 3년이 걸렸을 뿐이다.

남송 조정이 바안의 원군(元軍)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1276년 정월의 일이다. 이후 문천상(文天祥)이라든가 장세걸(張世傑)·육수부(陸秀夫) 등의 저항이 1279년까지 지속되지만, 1276년 섭정인 사태후(史太后)의 투항으로 남송 정권은 사실상 멸망하였다.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동향을 극명히 보여 주는 주제가 바로 원(元)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이다. 원조의 남송 정복은 한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방민족인 몽골족에 의해 정통 한족 왕조인 남송이 멸망

한 사건이다. 따라서 전통시대는 물론이려니와 20세기 중반에 이르도록 남송 멸망은 철저히 한족적 시각에서 묘사되었다. 몽골 내지 원조의 낙후성을 특필한다든가 그들이 전쟁 수행과정에서 보인 잔폭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남송을 위해 충성을 바친 인물들, 예컨대 문천상·장세걸·육수부는 물론이고 이정지(李庭芝)나 강재(姜才) 등에 대해서도 민족의 영웅이라 상찬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을 전후하여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고 이와 동시에 이른바 중화민족론 내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강조되면서, 원조의 남송 멸망을 중국 통일의 달성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남송에 좌단(左袒)한 평가는 대략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다. 이를 반영하듯 1950년대에 출간된 중국통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한족 중심주의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 상위예의 『중국통사강요』와 뤼젠위의 『간명중국통사』는 그러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상위예의 『중국통사강요』⁶⁷에서는 원의 남송 정복전쟁을 서술하면서 그 대부분의 분량을 남송 측 저항세력의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바얀의 공격에 맞서 상주(常州)의 인민들이 원군의 공격을 수개월이나 막아냈던 과정을 장황히 기술한 다음, 이런 저항으로 인해 바얀은 상주 점령 이후 도살(屠戮)을 명했다고 적고 있다. 또 양저우(揚州) 공방전에서 나타난 이정지(李庭芝)와 강재(姜才)의 저항도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양인의 전사 전후에 대해서는 “포로로 잡힌 후 원병(元兵)의 아만과 죄악상을 꾸짖다 살해되었는데, 이를 듣고 양저우의 인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서술하였다. 원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문천상이나 장세걸 등의 항원(抗元)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장황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

67 尙越(1955), 앞의 책, 270쪽.

에서 원의 남송 정복은 “전국을 원조의 흑암 통치하에 들어가게 한 사건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각 민족 인민의 원조에 대한 완강한 반노역(反奴役) 반압박투쟁이 시작되어, 마침내 89년 만에 원조의 야만적이고도 잔폭한 통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뤼젠위의 『간명중국통사』⁶⁸에서는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해 조금 더 감성적인 기술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도 바얀의 남송 정복전쟁 당시 항원 활동을 보이는 세력에 대해 『중국통사강요』와 마찬가지로 매우 소상히 적고 있다. 그다음 “몽골족 노주집단(奴主集團)의 폭력은 반동적 낙후적이었으며 역사발전에 장애를 가하는 것이었다. 인민 생활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따라서 항원 투쟁은 정의로운 것이었고 객관적으로 진보성을 띤 것이었다. 그들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영웅적인 비장함과 굳은 저항정신은 영원무궁하리라”라고 자못 감상적으로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1980년을 전후하여 현격히 변모해 간다. 당시 중국에서는 방대한 분량을 지닌 두 종류의 대표적인 중국사 개설서가 출간된다. 전술한 바 있는 『중국통사』와 『중국사고』이다. 이들 서적에서는 원조의 통일에 대해 더 이상 1950년대의 개설서와 같은 부정 일변도의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당 말 오대 이래 지속된 중국의 분열을 300년 만에 종식시킨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국면이 타개되어 다민족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원조의 통치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서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조의 통일은 착취계급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취시킨 것이어서 통일과정 중에 나타난 원조 군대의 살육과 약탈은 각 민족에게 심대

68 呂振羽(1955), 앞의 책, 541쪽.

한 고난이 되었다고 한다. 또 원조는 통일 이후에도 각족(各族) 인민을 잔혹하게 착취했으며, 이로 인해 각족 인민들은 통일과정과 이후를 통해 부단히 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완전히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⁶⁹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저작에서 보였던 원조의 통일에 대한 유보적 평가는 1990년대를 넘어가며 일변한다. 이전의 양면적 평가는 사라지고 완전히 그 긍정적 의의만을 상찬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몽골 내지 원의 통일은 당 말 이래 요·송·서하·금·토번·대리(大理) 등 각 민족의 정권이 장기 병립하던 국면을 종결짓고 전국을 통일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 발전에 심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원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중국의 판도가 확정되었으며, 중국 내 각 민족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었고, 변강지구의 개발이 비약적으로 증진되었다고 말한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한 중국사의 해석이 여타 요소들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치고 있는 형국을 보이는 것이다. 리방정[黎邦正] 주편의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89), 장추안시의 『중국고대사강』(1991), 후자오시 주편의 『송몽원관계사(宋蒙元關係史)』(1992), 『몽고족통사(蒙古族通史)』(1990), 자오샤오밍의 『중국전사 중국송요금하정치사』(1994), 조우위엔롄 주편의 『중국봉건왕조흥망사 양송권(中國封建王朝興亡史 兩宋卷)』(1996), 『몽고민족통사(蒙古民族通史)』(2002), 다리에자부의 『몽고사강요』(2006), 구홍이의 『천평-십삼세기송몽원화전실록』(2007) 등이 모두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출간된 연구물에서 보이는 원조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는 극히 유사하다. 마치 표준적인 평가를 답습하는 듯한 인상이 들

⁶⁹ 中國史稿編寫組(1985), 앞의 책, 432쪽.

도이다. 이를테면 1989년에 출간된 리방정 주편의 『중국고대사』⁷⁰에서는, 원조의 남송 정복이 전국통일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한 것이라 규정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발전을 촉진시킨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 말 이래의 중국 분열이 종식되었으며, 운남과 티베트·타이완·남해제도 등이 정식으로 중국의 판도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원조의 남송 정복과 중국 통일은 중국 각 민족의 융합에도 큰 영향을 주어 서로 각 민족의 분열국면을 종식시키고 여진·거란·몽골·위구르 등이 한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제족의 융합과 학습·협조·통혼을 자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약간의 편차와 표현만 다를 뿐 근래의 저작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의 중국 학계에서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해 긍정 일변도의 평가를 가하고 있지만, 남송과 몽골 사이 구체적인 전투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는 여전히 한족 중심주의적 사고가 상당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위에서 소개한 리방정 주편의 『중국고대사』(1989)만 하더라도 철저히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입장에서 원조의 남송 정복에 대해 모범답안과 같은 해석을 가하고 있지만, 몽골 내지 원조의 공격에 저항하는 남송 측의 저항활동에 대해서는 또 매우 우호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양양·번성의 군민(軍民)들이 몽골의 군대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영웅적으로 분전했다라든가 남송 멸망 이후 문천상의 저항 활동을 소상히 서술하며 그가 저술한 「과영정양(過零丁洋)」 및 「정기가(正氣歌)」 등을 인용하며 매우 장렬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과영정양」이나 「정기가」 모두 원조예의 투항 권유를 뿌리치고 남송에 대한 충성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읊은 시이다. 심지어 조어성

70 黎邦正 主編(1989), 앞의 책, 264~265쪽.

전투와 관련하여서는 조어성이 1259년 몽케의 남침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1276년 남송의 멸망 이후에도 저항을 지속하여 1279년에 이르러서야 그 항전이 끝났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남송의 몽골에 대한 저항을 “장장 36년에 걸치는 빛나는 역사였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원조의 남송 정복이 지니는 중국사상의 의미에 대해서 온갖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통일전쟁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빛나는 역사’라는 최상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같은 가치의 혼란 내지 혼돈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타 저작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자오샤오밍이 저술한 『중국전사 중국송요금하정치사』(1994)⁷¹이다. 이 책 역시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송요하금정치개술(宋遼夏金政治概述)」에서, “송조와 요·서하·금 사이에는 군사적인 공벌전과 대항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단한 교류가 진행되어, 우리나라(中國) 다민족의 융합과 통일에 중요한 기반을 창조하였다”고 적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정책적 입장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의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조의 남송 공격과 정복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전제와 완전히 배치되는 기술을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정지와 강제가 사태후의 투항 권유를 거부하고 양저우에서 원군(元軍)과 맞서 격렬히 저항하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 “장렬히 희생되었다”고 쓰고 있다. 남송의 멸망 후 각지에서 일어난 저항에 대해서도 “격렬하고 비장한 항원투쟁”이라 규정하였다. 나아가 문천상·장세걸·육수부에 대해서는 그 저항활동을 이례적이라 할 만큼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항원투쟁이 송 황실을 멸망에서 구해내

71 趙紹銘(1994), 앞의 책, 254~259쪽.

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항원투쟁에서 표출된 민족의 절기와 차라리 죽을 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호연정기(浩然正氣)는 후세인에게 경앙(敬仰)의 대상이 되었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책에서는 “문천상 등의 투쟁활동은 결국 실패했지만, 그들의 투쟁정신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후자오시 주편의 『송몽원관계사』(1992)⁷²는 남송과 몽골 사이의 접촉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전면적인 해석 및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서이다. 이 저작 역시 “송몽(宋蒙)관계는 중화(中華) 내부민족 사이의 관계”라고 언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듯,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충실한 입장에 서 있다. 원조의 남송 정복에 대해서도 그것이 민족융합과정이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공고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의 남송 정복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는 여타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한족 중심주의적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남송 말기에 활동한 인물들을 평가함에 있어 남송에 대해 얼마나 순정(純正)한 충성심을 견지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1276년 남송의 멸망 이후 각처에서 발생한 저항운동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견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한족 중심적 사고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와 같은 서술 태도는 역시 문천상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 책에서는 문천상에 대해 “중국 역사상 위대한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 그가 보인 “충심보국(忠心報國)의 애국정신은 천추(千秋)에 빛나리라”라고 찬양하고 있다. 아무리 수식어를 붙이고 유보를 가한다 해도 문천상은 원조의 남송 정복에 격렬히 저항한 인물이다. 한족의 왕조인 남송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일 뿐이다. 만일 남송의 멸망이 중국

72 胡昭曦 主編(1992), 앞의 책, 420~469쪽.

사의 전개에 중대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반대하였던 문천상의 활동도 그것에 맞추어 재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중국 학계의 입장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정책적 지향,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전히 잔존하는 한족 중심적 판단이라는 두 개의 상호 모순적인 시각이 묘한 형태로 교행(交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한 연구시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동향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주제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한족 중심적 시각을 취하여 원의 남송 정복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대략 1980년을 전후하여 현격히 변모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도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입장에서 긍정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의 통치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가 되면서 그 긍정적 의의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V. 맺음말

남송과 몽골은 1210년대 최초로 접촉한 이래 1276년 원조의 정복으로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약 60년 이상 다각적인 관계를 맺었다. 양국 사이의

관계는 평화적으로 사신을 주고받는다든가 혹은 금이라는 공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연맹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양국관계의 기본적 양태는 역시 전쟁과 무력충돌이었고 그 최종적인 귀착점이 남송의 패배와 멸망이었다. 이러한 실태에 따라 본론에서는 양국 간 전개되었던 중요한 세 차례의 전쟁을 중심으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주제가 남송과 몽골 사이 전쟁의 시작을 어느 때로 잡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략 네 가지의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첫째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략 금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라 이해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단평입락을 계기로 쌍방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으로서 대다수의 논자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셋째로는 단평입락 이후 1235년 우구테이가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 대대적인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전쟁 개시의 시점을 둘러싸고 복잡한 의견차가 생기는 것은 1220년대에 있었던 양국 간의 전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으로 1234년의 단평입락으로 말미암은 양국의 충돌을 진정한 전쟁의 개시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평입락의 배경에 대한 이해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1234년 금의 멸망을 앞두고 남송과 몽골이 연맹을 체결할 때 과연 허난 일대를 송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논자는 몽골이 남송에 대해 허난의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 즉 하남할지설이 사실이며 이를 몽골이 저버렸기 때문에 단평입락이 추진되었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근래 몇몇의 연구를 통해 하남할지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해명되었다.

남송과 몽골 사이에 전개된 두 번째의 대대적인 전쟁은 몽케 시기에 발
생하였다. 몽골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합주 조어성에서 몽케가 전
사하면서 사실상 종결된다. 그런데 합주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는 1950
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면서 상당한 굴곡을 보인다. 1950년대의 저작에서
는 다분히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주류를 점하였다. 그러던 것이
점차 변모하여 최근에 이르면 조어성 전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생략되거나
혹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른바 ‘악주의 화의’에 대한 이해도 상당한 분기(分歧)를 보인다. 논의의
초점은 악주의 전투 당시 가사도와 쿠빌라이 사이에 과연 밀약이 체결되었
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둘러싸고 대략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선 대다수의 논자들은 밀약의 존재 및 가사도의 배약(背約)을 모두 인정
하고 있다. 반면 일부의 저작에서는 가사도가 몽골 측에 굴욕적 조건의 화
약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시간이 급하여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견해는 밀약의 논의 자체가 쿠
빌라이 측에 의해 조작된 허구라는 주장이다.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본 마지
막 주제는 원조의 남송 정복에 대한 평가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학계의
동향을 가장 극명히 보여 주는 테마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출간된 연
구물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한족 중심주의적 시각을 취하였다. 원조의 남
송 정복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원조에 대한 저항활동을
매우 상찬하는 필치를 보였다. 이 시기의 저작에서는 원군(元軍)의 대외 정
복전쟁이 매우 폭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
다. 이러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1980년을 전후하여 현격히 변
화하여 갔다. 이후의 저작에서는 이전과 같이 원조의 남송 정복에 대해
더 이상 부정일변도의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의 통일이 당 말·오

대 이래 지속된 중국의 분열을 300여 년 만에 종식시킨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원조의 통치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1980년대의 저작에서 보였던 원조의 통일에 대한 유보적 평가는 1990년대를 넘어가며 다시 한 번 변모한다. 이전의 양면적 평가는 사라지고 완전히 그 긍정적 의의만을 상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최근의 중국 학계에서 원의 남송 정복에 대해 긍정 일변도의 평가를 가하고 있지만, 남송과 몽골 사이 구체적인 전투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는 여전히 한족 중심주의적 사고가 상당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들이 일견 철저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한편으로 몽골 내지 원조의 공격에 저항하는 남송 측의 저항활동에 대해서는 또 매우 우호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근래 중국 학계의 입장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정책적 지향,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전히 잔존하는 한족 중심적 판단이라는 두 개의 상호 모순적인 시각이 묘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를 정리하여 보았지만, 사실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을 의미 있게 파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 학계에서 발표되는 논문 대부분이 다른 논문의 인용이라는 작업을 완전히 도외시키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연구물을 인용하고 그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새로운 해석의 경지를 개척해 간다는 자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232년 남송과 몽골이 연맹을 체결할 당시 하남할지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몇 개의 논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지만 이후의 연구물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에 반하는 서술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후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

이다. 또한 남송과 몽골 사이의 관계가 주로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도, 양국 사이의 관계사를 관통하는 연구경향의 굴절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었다.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 또한 이러한 전쟁의 추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것을 통시대적으로 연결하여 나름대로의 역사상을 구성하는 작업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와 관련된 연구는 수적으로 그다지 많은 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그나마 이들 연구도 서로 간 연구경향이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구현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계의 남송-몽골관계사 연구를 종람(綜覽)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연구관점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1980년대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분짓는 이른바 애국주의적 관점의 대두이다. 이전까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역사인식과 비교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내지 중화민족일체론이라는 시각이 전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아직 중국 학계에 완전히 정착한 것 같지는 않다.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대전제를 수용하면서도 연구의 세부 분야에 들어가면 구래의 한족 중심적 민족주의가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현재 정책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전파하고 있고 그것의 강조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강화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학계에서 감지되는 역사인식 체계상의 혼돈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연구물 숫자의 제약으로 그 필자의 연령 분포와 논저의 성격을 대비하는 작업은 진행시키지 못했다. 만일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분야라면 분명 연구자의 연령 구성 및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용해 정도가 상호 대응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족 및 북방민족 왕조 사이의 접촉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중국에서 극히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제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남송-몽골 관계사의 연구동향도 그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중화민족일체론의 관점에 의거한 중국 내 각 민족의 통합 내지 융합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적 필요성이 남송-몽골관계사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남송과 몽골 사이 접촉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전면적으로 굴절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The Current Trend in Research of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 The current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of Chinese academia

This book contai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from 9th century to 13th century.”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9th to 13th century, in which China was ruled by Song, Liao, Jin, and Mongolian Empire.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generally covers how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Hans and the Northern Nations developed during and around the rise and fall of the Song Dynasty.

Since the 1990s, China has conducted numerous researches on peripheral history under the political agenda of solving ethnic conflicts. As a socialist country, China requires all academic work to contribute to the governing of the people and does not tolerate any study that threatens the governing system. Hence politically motivated academic projects such as the North East Asia Internalization Project have been systematically promoted and led by the Chinese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research seeks to interpret the recent trend in Chinese academia’s approach towards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and the structure of such approach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Chinese civilization underwent massive change as it progressed from late Tang and through Song. Chinese historians call this change “Tang-Song Revolution”, a rather fitting nam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volution” encompassed change in 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 and last but not least, foreign relations. The activity of the

Northern Nations during late Tang took an unprecedented route. Compared to Turks and Uyghurs during the times of Sui and Tang, Khitans, Jin, and Western Xia that rose after the times of Five Kingdoms and Song were completely different in their national structure, ethnic identity, and attitude towards China.

This book focuses on interpreting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changed during the so-called “Tang-Song Revolution” and what trend is shown among historical studies on such relationship. The scope of this interpretation only includes the works of the Chinese academia, substantially because realistic burden on the part of the researchers, but also because this research project has been initiated with an end-goal of reviewing the recent trend in Chinese academia’s approach to China’s history of foreign relations. Such an end-goal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s political decisions influence the said trend among Chinese historical works. We hope that this research correctly identifies the trend and Status Quo of Chinese academia’s approach to Northeast Asian history and provides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firmer structure of Korean historical research.

In the contemporary world, history means more than a book or a lecture. It is from proper perception of history that people can derive generosity and tolerance towards each other. Furthermore, in an era of endless competitions, history is a valuable asset and a source of competence to each nation, something displayed too well by China’s Northeast Asia Internalization Project or Japan’s insistence on its territorial rights over DokDo.

This book seeks to study six themes: (1)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during late Tang period, (2)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Kingdoms and Khitans, (3) The recent trend in historical studies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ern Song and Liao, (4) The recent trend in historical studies of West Xia, (5) The recent trend in historical studies of relationship between Song and Jin, and (6) Research on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ern Song and Mongolian Empire. With the exception of the first two, these themes all focus on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during the days of Song. One of the key features shown in Chinese historians' works nowadays is the fall of materialism and the rise of "patriotic" tendencies. This trend—patriotism overwhelming other historical perspectives—is also evident in the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that this book focuses on. As we step into another decade, this trend of emphasizing patriotic perspective grows and naturally other perspectives are gradually being eclipsed. "Sinocentrism[中華民族論]", "Unified Diversity[多元一體論]", and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統一的多民族國家論]" are all fitting labels for this new Chinese historical perspective whose influence easily shakes the very foundations of traditional perspectives on Chinese history. It would not be preposterous to argue that patriotism of nowadays is as influential as materialism was during the 1950s.

Undoubtedly, the dominance of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nowadays is directly linked to the problems that modern-day China faces. Ethnic minorities have been the cause of numerous political tasks that Chinese government faces nowadays. As of now, China officially recognizes fifty five ethnic minorities. While most of them acquiesce to the central authority's rule, there are others who display hostility, like the Tibetans and Uyghurs. Persuading and forcing these hostile minorities to accept the government's authority are now seen as a task that the Chinese leadership must achieve.

Thus,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s through its department of education that "Chinese history" has been shaped not by the Hans but by the "Chinese" and that modern China is not a country of Hans but a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emphasizes that both Hans and ethnic minorities constitute what is China nowadays. From this perspective, Jurchens, Khitans, Mongolians, Uyghurs, Tibetans, and even Chinese-Koreans are viewed as constituting the "Chinese race."

Such perspective, however, do not seem to have settled firmly in the Chinese academia yet. As this book will further reveal later on, most Chinese historians studying the Song dynasty still tend to display traditional Han-centered nationalistic perspective in their works despite accepting the general presumptions of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This tendency is especially common among elderly scholars.

Nowadays, the Chinese government is systematically spreading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and the emphasis on this perspective seems to grow stronger with time. With this in consideration, it seems likely that the confusion of historical perspective shown in Chinese historical works will soon be dissolved. While the limit of research materials available to the editors of this book has prevented study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an author's age and the argument of a work, it does not seem like a wild conjecture to say that proper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ill show a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 between a researcher's age and the reliance on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shown in a research.

Research on the history of foreign relations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thus, touches a theme extremely important to contemporary China. Since the 1980s, China has emphasized unifying or merging ethnic groups with a "Chinese-oriented" historical perspective as it started to open its borders to the outside world. It is this political need that asserts direct influence on the research on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and distorts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said relationship and foreign policies.

KEY WORDS

Chinese history, Relationship between Hans and Northern Nations, Unified Multiethnic Statehood, Khitans, West Xia, Jin, Mongol Empire, Song

1. 단행본

가. 한국어

- Luc Kwanten 著, 宋基中 譯(1988), 『遊牧民族帝國史』, 民音社.
- 蓋文皓(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國學資料院.
- 국립민속박물관(1998), 『북방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1991), 『高句麗 對 隋·唐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 권선홍 외 공저(1999),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
- 金基德(1998),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 金庠基(1948), 『東方文化交流史論考』, 乙酉文化社.
- 金渭顯(1985),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 金渭顯(2004), 『契丹 東方經略史究』, 명지대학교출판부.
- 金渭顯(2004), 『契丹社會文化史論』, 景仁文化社.
- 金在滿(1974), 『契丹民族發展史의 研究』, 讀書新聞社出版局.
- 金在滿(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 金翰奎(1982), 『古代中國의世界秩序研究』, 一潮閣.
- 金翰奎(1999), 『韓中關係史』 I·II, 아르케.
- 金翰奎(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金翰奎 外(1988),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 金浩東 馮金(1990),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 김석우 외(2008), 『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한신대학교출판부.
- 김용필(2008), 『아골타의 황금 대제국』, 생각나눔.
- 盧啓鉉(1984), 『韓國外交史論』, 大旺社.
- 都賢喆(1999),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一潮閣.
- 동북아역사재단 편(2007), 『북방민족사: 연구논저 목록(Bibliography of inner Asia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 東洋史學會(1993),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李東馥(1976), 『東北亞細亞史 研究: 金代 女眞社會의 構成』, 一潮閣.
- 文際鉉(1987),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 樸玉傑(1996),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樸宗基(1999),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베·야·블라디미르초프 저, 주채혁 역(1990), 『몽골사회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병국 편저(2006), 『거란제국사연구: 거란제국의 지나인 통치 성공 이유』, 한국학술정보.

서병국(1992), 『거란·거란인』, 오정주식회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1997), 『국역 여사제강』 1~4.

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휴머니스트.

申採湜(2008), 『宋代對外關係史研究』, 한국학술정보.

申虎雄(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안주섭(2003),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李蘭暎 編(1979), 『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李東稷(1986), 『東北亞細亞史研究』, 一潮閣.

李範稷(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李龍範(1988), 『中世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社.

李龍範(1989), 『韓滿交流史研究』, 同和出版社.

李春植(1998), 『中華思想(Sino-Centrism)』, 교보문고.

日本東亞研究所 編, 서병국 옮김(2003), 『북방민족의 중국통치사』, 한국학술정보.

임용환(2004), 『전쟁과 역사: 거란·여진과의 전쟁』, 해안.

張東翼(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全淳東(2000), 『明王朝 成立史研究』, 개신.

全海宗(1970),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全海宗(1976), 『東亞文化의 比較史의 研究』, 一潮閣.

全海宗(1980),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 일조각.

정병준 외(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趙雲佐·金甲起 譯註(1998), 『三韓詩龜鑑』, 梨花出版社.

趙政男(1988), 『中國의 民族問題』, 교양사.

周采赫(1986), 『元代 官人層 研究』, 正音社.

崔韶子(1997), 『중국과 동아시아세계』, 국학자료원.

何光嶽(2004), 『女眞原流史』, 江西教育出版社.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1992),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신라·발해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나. 중국어

- 江天健(1993),『北宋對於西夏邊防研究論集』,臺北:華世出版社.
- 羅振玉輯(1984),『新印校點本瓜沙曹氏年表』,香港:裏仁書局.
- 陶晉生 主編(1974),『李壽續資治通鑒長篇宋遼關系史料輯錄』,臺北:中央研究院史語所.
- 陶晉生 主編(1984),『宋遼關系史研究』,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 都興智(2004),『遼金史研究』,人民出版社.
- 杜建錄(1995),『西夏與周邊民族關系史』,甘肅文化出版社.
- 杜建錄(2004),『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武玉環(2001),『遼制研究』,吉林文學出版社.
- 白濱(1989),『黨項史研究』,吉林教育出版社.
- 史金波·雅森·吾守爾(2000),『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史金波(1986),『西夏文化』,吉林教育出版社.
- 史金波(1988),『西夏佛教史略』,寧夏人民出版社.
- 謝昭勇(1974),『澶淵之盟以前遼宋關系史事系年』,臺北:鼎文書局.
- 舒焚(1984),『遼史稿』,湖北人民出版社.
- 聶鴻音(2002),『西夏文德行集研究』,甘肅文化出版社.
- 蘇寶輝(1983),『瓜沙史事叢考』,臺北:商務印書館.
- 安國樓(1997),『宋朝周邊民族政策研究』,臺北:文津出版社.
- 楊樹森(1984),『遼史簡編』,遼寧人民出版社.
- 呂思勉(1961),『隋唐五代史(上·下)』,中華書局.
- 吳天墀(1980),『西夏史稿』,四川人民出版社.
- 王克孝(1994),『黑城出土漢文遺書敘錄』,寧夏人民出版社.
- 王民信(1976),『沈括熙寧使虜國抄箋證』,臺北:學海出版社.
- 王占君(1997),『遼太祖阿保機』,華夏出版社.
- 王靜如(1932),『西夏研究①·②·③輯』,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鉛印本.
- 王天順(1995),『西夏學概論』,甘肅文化出版社.
- 劉建麗(1998),『宋代西北吐蕃研究』,甘肅文化出版社.
- 劉浦江(2003),『二十世紀遼金史論著目錄』,上海辭書出版社.
- 李桂之(1996),『遼金簡史』,福建人民出版社.
- 李範文·鍾侃·吳雲峰(1979),『西夏簡史』,寧夏人民出版社.
- 李錫厚·白濱·周峰(2005),『遼西夏金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 李蔚(1997),『簡明西夏史』,人民出版社.

李華瑞(1998),『宋夏關係史』,河北人民出版社.

張國剛(1996),『隋唐五代史研究概要』,天津教育出版社.

張國慶(2006),『遼代社會史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博泉(1984),『金史簡編』,遼寧人民出版社.

張暢耕(2001),『遼金史論集』,社會科學文獻出版社.

程光裕(1972),『宋太宗對遼戰爭考』,臺北:臺灣商務印書館.

趙望秦·張新科(2007),『遼金史解讀』,華齡出版社.

周偉洲(1988),『唐代黨項』,三秦出版社.

朱學淵(2002),『中國北方諸族的源流』,中華書局.

陳炳應(1985),『西夏文物研究』,寧夏人民出版社.

陳炳應(1993),『西夏諺語-新集錦成對諺語』,山西人民出版社.

漆俠·喬幼梅(1994),『遼夏金經濟史』,河北大學出版社.

何廣博(2001),『述善集研究論集』,甘肅人民出版社.

何天明(2004),『遼代政權機構史稿』,內蒙古大學出版社.

韓國磐(1979),『隋唐五代史綱』,人民出版社.

韓小忙(1998),『西夏道教初探』,甘肅文化出版社.

黃寬忠(1988),『南宋時期抗金的義軍』,臺北:聯經出版業公司.

侯林伯(1976),『唐宋兩朝邊疆史料比事實疑』,香港:南天書業公司.

다. 일본어

堀敏一(1993),『中國と古代東亞世界』,岩波書店.

島田正郎(1979),『遼代社會史研究』,巖南堂書店.

島田正郎(1980),『遼朝史の研究』,創文社.

藤間生大(1966),『東アジア世界の形成』,春秋社.

藤間生大(1977),『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春秋社.

浜下武志(1997),『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岩波書店.

三上次男(1937),『金代女眞の研究』,滿日文化協會.

西嶋定生(1983),『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小倉芳彦(1970),『華夷思想の形成』,『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青木書店.

2. 논문

가. 한국어

- 강선(2003), 「고구려와 북방민족의 관계 연구 : 선비·거란·유연·돌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선(2004), 「北方民族史에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 鮮卑, 契丹, 柔然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제18집, 高句麗研究會.
- 강선(2007), 「고구려와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견해」, 『高句麗研究』 제29집, 高句麗研究會.
- 강권찬(2004), 「민족정책과 정치전략에 의한 역사왜곡」, 『민족연구』 제13호, 한국민족연구원.
- 薑吉仲(1990), 「南宋과 高麗의 政治外交와 貿易關係에 대한 考察」, 『慶熙史學』 17.
- 薑大良(1948), 「高麗初期의 大契丹關係」, 『史海』 1, 朝鮮史研究會.
- 薑順吉(1985), 「忠肅王代의 察理辨違都監에 대하여」, 『湖南文化研究』 15.
- 薑熙雄(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의 新解釋」, 『韓國學報』 7.
- 高柄翊(1961~1962),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上)(下)」, 『歷史學報』 14, 19.
- 高柄翊(1962), 「高麗忠宣王의 元武宗 擁立」, 『歷史學報』 17·18합집.
- 高柄翊(1969),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 高柄翊(1970), 「중국정사의 외국열전」,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高貞愛(1986), 「麗·宋關係史 研究-文物交流를 중심으로」, 『淸州史學』 2.
- 高貞愛(2006), 「漢族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제1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高貞愛(2009), 「중국 '민족식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具山祐(1992),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78, 韓國史研究會.
- 權鍾川(1971), 「高麗時代의 對金政策考」, 『忠北大論文集』 5.
- 권중달(2004), 「중국의 확대와 한족관(漢族觀) : “중국 민족주의”」, 『대륙전략』 제2호, 대륙전략연구소.
- 權兌遠(1981), 「高麗初期社會에 미친 歸化人의 影響에 관한 考察」, 『論文集』 19, 忠南大學校.
- 김구진(1986), 「金代 女眞社會構成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九鎭(1989), 「13~17세기 女眞社會의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九鎮(1997), 「遼·金·元시대에 있어서 高麗와 北方騎馬民族」, 『中國과 東아시아 世界』, 국학자료원.

金基德(1997), 「高麗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國史館論叢』 78.

金南奎(1995), 「高麗前期 兩界地方의 原住·來投 女眞人에 대하여」, 『慶大史論』 8.

金南奎(1996), 「高麗中葉의 對女眞政策」, 『加羅文化』 13,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金南奎(1999), 「高麗와 金·宋과의 關係」, 『국사상의 제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金南奎(1974),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특히 王逢規를 中心으로」, 『東方史論叢』, 서울 大學校出版部.

金錫亨(1948), 「거란(요)의 침입과 그 격퇴」, 『력사제문제』 3, 평양: 조선력사편찬위원회.

金鮮浩(1996), 「14世紀末 蒙·麗關係와 東北亞 政勢變化」, 『江原史學』 12.

金南奎(1995), 「고려와 동아시아」, 『한국역사입문』, 한울.

金南奎(2000a), 「麗末鮮初 對元·明關係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南奎(2000b), 「元明 교체와 麗末鮮初의 華夷論」, 『한국중세사연구』 10.

金容完(1987), 「北宋과 遼·夏 邊境上の 密貿易 問題」, 『濟州史學』 3.

金容完(1990), 「南宋 高宗代의 軍事組織에 관한 研究」, 『忠南史學』 5.

金容完(1999), 「劉豫의 齊國과 南宋과의 關係」, 『湖西史學』 27.

金渭顯(1978), 「麗末關係와 그 航路考」, 『關東大論文集』 6.

金渭顯(1982), 「高麗對宋遼金人投歸의收容策-918~1146」, 『史學志』 16, 檀國大學校 史學會.

金渭顯(1984), 「契丹文化의 特質과 社會의 關係」,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渭顯(1985), 「契丹의 對西夏政策①」, 『白山學報』 32.

金渭顯(1986), 「契丹의 對西夏政策②」, 『白山學報』 33.

金渭顯(1988), 「北宋의 對西域政策」, 『明知史論』 2.

金渭顯(1990), 「契丹의 奚人에 대한 政策考」, 『明知史論』 3, 명지대학교 사학회.

金渭顯(1995),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金渭顯(1998), 「契丹·高麗間의女眞問題」, 『明知史論』 9, 明知史學會.

金渭顯(2002), 「宋史·西夏列傳」, 『宋史研究論文集』, 河北大學出版社.

金在滿(1961), 「契丹의 山北·山南經略史」, 『震檀學報』 22.

金在滿(1974), 「거란민족 발전사의 연구: 특히 정치·경제·군사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在滿(1980), 「거란세시풍속고」, 『人文科學』 9,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金在滿(1986), 「契丹·高麗 國交前史」, 『人文科學』 15, 成均館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金在滿(1993), 「契丹 聖宗의 高麗侵略과 東北亞細亞 國際情勢의 變趨(下)」, 『大東文化研

究』28,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金昌洙(1960), 「高麗와 興遼國」, 『海園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東國大學校 史學會.

金漢植(1977), 「明代 韓中關係를 둘러싼 若干의 問題」, 『大丘史學』 12·13輯.

金漢植(1980), 「明代中國人の 對外觀」, 『歷史教育論集』 1.

金漢植(1981), 「明代中國人の 對韓半島認識」, 『東洋文化研究』 8.

金惠苑(1986), 「忠烈王 入元行績의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三榮社.

金惠苑(1989), 「麗元王室通婚의 成立과 特徵」, 『梨大史苑』 24·25合輯.

金惠苑(1994), 「高麗後期 藩(陽)王의 政治·經濟的 基盤」, 『國史館論叢』 49.

金惠苑(1998a), 「高麗 恭湑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白山學報』 51.

金惠苑(1998b), 「高麗 後期 藩(陽)王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浩東(1989a),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講座中國史』 II, 지식산업사.

金浩東(1989b),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講座中國史』 III, 지식산업사.

金浩東(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の 王權』, 東洋史學會編, 한울.

金敬梅(2004), 「중국 동북지역 북방민족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의 혁철족, 악운춘족, 악은극족, 달알이족, 몽고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九鎮(1973), 「麗末鮮初 豆滿江 流域의 女眞 分布」, 『白山學報』 15, 白山學會.

김구진(2001), 「여진 사회의 Tatan(窩鋪) 제도에 대한 연구: 만주 「八旗 제도」와 「Ajsin(愛親) Gjoro(覺羅)」의 기원에 대하여」, 『人文科學』 제9집, 弘益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金貴達(1973), 「女眞族의 國家組織에 대한 考察」, 『大丘史學』 7·8, 大丘史學會.

金奎皓(1898), 「隋·唐과 周邊民族 關係」, 『江原史學』 13·14, 江原大學校 史學會.

김낙준(2008),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大洸(1994), 「中國의 少數民族 政策의 變化過程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金成奎(1999), 「宋代에서 國境問題의 意義와 國境의 形態」, 『歷史學報』 162, 歷史學會.

金成奎(2000), 「高麗 前期의 對宋關係」, 『國史館論叢』 92.

金成奎(2001), 「入宋高麗國使의 朝貢 儀禮와 그 주변」, 『全北史學』 24, 全北史學會.

金成奎(2004), 「契丹國使宋皇帝謁見儀式의 主要 特徵과 그 意義」, 『역사문화연구』 제21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金成奎(2005), 「宋代 朝貢秩序의 再編과 그 樣相」, 『歷史學報』 제185집, 歷史學會.

- 김성우·이원석(2001), 「中國 遼寧省 滿洲族, 漢族, 朝鮮族 民家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17권 제11호 통권 제157호, 대한건축학회.
- 김은국(2005), 「발해 대외관계의 전개와 성격: 당, 신라,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在善(2005), 「契丹의 渤海遺民 移住政策의 要因」, 『新羅文化』 제26집,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김종복(2008), 「발해시대 요동지역의 귀속 문제」, 『史林』 제31호, 首善史學會.
- 金宗燮(2007), 「唐代 中央과 沿岸 藩鎮의 關係: 對外業務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50집, 中國史學會.
- 金天一(1993), 「中國 少數民族 政策에 관한 研究」, 『統一問題研究』 11,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 김현권(2003), 「소수민족 한족(漢族), 다민족문화 중국」, 『참여불교』 통권 제11호, 참여불교재가연대.
- 金浩東(1993), 「唐의 기미지배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歷史學會.
- 南仁國(1983), 「高麗 肅宗의 卽位過程과 王權強化」, 『歷史教育論集』 5.
- 남정휴(1995), 「中國에서의 民族과 民族國家: 政治文化와 앞서름에서 바라본 民族問題」, 『한국정치학회보』 29, 한국정치학회.
- 盧基植(2003), 「원·명 교체기의 요동과 여진」, 『아시아문화』 제19호,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 盧明鎭(1998), 「高麗 支配層의 渤海流民에 대한 認識과 政策」, 『汕耘史學』 8, 汕耘學術文化財團.
- 盧明鎭(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盧重國(1985),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 니콜라 디코스모 저, 이재정 역(2006), 「중국 중심 역사관의 해체와 고대 동아시아 북방민족사의 復權: 오랑캐의 탄생」, 『歷史教育論集』 제36집, 歷史教育學會.
- 羅鍾宇(1984), 「高麗時代의 對宋關係」, 『圓光史學』 3, 圓光大學校 大學院 史學會.
- 劉中玉(2008), 『元代高麗人待遇考』, 『역사와 세계』 34, 효원사학회.
- 陸濬均(1989),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延世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閔丙勳(1991), 「西夏後期交聘史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樸文烈(1992), 「高麗時代의 書籍輸入에 관한 研究」,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병광(2000),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한

여」, 『國際政治論叢』 40, 韓國國際政治學會.

樸玉傑(1992), 「高麗初期 歸化 漢人에 대하여」, 『國史館論叢』 39, 國史館編纂委員會.

樸玉傑(1997), 「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研究』 32,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樸玉傑, 白雲泰 譯(1997),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中韓人文科學研究』 제2집, 中韓人文科學研究會.

樸玉傑(2000), 「宋史 高麗傳에 대하여」, 『史學研究』 61, 韓國史學會.

樸龍雲(1995),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81, 一志社.

樸龍雲(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下), 『韓國學報』 82, 一志社.

박원길(1998), 「북방민족의 장례습속에 대하여 : 툄레시(Tuleshi)祭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樸宰佑(1996), 「高麗 恭讓王代 官制改革과 權力構造」, 『震檀學報』 81.

樸宗基(1993a), 「高麗中期 對外政策의 變化에 대하여」, 『韓國學論叢』 16.

樸宗基(1993b), 「예종대 정치개혁과 정치세력의 변동」, 『역사와 현실』 9.

樸宗基(1994),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한국사』 6, 한길사.

樸宗基(1998), 「11세기 고려의 대외 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역사와 현실』 30.

박지영(2004), 「契丹의 요동 진출과 渤海의 대응」,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樸志焄(1988), 「歐陽修의 華夷觀」, 『梨大史苑』 22·23합집.

樸志焄(1990), 「宋代 華夷論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樸志焄(1990a), 「北宋代 對外經濟關係와 華夷觀 : 對遼·西夏關係를 中心으로」, 『梨花史學研究』 제19집, 梨花史學研究所.

樸志焄(1990b), 「北宋代의 對外關係와 華夷論」, 『梨花史學研究』 19.

樸志焄(1990c), 「宋代華夷論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樸志焄(1993), 「北宋代 ‘重內輕外’論」, 『梨花史學研究』 제20·21합집, 梨花史學研究所.

樸志焄(1997), 「南宋代 開禧北伐과 北伐論의 展開」, 『京畿史論』 1, 京畿大學校 史學會.

樸志焄(1999), 「宋代의 異民族 性情에 대한 認識」, 『人文論叢』 7, 京畿大學校 人文藝術總括學部 人文科學研究所.

樸志焄(2000), 「宋代 異民族 國家에 對한 認識」, 『外大史學』 12기,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樸志焄(2002), 「北宋代 華夷論의 性格」, 『梨花史學研究』 제29집, 梨花史學研究所 東洋史學會.

樸志焄(2009), 「북송대 王安石의 대외관과 화이론」, 『東洋史學研究』 제106집, 東洋史學會.

- 樸眞夷(2003), 「宋과 高麗의 貿易에 관한 몇 개 문제」, 『白山學報』 68, 白山學會.
- 박춘순·김일정(2006), 「중국고대 북방민족의 髮飾에 관한 연구: 遼·金·元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4호, 한국생활과학회.
- 樸漢男(1991), 「崔惟清의 生涯와 詩文分析」, 『國史館論叢』 24.
- 樸漢男(1993), 「高麗의 對金外交政策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樸漢男(1995), 「高麗 前期 ‘橫宣使’小考」, 『申延澈教授停年紀念』, 일월서각.
- 樸漢男(1996),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 31.
- 方東仁(1985),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方學鳳(1991), 『중국 동북민족관계사』, 대륙연구소.
- 卞相弼(1994), 「中國의 少數民族 政策(法律的 側面)」, 『社會科學研究』 11, 培材大學校附設 社會科學研究所.
- 卞麟錫(1976), 「四庫全書 朝鮮史料에 관하여」, 『東洋文化』 17.
- 徐炳國(1973a), 「高麗·宋·遼의 三角貿易攷」, 『白山學報』 15, 白山學會.
- 徐炳國(1973b), 「女眞風俗攷」, 『論文集 2』, 광운전자공과대학.
- 徐炳國(1984), 「遼의 漢族統治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徐炳國(2004), 「蒙古의 漢族統治와 女眞官僚의 寄與」, 『實學思想研究』 26집, 해안.
- 徐炳國(2006), 「蒙古의 漢族統治와 契丹官僚의 寄與」, 『白山學報』 제74호, 白山學會.
- 徐炳國(2007), 「요제국 거란족의 한족 통치사: ‘한거(漢契)일제적중화사상’의 허구성 비판」, 『高句麗研究』 제29집, 高句麗研究會.
- 徐銀美(1990), 「南宋代 葉適의 對外認識과 兵制改革論」, 高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宋臺鎬(1969), 「漢族의 對外關係에 따른 異民族 漢化를 中心으로」, 『1969 論文集 2』, 安東 教育大學校.
- 申採湜(1964), 「北宋 仁宗期에 있어서 對西夏政策의 變遷에 관하여」, 『歷史教育』 8.
- 申採湜(1967), 「宋·西夏貿易考」, 『歷史教育』 10.
- 申採湜(1985), 「宋代官人の 高麗觀」, 『邊大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三英社.
- 申採湜(1993), 「宋 이후의 皇帝權」, 東洋史學會 編,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申採湜(1997), 「10~13세기 東아시아의 文物交流」, 『中國과 東아시아 世界』, 국학자료원.
- 申採湜(2008), 『宋代對外關係史研究』, 한국학술정보.
- 沈載錫(1996), 「高麗時代 宋에 의한 國王封冊의 展開」, 『淸溪史學』 12, 淸溪史學會.
- 沈載錫(2000a), 「金代 高麗國王 冊封의 性格」, 『外大史學』 13.
- 沈載錫(2000b), 「遼代 高麗國王冊封의 構造와 展開」, 『外大史學』 12.
- 沈載錫(2002), 「고려시대 중국 제왕조에 의한 국왕책봉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安啓賢(1958), 「高麗初期의 對中關係-특히 佛教를 中心하여」, 『東國思想』 1, 東國大學校 佛教學會 哲學會.

안병우(2002),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安俊光(1994), 「宋·夏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39.

安俊光(1997), 「宋·夏 7年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44.

안치영(2008), 「중국의 민족문제 :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제2호 통권10호.

愛新覺羅烏拉熙春(2002), 「再論女眞語無二次長元音」, 『알타이학보』 제12호, 한국알타이학회.

吳紅葉(2009), 「중국 신장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족갈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은숙(1997), 「원간섭기 對元貿易」, 『지역과 역사』 4.

劉秉虎(2001), 「중국의 민족정책 및 소수민족문제 : 조선족과 몽골족의 비교연구」, 『民族發展研究』 5, 中央大學校 民族發展研究所.

俞垣濬(2008), 「宋金同盟과 馬擴의 역할」, 『東洋史學研究』 제105집, 東洋史學會.

이관수(1977), 「北方民族의 語文政策과 訓民正音」, 『1978 論文集』 1, 漢城大學校.

李根花(1987), 「高麗 太祖代 北方政策의 樹立과 그 成果」, 『樸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 慶熙大學校出版局.

李基白(1991), 「高麗 初期 五代와의 關係」, 『高麗光宗研究』, 一朝閣.

이동률(2007), 「중국의 변강 및 소수민족정책의 동북지역 함의」, 『中國學研究』 제42집, 中國學研究會.

李東馥(1984a), 「요말 여진사회의 구성 2 : 삼십부여진의 문제」, 『人文科學論集』 3, 淸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李東馥(1984b), 「遼末 女眞社會의 構成(I) : 黑水와 黑水말갈」, 『論文集』 17, 淸州大學校.

李東馥(1985a), 「金初 女眞社會의 構成 : 獨安謀克戶의 編成」,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李東馥(1985b), 「요말 여진사회의 구성(III) : 생여진사회의 성장」, 『淸大史林』 4·5, 淸州大學校 史學會.

李東潤(1979), 「12세기의 南海交通路論考」, 『全海宗記念史學論叢』.

李東潤(1982), 「宋代海上貿易의 諸問題」, 『東洋史學研究』 17.

李氏子(2003), 「中國 蒙古族의 漢族化 : 中國政府의 同化政策」, 『新亞細亞』 제10권 제2호 통권35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부설 신아세아연구소.

- 李範鶴(1992), 「蘇軾의 高麗排斥論과 그 背景」, 『韓國學論叢』 15.
- 李併島(1992), 「中國의 民族問題 연구」,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李錫炫(2004), 「宋代 不法의 隸屬民의 成立과 國家權力」, 『東洋史學研究』 제86집.
- 李錫炫(2005), 「宋 高麗의 外交交渉과 認識, 對應: 北宋末 南宋初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39집, 中國史學會.
- 李成珪(2003a),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 李成珪(2003b),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동북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2003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논문집).
- 이성호(2004), 「금초 이민족 통치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英茂(1959), 「北方民族考」,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龍範(1957), 「遼代 春遊考」, 『東國史學』 5.
- 李龍範(1973), 「高麗와 渤海」,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李龍範(1977),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李龍範(1958), 「契丹 貿易考」, 『東國史學』 6.
- 李龍範(1962), 「奇皇后의 冊立과 元代의 資政院」, 『歷史學報』 17·18합집.
- 李龍範(1964), 「元代 라마교의 高麗傳來」, 『佛敎學報』 2.
- 李源明(1989), 「高麗中期 北宋 性理學의 傳來와 性格考」, 『서울여대論文集』 18.
- 李益柱(1988), 「高麗 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 李益柱(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貞薰(2002), 「고려시대 支配體制의 변화와 中國律의 수용」, 『韓國史論』 33, 國史編纂委員會.
- 李貞熙(1997), 「고려전기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 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李種明(1968), 「高麗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白山學會.
- 이진영(1999),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亞太研究』 6,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 李泰鎭(1983), 「高麗末·朝鮮初의 社會變化」, 『震檀學報』 55.
- 李學智(1999), 「另一種女眞文字製字方法之試探(讀書割記之二)」, 『韓國傳統文化研究』 13,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韓國傳統文化研究所.
- 李鉉(1983), 「金代 女眞社會의 支配構造(上)」, 『加羅文化』 2.
- 이홍중·공봉진(2000), 「中國 華夷思想에서 ‘華夷’ 개념의 재해석」, 『世界地域研究論叢』 통권 제15호, 韓國世界地域學會.

- 李孝珩(1998), 「興遼國의 성립과 對高麗 구원 요청」, 『釜大史學』 22, 釜山大學校 史學會.
- 李孝珩(2002), 「발해 유민의 大渤海 건국과 고려와의 관계」, 『白山學報』 64, 白山學會.
- 李孝珩(2006),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 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 제19호, 선인.
- 林相先(1994), 「高麗와 渤海의 關係-高麗 太祖의 渤海意識을 中心으로」,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歷史學論叢』,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 歷史學論叢 刊行委員會.
- 林相先(2008),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제32집, 고구려발해학회.
- 臧健(2001), 「宋代 문헌 중의 高麗社會-宣和奉使高麗圖經을 例로」, 『梨花史學研究』 28, 梨花史學研究所.
- 장광수(2001), 「중국 민족정책의 전통과 연속성 : 민족인구이동정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寅成(1982), 「北宋士大夫의西夏觀과慶曆改革 : 範仲淹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0.
- 전병무(1993), 「고려 충혜왕의 상업활동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10.
- 全淳東(1989), 「明太祖의 禦制大誥에 대한 一考」, 『忠北史學』 2.
- 전인영(1994),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 全海宗(1973), 「對宋外交의 性格」, 『한국사 4-高麗貴族社會의 成立』, 국사편찬위원회.
- 全海宗(1979), 「고대 중국인의 한국관」, 『진단학보』 46·47합집.
- 全海宗(1984), 「朝鮮 前期 韓中關係의 몇 가지 특징적 문제」, 『東洋學』 14.
- 全海宗(1989), 「高麗와 宋과의 交流」, 『國史館論叢』 8, 國史編纂委員會.
- 鄭起燾·金容完(1986), 「高麗與金·宋의關係」, 『아시아문화』 창간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鄭修芽(1988), 「尹瓘勢力의 形成」, 『震檀學報』 66.
- 鄭修芽(1995), 「高麗中期 對宋外交의 再開와 그 意義-北宋 改革政治의 수용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1, 國史編纂委員會.
- 鄭修芽(1999), 「高麗中期 改革政治와 北宋新法의 受容」, 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鄭信峰(1996), 「高麗 成宗代의 對宋關係」, 『全州史學』 4, 全州史學會.
- 丁載勳(1995), 「唐初의 民族政策과 西北民族의 中國 認識 : 「기미支配體制」의 成立 過程과 關聯하여」,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19,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科.
- 鄭鍾復(1992), 「中國漢族起源說의 研究」, 『教育科學研究』 6, 淸州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 조병학(2002), 「입관전 후금의 몽골 및 만주족 통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趙仁成(1994), 「高麗 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認識」,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周采赫(1988), 「元萬卷堂의 設置와 高麗儒者」, 『孫寶基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周采赫(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國史館論叢』 8.

朱曉樂(2004), 「從女真人的興起看高麗外交政策的轉變」, 『亞細亞文化研究』 제8집, 暎園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崔柄憲(1991),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教交流」, 『震檀學報』, 震檀學會.

최우길(2005), 「중국의 민족문제 실태와 정책」, 『시대정신』 제29호, 시대정신.

韓圭哲(1984), 「高麗來投·來往契丹人-渤海遺民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47, 韓國史研究會.

韓圭哲(2009), 「渤海와 遊牧王朝의 交流」, 『고구려발해연구』 제34집, 고구려발해학회.

한영우(1983), 「고려도경에 나타난 서공의 한국사체제」, 『규장각』 7.

한일관계사학회 편(2008), 『東아시아의 領土와 民族問題』, 景仁文化社.

허평길(1997),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思想-中華思想(夷華觀)의 形成과 변화」, 『韓國民族文化』 10,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호중생 지, 최윤정 역(2005), 「宋代 이후 徽州 宗族의 확장과 영향: 안동종족과의 비교를 검하여」, 『안동학연구』 제4집, 한국국학진흥원·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휘대학 휘학연구중심.

홍성돈(2003), 「중국의 정치변화와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洪在玄(2003), 「唐 邊塞詩를 통해본 주변민족과의 關係」, 『中國人文科學』 제26호, 中國人文學會.

홍중출(1972), 「여송관계에 대한 편고」, 『論文集』 6, 목포해양고등전문대학.

黃鍾東(1968), 「女眞風俗考」, 『東西文化』 2, 啓明大學校 東西文化研究所.

김재홍(1961), 「1216~1219년 거란족의 침입과 그의 격멸」, 『력사과학』 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박영해(1966), 「거란 침입 이전 시기 고려의 대외정책」, 『력사과학』 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최희림(1983a), 「천리장성의 축성경위와 그 위치에 대하여」, 『력사과학』 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최희림(1983b), 「천리장성의 축성상 특징과 그 군사적 거점인 진성에 대하여」, 『력사과

나. 중국어

- 賈敬顏(1985),「女真及其相關的民族」,『歷史教學』10期.
- 賈敬顏(1986),「西夏學研究的回顧與展望」,『歷史研究』1.
- 賈敬顏(1987a),「“契丹”-漢人之別名」,『中央民族大學學報(哲社版)』5期.
- 賈敬顏(1987b),「王曾上契丹事疏證考」,『北方文物』1期.
- 賈大全(1987),「宋朝在四川峨民族政策」,『宋史研究論文集』.
- 賈大泉(1994),「釣魚城與南宋政權」,『中華文化論壇』2期.
- 賈玉英(2005),「宋遼交聘制度論略」,『中州學刊』6期.
- 賈玉英(2006),「有關宋遼交聘中泛使概念的幾點辨析」,『中國史研究』2期.
- 強文學·黃頌霞(2003),「宋夏戰爭中的鄉兵與堡寨」,『天水師範學院學報』6期.
- 康秀林(2001),「靈州與環州」,『固原師專學報』2期.
- 薑守鵬(1983),「唐代黑水靺鞨」,『社會科學戰線』4期.
- 江天健(1997),「北宋對於西北沿邊蕃部的政策」,『宋史研究論文集』26輯.
- 薑華昌(1988),「渤海上京龍泉府與唐長安城建築布局的比較」,『北方文物』2期.
- 琚林勇(1982),「雍熙北伐兵分幾路」,『晉陽學刊』5期.
- 景愛(1996),「契丹的起源與族屬」,『史學集刊』3期.
- 景兆璽(2003),「唐代的回紇與中外文化交流」,『西北二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啟循(1960),「北宋初期兩次出兵收復長城一帶的經過及戰爭經過怎樣? 兩次出兵的失敗對後來有何影響」,『歷史教學』3期.
- 顧宏義(1996),「宋朝與高麗佛教文化交流述略」,『西藏民族學院學報』3期.
- 顧吉辰(1985),「北宋前期黨項羌族帳考」,『史學集刊』3期.
- 顧吉辰(1986a),「北宋神哲徽三朝我國西北地區族帳考」,『西北民族學院學報』4期.
- 顧吉辰(1986b),「宋-夏交聘表」,『固原師專學報』3.
- 顧吉辰(1987),「徐兢和他的“宣和奉使高麗圖經”」,『東疆學刊』3期.
- 顧吉辰(1988),「宋夏慶曆議和考」,『寧夏社會科學』3期.
- 顧吉辰(1989),「宋人西夏著作考」,『天水師專學報』4.
- 顧吉辰(1990),「宋夏景德和約述論」,『寧夏社會科學』3期.
- 高文德(1979),「十至十三世紀初期蒙古畜牧業經濟的發展」,『文史哲』2期.
- 顧文璧(1964),「關於宋金戰爭的原因和性質-駁周穀城扶殺宋金戰爭的階級根源,歪曲戰爭性質為侵略者開脫罪責的謬論」,『歷史教學』2期.

- 高美玲(1988),「關於“澶淵之盟”的幾個問題」,『華南師範大學學報』1期。
- 高守成(2000),「試析唐太宗的民族政策」,『攀登』。
- 高玉林(1987),「宋軍幽州之戰失敗原因淺析」,『軍事史料』2期。
- 高人雄(2007a),「多民族文化交融促進了唐代文學繁榮」,『新疆社科論壇』2期。
- 高人雄(2007b),「唐代文學中的西北民族文化-唐代文學的多元文化探討」,『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高自厚(1982),「甘州回鶻與西夏」,『甘肅民族研究』3。
- 高自厚(1992),「五代以來西北民族文化交流的縮影-從“吐蕃已微弱,回鶻,黨項諸羌夷分侵其地,而無有其人民”談起」,『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顧全芳(1984),「評北宋雍熙北伐」,『中州學刊』2期。
- 顧全芳(1985),「評宋初的對遼政策」,『社會科學輯刊』5期。
- 古清堯(1983a),「道宗諱名與遼宋關係」,『民族研究』4期。
- 古清堯(1983b),「道教諱與遼宋關係」,『民族研究』4期。
- 高學欽(2008),「五代時期十國與中原王朝的關係特征分析」,『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8期。
- 顧頡剛(1980),「從古籍中探索我國的西部民族:羌族」,『社會科學戰線』1。
- 龔延明(1984),「宋代“天文院”考」,『杭州大學學報』2期。
- 龔延明(1999),「唐宋官制對高麗前期王朝官制之影響」,『中國史研究』3期。
- 龔蔭(2004),「唐代邊疆民族地區設置輯考」,『西北民族大學學報』3期。
- 龔煌城(1981),「12世紀末漢語的西北方音(聲母部分)」,『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52-1。
- 龔煌城(1982),「西夏語中的漢語借詞」,『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52-4。
- 龔煌城(1984),「西夏文字衍生過程的重建」,『國立政治大學邊政研究所年報』15。
- 龔煌城(1986),「西夏文的意符和聲符及其衍生過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57-4。
- 戈萬章(2003),「解讀民族融合高潮,把握封建經濟發展-高中《中國古代史》教學輔導之五:五代,遼,宋,夏,金,元」,『中學歷史教學』10期。
- 郭琳(1999),「淺談韓琦的對夏策略」,『安徽師範大學學報』1。
- 郭文佳(2000),「論韓琦在禦夏戰爭中貢獻」,『信陽師範學院學報』2。
- 霍升平·胡迅雷·李大同(1986),「西夏諺語初探」,『寧夏大學學報』3。
- 霍升平(1988),「論北宋與西夏的貿易」,『中學學刊』1期。
- 霍升平(1993),「論熙河之役」,『固原師專學報』3期。
- 霍然(2002),「論北朝民族大融合對唐代文化的影響」,『新疆大學學報(社會科學版)』1期。
- 霍然(2008a),「論北朝西部民族大融合與中唐美學思想的深入」,『西域研究』1期。

- 霍然(2008b),「論北朝西部民族大融合與晚唐美學思想的回潮」,『西域研究』4期。
- 郭正忠(1982),「歐陽修與宋遼關係」,『社會科學輯刊』2期。
- 郭正忠(1995),「青白鹽使與青白鹽刑律—鍵論夏宋青白鹽貿易」,『寧夏社會科學』2期。
- 郭正忠(2000),「恥堂奏割與蒙攻雲南:兼涉晚宋一項歲收年代的考辨」,『中國史研究』1期。
- 郭燦江(1997),「李世民與唐代羈縻府州制度」,『湘潭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期。
- 霍春英(1990),「中國釣魚城暨南宋後期歷史國際學術討論會概述」,『天府新論』1期。
- 郭弘(2000),「詩評唐蕃戰爭中的河隴形勢」,『歷史研究』5期。
- 郭洪敏(2005),「論熙寧變法和宋遼劃界」,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管彥波(1996),「中國民族地理分布及其特點」,『民族論壇』3期。
- 管彥波(2001),「中國古代史上的民族融合問題(上)」,『歷史教學』8期。
- 管彥波(2006),「唐朝與邊疆民族政治關係的兩種主要途徑:冊封和親」,『黑龍江民族叢刊』2期。
- 管彥波(2007),「論唐代中原與邊疆地區多層面的文化交流」,『貴州民族研究』4期。
- 關漢華(1986),「宋元崖山之戰」,『歷史大觀園』4期。
- 匡裕徹(1984),「淺析宋元襄樊戰役勝敗的原因」,『歷史教學』4期。
- 匡裕徹(1987),「宋元戰爭中幾個地名的考證」,『江漢論壇』3期。
- 匡裕徹(1988),「蒙元軍子啊宋元戰爭中的戰略變化」,『黑龍江民族叢刊』1期。
- 喬衍琯(1968),「宋西事案」,『國立中央圖書館館刊』新1卷,3·4期。
- 求實(1980),「論所謂復制宋本西夏地圖問題」,『西北歷史資料』1。
- 勾利軍(2008),「唐代文化的開放與多元發展」,『河北學刊』3期。
- 瞿林東(2008),「論魏晉隋唐間的少數民族史學(上)」,『河北學刊』3期。
- 歐陽蔓蓓(2005),「從唐代的三教並存看民族融合發展的軌跡」,『中山大學學報論叢』5期。
- 歐陽敏(2000),「唐代邊塞戰爭與邊塞詩」,『十堰職業技術學院學報』3期。
- 屈超立(1986),「簡析宋蒙鄂州之戰與鄂州和議」,『西南民族學院學報』。
- 靳潤成(1990),「五代十國國號與地域的關係」,『歷史教學』5期。
- 靳華(1990),「宋、金榷場貿易的特點」,『花中師範大學學報』4期。
- 金毓黻(1976),『東北通史』,臺北:洪氏出版社。
- 金殿士(1984),「試論遼太祖耶律阿保機經略遼東」,『沈陽師範學院社會科學學報』1期。
- 祁慶福(1995),「宋代奉使高麗考」,『中國史研究』2期。
- 祁慶福(1997),「關於宋乾道本“宣和奉使高麗圖經”的幾個問題」,『中國文化研究』3期。
- 紀楠楠(2006),「論遼代幽雲十六州的漢人問題」,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吉家友(2000),「貿易交往在宋夏關係中的調節作用」,『鄭州輕工業學院學報』3期。
- 金寶祥(1959),「西夏的建國和封建化」,『甘肅師範大學歷史教學與研究』5。

- 金石(1981),「重評澶淵之盟」,『民族研究』2期.
- 金昌林(1990),「試論唐太宗對民族問題的處理」,『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期.
- 那木雲(1980),「關於十一~十三世紀蒙古族社會性質」,『內蒙古社會科學』2期.
- 羅煜(2007),「北宋與西夏關係史中的宦官群體淺析」,『湖南一師範學報』3期.
- 羅賢佑(1989),「元代蒙古族人南遷活動述略」,『民族研究』4期.
- 駱安生(2002),「龔用卿“使朝鮮錄”的史料價值」,『東南學術』3期.
- 寧欣(2008),「唐代對外開放與經濟繁榮」,『河北學刊』3期.
- 魯人勇(1982),「北宋三軍城故址考」,『寧夏大學學報』3期.
- 魯人勇(1990),「固原地區北宋五城寨遺址考」,『固原師專學報』1期.
- 魯人勇(2003),「西夏的疆域和邊界」,『寧夏大學學報』1期.
- 雷家宏(1989),「遼太祖耶律阿保機對民族融合的貢獻」,『華中師範大學學報』5期.
- 雷學華(2007),「論唐代北方和西北方諸族在促進祖國統一與發展中的貢獻」,『中南民族大學學報』6期.
- 單樹海(1994),「論遼宋對峙格局的形成及其歷史意義」,『昭烏達蒙族師專學報』4期.
- 章彩雲(1989),「歷代王朝對峙廣西小數民族的政策及基歷史作用」,『廣西民族研究』4期.
- 唐嘉弘(1955),「關於西夏拓跋氏族屬問題」,『四川大學學報』2.
- 唐啓淮(1982),「試論唐代的羈縻府州」,『湘潭大學社會科學學報』4期.
- 唐兆梅(1986),「讀『評北宋雍熙北伐』以後—與顧全芳先生商榷」,『中州學刊』1期.
- 唐兆梅(1988),「北宋和契丹競尊炎黃爲始祖析」,『中州今古』5期.
- 戴顯群(2006),「五代十國割據形態的特征及其對統一進程的影響」,『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期.
- 陶玉坤(1998),「遼宋和盟狀態下的新對抗:關於遼宋間諜戰略分析」,『黑龍江民族叢刊』1期.
- 陶玉坤(1999),「宋遼對峙中的使節往還」,『內蒙古大學學報』2期.
- 陶玉坤(2000),「遼宋和盟狀態下的政治對抗」,『內蒙古大學學報』增刊.
- 陶玉坤(2003),「北宋對契丹歸明人的政策」,『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6期.
- 陶玉坤(2008),「北宋對契丹歸明人的安置」,『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4期.
- 陶晉生(1970),「完顏昌與金初的中原政策」,『幼獅學志』3期.
- 陶晉生(1972),「餘靖與宋遼夏外交」,『食貨月刊』10期.
- 陶晉生(1975),「北宋慶曆改革前後的外交政策」,『史語所集刊』.
- 陶晉生(1976),「宋遼間的平等外交關係」,『沈剛伯先生八秩榮慶論文集』.
- 陶晉生(1979a),「王安石的對遼外交政策」,『史語所集刊』.
- 陶晉生(1979b),「從宋詩看宋遼關係」,『陶希聖先生八秩榮慶論文集』.

- 陶晉生(1983a),「宋遼關係的歷史背景」,『食貨月刊』3·4期。
- 陶晉生(1983b),『宋遼關係史研究』,聯經出版事業公司。
- 陶晉生(1988),「雄州與宋遼關係」,『國際宋史研討會論文集』。
- 都興智(2004),「唐末遼東南部地區行政歸屬問題試探」,『遼寧師範大學學報』1期。
- 全建平(2005),「再談宋遼“澶淵之盟”」,『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5期。
- 董尚禮(2003),「從遼與回鶻的關係看草原絲路及其貿易貨幣」,『內蒙古金融研究』2期。
- 董亞亞(2006),「韓琦與宋夏戰爭三題述論」,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杜建錄(1984),「試論仁宗年間宋夏戰爭性質及影響」,『固原師專學報』3期。
- 杜建錄(1987),「宋夏青白鹽問題」,『固原師專科學』1期。
- 杜建錄(1988),「宋夏商業貿易初探」,『寧夏社會科學』3期。
- 杜建錄(1989),「宋夏保安軍樞場位置考」,『青海民族學院學報』4期。
- 杜建錄(1990a),「論宋夏對峙與沿邊蕃部」,『固原師專學報』3期。
- 杜建錄(1990b),「宋夏對峙以沿邊蕃部」,『固原師專學報』3期。
- 杜建錄(1991),「宋夏對峙與保安軍」,『固原師專學報』1期。
- 杜建錄(1993),「西夏沿邊堡寨述論」,『寧夏社會科學』5期。
- 杜建錄(1995),「論西夏建國前與北宋的關係」,『寧夏大學學報』2期。
- 杜建錄(1996),「論西夏與周邊民族關係及特點」,『民族研究』2。
- 杜光簡(1942),「宋遼初期對抗形勢」,『學思』11期。
- 杜林淵(2002),「從出土墓志談唐與吐穀渾的和親關係」,『考古』8期。
- 杜林淵·張小兵(2008),「陝北宋代堡寨分布的特點」,『延安大學學報』3期。
- 杜文玉(2003),「五代十國封爵制度初探」,『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4期。
- 杜文玉(2006),「五代十國時期商業貿易的特點及其局限性」,『中國歷史地理論叢』3期。
- 杜文玉(2008),「唐代社會開放的特點與歷史局限」,『河北學刊』3期。
- 杜成安(1990),「評宋太宗雍熙北伐的戰略意圖」,『撫順師專學報』2期。
- 杜成安(1991),「雍熙北伐時宋軍兵力部署探微」,『撫順師專學報』1期。
- 騰明傑(1988),「試論靈州棄守之爭」,『山東師範大學學報』6期。
- 鄧小南(2005),「論五代宋初“胡/漢”語境的消解」,『文史哲』5期。
- 滕新才(1993),「宋末萬州天生城抗元保衛戰」,『四川文物』1期。
- 羅康隆(1999),「唐宋時期西南少數民族羈縻制度述評」,『懷化師專學報』1期。
- 羅矛昆(1981),「李繼遷攻取靈州對西夏建國的作用」,『寧夏社會科學』3。
- 羅福成(1933),「金光明經懺悔滅罪記」,『國立北平圖書館館刊』4-3。
- 羅福頤(1981),「西夏護國寺感應塔碑介紹」,『文物』4·5。

- 羅紹煙(1983),「藏漢合璧『聖勝慧到彼岸功德寶集』考略」,『世界宗教研究』4。
- 羅朝霞(2000),「澶淵之盟之性質辯」,『貴陽師專學報』1期。
- 羅豐(1998),「五代,宋初靈州以絲綢之路」,『西北民族研究』1期。
- 羅香林(1974),「宋代南雄珠璣巷與民族遷徙至關系」,『華岡學報』8期。
- 羅煌(1936),「關於宋遼高粱河之戰」,『天津益世報讀書周刊』。
- 梁庚堯(1987),「邊糧運輸問題與北宋期間對夏政策的轉折」,『食貨月刊』,7·8期。
- 梁庚堯(1992),「南宋對金的歲幣外交」,『歷史月刊』56期。
- 梁庚堯(1995),「宋神宗時代西北邊疆的籌措」,『宋史研究論文集』22輯。
- 梁勇(1992),「歐陽修和沈括奉使河北考議」,『河北地方志』11期。
- 黎羌(2009),「唐五代詞中的胡風與絲綢之路民族詩歌的交流」,『民族文學研究』2期。
- 呂建中(2007),「唐與吐穀渾的三次和親」,『中國土族』3期。
- 呂光天(1984),「隋唐時期北方民族與中原的關係」,『寧夏社會科學』4期。
- 黎邦正(1990),「重慶在南宋抗蒙(元)的鬭爭中的戰略地位」,『西南師大學報』3期。
- 呂卓民(1989a),「論宋夏在陝北的爭鬥」,『西北大學學報』4期。
- 呂卓民(1989b),「永樂築成與永樂之戰」,『寧夏社會科學』3期。
- 呂卓民(1991),「試論李繼遷合夏取靈與西夏建國的關係」,『寧夏大學學報』3。
- 蘆敏(2007),「從文化角度看北宋和高麗的關係—兼與遼、麗關係作比較」,『南洋問題研究』2期。
- 魯人勇(1984),「宋夏好水川之戰的進軍路線與地名考釋」,『固原師院學報』1期。
- 隴夫(1991),「試論宋·夏與吐蕃關係的幾個問題」,『甘肅民族研究』4。
- 雷家宏(1989),「遼太祖耶律阿保機對民族融合的貢獻」,『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5期。
- 雷學華(1998),「論唐蕃和親的原因與歷史意義」,『廣西民族研究』1期。
- 廖隆盛(1976),「宋夏關係中的青白鹽問題」,『食貨月刊』10期。
- 廖隆盛(1981a),「北宋對西夏的和市馭邊政策」,『大陸雜誌』4期。
- 廖隆盛(1981b),「北宋與遼夏邊境的走私貿易問題(上·下)」,『食貨月刊』12期。
- 廖隆盛(1995),「宋代的聯夷外交與國運」,『高中歷史教學與研究』1輯。
- 廖隆盛(1999),「從傳統中原政權的華夏意識看北宋對遼夏的和戰策略得失」,『認識中國史學術論文集』。
- 廖隆盛(2000),「德明時期(1004~1032)宋夏關係析論」,『臺灣師大歷史學報』28期。
- 樓桐孫(1936),「一件國難外交的史實」,『東方雜誌』4期。
- 劉建麗·湯開建(1986),「夏金關係述評」,『西北師院學報』2。
- 劉建麗(1989),「兩宋時期儒學在少數民族中的傳播與發展」,『西北師範大學學報』6。
- 劉建麗(1991),「甘州回鶻·涼州吐蕃對河西走廊的經營」,『西北師範大學學報』,1991年增刊。

- 劉建麗(1996),「宋夏戰爭中的秦州吐蕃」,『寧夏社會科學』4.
- 劉建麗(2000a),「略論儒家對西夏黨項的影響」,『西北師大學報』3期.
- 劉建麗(2000b),「論儒學對西夏社會的影響」,『西北師範大學學報』3.
- 劉建麗(2001),「唐代吐蕃的民族統治與民族融合」,『甘肅社會科學』3期.
- 劉建麗(2002),「夏金使臣交聘述論」,『國家圖書館學刊』,2002年增刊『西夏研究專號』.
- 劉建麗(2004a),「20世紀西夏與周邊民族關係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劉建麗(2004b),「宋代西北少數民族百年研究綜述」,『甘肅社會科學』5期.
- 劉建麗(2007),「兩宋時期西北少數民族政權特色述論」,『西域研究』3期.
- 劉建麗(2009),「兩宋時期西北少數民族科學技術的發展」,『寧夏師範學院學報』2期.
- 劉潔(2005),「從唐代邊塞詩看唐蕃關係的發展變化-唐代邊塞詩系列研究之三」,『甘肅廣播電視大學學報』1.
- 劉潔(2008),「從唐詩和藏族文獻歌謠看唐蕃聯姻的影響及意義」,『西北民族研究』3期.
- 劉孔伏(1987),「論澶淵之盟的性質及有關的幾個問題」,『麗水師專學報』2期.
- 劉孔伏(1991),「再論澶淵之盟的性質及有關的幾個問題」,『漢中師院學報』3期.
- 劉莉(2006),「略論漢唐“和親”的特點與影響」,『深圳職業技術學院學報』3期.
- 柳立信(1990),「宋遼澶淵之盟新探」,『史語所集刊』.
- 柳立信(1992),「和平的代價宋遼澶淵之盟」,『歷史月刊』56期.
- 劉美崧(1981),「唐代真公主與回紇的和親」,『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劉復生(2001),「五代十國政權與西南少數民族的關係」,『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劉安志(1993),「唐五代歸義軍政權述評」,『貴州文史叢刊』6期.
- 劉安志(2007),「唐初西州的人口遷移」,『中華文史論叢』3期.
- 劉陽(2007),「多民族融合對唐代體育文化發展的影響」,『長春師範學院學報』12期.
- 劉玉峰(1993),「唐德宗與中唐民族關係的改善」,『雲南社會科學』3期.
- 劉玉峰(1999),「試論唐代民族貿易的管理」,『山東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
- 劉玉珍(2008),「淺析唐對突厥政策問題」,『職業時空』5期.
- 劉子健(1964),「討論“北宋大臣通契丹語”的問題」,『大陸雜誌』12期.
- 劉子健(1986),「宋金間叛臣反覆的記載」,『大陸雜誌』3期.
- 劉占武(1983),「『唐朝的民族關係』一節教材的有關史實」,『歷史教學』11期.
- 劉振志(1997),「北宋時期的西北區域強權西夏」,『歷史月刊』119期.
- 劉興全(1989),「宋夏外交政策論-西夏外交研究之一」,『寧夏社會科學』4期.
- 劉興全(1998),「夏宋通使制度考述」,『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 陸慶夫(1991),「隋唐五代西北民族史研究概述(之一)」,『西北民族研究』2期.

- 陸慶夫(1992),「隋唐五代西北民族史研究概述(續)」,『西北民族研究』2期。
- 陸慶夫(1998),「歸義軍與遼及甘州回鶻關係考」,『蘭州大學學報』3期。
- 陸慶夫(2008),「唐蕃和親與漢藏文化圈的形成」,『人民論壇』8期。
- 陸寧(2004),「論五代黨項周邊地緣關係」,『西北二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凌受勳(1992),「宋代戎(敘)州的民族貿易市場」,『巴蜀史志』6期。
- 凌受勳(1999),「論宋夏戰爭」,『河北學刊』2期。
- 林文勳(1993),「宋代食鹽與周邊民族關係」,『雲南民族學院學報』2。
- 林瑞翰(1970a),「北宋之邊防」,『臺灣大學文史哲學報』19期。
- 林瑞翰(1970b),「南宋之邊防」,『臺灣大學文史哲學報』19期。
- 林樹山(1991),「唐朝對渤海國實行的民族自治政策」,『黑河學刊』4期。
- 林榮貴(1987),「遼聖宗實行善宋政策及其歷史作用」,『民族史論叢』1期。
- 林榮貴(1998),「北宋與遼並立時期的疆域格局」,『中國邊疆史地研究』3。
- 林榮貴(1999),「五代十國的轄區設治與軍事戍防」,『中國邊疆史地研究』4期。
- 林英津·安可思(1992),「類林'西夏譯本之研究」,『大陸雜誌』84-5。
- 林英津(1994),「夏譯孫子兵法研究」,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之 28。
- 林超民(1985),「鞏慶府州與唐代民族關係」,『思想戰線』5期。
- 林超民(1986),「唐前期雲南鞏慶州縣述略」,『雲南社會科學』4期。
- 馬建軍(1993),「隋唐時徙居固原的民族」,『固原師專學報』3期。
- 馬力(1988),「宋哲宗親政時對西夏的開邊和元符新邊界的確立」,『宋史研究論文集』。
- 馬雪芹(2002),「魏晉南北朝的民族融合與隋唐盛世的形成」,『徐州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馬淑琴(1989),「西夏與北宋的青白鹽貿易」,『寧夏社會科學』2期。
- 馬雅倫·鄭炳林(1998),「關於西夏文'相面圖'的研究」,『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馬俊民(1983),「論唐代馬政與邊防的關係」,『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4期。
- 馬志強(1997),「略論西京大同在遼宋貿易中的地位」,『昭烏達蒙族師專學報』3期。
- 馬馳(1981),「試論唐太宗的民族政策」,『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馬馳(1997),「唐代鞏慶府州與中央關係初探」,『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
- 馬赫(1987),「遼代文化與“華夷同風”」,『民族研究』3期。
- 馬曉麗(1999a),「安史之亂時期民族關係探討」,『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馬曉麗(1999b),「安史之亂時期的民族關係述論」,『煙臺大學學報』4期。
- 馬曉麗(2005),「唐玄宗多事四夷思想初探」,『齊魯學刊』。

- 馬曉麗(2008),『隋唐時期民族關係思想相關著作及作者述評』,『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馬曉麗(2009),『回紇民族關係思想初探』,『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馬希榮(1999),『西夏漢字處理及電子字典(光盤版)』,清華大學出版社。
- 萬齊洲(1998),『三朝北盟會編』中所見的北遼及其與宋金的關係,『荊門職業技術學院學報』2期。
- 孟楠(1998),『論克烈人與西夏的關係』,『內蒙古社會科學』3。
- 蒙古托力(1990),『宋遼“南北朝”說考論』,『學習與探索』3期。
- 蒙古托力(1998),『遼代東北亞各族關係述論』,『黑龍江社會科學』4期。
- 孟廣耀(1984),『蕭太后考評—兼論澶淵之盟』,『內蒙古師大學報』4期。
- 孟廣耀(1990),『試論遼代漢族儒士的“華夷之辨”觀念』,『北方文物』4期。
- 孟憲實(2008),『盛唐的中外文化交融奇觀』,『傳承』19期。
- 毛英萍(1991),『宋遼對峙時期經濟文化的聯系及影響』,『沈陽教育學院學報』2期。
- 木塞(1987),『綏德李夫人墓志與宋夏延安之戰』,『考古與文物』4期。
- 穆鴻利(1999),『試論西夏黨項文化傳統及其與周邊各族文化的交流』,『寧夏大學學報』2。
- 苗拔(1992),『試論遼王朝的外交政策』,『紹興達蒙族師專學報』1期。
- 武玉環(1993),『契丹族的再生儀芻議』,『史學集刊』2期。
- 武玉環(1998),『論契丹民族華夷同風的社會觀』,『史學集刊』1期。
- 文婷(2007),『身陷蠻域的鄭回與破落蕃地的王錫—試比較南詔和吐蕃與唐之關係』,『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5期。
- 文華·楊冬梅(2008),『唐代西域“胡旋舞”與“胡騰舞”在蒙古族薩滿舞蹈中的傳承』,『民族教育研究』3期。
- 米壽祺(1988),『宋夏對峙時期的天都地區』,『西北師大學報』4期。
- 樸今海(1998),『試述中世紀高麗與遼,宋之間的關係』,『延邊大學學報』4期。
- 房建昌(1984),『流傳在日本的“西夏志略”』,『寧夏社會科學』2。
- 方廣鎔(2000),『寧夏西夏方塔出土漢文佛典敘錄』,『藏外佛教文獻』7,宗教文化出版社。
- 方良(2000),『宋真宗和遼國策評議』,『蘇州鐵道師院學報』1期。
- 方衍(1992),『金朝之民族關係』,『黑龍江民族叢刊』2期。
- 方駿(1987),『宋元時期的海外華人』,『南京大學研究生學報』4期。
- 方鐵(2003),『南詔,吐蕃與唐朝三者間的關係』,『中國藏學』3期。
- 方豪(1954),『論宋代之軍隊』,『民主評論』1期。
- 方豪(1956),『宋代戰史』,『中國戰史論集』。
- 白濱(1983),『宋西事案考』,『西北民族文叢』3。

- 白濱(1985),『西夏志略』考,『民族研究』4.
- 白濱(1996),『西夏雕版印刷初探』,『文獻』4.
- 白濱(1999),『俄藏黑水城文獻漢文部分述要』,『宋史研究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白濱(2004),『20世紀西夏文獻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白堅(1982),『實事求是地評價唐代民族戰爭和邊塞詩』,『甘肅社會科學』3期.
- 白壽彝(1991),『關於統一的多民族國家的幾點體會』,『史學史研究』2期.
- 白讓(1937),『十三世紀時蒙古人的風俗(上·下)』,『北平華北日報史學周刊』.
- 樊光春(2000),『蒙古軍攻占京兆時間考』,『陝西史志』1期.
- 樊文禮(2004),『“華夷之辨”與唐末五代士人的華夷觀—士人群體對沙陀政權的認同』,『煙臺師範學院學報』3期.
- 範家全·吳曉萍(2008),『兩宋與遼金外交之比較』,『安徽師範大學學報』3期.
- 範壽琨(1986),『金代東北的漢人』,『社會科學戰線』2期.
- 範壽勇(2004),『唐蕃石堡城戰役的緣起及後果』,『絲綢之路』2期.
- 卡孝萱(1957),『五代十國的階級鬥爭』,『文史哲』12期.
- 寶林(1998),『契丹古代史論稿』,黃山書社.
- 傅斯年(1940),『宋遼外交文書考』,『北大四十周年紀念刊乙編(下)』.
- 傅樂煥(1984),『遼史叢考』,中華書局.
- 傅樂煥(1936),『宋人使遼語錄程考』,『國學季刊』4期.
- 傅樂煥(1949),『宋遼聘使表稿』,『史語所集刊』,14本.
- 傅樂煥(1973),『宋人使遼語錄』行程考,『遼史論叢初編』.
- 傅樂煥(1984),『關於宋遼高粱河之戰』,『遼史叢考』.
- 付永聚(1992),『論唐代胡漢民族之間的混融互補』,『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傅永聚(1993),『唐代民族觀念新論』,『齊魯學刊』4期.
- 傅宗文(1982),『釣魚城之戰淺論』,『廈門大學學報』2期.
- 符海朝(2007),『城池修築與宋遼外交』,『殷都學刊』4期.
- 謝國先(2009),『唐末至宋代的飛山蠻及其首領』,『懷化學院學報』1期.
- 余貴孝(1990),『唐與突厥、吐蕃對峙時期的固原』,『固原師專學報』3期.
- 史金波·中島幹起·大塚秀明·今井健二·高橋まり(2000),『電腦處理文海寶韻研究』,日本國立亞非語言文化研究所.
- 史金波·黃潤華(1985),『北京圖書館藏西夏文佛經整理記』,『文獻』4.
- 史金波(1979),『西夏譯經圖解』,『文獻』1.
- 史金波(1981),『西夏文“過去莊嚴劫千佛名經”發願文譯證』,『世界宗教研究』1.

- 史金波(1982),「西夏語中的漢語借詞」,『中央民族學院學報』4.
- 史金波(1983),「西夏文金光明最勝王經序跋考」,『世界宗教研究』3.
- 史金波(1989a),「西夏漢文本『雜字』研究」,『中國民族史研究②』,中央民族學院出版社.
- 史金波(1989b),「評宋太祖對遼政策」,『華東師大研究生報』4期.
- 史金波(1991),「試論中國歷史上的民族政策」,『思想戰線』4期.
- 史金波(1992),「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天津古籍出版社.
- 史金波(1993a),「西夏境內民族考」,『慶祝王鍾翰先生80壽辰學術論文集』,遼寧大學出版社.
- 史金波(1993b),「西夏文六祖壇經殘頁譯釋」,『世界宗教研究』3.
- 史金波(2009),「宋元時期少數民族文字文獻出版特點」,『出版發行研究』7期.
- 沙納(1994),「鐵,貿易和開發」,『博物館研究』4期.
- 謝魯(1939),「兩宋三百年間的和戰問題」,『中國公論』3期.
- 史衛民(1981),「黨項族拓拔部的遷移及其與唐、五代諸王朝的關係」,『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1期.
- 沙人(1985),「宋夏關係略論—文引用史料上的問題」,『民族研究』5期.
- 山根直生(2004),「唐朝軍政統治的終局與五代十國割據的開端」,『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期.
- 常霞青(1988),「論唐帝國與吐蕃的文化交流」,『史林』4期.
- 徐莊(1981),「試論李繼遷的歷史作用」,『寧夏大學學報』4.
- 徐傑舜·羅樹傑(1993),「宋遼夏金民族政策特點管見」,『黑龍江民族叢刊』3期.
- 徐傑舜(1992),「隋唐民族政策特點概論」,『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期.
- 徐傑舜(1993),「宋遼夏金民族政策特點管見」,『黑龍江民族叢刊』3期.
- 徐傑舜(1998),「唐文化的民族學解讀」,『西北民族研究』2期.
- 徐傑舜(2005),「宋遼西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黑龍江民族叢刊』6期.
- 徐娜(1994),「談北宋兩首契丹語詩」,『撫州師專學報』4期.
- 徐黎麗(1998),「蒙古興起前中國民族發展趨勢」,『蘭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 徐萬平(1996),「唐人邊塞詩中的民族精神」,『內江師範學院學報』1期.
- 舒文(1991),「忽必烈平定南宋新論」,『內蒙古大學學報』1期.
- 舒焚(1984),『遼史稿』,湖北人民出版社.
- 舒焚(1985),「東丹王耶律倍」,『湖北大學學報』2期.
- 徐玉虎(1955),「宋金海上聯盟的概觀」,『大陸雜誌』12期.
- 徐庭雲(1987),「晚唐五代時期的沙陀」,『中央民族學院學報』1期.
- 徐庭雲(1988),「一位有貢獻的沙陀政治家—論後唐明宗」,『中央民族學院學報』1期.

- 徐庭雲(1993),「內遷中原前的沙陀及其族源」,『中央民族學院學報』6期。
- 徐超(2009),「淺析深受民族融合影響的唐代女俠形象」,『中國科教創新導刊』4期。
- 徐紅軍(1994),「論遼宋戰爭的性質」,『北京社會科學』1期。
- 徐曉麗(2002),「晚唐五代敦煌吐穀渾與吐蕃移民婦女研究」,『敦煌學輯刊』2期。
- 徐曉麗·鄭炳林(2002),「晚唐五代敦煌吐穀渾與吐蕃移民婦女研究」,『敦煌學輯刊』2期。
- 石德生(1996),「淺論唐渾關係與唐代的羈縻州府制」,『青海民族研究』4期。
- 石冬梅(2006),「唐前期的東夷都護府」,『青海社會科學』1期。
- 石麗芳(2009),「唐宋時期華南少數民族文學特點及影響」,『大眾文藝(理論)』5期。
- 薛立東(1987),「淺談“澶淵之盟”締結的原因」,『昭烏達蒙族師專學報』1期。
- 薛玉樹(1993),「宋元戰爭中四川的宋軍山城及其現狀」,『四川文物』1期。
- 薛政超(2005),「宋初對外遣使及使者素質研究」,『貴州社會科學』1期。
- 薛政超(2009),「唐宋時期湖南的少數民族移民及其影響」,『邵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2期。
- 薛平控(1994),「論唐代的胡商」,『唐都學刊』3期。
- 聶崇岐(1935),「元以前亞洲民族侵入歐洲考」,『地學雜誌』3·4期。
- 聶崇岐(1940),「宋遼交聘考」,『燕京學報』2期。
- 聶崇岐(1973),「宋遼交聘考」,『遼史論叢初編』。
- 聶鴻音·史金波(1995),「西夏文本“碎金”研究」,『寧夏大學學報』2。
- 聶鴻音(1989),「西夏史料簡說」,『文史知識』4。
- 聶鴻音(1990a),「戴錫章的『西夏紀凡例』未刊稿」,『寧夏社會科學』1。
- 聶鴻音(1990b),「補『西夏藝文志』」,『古籍整理研究學刊』6。
- 聶鴻音(1990c),「西夏文“新修太學歌”考釋」,『寧夏社會科學』3。
- 聶鴻音(1990d),「西夏文“夏聖根贊歌”考釋」,『民族古籍』1。
- 聶鴻音(1992a),「西夏譯孫子傳」考釋,『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天津古籍出版社。
- 聶鴻音(1992b),「西夏譯本“論語全解”考釋」,『西夏文史論叢』,寧夏人民出版社。
- 聶鴻音(1995),「西夏詞源學淺議」,『民族語文』5。
- 聶鴻音(1996),「六韜的西夏文譯本」,『傳統文化與現代化』5。
- 聶鴻音(1997a),「貞觀政要的西夏文譯本」,『固原師專學報』1。
- 聶鴻音(1997b),「西夏文“孟子傳”研究」,『國學研究』4。
- 聶鴻音(1998),「西夏天盛律令成書年代辨析」,『尋根』6。
- 聶鴻音(1999a),「西夏文“新集慈孝傳”釋讀」,『寧夏大學學報』2。
- 聶鴻音(1999b),「西夏文學史料說略」,『文史』4。
- 聶鴻音(1999c),「西夏文學史料說略(上·下)」,『文史』3,中華書局。

- 聶鴻音(2000a),「西夏文‘天下共樂歌’·‘勸世歌’考釋」,『寧夏社會科學』3.
- 聶鴻音(2000b),「關於黑水城的兩件西夏文書」,『中華文史論叢』63.
- 聶鴻音(2002),「西夏佛教術語的來源」,『固原師專學報』2.
- 聶鴻音(2004),「20世紀西夏文字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成常福(1988),「遼驛道-宋遼通好的紐帶」,『百科知識』4期.
- 蕭光軍(1991),「宋蒙(元)襄樊之戰」,『社科研究』1·2期.
- 邵文實(1992),「唐代後期河西地區的民族遷徙及其後果」,『敦煌學輯刊』1期.
- 蘇榮(1984),「遼史高麗傳校勘二則」,『社會科學輯刊』5期.
- 蘇雄娟(2000),「隋唐五代時期的回紇」,『雲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5期.
- 蕭華忠(1991),「關於澶淵之盟簽訂的原因的商兌」,『江西師大學報』3期.
- 蕭華忠(1999),「簽訂澶淵之盟原因新說」,『晉陽學刊』1期.
- 孫家驊(1989),「試論王韶出使熙河」,『上海師大學報』1期.
- 孫建民·顧宏義(1996),「熙豐時期“東聯高麗”戰略研究」,『齊魯學刊』6期.
- 孫建民(1989),「燕雲十六州與宋初遼的軍事策略」,『河北學刊』4期.
- 孫建民(1997),「宋朝與高麗“朝貢貿易”考論」,『河南大學學報』2期.
- 孫宏開·聶鴻音(2004),「20世紀西夏語言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孫宏開(1983),「6江流域的民族語言及其譜系分類」,『民族學報』.
- 孫宏開(1996),「西夏語鼻冠音聲母構擬中的幾個問題-從掌中珠漢字注音談起」,『民族語文』4.
- 孫克寬(1962),「元王楙使宋事補」,『大陸雜誌』6期.
- 孫克寬(1974),「元初南宋遺民初述-不和蒙古人合作的南方儒士」,『東海』15期.
- 孫紹華(1979),「旅順鴻臚井題記刻石-唐與渤海關係的信物」,『社會科學輯刊』4期.
- 孫修身(1990a),「五代時期甘州回鶻可汗世系考」,『敦煌研究』3期.
- 孫修身(1990b),「五代時期甘州回鶻和中原王朝的交通」,『敦煌研究』1期.
- 孫業耀(1997),「論李全降蒙的原因」,『安徽史學』4期.
- 孫玉良(1983),「唐朝對渤海的經營與管轄」,『北方文物』4期.
- 孫玉良(1986),「唐朝在東北民族地區設置的府州」,『社會科學戰線』3期.
- 孫靜(2007),「試論漢唐時期北方游牧民族交換經濟之根源」,『大連民族學院學報』6期.
- 孫進已(1991),「關於高麗錢幣的幾個問題」,『中國錢幣』3期.
- 孫彩紅(1998),「唐,五代時期中原與契丹,奚的互市貿易」,『河北師範大學學報』4期.
- 宋強剛(2002),「試論唐代藩鎮的歷史地位和作用」,『四川教育學院學報』3期.
- 宋卿(2006),「渤海忽汗州都督府朝貢唐王朝述論」,『史學集刊』5期.
- 宋卿(2007),「唐代東北原始部落形式的靺鞨府州朝貢述論」,『黑龍江民族叢刊』1期.

- 宋卿(2009a),「唐代東北羈縻府州職官考」,『北方文物』1期。
- 宋卿(2009b),「唐代營州政府經濟職能初探」,『社會科學輯刊』3期。
- 宋德金(1998),「二十世紀中國遼金史研究」,『歷史研究』4期。
- 宋玉祥(1995),「渤海與契丹“世仇”之我見」,『北方文物』4期。
- 宋毅(2009),「我武惟揚初唐與北方游牧民族的戰爭(1)」,『現代兵器』10期。
- 辛德勇(1984),「論宋金以前東北與中原之間的交通」,『陝西師大學報』2期。
- 嶽小國(2008),「唐蕃戰爭與民族文化的傳播」,『孝感學院學報』2期。
- 樂厚權(2004),「論遼宋夏金時期的各族盟誓與傳統共享」,『長江大學學報(社科版)』1期。
- 安國樓(1991),「宋遼邊境的兩屬戶」,『中國史研究』4期。
- 安作璋(1997),「中國古代民族與文化研究的新收獲—評《唐代民族與文化新論》」,『煙臺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安正發(2008),「從蕭關詩看唐蕃關係」,『寧夏師範學院學報』1期。
- 艾尚連(1997),「唐太宗靈州之行與漠北羈縻府州的建立」,『民族研究』6期。
- 艾冲(2008),「唐代漠北鐵勒諸部羈縻府州的建置與移徙」,『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期。
- 楊浣(2004),「20世紀中國西夏學學術園地」,『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楊桂傑(2008),「淺談隋唐和親特點及其影響」,『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10期。
- 楊國勇(1984),「司馬光民族思想的進步性與局限性」,『光明日報』,1月11日。
- 楊軍(2004),「試說北宋時期的雄州城」,『中國歷史地理論叢』3期。
- 楊軍財(2006),「唐蕃時期“主權”歸屬探微」,『中國藏學』2期。
- 楊筠(2007),「略論兩蕃與唐朝關係的演變,原因及影響」,『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楊德化(1989),「蒙古與南宋的外交」,『雲南師範大學學報』3期。
- 楊東晨(1996),「論回紇的遷徙和民族融合」,『固原師專學報』1期。
- 楊麗(2006),「北魏至唐中前期河朔地區漢人“胡化”探微」,『黃河科技大學學報』4期。
- 楊聯陞(1983),「從歷史看中國的世界秩序(원제는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1986),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國史探微』,聯經出版事業公司。
- 楊柳(2006),「唐代邊塞詩的成因及其美學意義」,『嶽陽職業技術學院學報』3期。
- 梁利(1998),「論徐兢及其“宣和奉使高麗圖經”」,『河南大學學報』2期。
- 楊文順(2003),「唐代麼些蠻與吐蕃,南詔關係初探」,『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楊保隆(1991),「簡論遼朝的民族政策」,『北方文物』3期。
- 楊世彝(1984),「也評澶淵之盟」,『青海師大學報』3期。

- 楊小敏(2008a),「宋人對遼朝的畏懼心理和“燕雲”情結」,『史學集刊』5期。
- 楊小敏(2008b),「從宋金結盟過程看北宋晚期腐敗政治」,『天水師範學院學報』4期。
- 楊小平(1996),「論渤海國的主體民族問題」,『黑龍江教育學院學報』4期。
- 楊樹森(1984),『遼史簡編』,遼寧人民出版社。
- 楊樹森(1986),「略論遼與五代,北宋戰爭的性質」,『社會科學戰線』1期。
- 楊秀清(1996),「晚唐歸義軍與中央關係述論」,『甘肅社會科學』2期。
- 楊淑敏(2001),「宋遼關係概述」,『中國古都研究』,中國古都學會2001年年會暨赤峰遼王朝故都歷史文化研討會文集。
- 楊浣(2003),「略論唐宋黨項政策與西北民族格局的互動」,『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4期。
- 楊浣(2006),「遼夏關係史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楊雨舒(2007),「唐代渤海國文化芻議」,『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1期。
- 楊渭生(1994),「宋與高麗的典籍交流」,『中國典籍與文化』2期。
- 楊蕤(2005),「宋夏疆界考論」,『中國邊疆史地研究』4期。
- 楊作山(1990),「北宋時期西蕃與西夏關係述評」,『西北第2民族學院學報』1。
- 楊昨山(1995),「吐穀渾與唐蕃關係述論」,『西北二民族學院學報』3期。
- 楊宗亮(1998),「唐宋時期滇東南,桂西南的民族關係」,『雲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楊志玖(1956),「西夏是不是羌族」,『歷史教學』4。
- 梁華(1993),「從唐太宗的民族政策看唐文化的繁榮」,『中南民族學院學報』3期。
- 楊曉紅(2007),「析蒙古滅宋戰爭的階段性及特徵」,『貴州大學學報』4期。
- 於青來(1984),「宋遼盟約」,『中國檔案』4期。
- 呂科偉·潛偉(2006),「宋代科學技術史的計量研究」,『科學學研究』。
- 呂麗輝(2007),「渤海國歷史遺址探微—對渤海上京遺址景區旅遊規劃之思考」,『學習與探索』3期。
- 黎邦正(1990),「重慶在南宋抗蒙(元)」,『西南師範大學學報』3期。
- 餘遠(1994),「隋唐時期民族關係研究的新貢獻—《隋唐民族關係探案》評介」,『甘肅社會科學』4期。
- 餘行邁(1943),「金亡前後南宋和蒙古的一段交涉」,『東方雜誌』9期。
- 餘輝(1992),「唐宋時期少數民族政權的繪畫機構及其成就」,『故宮博物院院刊』4期。
- 易圖強(1997),「動亂與反動亂:五代歷史發展的線索—兼談五代歷史的地位」,『湖南教育學院學報』1期。
- 閻德華(2009),「隋末唐初東突厥與中原諸勢力的關係演變」,『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期。
- 冉文傑(2006),「和諧社會的一面鏡子—從唐代邊塞詩中領略友好和諧的民族關係」,『語文學刊』8期。

- 閻薇(2007),「從宋人邊疆行記看遼人的生活習俗」,『理論學刊』4期。
- 冉守祖(1987),「金代北方各族人民的反抗鬥爭」,『河南大學學報』4期。
- 閻玉啓(1990),「遼朝的養馬業和遼宋關係」,『北京師範大學學報』4期。
- 閻春新·張穩(2007),「正統觀念與宋夏和戰」,『山東大學學報』6期。
- 閻鎬曾(1964),「宋夏關係史研究」,『政治大學學報』9期。
- 榮新江(1986),「歸義軍及其與周邊民族的關係初探」,『敦煌學輯刊』2期。
- 榮新江(1988),「敦煌文獻和繪畫反映的五代宋初中原與西北地區的文化交往」,『北京大學學報』2期。
- 芮忠漢(1994),「澶淵之盟的歷史意義」,『印度學刊』3期。
- 吳景宏(1980),「宋金攻遼之外交」,『宋史研究論文集』12輯。
- 吳光耀(1978),「爲李繼遷辯」,『寧夏社會科學』3。
- 吳光耀(1988),「略論北宋主戰、主和兩派對西夏之政爭」,『青海師大學報』3期。
- 烏蘭托婭(2004),「突厥-隋唐時期活躍在中國北方的遊牧民族」,『內蒙古畫報』5期。
- 鄔文清(2004),「杜甫民族平等思想初探」,『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期。
- 吳峰雲(2004),「20世紀西夏考古重大發現」,『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吳逢箴(1996),「論唐代邊塞詩的邊將戍卒形象」,『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吳鳳霞(1996),「金代以前西遼河流域古代民族文明發展述略」,『內蒙古民族師院學報』2期。
- 吳松弟(1996),「唐代吐穀渾和吐蕃的民族遷徙」,『河北學刊』2期。
- 伍純初(2007),「南宋“聯蒙滅金”政策形成原因分析」,『棗莊學院學報』6期。
- 吳永章(1987),「元代對鄂西民族地區的治理」,『中南民族學院學報』1期。
- 吳玉貴(1986),「唐代西域羈縻府州建置年代及其與唐朝的關係」,『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1期。
- 吳熊和(1995),「蘇軾奉使高麗一事考略」,『杭州大學學報』1期。
- 吳天堦(1986),「論黨項拓跋氏族屬及西夏國名」,『西北史地』1。
- 吳晗(1959),「陣圖和宋遼戰爭」,『新建設』4期。
- 吳曉紅(2007),「評析唐代民族將領仆固懷恩」,『寧夏社會科學』6期。
- 王時階(1984),「唐宋羈縻制度對廣西瑤族社會歷史發展的影響」,『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溫都蘇(2009),「北朝時期敦煌壁畫中的民族民間因素」,『數位時尚(新視覺藝術)』1期。
- 溫玉成(1993),「十三世紀蒙古人的飲食」,『洛陽烹飪』2期。
- 王忠(1962),「論西夏的興起」,『歷史研究』5。
- 王可(1990),「律和羈縻術是唐代調節民族關係的工具」,『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王建軍(2002),「透過“胡姬”詩看唐代的民族融合」,『柳州師專學報』3期。
- 王建懷(2000),「唐代“和親”的地理範圍」,『中國歷史地理論叢』3期。
- 王繼平(2005),「唐宋時代回鶻社會的發展與轉型」,『新疆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
- 王國維(1927),「南宋人所傳蒙古史料考」,『清華學報』1期。
- 王群麗(2008),「和親對唐代邊塞詩創作的影響」,『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3期。
- 王克孝(1990),「蘇聯藏西夏漢文佛經刊本述略」,『文獻』1。
- 王德毅(1958),「記洪邁使金始末」,『大學生活』3期。
- 王桐齡(1927),「宋遼之關係」,『清華大學學報(自然科學版)』2期。
- 王麗亞(2008),「王曾與宋遼關係辨析」,『濰坊學院學報』1期。
- 王陵濤(1984),「遼宋關係和澶淵之盟」教材分析,『歷史教學』1期。
- 王立(2009),「“胡風”影響下的唐代審美文化」,『社會科學論壇(學術研究卷)』5期。
- 王立新·賓響軍(2003),「論宋遼夏鼎立與宋夏和戰的關係」,『甘肅高師學報』3期。
- 王立霞(2007a),「唐代羈縻府州內部結構及其相關問題」,『江西社會科學』12期。
- 王立霞(2007b),「唐設羈縻府州的民族因素」,『求索』11期。
- 王明蓀(1979),「金初的功臣集團及其對金宋關係的影響」,『政大邊政研究所年報』10期。
- 王明蓀(1993),「宋代的內外關係」,『宋史教學研討會論文集』。
- 王文楚(1993),「宋遼驛路及其改遷」,『歷史地理』11輯。
- 王民信(1974),「宋朝時期留存的契丹地理資料」,『書目月刊』1期。
- 王民信(1975a),「遼宋澶淵之盟的締約背景(上·中·下)」,『書目月刊』2·3·4期。
- 王民信(1975b),「澶淵締盟的檢討」,『食貨月刊』3期。
- 王民信(1980),「蘇頌『華戎魯衛信錄』—宋遼關係史」,『書目月刊』3期。
- 王民信(1992a),「宋夏金錢外交」,『歷史月刊』56期。
- 王民信(1992b),「試論十一世紀前後女真與遼,麗,宋之關係」,『二屆中外關係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王民信(1994),「宋與西夏的關係」,『歷史博物館館刊』3期。
- 汪伯琴(1976),「宋代西邊境的樵場」,『大陸雜誌』6期。
- 王法理(1987),「澶淵之盟並非屈辱的城下之盟」,『中外歷史』2期。
- 王福鑫(2004),「宋夏情報戰初探—以元昊時期為中心」,『寧夏社會科學』5期。
- 王鋒(1991),「唐高祖李淵民族政策述論」,『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王非非(2009),「兩宋時期遼,金,西夏的歌舞及其與漢族的交流」,『藝術百家』3期。
- 王善軍·王慧傑(2006),「略論使遼對北宋使臣政治性格的影響」,『河北大學學報』2期。
- 王成國(1987),「遼代民族政策初探」,『北方文物』2期。

- 王成國(2001),「唐代契丹民族論略」,『社會科學輯刊』4期.
- 王成國(2004),「論唐代契丹」,『社會科學戰線』2期.
- 王成玉(2005),「黑水靺鞨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世麗(2004),「試論唐初對東突厥汗國降戶的安置」,『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王崇時(1991),「元代入居中國的高麗人」,『東北師大學報』6期.
- 王崇實(1992),「元與高麗統治集團的聯姻」,『吉林師範學院學報』4期.
- 王承禮·李亞泉(1993),「高麗義天大師著述中的遼人文獻」,『社會科學戰線』2期.
- 王炎(1993),「宋元戰爭中蒙古戰略決策的效能比較」,『內蒙古大學學報』3期.
- 王纓(1996),「論唐朝中後期的廣西民族鬥爭」,『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王禹浪(1992),「“女真”稱號的含意與民族精神」,『北方文物』3期.
- 王韻(2005),「論唐代東北和西南民族的內遷」,『青海民族研究』4期.
- 王韻(2009),「論唐、五代昭義鎮的地理環境和種族文化」,『唐都學刊』1期.
- 王偉等(1997),「淺論宋夏蘭州戰役及其影響」,『蘭州學刊』1期.
- 王有德(1984),「唐與回紇和親研究」,『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王有德(1991),「論唐與回紇的關係」,『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王惟貞(1996),「宣和四年—恢復燕雲之議與行動的轉折」,『史苑』56期.
- 王義康(2004),「唐代“蕃族”賦役制度試探」,『民族研究』4期.
- 王立新(2007),「試析宋夏戰爭初期北宋軍事失利的原因」,『隴東學院學報』1期.
- 王積厚(1990),「南充青居山在宋蒙戰爭中的地位和作用」,『四川文物』1期.
- 王田田(2007),「唐與回紇和親研究」,『邢臺學院學報』.
- 王靜如(1932),「瓜州審判檔案」,『國立北平圖書館館刊』4-3.
- 王靜如(1984),「西夏國名考」,『西夏史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王中格(1994),「論釣魚城在蒙宋對抗戰爭中的幾個問題」,『川東學刊』4期.
- 王曾瑜(1994),「宋高宗的對金屈辱外交」,『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學報』3期.
- 王止峻(1973),「南宋與金蒙二國」,『醒獅』10期.
- 王志清(2009a),「論少數民族音樂文化對樂府詩史的影響」,『遵義師範學院學報』2期.
- 王志清(2009b),「樂府詩所反映的漢唐間的民族觀念和民族歷史」,『學術界』4期.
- 王天順(1994),「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轉化」,『寧夏社會科學』3期.
- 王天順(1996),「論王安石的禦夏方略」,『中州學刊』4期.
- 王天順(2008),「北宋對西北民族政策的轉變及其指導下的西北邊疆經營述評」,『貴州民族研究』3期.
- 王青泉(1992),「蘇頌科學活動與學術思想探究」,『廈門大學學報』1期.

- 王春強(2007),『隋唐五代時期幽州地區戰爭與軍事研究』,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革勳·陳文道(2001),「契丹王朝對中華民族融合發展的貢獻」,『中國古都研究』18輯。
- 王慧傑(2005a),「宋遣往遼國使節的素質初探」,『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王慧傑(2005b),「宋朝遣往遼國的賀歲使節述論」,『貴州文史叢刊』4期。
- 王紅武(2008),「唐王朝在西北地區實行羈縻政策原因初探」,『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9期。
- 王曉燕(2002),「關於唐代茶馬貿易的兩個問題」,『中央民族大學學報』2期。
- 王曉燕(2004),「論宋與遼,夏,金的榷場貿易」,『西北民族大學學報(哲社版)』4期。
- 王曉波(1998),「宋太祖時期宋遼關係的變化」,『宋代文化研究』7輯。
- 王曉波(1999a),「宋真宗對遼戰爭考之一:瀛洲與莫州之戰」,『宋代文化研究』8輯。
- 王曉波(1999b),「宋太宗對遼戰爭的失誤:評宋遼高粱河戰役」,『四川大學學報』2期。
- 王曉波(1999c),「宋太宗雍熙北伐綜評」,『軍事歷史研究』2期。
- 王曉波(2000a),「宋真宗對遼戰爭考之二:遂城之戰」,『宋代文化研究』9輯。
- 王曉波(2000b),「宋太宗雍熙北伐失敗後的對遼政策」,『四川大學學報』4期。
- 王曉暉(2005),「唐與少數民族和親弼議」,『河西學院學報』4期。
- 王曉暉(2007),「北朝隋唐人華粟特人與農牧業」,『黑龍江民族叢刊』5期。
- 王煦華(1980),「宋遼和戰爭中的幾個問題」,『文史』9輯。
- 王興驥(2002),「南宋抗蒙(元)戰爭中的播州少數民族」,『貴州文史叢刊』4期。
- 王興驥(2007),「論貴州地區在南宋,蒙(元)戰爭中的作用」,『貴州社會科學』6期。
- 王興文·管成學(2005),「蘇頌與『新議象法要』再探討」,『自然辯證法通信』6期。
- 王興亞(1985),「澶淵之盟的時間應在公元一〇〇五年」,『中亞歷史』4期。
- 姚遠(1988),「唐以前“吐蕃”問題初探」,『青海社會科學』1期。
- 姚偉鈞(2004),「漢唐時期北方胡漢飲食原料之交流」,『南寧職業技術學院學報』3期。
- 姚兆餘(1996),「論北宋對西夏的羈縻政策」,『甘肅社會科學』4期。
- 姚從吾(1964),「從宋人所記燕雲十六州淪入契丹後的實況看遼宋關係」,『大陸雜誌』19期。
- 姚從吾(1968),「程鉅夫與忽必烈平宋以後的安定南人問題」,『臺灣大學文史哲學報』17期。
- 姚從吾(1969),「元世祖忽必烈統一中國前後的南人問題」,『中國歷史學會史學集刊』1期。
- 姚從吾(1974),「鐵函心史中的南人與北人問題」,『食貨月刊』4期。
- 羽離子(2001),「少數民族進入南通地區的歷史」,『江蘇地方志』5期。
- 於寶林(1998),『契丹古代史論稿』,黃山書社。
- 於李兵主 編(2003),『遼金史研究』,中國文化出版社。
- 尤中(1991),「宋朝以後的中華民族」,『雲南社會科學』2期。
- 尤中(1996),「隋,唐,五代,宋王朝對西南各民族地區的經營」,『雲南社會科學』1期。

- 於青來(1984),「宋遼盟約」,『中國檔案』4期。
- 牛達生(2000),「從拜寺溝方塔出土西夏文獻看古籍中的縫績裝」,『文獻』2。
- 牛達生(2004),「20世紀西夏錢幣和官印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牛致功(1988),「唐初史學家的民族觀」,『人文雜誌』4期。
- 虞渝寧(1989),「宋蒙(元)兩淮戰場析論」,『四川大學學報』總45期。
- 熊篤(1986),「初盛唐時期的邊境戰爭及邊塞詩評價問題」,『甘肅社會科學』2期。
- 袁伯誠(1984),「晚唐五代時期西北少數民族在中原地區的歷史作用—兼論晚唐五代時期的民族鬥爭與民族融合」,『固原師專學報』4期。
- 袁伯誠(1998),「晚唐五代時期西北少數民族在中原地區的歷史作用—兼論晚唐五代時期的民族鬥爭與民族融合」,『固原師專學報』4期。
- 袁波瀾(2004),「唐、宋民族政策—羈縻問題之比較研究」,『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期。
- 袁曉春(1994),「韓國珍島發現中國宋朝獨木舟」,『海交史研究』1期。
- 魏國忠(1986),「試論唐太宗的民族政策」,『黑龍江民族叢刊』1期。
- 魏國忠(2001),「論渤海主體民族的族屬問題」,『社會科學戰線』3期。
- 韋兵(2007),「星占、曆法與宋夏關係」,『四川大學學報』4期。
- 魏承思(1984),「略論唐五代商人和割據勢力的關係」,『學術月刊』5期。
- 偉愛梅(2006a),「北宋時期西夏歸明族長考」,『寧夏大學學報』4期。
- 偉愛梅(2006b),「試論北宋對西夏歸明人的政策」,『寧夏社會科學』3期。
- 魏嚴堅(1983),「北宋聯金滅遼與南宋聯蒙破金之比較研究」,『史繹』9期。
- 衛永鋒(2003),「諸葛亮在南中的統治措施與隋唐的羈縻州府」,『四川文物』4期。
- 衛月望(2003),「契丹外交與草原絲綢之路及貨幣」,『內蒙古金融研究』2期。
- 魏存成(2002),「渤海國是隸屬於唐王朝的民族地方政權」,『新長征』3期。
- 威中(1937),「宋元民兵述略」,『天津益世報史學』53期。
- 魏志江(1996),「論遼與高麗關係的分析及其發展」,『揚州師院學報』1期。
- 劉經渝(1998),「“華夷兩尊合,醉笑一歡同”」,『廣西民族研究』3期。
- 柳基榮(1997),「蘇軾與韓國詞文學的關係」,『復旦學報』6期。
- 劉潔(2004),「從唐代邊塞詩看唐代的民族政策」,『西北民族大學學報』5期。
- 劉士儒(1990),「漢官治遼簡論」,『西北第二民族學院學報』3期。
- 劉先照(1991),「有關民族史研究的幾個問題」,『民族研究』6期。
- 劉蕭勇(1987),「金世宗的民族思想及其民族政策」,『沈陽師範學院學報』2期。
- 劉安志(1993),「唐五代歸義軍政權述評」,『貴州文史叢刊』6期。

- 劉縉(2004),「北宋西北地區城寨述論」,『文博』5期。
- 劉秋根·王慧傑(2005),「論宋朝遣遼使節的家族性特徵及其形成原因」,『貴州社會科學』6期。
- 遊彪(1993),「常勝軍對遼宋滅亡的影響」,『河北學刊』4期。
- 劉惠琴·陳海燾(2001),「唐末五代沙陀集團中的粟特人及其漢化」,『煙臺師範學院學報』2期。
- 劉惠琴(2003),「從通婚的變化看唐代入華粟特人的漢化」,『華夏考古』4期。
- 劉華·楊孝峰(2000),「元昊營造天都行宮的意圖及其遺址考」,『寧夏社會科學』2期。
- 劉華(1999a),「西夏南牟會遺址考」,『寧夏大學學報』1期。
- 劉華(1999b),「西夏南牟會遺址暨天都山今考」,『寧夏社會科學』2期。
- 陸寧(2004),「論吳代黨項周邊的緣關係」,『西北二民族學院學報』3期。
- 殷維雄(1986),「宋金和戰始末及其影響」,『史學通訊』22期。
- 殷晴(1992),「漢唐西域民族政策述論」,『西北民族研究』1期。
- 李大龍(1994),「唐朝派往突厥的使者述論」,『北方文物』4期。
- 李德山(2007),「渤海國淵源考釋」,『古代文明』4期。
- 李冬梅(1998),「唐五代歸義軍與周邊民族關係綜論」,『敦煌學輯刊』2期。
- 李文實(1981),「唐五代以後的吐穀渾後裔及其民族特徵」,『青海社會科學』4期。
- 李鋒敏(1999),「唐五代時期的沙陀文化」,『甘肅社會科學』3期。
- 李錫厚(1989),「遼朝“治契丹與諸夷之法”探源」,『中央民族學院學報』3期。
- 李錫厚(2005),「宋遼金時期中原地區的民族融合」,『中州學刊』5期。
- 李彥平(1996),「唐朝與東北少數民族契丹、奚的和親」,『社會科學戰線』3期。
- 伊力娜(1991),「1989年日本元史、蒙古史研究概況」,『蒙古學資料與情報』1期。
- 李存福(1988),「隋唐與吐穀渾關係述論」,『青海社會科學』3期。
- 李俊成(1998),「唐代詩人論“和蕃”」,『歷史教學』1期。
- 李智君(2007),「唐代吐蕃內侵與河隴語言地理格國的演替」,『廈門大學學報』4期。
- 李珍(2002),「試論遼宋夏金時期的民族史觀」,『史學月刊』2期。
- 李蔚(1982),「周春『西夏書』評價」,『寧夏大學學報』3期。
- 李蔚(1987),「試論北宋仁宗年間宋夏陝西之戰的幾個問題」,『寧夏社會科學』4期。
- 李蔚(1988),「宋夏橫山之爭述論」,『民族研究』1期。
- 李蔚(1992),「略論宋初的宋夏靈州之戰」,『寧夏社會科學』6期。
- 李蔚(1994),「談李繼遷」,『西北民族研究』1期。
- 李蔚(1997),「宋神宗五路伐夏述論」,『遼金西夏研究』。
- 李蔚(2000),「蒙夏戰爭特點及西夏滅亡的原因」,『固原師專學報』4期。
- 李強(2005),「從宿衛制度看唐朝的民族關係」,『青海民族研究』3期。

- 李季平(1994),「介紹《隋唐民族關係探索》」,『東嶽論叢』6期。
- 李克武(1988),「李繼棒入覲納土析論」,『華中師大學報』3。
- 李琪(2000),「唐代高麗邊將高仙芝及其在西域的活動」,『西北民族研究』2期。
- 李吉和(2006),「唐朝時期黨項族的遷徙與社會文化變遷」,『青海民族研究』3期。
- 李大龍(1991),「也談澶淵之盟形成的原因」,『中央民族大學學報』3期。
- 李大龍(2000),「使者與唐王朝邊疆民族管理體制」,『民族研究』。
- 李冬梅(1998),「唐五代歸義軍與周邊民族關係綜論」,『敦煌學輯刊』2期。
- 李東華等(1992),「中國歷史上的金錢外交:五代兩宋」,『歷史月刊』56期。
- 李麗(1986),「熙河之役原因初探」,『青海民族學院學報』4期。
- 李文實(1981),「唐五代以後的吐穀渾後裔及其民族特征-吐穀渾歷史考察之三」,『青海社會科學』4期。
- 李文青(2007),「唐至清僭僭族的分布與變遷」,『臨滄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4期。
- 李文澤(1998),「遼宋文化交流與契丹文明的發展」,『宋代文化研究』7輯。
- 李方(2003),「隋末唐初東突厥與中原勢力的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4期。
- 李方(2007),「試論唐朝的“中國”與“天下”」,『中國邊疆史地研究』2期。
- 李範文·中島幹起(1996),『電腦處理西夏文“雜字”研究』,日本國立亞非語言文化研究所。
- 李範文(1983a),「論西夏與宋的關係」,『西夏研究論文集』。
- 李範文(1983b),「西夏國名辨」,『西夏研究論集』,寧夏人民出版社。
- 李範文(1983c),「宋西事案:國內罕見的一部西夏史書」,『寧夏大學學報』2。
- 李範文(1983d),「試論黨項族的來源與變遷」,『西夏研究論集』,寧夏人民出版社。
- 李範文(1991),「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社會科學戰線』3。
- 李範文(1998),「再論西夏黨項族的來源與變遷」,『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李寶臣(1996),「禮法社會政治秩序:唐宋以來民族認同史反思」,『北京社會科學』1期。
- 李步月·克恰諾夫(1980),「蘇聯國家列寧圖書館漢文西夏唐古特地圖冊手稿」,『西北史地資料』1。
- 李鋒敏(1999),「唐五代時期的沙陀漢化」,『甘肅社會科學』3期。
- 李紹民(1963),「關於羌族古代史的幾個問題」,『歷史研究』5期。
- 李信成(1988),「澶淵盟約前宋、遼與夏三角關係」,『人文學報』13期。
- 李實(1981),「歐陽修與契丹」,『內蒙古社會科學』2期。
- 李延勇(1999),「論支持宋末三峽區域長期抗蒙之諸因素」,『西南師大學報』3期。
- 李燕捷(1995),「肅太宗處理民族關係的一條原則」,『歷史教學』10期。
- 李豔玲(2009),「民族融合在唐宋文化轉型過程中的作用」,『滄桑』2期。

- 李詠林(1937),「十三世紀前的蒙鮮關係」,『禹貢』5期.
- 李蓉(2003),「唐初兩蕃與唐的東北策略」,『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
- 李存福(1983),「隋唐與吐穀渾關係述略」,『青海社會科學』3期.
- 李志清(1992),「西夏諸名稱音義析辨及其族源探索」,『西夏文史論叢①』,寧夏人民出版社.
- 李天石(1988),「宋夏爭奪河西控制權述評」,『民族研究』1期.
- 李清凌(1983),「範仲淹與宋夏和議」,『歷史教學與研究』3期.
- 李清凌(2005),「隋唐五代時期西北的經濟開發思想」,『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6期.
- 李治濤(2008),「試析唐代河北地區的胡化」,『黑龍江史志』24期.
- 李慧波(2009),「略論中晚唐時期世俗社會中的彌陀淨土信仰」,『北京化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1期.
- 李紅(2008),「談唐代邊塞詩中的和諧思想」,『徐州教育學院學報』2期.
- 李鴻賓(2001a),「唐代的民族交融與政治發展」,『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李鴻賓(2001b),「論唐朝的民族觀念」,『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5期.
- 李鴻賓(2006),「唐代社會的轉型與民族的互動」,『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李鴻賓(2009),「唐末的形勢與黨項勢力的崛起」,『寧夏社會科學』2期.
- 李華瑞(1984),「也評澶淵之盟」,『歷史教學與研究』1期.
- 李華瑞(1989),「北宋仁宗時期聯蕃制度夏政策述論」,『河北學刊』6期.
- 李華瑞(1991),「論宋夏爭奪西北少數民族的鬥爭」,『西北民族研究』1期.
- 李華瑞(1997a),「貿易與西夏侵宋的關係」,『宋史研究論文集』.
- 李華瑞(1997b),「北宋朝野人士對西夏的看法」,『安徽師大學報』4期.
- 李華瑞(1998a),「西夏聯遼,吐蕃抗宋」,『固原師專學報』3期.
- 李華瑞(1998b),「北宋末期及南宋與西夏的關係」,『寧夏大學學報』,3期
- 李華瑞(1998c),「論宋哲宗元祐時期對西夏的政策」,『中州學刊』6期.
- 李華瑞(1999),「論宋夏戰爭」,『河北學刊』2期.
- 仁慶紮西(1988),「西平王與吐蕃的關係」,『中央民族學院學報』1.
- 一愚(1957),「宋代的南北成見」,『中央日報』11月21日.
- 任樹(2008a),「唐代吐蕃與西部民族大遷徙」,『青海師專學報』4期.
- 任樹(2008b),「唐宋蕃官榮名制略述」,『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5期.
- 任樹民(1994),「唐宋王朝在西北的民族安置政策比較研究」,『西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漢文)』1期.
- 任崇嶽(1983a),「關於澶淵之盟的幾個問題」,『河南師大學報』4期.
- 任崇嶽(1983b),「論遼代契丹族對漢族文化的吸收與繼承」,『中州學刊』3期.

- 任崇嶽(1984a),「契丹與五代山西割據政權」,『晉陽學刊』5期。
- 任崇嶽(1984b),「略論遼朝與五代的關係」,『社會科學輯刊』4期。
- 任崇嶽(1984c),「論澶淵之盟後的宋遼關係」,『歷史教學』1期。
- 任崇嶽(1988),「論遼金關係」,『中央民族學院學報』4期。
- 任崇嶽(1990),「郝經使宋與宋蒙關係」,『黃淮學刊』2期。
- 任崇嶽(2006),「試論五代十國時期中原地區的民族融合及其措施」,『鄭州大學學報』1期。
- 任愛君(1995),「論宋遼共存共亡的政治格局及其文化意義」,『中國北方古代文化國際學術研討會』。
- 任愛君(2007),「論五代時期的“銀鞍契丹直”」,『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3期。
- 任愛君(2008),「唐末五代的“山後八州”與“銀鞍契丹直”」,『北方文物』2期。
- 林榮貴(2000),「北宋與遼的邊疆經略」,『中國邊疆史地研究』1期。
- 任仲書·蘇紅(2006),「遼宋金元時期的民族關係」,『渤海大學學報』6期。
- 任仲書(2006),「遼宋金元時期的民族關係」,『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6期。
- 林超民(1986),「鞏慶州府與唐代民族關係」,『雲南社會科學』4期。
- 禡夢驥(1969),「寇軍,畢士安與澶淵之盟」,『中國世紀』145期。
- 岑家梧(1963),「遼代契丹和漢族及其他民族的經濟文化聯系」,『中國民族』12期。
- 岑仲勉(1958),『突厥史集(下)』,中華書局。
- 張棟(1994),「論北宋對西夏外交的失敗」,『西南民族學院學報』5。
- 張雲(1988a),「吐蕃與黨項政治關係初探」,『甘肅民族研究』3·4。
- 張雲(1998b),「黨項名義及族源考證」,『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張慶玲(1988),「宋遼間的走私貿易」,『史林』2期。
- 張桂芳(1996),「經濟史教學中的時代觀,發展觀和民族觀—兼談《五代,遼,宋,夏,金的社會經濟(一)》教學設計」,『歷史教學』3期。
- 張廣志(1985),「“從少數民族史看初始階級社會的非奴隸制性質”專題研究之九」,『女真與奴隸制—青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張宏梅(2009),「試論唐代對外開放的特點及對今天的啟示」,『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2期。
- 張久和(1997),「北朝至唐末五代室韋部落的構成和演替」,『內蒙古社會科學』5期。
- 張國剛(2008),「唐代開放與興盛的當代思考」,『河北學刊』3期。
- 張國慶(1988a),「略論遼夏和親與遼夏關係的惡化」,『史學月刊』5。
- 張國慶(1988b),「略論唐初東北少數民族地區鞏慶州府州的設置」,『黑河學刊』2期。
- 張國慶(1988c),「漢唐之間東北少數民族地區鞏慶管理官職機構的變化」,『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6期。
- 張國慶(1992),「遼代契丹皇帝與五代,北宋諸帝王的結義」,『史學月刊』6期。

- 張國慶(1995),「遼朝軍隊的軍事訓練和後勤制度述論」,『內蒙古大學學報』2期。
- 張國慶(1998),「略論遼國軍隊的徵調制度」,『北京社會科學』2期。
- 張國慶(2003)「隋唐民族關係六問」,『中學歷史教學研究』1期。
- 張國慶(2006),「遼代激勵機制之特色與社會功能初探」,『中國社會史研究』6期。
- 張權(2002),「隋唐時期西域民族」,『新疆地方志』3期。
- 張權(2003),「宋元時期的西域民族」,『新疆地方志』1期。
- 張其凡(1983),「從高粱河之敗到雍熙北伐」,『華南師大學報』3期。
- 張其凡(1988),「雍熙北征到澶淵之盟：眞宗朝政治研究之一」,『史學月刊』1期。
- 張德階(1988),「漢唐王朝與西域關係史略」,『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1期。
- 張亮采(1957),「宋遼間的榷場貿易」,『東北師大科學集刊』3期。
- 張煉(1989),「唐與回紇民族關係及唐王朝的民族政策」,『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張煉(1994),「論北宋對西夏外交的失敗」,『西南民族學院學報』5期。
- 蔣武雄(1982),「宋遼歲幣外交與國運之關係」,『中華文化復興月刊』8期。
- 蔣文安(1996),「南自南北自北和金宋對峙初期的國家目標」,『無錫教育學院學報』3期。
- 張美娟·張美華(2007),「『太平廣記』中的唐代女性精怪與少數民族文化論考」,『黑龍江民族叢刊』1期。
- 張博泉(1983),「東北考古研究的幾個問題」,『東北史研究』1期。
- 張邦煒(1998),「遼宋西夏金時期少數民族的婚姻制度與習俗」,『社會科學研究』6期。
- 張邦煒(1999),「遼宋西夏金時期少數民族婦女的生活」,『四川師範大學學報(哲社版)』3期。
- 蔣蓓妮(2008),「關於唐王朝化外人涵義的探討」,『現代商貿工業』8期。
- 張秉仁(1955),「略論蒙古南宋聯合攻金之戰」,『新史學通訊』5期。
- 張步雲(1979),「試論唐代中日往來詩」,『學術月刊』11期。
- 蔣輔義(1985),「唐太宗貞觀時期的邊疆問題及民族政策」,『青海民族學院學報』3期。
- 蔣復璁(1961),「宋眞宗與澶淵之盟(上·中·下)」,『大陸雜誌』,8·9·10期。
- 蔣復璁(1964),「宋遼澶淵之盟的研究」,『宋史研究集』。
- 張鳳武(2007),「試論漢唐兩朝對西域的開發經營」,『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4期。
- 張思溫(1979),「活字版商夏文華嚴經」卷11至卷15簡介,『文物』10。
- 張嘯虎(1988),「遼金遺士對元初政治建設與文化開拓的貢獻」,『中南民族學院學報』2期。
- 蔣秀松(1992),「女眞與靺鞨」,『民族研究』3期。
- 蔣秀松(1994),「女眞與高麗間的“曷懶甸之戰”」,『民族研究』1期。
- 張燕(2008),「唐朝中後期的西北軍事策略」,『甘肅教育』3期。
- 張延榮(1992),「試評蒙(元)宋戰爭」,『國際宋史研討會論文選集』。

- 蔣英(2006),「論兩宋使北詩」,新疆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榮秀(1992),「從歷史地理和民族環境看幽燕地區在中華民族大融合中的重要地位」,『北京社會科學』3期。
- 張榮錚(1984),「論金代民族融合」,『天津師大學報』3期。
- 張永萍(2009),「唐與西夏婚姻制度之比較-以《唐律》和《天盛改舊定新律令》為中心」,『河北學刊』2期。
- 張玉林(2009),「論歷史上民族遷徙主要原因及社會作用」,『貴州民族研究』4期。
- 張雲(1991),「唐代北方民族的大遷徙及其影響」,『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張雄(1980),「從突厥內徙看唐太宗的民族政策」,『民族研究』3期。
- 張雄(1989),「隋唐以來北方政區建置及民族關係略述」,『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5期。
- 張偉夫(1996),「渤海民族對東北的開發及對地名的影響」,『中國地名』6期。
- 張維琴(1975),「沈括與宋遼劃界交涉」,『史繹』12期。
- 蔣維忠·安貴臣(1996),「遼、宋、金、元時期各族的中華意識評析」,『中央民族大學學報』2期。
- 張義忱(1988),「論宋遼高粱河之戰」,『沈陽師院學報』3期。
- 張翼之(1982),「宋夏關係略論」,『民族研究』5期。
- 張仁璽(1991),「略論宋太宗攻遼失敗的原因」,『山東大學學報』。
- 張政(1992),「論海上之盟訂立之因及其對北宋的影響」,『蒲峪學刊』1期。
- 張晶(1993),「論遼代契丹女詩人的創作成就及其民族文化成因」,『民族文學研究』4期。
- 張婷婷(2008),「簡述唐代的羈縻府州」,『天中學刊』1期。
- 張靜海(1955),「釣魚城抗元事跡簡述」,『歷史教學』6期。
- 張志傑(2000),「淺析北宋初期對遼軍事失敗的原因」,『歷史學系』,7·8期。
- 張天佑(1969),「宋金海上聯盟的研究」,『中國歷史學會史學集刊』1期。
- 張天佑(1972),「論宋金蒙好的破壞與北宋的覆亡」,『東海學報』13期。
- 張春海(2007),「試論唐代營州的高句麗武人集團」,『江蘇社會科學』2期。
- 張含棠·張國慶(1996),「略論遼朝軍事機構及軍事制度的特色」,『遼寧大學學報』2期。
- 張向紅(2009),「略論唐代靈州的歷史地位和作用」,『新鄉學院學報(社會科學版)』1期。
- 張慧等(1995),「西夏黃河沿岸的樺場經濟:兼論西夏與中亞地區的貿易往來」,『內蒙古地方志』3。
- 張曉東(2007),「五代時期的漕運與北方邊防」,『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4期。
- 張曉松(2007),「唐朝羈縻府州制及與南詔政權政治行政關係探析」,『雲南行政學院學報』1期。
- 張效禹(1979),「略論漢唐的“和親”問題」,『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張希清 等 主編(2007),『澶淵之盟新論』,上海人民出版社。

- 狄寧(2008),「淺析宋朝燕雲交涉失敗的原因」,『黑龍江史志』21期。
- 錢君喈(1954),「寇准與澶淵之盟」,『歷史教學』3期。
- 錢伯泉(2000),「一場喀喇汗王朝和宋夏聯兵進攻西夏的戰爭:藏經洞封閉的真正原因和確切時間」,『敦煌研究』2期。
- 田相林(2001),「宋遼“澶淵之盟”—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平原大學學報』4期。
- 全春花(2008),「元朝“四等人制”概論」,『世紀橋』8期。
- 程光裕(1961),「澶州之盟與天書(上·下)」,『大陸雜誌』,6·7期。
- 程妮娜(2002),「論唐代中央政權對契丹、奚人地區的羈縻統治」,『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6期。
- 程妮娜(2006),「強力與綏懷:遼宋民族政策比較研究」,『文史哲』3期。
- 丁放(1991),「試論北宋初的北禦之策」,『歷史教學』3期。
- 丁柏傳(1996),「試論西夏與北宋的經貿往來及其影響」,『河北大學學報』2期。
- 鄭炳林(1995),「唐五代歸義軍政權對外關係中的使頭一職」,『敦煌學輯刊』1期。
- 鄭炳林(2005),「晚唐五代歸義軍政權與佛教教團關係研究」,『敦煌學輯刊』1期。
- 程溯洛(1979),「回紇的興起及其和唐朝的關係」,『歷史教學』7期。
- 程溯洛(1989),「九世期納業回鶻民族東西南部的匯合與對塔裏木盆地古代文化的繼承」,『中央民族大學學院學報』5期。
- 程紹萍(2002),「唐太宗重用少數民族將領」,『文史天地』6期。
- 鄭彥卿·範宗興(2000),「西夏靈州歷史地位論述」,『寧夏社會科學』3期。
- 丁庭權(2009),「楊吳與中原王朝及周邊割據政權關係述略」,『合肥學院學報』1期。
- 程志(1984),「唐代羈縻州府簡論」,『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程天林(2009),「唐詩中的寧夏」,『寧夏畫報(生活版)』1期。
- 齊覺生(1970),「北宋聯制與實和的外交」,『政治大學學報』21期。
- 諸葛鎧(1983),「唐代外來紋樣民族化的幾點看法」,『裝飾』2期。
- 趙繼顏(1980),「北宋仁宗時的宋夏陝西之戰」,『齊魯學刊』4期。
- 趙繼顏(1983),「範仲淹的答趙元昊書及其招撫政策」,『山東大學學報』4期。
- 趙東琳(2008),「淺探宣威彝族從隋唐至今的發展變遷史」,『黑龍江史志』16期。
- 趙文潤(1992),「唐代元和時期的邊防」,『固原師專學報』4期。
- 趙葆萬(1987),「雍熙三年宋太宗對遼戰爭何以失敗」,『中州學刊』1期。
- 曹松林(1991a),「宋仁宗時期對夏戰爭的歷史教訓」,『宋遼金史論叢』2輯。
- 曹松林(1991b),「熙寧初年的對夏戰爭述評」,『中日宋史研討會中方論文選編』。
- 曹樹森(1995),「蘇頌與宋遼關係」,『北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7期。
- 趙榮織·王旭送(2008),「唐代沙陀人在西域的活動區域」,『昌吉學院學報』6期。

- 趙榮織(2008),「唐代沙陀人在西域的活動區域」,『昌吉學院學報』6期。
- 趙永春(1985a),「關於宋金海上之盟的幾個史實問題」,『北方文物』2期。
- 趙永春(1985b),「北宋聯金復燕之議始於何時?」,『松遼學刊』3期。
- 趙永春(1987a),「金與北宋戰爭爆發原因初探」,『北方文物』2期。
- 趙永春(1987b),「北宋聯金復燕的活動及其經驗教訓」,『歷史教學』10期。
- 趙永春(1987c),「宋金“海上之盟”評議」,『上饒師專學報』4期。
- 趙永春(1988),「金熙宗對宋議和述論」,『昭烏達蒙族師專學報』4期。
- 趙永春(1989a),「宋金交聘制度述論」,『遼金史論集』。
- 趙永春(1989b),「宋金的外交禮儀」,『歷史大觀園』1期。
- 趙永春(1991),「略論蘇頌使遼」,『松遼學刊』3期。
- 趙永春(1992),「關於宋金交聘“國書”的鬭爭」,『北方文物』2期。
- 趙永春(1993a),「宋金關於“受與禮”的鬭爭」,『民族研究』6期。
- 趙永春(1993b),「宋金和議後宋欽宗為何沒有歸宋?」,『松遼學刊』4期。
- 趙永春(1998a),「金與北宋戰爭爆發原因初探」,『北方文物』4期。
- 趙永春(1998b),「金熙宗對宋政策的轉變及其作用」,『北方文物』3期。
- 趙永春(1999),「拔冗詰通史求是正謬傳—趙翼對宋金關係史的研究」,『社會科學輯刊』3期。
- 趙永春(2000),「蘇頌使遼與國法改革」,『北文民族』2期。
- 趙永春(2001a),「關於宋金關係的幾個問題」,『黑龍江民族總刊』1期。
- 趙永春(2001b),「論宋金關係的主流」,『蒙自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1期。
- 趙永春(2004),「完顏阿骨打對宋政策探析」,『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5期。
- 趙永春(2005a),「『茅齋自敘』記載的女真生活習俗與宋金關係」,『北方文物』3期。
- 趙永春(2005b),「宋金“海上聯盟”其間的領土交涉」,『北華大學學報』6期。
- 趙永春(2008a),「試論“澶淵之盟”對宋遼關係的影響」,『社會科學輯刊』2期。
- 趙永春(2008b),「澶淵之盟對宋金和戰的影響」,『黑龍江民族總刊』1期。
- 趙焜·魏敏(2009),「南宋初年宋金西線戰爭雙方的戰略意圖」,『綿陽師範學院學報』4期。
- 趙一匡(1987a),「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蘭州學刊』4。
- 趙一匡(1987b),「宋夏戰爭中蘭州城關堡砦的置建」,『蘭州學刊』1期。
- 趙一匡(1987c),「宋夏戰爭中北宋在蘭州的軍事措施」,『蘭州學刊』1期。
- 趙鼎(1989),「略論貞觀時期的民族政策」,『晉陽學刊』6期。
- 趙志堅(1995),「隋唐民族關係研究的新創獲—《隋唐民族關係探索》評介」,『固原師專學報』1期。
- 趙之藺(1947),「澶淵之盟以前宋遼之外交關係」,『國學叢刊』13期。
- 趙振績(1970),「宋代屯田與邊防重要性」,『中華文化復興月刊』2期。

- 趙滌賢(1994),「北宋元豐中靈州永樂兩次戰役宋軍死者人數考」,『學術月刊』6期。
- 趙鐵寒(1962),「宋金海上之盟始末記(上·中·下)」,『大陸雜誌』5·6·7期。
- 趙鐵寒(1977),「宋遼間的經濟關係」,『中華文化復興月刊』6期。
- 曹治懷(1997),「唐初唐與突厥關係的發展演變」,『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1。
- 趙評春(1988),「宋綏使遼時期並上疏考」,『遼金契丹女真史研究』1期。
- 趙學東(1986),「略述西涼府六穀聯盟與北宋之關係」,『蘭州學刊』3期。
- 趙學東(1998),「論涼州六穀部的興起及其與北宋的關係」,『西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漢文)』1。
- 曹顯徵(2006),「遼宋實現首次交聘之背景分析」,『北方文物』1期。
- 曹顯徵(2008),「遼宋交聘制度的初步確立」,『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4期。
- 趙華富(1961),「論十三世紀初蒙古社會性質」,『山東大學學報』2期。
- 趙曉嵐(2006),「論“蘇、辛”並稱的民族-文化意義」,『蘇州大學學報』4期。
- 趙興愚(1981),「對重評澶淵之盟有關史實的兩點意見」,『西南民族學院學報』4期。
- 趙喜英(1990),「南宋大儀鎮之戰述評」,『河北學刊』6期。
- 鍾銀梅(2006),「唐代羈縻府州制度述評」,『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1期。
- 左強(2003),「宋金榷場貿易與走私貿易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周加勝(2007),「試論唐朝在契丹族地區設立的府州」,『黑龍江民族叢刊』4期。
- 周佳榮(2000),「唐代“和親”考略」,『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周康正(2004),「試論唐人繪畫中的民族精神」,『黃山學院學報』5期。
- 周啟志(1996),「南宋初年的和議評析」,『歷史月刊』96期。
- 周群華(1986),「繼捧入朝原因之管見」,『寧夏社會科學』6期。
- 周蓮弟(1999),「富弼與北宋的禦夏政策」,『寧夏社會科學』4。
- 周夢江(1995),「南宋是否必須向金求和」,『溫州師院學報』5期。
- 朱保書(1994),「宋金陳家島大海戰」,『開封大學學報』1期。
- 周寶硯(2007),「論唐王朝治邊方略及其啟示」,『南京政治學院學報』3期。
- 周寶珠(1964),「豫西人民的抗金鬥爭」,『開封師院學報』1期。
- 周寶珠(1979),「南宋對金和戰鬥爭中主守派與趙鼎」,『河南師大學報』5期。
- 周寶珠(1981),「關於宋金皇天蕩之戰的幾個史實問題」,『史學月刊』5期。
- 周寶珠(1982a),「南宋抗蒙的襄樊保衛戰」,『史學月刊』6期。
- 周寶珠(1982b),「北宋時期中國各民族在東京的經濟文化交流」,『河南師範大學報』4期。
- 周寶珠(1988),「淺論澶淵之盟的決策人物之一—畢士安」,『河南大學學報』1期。
- 周寶珠(1990),「宋代忠義思想在反民族壓迫鬥爭中的作用」,『河南大學學報』4期。

- 周寶珠(2000),「北宋西夏間貢賜交往中的開封與興慶」,『史學月刊』1期。
- 朱珊珊(1995),「唐代貴州羅摩州的設置及特點」,『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
- 周生春(1992),「十二世紀七十年代的宋金關係」,『嶽飛研究』3輯。
- 朱瑞熙(1992),「宋朝的歲幣」,『嶽飛研究』3輯。
- 朱傑(1980),「宋金議和之新分析」,『宋史研究論文集』12輯。
- 朱小琴(2000),「宋遼“關南地之爭”」,『西安教育學院學報』2期。
- 朱小琴(2003),「唐初的民族政策」,『西安教育學院學報』2期。
- 朱筱新(1987),「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宋遼學刊』4期。
- 朱筱新(1988a),「西夏的“聯遼抗宋”」,『史學月刊』51期。
- 朱筱新(1988b),「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寧夏大學學報』1。
- 朱少偉(1984),「唐太宗的民族政策」,『中國民族』2期。
- 朱壽祺(1988),「宋夏對峙時期的天都地區」,『西北師院學報』4期。
- 周秀榮(2002),「民族文化融合與遼宋詩詞間的關係」,『滁州職業技術學院學報』1期。
- 朱崇業(1987),「南宋政府的收兵權與對金議和」,『徐州師院學報』1期。
- 周蓮弟(1999),「富弼與北宋的禦夏政策」,『西北史地』2期。
- 周偉洲(1990),「試論隋唐時期西北民族融合的趨勢和特點」,『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周偉洲(1992),「唐代關中民族的分布及融合」,『中國歷史地理論叢』3期。
- 周毅(2009),「唐蕃舅甥關係述論」,『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朱子方(1999),「遼宋提轄官比較研究」,『社會科學輯刊』2期。
- 朱長義(1999),「唐代少數民族員外官制初探」,『中南民族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1期。
- 周正仁(1995),「北宋突圍城」,『上海修志向導』4期。
- 朱仲玉(2007),「宋、遼、金三史的正統之爭」,『文史知識』2期。
- 周智武(2003),「試論唐宋嶺南少數民族手工業」,『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6期。
- 朱希祖(1929),「西夏史籍考」,『益世報·學術周刊』。
- 曾國富(2001a),「論五代時期對契丹的民族政策」,『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2期。
- 曾國富(2001b),「論吳代時期對契丹的民族政策」,『內蒙古社會科學』2期。
- 曾國富(2008),「五代時期北方民族關係略論」,『黑龍江民族叢刊』3期。
- 曾瑞龍(2000),「北宋及拜占庭帝國的彈性防禦戰略初探—兼論宋夏洪德城戰役」,『宋代歷史文化研究』。
- 曾雄生(2005),「唐宋時期的畬田與畬田民族的歷史走向」,『古今農業』4期。
- 曾維華(1984),「陳橋兵變前鎮,定二州並非謊報軍情」,『歷史知識』5期。
- 曾現江(2005),「蒙古與大理國早期關係探析」,『貴州民族研究』4期。

- 遲景德(1983),「宋高宗與金邁和始末」,『政治大學學報』1期。
- 陳慶英(1992),「蒙藏早期的交往及西夏在蒙藏關係中的地位和作用」,『青海社會科學』6。
- 陳慶英(2000),「西夏及元代藏傳佛教經典的漢譯本:簡論大乘要道密集」,『西藏大學學報』2。
- 陳桂花(1990),「宋朝的周邊形勢及沿邊政策」,『中國古代沿邊政策研究』。
- 陳高華(1991),「早期宋蒙關係端平入洛之役」,『宋元研究論稿』。
- 陳宏茂(1985),「試論宋遼間的榷場貿易」,『經濟經緯』3期。
- 陳國燦(1980),「西夏天慶間典當殘契的復原」,『中國史研究』1。
- 陳金陵(1979),「李世民與少數民族」,『歷史教學』8期。
- 陳金生(2006),「唐代質子在民族文化交流中的作用」,『甘肅聯合大學學報(社會科學版)』2期。
- 陳金生(2008),「唐與吐穀渾關係中的質子及其影響」,『社科縱橫』12期。
- 陳能森(1970),「姚坤出使契丹之事實與分析」,『沈剛』15期。
- 陳大為(2006),「敦煌淨土寺與敦煌地區胡姓居民關係探析」,『敦煌學輯刊』1期。
- 陳大為(2009),「晚唐五代宋初敦煌試經考略」,『蘭州學刊』4期。
- 陳得芝(1978),「金亡前的宋蒙關係」,『南京大學史學論叢』1期。
- 陳烈(1989),「宋太宗首次北伐失敗」,『文史知識』11期。
- 陳隆濤(1983),「金和北宋的關係-節教材分析」,『歷史教學』3期。
- 陳隆濤(1984),「宋遼關係和澶淵之盟教材」,『歷史教學』1期。
- 陳鳴鍾(1956),「略論金主亮南侵」,『新史學通訊』12期。
- 陳民族(1997),「宋高宗令嶽飛退兵原因新論」,『益陽師專學報』3期。
- 陳柏華(2003),「北宋政權與西北吐蕃各部的關係」,『青海民族學院學報』4期。
- 陳炳今 等(1984),「宋蒙滅金之戰」,『中州古今』6期。
- 陳炳應(1979),「重修護國寺感通塔碑(西夏碑)」,『文物』12。
- 陳炳應(1980),「西夏的詩歌諺語所反映的社會歷史問題」,『甘肅師大學報』2。
- 陳炳應(1983),「天梯山石窟西夏文佛經譯釋」,『考古與文物』3。
- 陳炳應(1985),「圖解本西夏文觀音經譯釋」,『敦煌研究』3。
- 陳炳應(1989),「金書西夏文大方廣佛華嚴經」,『文物』5。
- 陳炳應(1991),「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寧夏社會科學』4。
- 陳炳應(1995),『貞觀玉鏡將研究』,寧夏人民出版社。
- 陳本俊(1934),「秦檜對金主和南宋大局的關係」,『珞珈』6期。
- 陳世松(1983),「從凌霄、龍崖兩城碑記看蒙古軍自雲南入攻四川的戰爭」,『四川史研究通訊』1期。
- 陳世松(1988),「宋元爭奪中的成都-元代成都史之一」,『成都文物』1期。
- 秦紹培(1992),「論唐代邊塞詩及其繁榮原因」,『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1期。

- 陳守忠(1989),「北宋前期對秦隴地區的經營及其與西夏的關係」,『中國民族史研究』。
- 陳述(1981),『遼代史話』,河南人民出版社。
- 陳新權(1982),「宋金榷場貿易考略」,『中華文史論叢』1期。
- 陳亞豔(2002),「從唐與吐穀渾的關係看唐對吐穀渾的民族政策」,『青海民族研究』4期。
- 陳樂素(1993),「宋徽宗謀復燕雲之失敗」,『輔仁學志』1期。
- 陳延斌(1985),「一場關係宋遼命運的戰爭」,『歷史知識』1期。
- 陳旭(2000),「宋夏沿邊的侵耕問題」,『寧夏大學學報』4期。
- 陳育寧(1988),「蒙古與西夏關係略論」,『民族研究』5。
- 陳育寧(2004),「承百年傳統創未來新業:20世紀西夏研究回顧與展望」,『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
- 陳寅恪(2001),『金明館叢稿二編』,三聯書店。
- 陳正桃(1999),「唐代西北民族吐蕃化現象略論」,『絲綢之路』1期。
- 陳廷斌(1985),「一場關於宋遼命運的戰爭」,『歷史知識』1期。
- 陳志剛(2005),「宋廷士大夫與紹興八年和議-兼論南宋初年宋金和議的必然性」,『淮南煤炭師範大學學院學報』2期。
- 陳志貴(1980),「試論唐代中日關係」,『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陳智超(1982),「一二五八年前後宋、蒙、陳三超間的關係」,『宋史研究論文集』。
- 陳清敏(1983),「宋代的對外和戰與其貨幣經濟的關係」,『史化』13期。
- 陳海鈴(1999),「封建經濟的繼續發展和民族融合進一步加強-五代宋元」,『中學文科』11期。
- 陳顯昌(1983),「唐代長安通往渤海的交通要道」,『學習與探索』2期。
- 劉奇斯欽(1970),「一體研究宋金關係的好書」,『文藝復興』4期。
- 車寶仁(1988),「唐代邊塞詩所反映的民族和睦」,『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蔡家藝(2004),「遼宋金夏境內的沙陀族遺民」,『民族研究』5期。
- 蔡東洲·唐祿祥(1992),「論南宋同西夏的關係」,『西華師範大學學報』2期。
- 蔡東洲(1989),「西夏末當向南中央政府遣使」,『中國史研究』1期。
- 蔡東洲(1990),「論宋蒙早期關係」,『四川師範學院學報』5期。
- 蔡東洲(1992a),「試論南宋與西夏的關係」,『四川師範學院學報』1。
- 蔡東洲(1992b),「論南宋同西夏的關係」,『四川師範學院學報』2期。
- 蔡汝棟(1993),「論唐代的民族政策」,『廣東技術師範學院學報』3期。
- 蔡志祥(1988),「宋金采石之戰」,『歷史知識』7期。
- 蔡哲修(1988),「陶著『宋遼關係史研究』評價」,『史苑』41期。
- 叢佩遠(1993),「元代遼陽行省境內的契丹高麗色目與蒙古」,『史學集刊』1期。

- 崔明德(1983),「對唐朝和親的一些考察」,『歷史教學』12期。
- 崔明德(1986a),「唐代西北少數民族人口研究」,『西北人口』2期。
- 崔明德(1986b),「突厥,回紇與唐朝關係之比較」,『青海民族學院學報』1期。
- 崔明德(1988c),「契丹,新羅與唐朝關係之比較研究」,『煙臺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 崔明德(1988d),「西漢,唐與少數民族和親比較」,『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1期。
- 崔明德(1990),「漢唐和親與西域文明」,『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期。
- 崔明德(1991),「唐與契丹戰爭起因新探」,『社會科學輯刊』2期。
- 崔明德(1992),「唐與突厥和親述論」,『中央民族學院學報』3期。
- 崔明德(1993a),「吐蕃,南詔與唐朝關係之比較」,『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崔明德(1993b),「東突厥,回紇與唐朝關係再比較」,『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崔明德(1994a),「論唐高宗和武則天時期的民族關係思想」,『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期。
- 崔明德(1994b),「論隋唐時期少數民族參加中原戰爭」,『歷史教學』11期。
- 崔明德(1994c),「論唐代西北少數民族的人口數量,特點和移動的主要趨勢」,『煙臺師範學院學報』2期。
- 崔明德(1995a),「論隋唐和親的特點」,『天府新論』2期。
- 崔明德(1995b),「述評唐太宗的民族關係理論」,『中國邊疆史地研究』2期。
- 崔明德(2001),「試論安史亂軍的民族構成及其民族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3期。
- 崔明德(2005),「唐憲宗時期及其之後的民族關係思想」,『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崔明德(2007),「隋唐時期西域諸國的民族關係思想」,『煙臺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期。
- 崔凡芝 等(1995),「略論司馬光的民族思想」,『民族研究』3期。
- 鄒重華(1986),「略論蒙哥,忽必烈的攻宋戰略」,『四川大學學報』,總32期。
- 鄒重華(1989a),「南宋收復三京失敗原因」,『西南師大學報』1期。
- 鄒重華(1989b),「蒙古假道於宋以滅金戰略剖析」,『宋史研究論文集』。
- 祝啟源(1988),「宋代西北地區吐蕃與西夏關係略述」,『甘肅民族研究』3·4。
- 漆俠(1991),「宋太宗雍熙北伐-宋遼戰爭研究(之一)」,『河北大學學報』3期。
- 漆俠(1992a),「遼國的戰略進攻與澶淵之盟的建立-宋遼戰爭研究(之三)」,『河北大學學報』3期。
- 漆俠(1992b),「宋太宗雍熙北伐-宋遼戰爭研究(之二)」,『河北大學學報』2期。
- 沈旭(2008),「論唐代前期對西域的政治軍事經略」,『新疆職業大學學報』6期。
- 湯開建·羅矛昆(1985),「西夏史料概述」,『寧夏社科通訊』6。
- 湯開建(1982),「張澍『西夏姓氏錄』訂誤」,『蘭州大學學報』4。
- 湯開建(1984),「李繼遷領導的反宋戰爭是一場反對民族壓迫的正義鬥爭嗎?」,『西北民族文叢』2。
- 湯開建(1985a),「關於元昊領導的反宋戰爭性質的探討-宋夏戰爭研究(之三)」,『青海民族學院

學報』2期。

湯開建(1985b),「試論元昊對宋作戰屢勝的原因-宋夏戰爭研究(之二)」,『西北民族學院學報』1期。

湯開建(1987),「李繼遷領導的反宋戰爭是一場反對民族壓迫的正義戰爭嗎?-宋夏戰爭研究(之一)」,『宋史研究論文集』。

湯開建(1986),「關於西夏拓跋氏族源的幾個問題」,『中國史研究』4。

湯開建(1990a),「北宋與西北各民族的馬貿易」,『中亞學刊』3輯。

湯開建(1990b),「五代宋金時期甘肅藏族部落的分布」,『中國藏學』34期。

湯開建(1993),「五代遼宋時期黨項部落的分布」,『西北民族研究』1期。

湯開建(1996),「黨項源流新證」,『寧夏社會科學』1。

湯開建 等(1983),「對五代宋初河西若幹民族問題的探討」,『敦煌學輯刊』,創刊號。

湯永成(2006),「隋唐時期的民族關係、對外關係和文化」,『新高考(政治歷史地理)』10期。

湯蓉嵐(1996),「論錢氏吳越國的立國基礎和內外關係」,『臺州學院學報』5期。

湯梓順(1998),「論開禧北伐」,『營口師專學報』,3·4期。

湯天生(2009),「簡論『金源紀事詩』中宋金文化交融現象」,『華章』11期。

佟建榮(2006),「宋夏緣邊叛服蕃部考」,『固原師範學報』2期。

佟建榮(2007),「北宋西北地域蕃官官號考」,『青海民族研究』2期。

佟建榮(2008),「北宋西北蕃官略論」,『西北二民族學院學報』4期。

佟寶山(2005),「論契丹人在蒙元時代的影響」,『青海民族研究』3期。

巴雅爾(1981),「金國的民族關係和成吉思汗的對金戰略」,『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社版)』。

彭武一(1991),「五代馬楚驛政策剖析」,『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彭無情(2008),「民族演變及其特征與功能分析-以魏晉南北朝隋唐時期的新疆為例」,『科教文彙(上旬刊)』3期。

彭鳳萍(2001),「北宋與遼朝的關係」,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彭鳳萍(2006),「五代時期契丹遼朝與吳越、南唐的交聘研究」,河北大學 博士學位論文。

彭鳳萍(2007a),「契丹與吳越交聘關係探微」,『歷史教學(高校版)』3期。

彭鳳萍(2007b),「契丹遼朝對南唐交結和利用探析」,『北方文物』3期。

彭鳳萍(2007c),「五代時期契丹朝的中原政策述論」,『赤峰學院學報』1期。

彭鳳萍(2007d),「契丹遼朝與南唐交聘中的關鍵節點」,『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1期。

彭艷芬·王路明(2007),「契丹吳越交聘關係探微」,『歷史教學』3期。

彭清深(2001),「宋元西北漢族族群之歷史觀照」,『西北二民族學院學報』1期。

彭興旺(2006),「遼、夏、金的建立與宋遼、宋夏、宋金的和戰」,『歷史學習』1期。

馮繼欽(1985),「西夏與蒙古高原諸部的關係」,『寧夏社會科學』4。

- 馮金忠(2006),「幽州鎮與唐代後期政治探析」,『中國邊疆史地研究』3期。
- 馮金平(1975),「一場主戰與投降的尖銳論戰—讀陳亮『上孝宗皇帝一書』」,『湖北日報』,3月9日。
- 馮德文(1991),「北宋與西夏的間諜戰」,『歷史大觀園』1期。
- 馮修青(1992),「蒙元帝國在高麗的流放地」,『內蒙古社會科學』2期。
- 馮智(1994),「唐初的突厥問題與全國的民族關係」,『青海社會科學』1期。
- 賀達 等(1991),「富弼與慶曆增幣簡論」,『河北師院學報』3期。
- 何瑞雲(1983),「唐太宗的和親政策淺析」,『西藏研究』2期。
- 何星亮(1994),「關於中國民族學研究的方向與方法問題」,『思想戰線』6期。
- 何耀華(1999),「西北吐蕃諸部與五代,宋朝的歷史關係」,『雲南社會科學』6期。
- 夏宇旭(2009),「淺析宋朝對金治下契丹人的招誘」,『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 河原由郎(1993),「北宋時期河北路鹽政之考察」,『鹽業史研究』1期。
- 何燦浩(2000),「唐末五代湖南地區的蠻族活動及其它」,『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3期。
- 何忠禮(1998),「試論南宋孝宗初年與金人的和戰:兼論對張浚和史浩的評價」,『浙江學刊』6期。
- 夏澤(1990),「甘州回鶻與中原諸朝的關係」,『河西學院學報』1期。
- 何平立(1996),「略論南宋時期四川抗蒙山城防禦體系」,『軍事歷史研究』1期。
- 郝樹侯(1960),「太原的抗金戰爭」,『山西地方史研究』。
- 郝時遠(1987),「蒙古東征高麗概述」,『蒙古史研究』2期。
- 郝紅暖(2009),「遼、西夏,金都城建設對中原制度的模仿與創新—兼論唐、宋都城制度對少數民族都城之影響途徑」,『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期。
- 韓敏霞(2007),「唐宋時期西南少數民族刑法的發展(上)」,『太平洋學報』2期。
- 韓生存(2005),「西京大同和遼宋邊境貿易」,『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5期。
- 韓蔭晟(2000),「前言」,『黨項與西夏資料彙編』,寧夏人民出版社。
- 韓丁(1990),「宋末潮州人民抗元鬥爭」,『汕頭大學學報』4期。
- 許國(1985),「宋金關係淺析」,『湘潭師專學報』2期。
- 許敏(2007),「唐朝貞觀時期的民族融合與民族和諧」,『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5期。
- 許成·吳峰雲(1984),「西安州古城址與天都山石窟」,『固原師專學報』1期。
- 許玉材(1985),「丹東地區發現金末耶律留哥大遼政權銅印」,『文物』5期。
- 許憲範(1989),「淺談唐代羈縻州府與渤海政權的性質」,『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1期。
- 惠富平(2007),「唐代西北邊疆經略與農牧業開發」,『地域研究與開發』6期。
- 胡建華(1988),「北宋前期“以夷制夷”政策初探」,『中州學刊』1期。
- 胡其德(1990),「十二、三世紀蒙古族的宗教信仰」,『臺灣師大歷史學報』18期。
- 胡多佳(1992),「早期蒙宋關係」,『元史論叢四輯』。

- 蘆敏(2007),「遼、宋、金時期遷入高麗的中國移民」,『華僑華人歷史研究』4期。
- 胡保峰(2003),「略論金都南遷後金朝形成與宋金關係」,『漯河職業技術學院學報』4期。
- 胡小偉(2003),「“天書降神”新議—北宋與契丹的文化競爭」,『西北民族研究』1期。
- 胡昭曦(1981),「反映南宋末年四川軍民抗元鬥爭的幾件歷史文物」,『四川大學學報』4期。
- 胡昭曦(1992),「論宋蒙關係」,『紀念李珣教授從事學術活動五十周年史學論文集』。
- 胡若飛(1994),「西夏軍律重典‘貞觀將玉鏡’考」,『寧夏社會科學』6。
- 胡若飛(1995),「貞觀將玉鏡正文譯考」,『寧夏大學學報』3。
- 胡宴(1992),「釣魚城之戰淺析」,『江蘇教育學院學報』4期。
- 胡玉冰(1999),『西夏志略』考略,『寧夏社會科學』1。
- 胡傳志(2007),「宋遼金文學關係論」,『文學評論』4期。
- 洪燭(2004),「契丹的興衰」,『牡丹』2期。
- 華山(1955),「南宋初年的宋金陝西之戰」,『歷史教學』,6月。
- 華山(1957),「南宋和金朝中葉的政情和開禧北伐之役」,『史學月刊』5期。
- 華山(1982a),「南宋初年的宋金陝西之戰」,『宋史論集』。
- 華山(1982b),「從采石之戰到隆興北伐和議」,『宋史論集』。
- 黃慶雲(1957),「關於北宋與西夏和約中銀絹茶的數量問題」,『中學歷史教學』9期。
- 黃啓昌(1992),「宋朝對湖南少數民族地區的統治」,『民族論壇』2期。
- 黃寬重(1973),「辯“端平入洛敗盟”」,『史釋』10期。
- 黃寬重(1993a),「山城防禦:以南宋、高麗抗禦蒙古的經驗為例」,『中國史研究』1期。
- 黃寬重(1993b),「評價胡昭曦主編,『宋蒙(元)關係史』」,『新史學』2期。
- 黃君萍(1985),「漫評司馬光的民族思想」,『晉陽學刊』6期。
- 黃大年(1999),「略論唐代渤海國文化在東北亞雙嚮交流中的歷史地位」,『遼寧師專學報』3期。
- 黃萬綸(1986),「唐宋時期西藏同內地經濟文化聯係的考察」,『中央民族學院學報』3期。
- 黃鳳岐(1984),「遼朝在歷史上的作用」,『朝陽師專學報』3期。
- 黃鳳岐(1985a),「遼宋交聘與遼代東北地區經濟文化的發展」,『東北地方史研究』1期。
- 黃鳳岐(1985b),「遼宋交聘及其有關制度」,『社會科學輯刊』2期。
- 黃鳳岐(1986),「統和南伐與澶淵之盟」,『朝陽師專學報』1期。
- 黃鳳岐(1987a),「遼宋的頻繁交往與遼代的農業生產」,『北方文物』3期。
- 黃鳳岐(1987b),「遼太宗的繼續南進和中原人民的英勇反抗」,『沈陽師專學報』2期。
- 黃山松(1996),「南宋的和戰之論與規模說」,『浙江學刊』4期。
- 黃盛璋·汪前進(1992),「最早一幅西夏地圖:『西夏地形圖』新探」,『自然科學史』2。
- 黃正林·響軍(1999),「論唐代以前活動在隴東的少數民族及其與中原王朝關係」,『西北史地』2期。

- 黃正林(1998),「南宋初年主戰派經營陝西述論」,『西北史地』4期。
- 黃振華(1983),「『文海』反切系統的初步研究」,『文海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黃振華(1984),「西夏天盛22年賣地文契考釋」,『西夏史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
- 黃振華(1989),「明代漢藏合璧『聖勝慧到彼岸功德寶集』西夏譯經題記研究」,『藏學研究文選』,西藏人民出版社。
- 黃振華(1992),「西夏文孫子兵法三家注管窺」,『西夏文史論叢』,寧夏人民出版社。
- 黃振華(2000),「漢字的傳播及其借用模式」,『漢字的應用與傳播』,華語教學出版社。
- 黃清連(1977),「評價陶晉生教授著『二十世紀華北女真漢化研究』」,『中華文化復興月刊』7期。
- 侯萬明(1996),「西夏的興衰與送的關係」,『歷史教學月刊』7期。
- 侯明宗(1988),「略論華嶽的北伐思想」,『高等函授學報』3期。
- 侯紹莊·鍾莉(2004),「也談南宋初年的宋金“和”“戰”」,『貴州文史叢刊』3期。
- 侯昭莊(1996),「兩宋蕃州軍民在抗擊蒙(元)鬥爭中的貢獻」,『貴州師大學報』4期。

다. 일본어

- 岡本雅享(2008),『中國の少数民族教育と言語政策』,社會評論社。
- 江上波夫(1999),『匈奴の社會と文化』,山川出版社。
- 穀口房男(1961),「掌中珠の夏漢對音研究方法」,『中國語學』109。
- 穀口房男(1962),「文海韻の韻組織と西夏語音論」,『言語研究』41。
- 穀口房男(1963),「西夏の國書字典『音同』の同居韻」,『言語研究』43。
- 穀口房男(1965),「文海韻の音韻組織」,『東方學』30。
- 穀口房男,飯塚勝重 編(2004),『中國少数民族地區散步』,總和社。
- 國分良成 編(2004),『中國政治と東アジア』,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尾崎彥朔(1995),『民族問題の歴史的位相:インターナショナリズムの敗北,されど』,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 西田龍雄(1964, 1966),『西夏語研究:西夏語の構擬と西夏文字の解讀①・②』,東京:座右寶刊行會。
- 西田龍雄(1981~1983)「西夏語韻圖の『五聲切韻』について研究」,『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20・21・22。
- 小川裕人(1938),「遼室君主權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東洋史研究』第3卷 5號。
- 安達史人(1998),『漢民族とはだれか:古代中國と日本列島をめぐる民族・社會學的視點』,右文書院。
- 奧村周司(1979),「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 奥村周司(1982),「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歴史學研究』別冊特集.
- 奥村周司(1984),「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史觀』110.
- 奥村周司(1987),「高麗の園丘祀禮について」,『早稻田實業學校研究紀要』21號.
- 外山軍治(1964),『金朝史研究』,同朋舍.
- 越智重明(1990),『華夷思想と天下』,淡江大學 淡江時報社.
- 佐佐木銀彌(1976),「東アジア貿易圏の形成と國際認識」,『岩波講座日本歴史』7.
- 増穀英樹・伊藤定良 共編(1998),『越境する文化と國民統合』,東京大學出版會.
- 天野哲也・臼杵勲・菊池俊彦 編(2006),『北方世界の交流と變容:中世の北東アジアと日本列島』,山川出版社.
- 鐵木爾 主編(2003),『民族政策研究文叢』2輯,民族出版社.
- 横山宏章(2009),『中國の異民族支配』,集英社.

찾아보기

| ㄱ |

가사도(賈似道) 276~281, 291
가정화의 243
각장(椎場)무역 242, 249
갈특가한 38
개혁개방 정책 213
거란 24, 50, 57~64, 67~72, 75~79,
82, 84~98, 110, 113, 115~117,
121, 136, 137, 142, 147
거란인 62, 64
거란족 71, 74, 83, 91, 96, 110, 112,
121, 122, 136, 138, 143, 147, 226
견마무역(絹馬貿易) 35
계급투쟁 230, 231, 240
고구려 69, 86
고량하 전투 107, 115, 150
고려 62, 64, 86, 88, 104, 105, 136
곽자의(郭子儀) 32
교방관계 89, 90, 92, 93, 130
교방제도 128, 129, 130, 131
9성호(九姓胡) 37
국신사 128, 129, 130
금성공주 46
기미(羈縻) 35
기미부주 144, 145, 146
공황청 172, 175, 177

| ㄴ |

나카지마 모토키 167
남당 57, 90~92, 94
남북조설 134, 136, 138
남조(南詔) 24

납폐 238
네프스키 174, 177
노예제 231, 235
니시다 다쓰오 171, 175~177
니에홍인 166, 177, 181, 183, 186,
190~192

| ㄷ |

다원적 중화제국론 31
다원주의적 민족관 138
다치바나 츠이쵸 163
단평입락(端平入洛) 260, 262, 264, 265~
267, 290
달라 245
당번회맹비(唐蕃會盟碑) 47
당항 158, 165, 193~203
『당항여서하자료회편』 188
당항족 79
대리 57
대만 70
대송사 58
대식(大食) 28, 136
대일통 145, 150, 226, 246
대한족주의 214
당광명[鄧光緒] 257
돌궐 39
동단국 71
동돌궐 21
동북공정 25, 69, 95, 151
동북 민족지구 146
동북아 지구 104, 106
동송신(董宋臣) 276
동아시아 70, 102
『동음』 177
둔황문서 39
둔황학 155

뚜지엔루 205, 208, 209

| ■ |

레닌 213, 231

루어마오쿤 181, 191, 200, 207

루어푸창 161, 165, 170, 203

루어푸청 164, 165, 170, 203

뤄양[洛陽] 265

리다룽[李大龍] 31

리관원 167, 173, 175, 177, 181, 190,
202, 205

리화웨이 205, 206, 208

린관쥔[林冠群] 40

| □ |

마르크스 213, 216, 222, 230, 244,
247, 252

마오쩌둥 112, 244

만리장성 68

만주족 63, 74

말갈(靺鞨) 24

맹공(孟珙) 264

명원통[蒙文通] 257

모리스 164

몽골 62, 64, 72, 73, 83, 92, 225,
226, 244

몽골군 64

몽골부카[蒙古不花] 259, 261

몽골족 63, 74, 91

무칼리 259, 260, 261

문성공주 46

문천상(文天祥) 282, 283, 286~289

『문해』 167, 171, 175, 177, 178

문화대혁명 213

몽케 270, 272, 274, 276, 277, 282,

287, 291

몽케 칸 275

민족융합 70, 72, 74, 75, 80~83, 86,
91, 109, 111, 112, 136, 139, 140,
152, 226, 227

민족투쟁 230, 246, 247

| ■ |

바얀 262, 282~284

바이뎨 166, 181, 190~192

발해 59, 60, 70, 71, 74, 99, 136, 148

백제 86

번속체제 31

번진(藩鎮) 22

『번한합시장증주』 165, 169, 172, 174,
177, 179

변강민족지구 145

변강지구 140

변법 126, 127

보시아 163

봉건정권 236

봉선의례(封禪儀禮) 21

북방민족정권 106

북방지구 150

북한 57, 78, 79, 110, 115

| 人 |

사송지(史崇之) 265

사절 131~133

사타 23

사타족 57, 84

사태후(史太后) 282, 287

삭방군(朔方軍) 32

샤머니즘 263

서아시아 87

서하 57, 61, 73, 74, 82, 104, 106,
114, 115, 136, 148, 149
『서하기사본말(西夏紀事本末)』 160
『서하사고』 191, 205
『서하서사』 160
서하연구총서 167
서하학 156, 162, 163, 166~168
서하학연구중심 167
석경당 52, 57, 66, 69, 76, 78, 98
설연타 21
세가 대죽 133
세폐(歲幣) 31, 69, 108, 111, 127, 140,
216, 229, 242, 277~279
소그드 36
소발률(小勃律) 28
소프로노프 175, 176, 181
소흥화의 99, 102, 103, 104, 224, 233,
235, 238~243
손철킴포 40
손황제 67
송사 134, 216
숙위제도 51
스진포어 166, 167, 171, 177, 181, 183,
185, 186, 188, 191, 192, 194
스타인 163, 188
신라 136
신룡회맹(新龍會盟) 48
신묘지변(辛卯之變) 260~262
신책군 38
실크로드 30
쌍방향 조약 103
쑨훙카이 176

| ○ |

아구타 229
아릭 부케 272, 282

『아장혹수성문헌』 168, 187, 191
아황제 67
악비 99, 221, 231, 235, 236, 238,
244~246
악주 270, 276, 279~282, 291
안사(安史)의 난 21
안서 4진(安西四鎮) 28
애국주의 281, 293
애조국 244
야율경 93, 94
야율덕광(耶律德光) 52, 59, 60, 61, 69,
76, 93~95, 110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25, 60, 62, 68,
72, 76, 83, 86, 87, 93~95, 110, 135
양마지구 107
양양(襄陽) 275, 282, 286
양즈지어우 193
양쯔 강 86
여문덕(呂文德) 276
여진족 74, 75, 217, 220, 221~223,
226, 232, 238, 240, 241, 246, 251,
252
연남지구 118
연운 16주 52, 65, 67~69, 75, 93, 94,
107, 113, 114, 118, 142, 149, 150,
152, 224
연운 일대 229
연운지구 107~109, 116, 117
연주 16주 66
연환성(連環性) 26
오대 255
오대십국 58, 61, 72, 99, 142
오월 57, 84~86, 89, 91~93
울술 235, 245
옹희 북벌 107, 112, 114
왕견(王堅) 271~275
왕샤오푸[王小甫] 29
왕안석 126, 127

왕젠[汪錢] 29
 왕징루 165, 181, 202
 왕티엔순 191, 192, 206
 외족 101, 109
 요 59, 60~62, 64~66, 72~75, 82, 86, 91, 92, 99, 104~111, 114~118, 124, 132, 135, 136, 140, 143, 147, 148
 우구데이 259, 270, 272, 275, 282, 290
 우광청 160
 우량카다이 270
 우티엔치 158, 191, 194~196, 201, 202, 205
 원교근궁 59, 94
 위구르 루트 36
 위구르족 62, 63
 유교 71, 105
 유연지구 117
 유예 231, 234, 235
 육수부(陸秀夫) 282, 283, 287
 음흥화의 241, 243, 250
 『음동』 165, 167, 178
 이극용(李克用) 25
 이란 87
 이바노프 165, 169, 170, 174
 이원호 158, 169, 184, 194, 195~199, 203
 이전(李全) 261
 이정지(李庭芝) 283, 287
 이종(理宗) 264, 265
 인민 81, 110, 231, 235, 240, 241, 249
 일본 87, 104, 105, 136

| ㄹ |

장경회맹(長慶會盟) 48
 장세걸(張世傑) 282, 283, 287

장인린[張麟麟] 257, 266
 장쭈 160, 169
 장지엔 160
 전연맹약 102~105, 107, 109~111, 119~122, 124~126, 129, 137, 138, 149, 150
 전연지맹 53, 66, 76, 99, 239
 『정관옥경』 180
 정령(丁零) 39
 정복왕조 25
 정청지(鄭淸之) 265
 정혜지변 260~262
 조선인 62, 63
 조어성(釣魚城) 270~275, 286, 287, 291
 주사무역 249
 주체(朱泚)의 난 23
 중수량주호국사감응답비 161, 169
 중원왕조 57, 60, 77, 80, 85, 88, 95, 96, 104, 110, 111
 중화문명탐원공정 110
 중화민족 87, 105, 110, 122, 140, 213, 214, 217~220, 222, 226, 227, 240, 242, 244~247, 252, 283
 중화민족다원일체론 213, 214, 252
 중화민족일체론 218, 225, 231, 235, 238, 246~248, 252, 253, 293, 294
 중화인민공화국 213, 216
 중화주의 63
 지방협애주의 214
 지송덕찬(曄松德贊) 41
 진회 99, 223, 234, 238, 240, 244~246
 질황제 67

| ㄸ |

차마무역(茶馬貿易) 37

채주 264, 266~268
 책봉 77, 102
 책봉·질서 21
 천뽕잉 181~183, 185, 186, 189, 191,
 196, 208
 『찬성개구신정율령』 179
 천인첸[陳寅恪] 26
 철륵(鐵勒) 39
 청수화맹(清水會盟) 48
 첸러쑤[陳樂素] 257
 충의군(忠義軍) 261
 칭기즈칸 62, 259, 262, 263
 칭신 77, 238, 241

| ㄱ |

카이펑[開封] 265
 카자흐족 62, 63
 케펑 171, 176
 코즐로프 162, 163, 173
 쿠릴타이 262
 쿠빌라이 262, 270~272, 275~282,
 291
 키르기스[黠戛斯] 27

| ㄴ |

당자이홍[唐嘉弘] 193
 탈근대주의 248, 252
 탕구트족 226
 당자이홍 194, 195, 200
 당카이젠 189, 191, 194~196, 198~
 200, 206, 208
 토번(吐蕃) 22, 114
 토욕혼(土谷渾) 48
 토화라(吐火羅) 30
 툴루이 261

통일적 다민족국가 285, 286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57, 63, 81, 83,
 98, 152, 158, 159, 283, 285~289,
 292, 293
 투루판문서 45

| ㄷ |

팽의빈(彭義斌) 261
 페르시아 136

| ㄹ |

하남귀지설(河南歸地說) 266, 267
 하남할지설 268, 269, 290
 하시모토 만타로 174
 하호 64
 학경(郝經) 277~280
 한국 83
 한루린[韓儒林] 257, 259, 263
 한반도 85, 86
 한세충 231, 235, 236
 한족 60, 62, 64, 69~75, 82, 83, 89,
 95, 98, 101, 110, 112, 121, 122,
 132, 135, 136, 141, 142, 147, 151,
 153, 213, 214, 216, 218~222, 226~
 231, 240, 244, 246~248, 252
 한화 59, 74, 75, 98, 135, 139, 226,
 246, 250
 한화정책 143
 할지 142, 238
 해 60, 62, 74, 95~97
 해상맹약 224
 호레즘 왕국 258
 호시(互市)무역 95, 96
 화의 122, 124, 142, 149, 216, 218,
 223, 224, 226, 228, 232~236, 238~
 240, 242~245

화이 252

화이론 153, 213, 219, 233, 238, 242,
244, 245

화전 106, 108, 221, 225, 228, 232,
233

화전사 245

화친 33

화친정책(和親政策) 33

황전화 166, 173, 175, 181, 186, 189

황허 117

회골 136

회맹(會盟) 40

회홀(回紇) 22, 88

후고구려 85, 86

후백제 85, 86

홀레구 273

흥노 92

흥노족 91

흑수성 162, 163, 187, 191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5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초판1쇄인쇄 2010년 12월 10일

초판1쇄발행 2010년 12월 15일

지은이 김상범, 조복현, 박지훈, 유원준, 육정임, 이근명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202-7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